

연구보고 19-R08

#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책임연구원 배상률  
공동연구원 이정민



---

연구보고 19-R08

---

#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책임연구원\_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이정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 허효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 국문초록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핵심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남북 청소년 간 교류협력은 서로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 공유된 체험을 바탕으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인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상호이해 증진과 통일 공감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실천방안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한 실증조사로, ① 전국 초·중·고 연령의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②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경험이 있는 경기도 A고 소속 청소년들 대상 사례조사, ③ 남북관계 및 남북청소년 교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북한, 통일, 그리고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및 이들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었고,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태도를 보일수록, 그리고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았다. 반대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태도를 보일수록,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북한 간의 이질성을 크게 느낄수록 북한에 대한 이미지나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9년에 개최된 교류활동참여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해당 북한이탈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들과 교류경험이 있는 A고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성을 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경험이 북한, 통일, 남북한 청소년 교류 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현격히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 A고 학생들은 과중한 학업부담을 지우는 교육풍토, 주변강대국의 비협조, 북한 정부의 태도 등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고착상태의 결과를 초래했음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증장기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남북관계, 청소년교류활동 분야의 각계 전문가 총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의 여건조성 마련을 위한 세부 정책들의 최종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남북 정상/정부 간 원활한 소통'이 다른 세부 정책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남북 경제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2, 3, 4위를 차지하였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주요 분야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체육·스포츠 교류와 문화·예술 교류에 인

적·물적 투자와 지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방안으로 SNS 등 ICT를 통한 일상 소통과 교류와 교환학생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제반사항에 대한 IPA 분석 결과, ‘교류 활성화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내실화’의 경우 중요도는 높으나 현재 이행의 달성도/실행정도가 다소 낮은 항목으로 도출되어, 이 두 가지 제반사항의 해결이 남북 청소년 교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에 관한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북한/통일에 대한 인식 수준별 맞춤형 접근을 필수로 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치 색채를 배제한 사회·문화 교류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청소년 니즈를 확인한 후 이들의 니즈에 대한 수용적 접근이 시급하다. 연구진은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기초로 하여 시스템구축 단계, 준비단계, 이행단계, 심화단계, 정착단계로 구성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5단계별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1단계는 시스템구축단계로 법과 제도의 정비, 추진체계 구축, 교류지원기금 마련과 집행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단계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지속화를 위한 준비단계로 대내적인 영역과 대외적인 영역을 함께 다루는 두 트랙(two tracks) 접근이 필요하다. 3단계인 이행단계에서는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비정치적이고 교류활동의 이행이 용이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단계는 심화단계로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영역의 확대는 물론, 운영 주체도 청소년들이 한 축이 되어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영역으로의 교류확대란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이버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정착단계로 사실상의 남북한 통일 수준에서의 교류활동이

다. 일반인의 자유왕래가 이루어지고, 북한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직업교육과 취·창업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북한 내 우수인력의 활용을 통한 개인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한 청소년들 간 상호이해 증진과 통일 공감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실천방안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언하는데 있음.
-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남북 간 상호이해 증진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남북 청소년 간 교류협력은 단발성·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접근방식과 구체적 로드맵을 기반으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음.

### 2. 연구방법

-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논문 및 정책보고서 등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음. 또한 통일부와 교육부의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음.
- 남북한 교류협력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는 중국과 대만의 청소년교류협력에 대한 사례를 파악하였음.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총 3,228명을 대상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북한/통일, 청소년 교류에 대한 설문문항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배경 및 심리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심층 분석이 가능토록 하였음. 설문조사 결과의 심층분석을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PA) 기법을 활용하였음.

-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경기도 소재 A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9년에 개최된 교류활동 참여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음.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음.
- 학계, 부처 공무원, 남북교류 분야 현장전문가 등 총 69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음. 계층적분석방법(AHP)을 활용하여 청소년 교류협력 세부정책의 항목별 중요도 및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음. 또한,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기법을 활용하여 교류 유형별 중요도와 이행의 용이성/가능성 수준,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의 중요도와 현재 이행 수준의 달성도 및 성취도를 매트릭스 분석기법으로 파악하였음.

### 3. 주요결과

####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상당수 선행 연구들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실질적으로는 국제 정세 변화와 국내 정치 환경 변화, 그리고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진행되어왔음을 지적하고 있음.
- 대부분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정부의 제재 속에서 승인이 되기도 혹은 거절이 되기도 하면서 지속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발성,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음. 북한은 소극적인 교류 자세로 ‘제한된 접촉’이나 ‘선호하는 교류’를 택함으로써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거나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태도를 취해왔음.

-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민족 동질성 확립을 위한 상호간 노력이 요구되며, 상호 보완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미래 통일 조국의 주체적 구성원을 키워내는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함.
-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중국의 ‘해협회(海協會)’와 타이완의 ‘해기회(海基會)’의 성격을 가지는 반관반민의 교류협력기구를 상호 설치 운영하여 정부 기구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부터 탈피하고 명분 싸움에 의한 교류협력의 파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분석

-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당수 청소년들은 북한을 우리와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가 경계해야할 대상이라는 이중적 인식을 갖고 있음.
- 통일에 대한 이미지는 평화와 화합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많았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일 후 사회갈등이나 혼란 등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통일에 대한 장애요소로 남북한 간의 정치체제 차이를 꼽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통일 교육에 대한 경험은 증가하지만, 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음.
-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관심도, 신뢰도 등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으나, 미국청소년, 국내 다문화 청소년이나 북한 이탈 청소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은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선호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체육·스포츠, 문화·예술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심층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남한과 북한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인식할수록 동일이나 남북한 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따라서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식/태도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이질감을 최소화함으로써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함.

### 3) 경기도 A고등학교 사례 분석

- 북한청소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서 A고등학교 소속 청소년들과 상술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그룹 간의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음. 일반 고등학생 그룹의 북한청소년 이미지 1순위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인 불쌍하다,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난하다, 신체가 왜소하다, 폐쇄적이다 순인 반면, A고 청소년들의 1순위 응답 내용에 따르면, 적극적/활동적이다, 순수하다,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어른스럽다 등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언어, 사고방식 등 주요 영역별 다름/차이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에 있어서도 A고 청소년들과 일반 고등학생 그룹간의 차이가 두드러졌음. 사고방식/가치관 영역에 있어 일반 고등학생 그룹은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들 사이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반면, A고 청소년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A고 학생들의 북한, 통일, 북한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적 인식과 태도는 A고에서 실시한 북한 이탈 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북한 이탈 청소년과의 교류 활동 참여 전과

후에 A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FG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류활동 참여 전에는 일반 고등학생과 유사한 인식수준과 태도를 보였으나 하루 동안 이루어진 북한 이탈 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기점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A고 소속 청소년들은 교류의 대상인 북한이탈청소년의 구조적인 환경과 입시 위주의 과열된 교육풍토라는 자신을 둘러싼 구조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이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호소를 하였음.
- 북한이탈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 A고 학생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과중한 학업부담을 지우는 교육풍토, 주변강대국의 비협조, 북한 정부의 태도 등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고착상태의 결과를 초래했음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권의 대북정책에 맞추어 바뀌는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음. 정치적 색채가 깔린 교과서 및 강의 위주의 교육보다 자신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방식의 청소년 교류활동을 선호하였음. 남북청소년들 간 교류가 실제 이루어졌을 때 서로 동질감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FGI 참여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특별한 사전지식이 요구되지 않고 가치관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은 스포츠활동을 꼽았음.

#### 4)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분석

-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의 여건조성을 평가기준별로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남북한 관계개선'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 '남한 사회와 남한 정부 차원의 노력', '국제 사회의 협조 및 지원' 순으로 조사되었음.
-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의 여건조성 마련을 위한 세부 정책들의 최종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남북 정상/정부 간 원활한 소통’이 다른 세부 정책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남북 경제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2, 3, 4위를 차지하였음.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와 남북관계정책에 있어 정부의 능동적 주체자로서 역할도 나머지 세부 정책들에 비해 상위권을 차지하였음.

-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주요 분야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중요도도 높고 이행의 용이성/가능성도 높은 분야는 체육/스포츠 교류와 문화·예술 교류로 조사되었음. ‘SNS 등 ICT를 활용한 일상교류’ 및 ‘남북한 교환학생/유학생 제도’는 중요도가 높으나 이행의 용이성/가능성이 낮은 항목으로 도출되었음.
-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제반사항에 대한 IPA 분석 결과, ‘교류 활성화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내실화’의 경우 중요도는 높으나 현재 이행의 달성도/실행정도가 다소 낮은 항목으로 조사되었음. 전문가들은 ‘대국민 북한/통일 인식 개선 노력’이 남북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평가하였음.

#### 4. 정책제언

-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 첫 번째, 북한/통일에 대한 인식 수준별 맞춤형 접근, 두 번째, 정치색채를 배제한 사회·문화 교류 중심적 접근, 세 번째, 교류협력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접근, 마지막으로 청소년 니즈에 대한 수용적 접근.
- 획일적인 통일교육이나 단발성·이벤트성 남북한 교류활동은 지양할 필요 있음.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정책구현은 청소년들의 북한/통일 등에 대한 인식 수준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한 청소년 교류 협력이 냉·온탕을 오가며 단발성, 이벤트성에 그쳤음. 청소년 교류활동은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교류, 학술교류, 관광지/유적지 상호방문 등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벗어난 분야의 남북교류의 정례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 남한과 북한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함. 남과 북 서로가 지향하는 교류의 형태, 영역, 방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룸으로써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교류 협력이 중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음.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 간의 협정서를 체결하여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 니즈 중심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 있음.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남북한 교류활동에 참가할 때 남북한 교류의 효과성이 배가될 수 있기에 남북한 청소년 교류정책에 있어 교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하여 시스템구축 단계, 준비단계, 이행단계, 심화단계, 정착단계로 구성된 5단계별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1단계는 시스템구축단계로 법과 제도의 정비, 추진체계 구축, 교류지원기금 마련과 집행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 있음. 정부 혹은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둘 사이의 교류목적이 상보적으로 채워지도록 함. 이와 함께,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위한 법제의 정비와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위한 예산안 편성 및 지원금의 확대 편성이 필요함.
- 2단계인 준비단계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지속화를 위한 준비 단계로 대내적인 영역과 대외적인 영역을 함께 다루는 투 트랙(two tracks) 접근이 필요함. 대내적으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과 함께 청소년들을 교류 정책과 활동의 중심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청소년

교류활동가 육성을 도모할 필요 있음. 대외적으로는 남북한 정부와 정상 간의 잦은 만남을 통해 신뢰구축을 공고히 하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형태와 방법, 영역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양측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 국제연합(UN)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 사업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 3단계인 이행단계에서는 남북교류이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함. 교류활동의 횟수와 교류활동 참여인원 등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교류활동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북 교류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를 공고히 갖춰나가야 함. 비정치적이고 교류활동의 이행이 용이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남북 간 교류활동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할 필요 있음.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다수 배출되는 시점에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기구를 상호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교류활동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 4단계는 심화단계로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영역의 확대는 물론, 운영 주체도 청소년들이 한 축이 되어 역할을 해나갈 필요 있음. 심화단계에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있어 우리 사회와 청소년의 일상에 미칠 파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엘리트 중심의 교류를 탈피한 일반 청소년들 간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5단계는 정착단계로 사실상의 남북한 통일 수준에서의 교류활동이 이루어지게 됨. 1국가 2체제를 전제로 상호 비자발급 등을 통한 일반인의 자유왕래가 이루어지고, 북한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직업교육과 취·창업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북한 내 우수인력의 활용을 통한 개인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연구보고 19-R08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 2. 연구진행절차 및 연구내용 ..... 6
- 3. 연구방법 ..... 10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남북한 교류협력 ..... 15
-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 23
- 3. 중국과 타이완의 청소년 교류협력 ..... 37
- 4.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관한 고찰 ..... 67

## III. 남북교류에 대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분석

- 1. 조사개요 ..... 71
- 2. 기술통계 분석 ..... 73
- 3. 심층 분석 ..... 96
-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36

#### IV. 경기도 A고등학교 사례 분석

1. 조사개요 ..... 143
2. A고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 그룹 간 비교분석 ..... 144
3. A고 청소년의 교류활동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비교 ..... 163
4.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 173

#### V.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분석

1. 조사개요 ..... 187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의 여건조성 ..... 189
3.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 방식 및 주체 ..... 195
4. 기타 의견 조사 ..... 201

#### VI. 정책제언

1.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 절차 · 207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정책 방향 ..... 215
3.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단계별 정책 과제 ..... 217

#### 참고문헌 ..... 227

#### 부 록 ..... 239

1. 청소년 의식수준 조사 ..... 242
2.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설문지  
(초등학생용) ..... 307
3.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설문지  
(중·고등학생용, A고 1차) ..... 323
4.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설문지  
(A고 2차) ..... 339
5.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설문지  
(전문가용) ..... 351
6.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남북청소년 교류 및 통일의 필요성 · 362

#### ABSTRACT ..... 363

## 표 목차

표 I-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통일부 실천과제 .....	4
표 I-2 설문조사 개요 .....	11
표 I-3 A고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개요 .....	12
표 II-1 2017년도 남북관계발전계획 과제표 .....	17
표 II-2 청소년 중심 남북교류(2000년대) .....	30
표 II-3 양안의 통일정책 비교 .....	40
표 III-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72
표 III-2 북한 관련 태도 .....	76
표 III-3 남북한 통일 시, 통일한국의 국력 예상 .....	84
표 III-4 최근 3년간 통일 교육/북한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여 /참가 경험 및 전반적인 만족도 .....	85
표 III-5 남북한 차이 인식수준 잠재프로파일 분류 기준 .....	98
표 III-6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의 잠재프로파일 별 요인 평균과 표준편차 .....	99
표 III-7 학교급별 잠재프로파일 분포 .....	101
표 III-8 초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북한이미지 .....	103
표 III-9 초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북한에 대한 인식 .....	104
표 III-10 초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통일 이미지 .....	105
표 III-11 초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통일가능시기 .....	106
표 III-12 중·고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북한 이미지 .....	108
표 III-13 중·고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북한에 대한 인식 .....	109
표 III-14 중·고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통일이미지 .....	110
표 III-15 중·고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통일가능시기 .....	111
표 III-16 중고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	113
표 III-17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 .....	114
표 III-18 초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 이미지 .....	115

표 III-19 초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 .....	116
표 III-20 초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 이미지 .....	117
표 III-21 초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남북통일 가능성 .....	118
표 III-22 초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 .....	119
표 III-23 중·고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 이미지 .....	120
표 III-24 중·고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 .....	121
표 III-25 중·고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 이미지 .....	122
표 III-26 중·고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남북통일 가능성 .....	123
표 III-27 중·고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 .....	124
표 III-28 초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 이미지 .....	126
표 III-29 초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 .....	127
표 III-30 초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통일 이미지 .....	128
표 III-31 초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와 남북통일이 가능할 시기 .....	129
표 III-32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와 북한,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 ..	130
표 III-33 중·고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 이미지 .....	131
표 III-34 중·고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 .....	132
표 III-35 중·고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통일 이미지 .....	133
표 III-36 중·고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남북통일이 가능할 시기 .....	134
표 III-37 중·고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 및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 .....	135
표 IV-1 북한에 대한 인식 .....	145
표 IV-2 남북통일 필요성에 대한 동의수준 .....	147
표 IV-3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1순위) .....	151
표 IV-4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1+2순위) .....	151

표 IV-5 남북한 통일 시, 통일한국의 국력 예상	152
표 IV-6 주요 영역별 남북한 청소년의 다름/차이 인식 수준	154
표 IV-7 북한 청소년과 쉽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여부	155
표 IV-8 남북 청소년 교류 주체/방식에 대한 동의 수준	158
표 IV-9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동 선호 유형(1순위)	159
표 IV-10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동 선호 유형(1+2순위)	160
표 IV-11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	161
표 IV-12 남북한 청소년들 간 교류 활동 영역 중 서로 동질감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	162
표 IV-13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북한 정부 신뢰수준/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164
표 IV-14 통일 필요성/통일 가능성/통일 후 국력	165
표 IV-15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친근감/신뢰도	166
표 IV-16 남북한 청소년의 다름/차이 및 북한 청소년과 쉽게 친해질 가능성	167
표 IV-17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행사에서 겪은 어려움	169
표 IV-18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172
표 IV-19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	173
표 V-1 대분류 중요도 분석 결과	189
표 V-2 남북한 관계개선 중요도 분석 결과	190
표 V-3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 중요도 분석 결과	191
표 V-4 남한 사회와 남한 정부 차원의 노력 중요도 분석 결과	192
표 V-5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원 중요도 분석 결과	193
표 V-6 최종 중요도 분석 결과	194
표 V-7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중요도 분석 결과	196
표 V-8 중요도-이행의 용이성/가능성 IPA 분석 결과	198
표 V-9 중요도-현재 이행의 달성도/실행정도 IPA 분석 결과	200
표 V-10 북한정부신뢰도, 통일한국의 국력, 대북정책 및 교류협력정책 만족도	201

##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진행절차 및 연구내용 .....	7
그림 II-1. 초중고 재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 변화(2014-2018) .....	24
(Q. 학생은 평소에 “북한”하면 어떤 이미지(생각)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그림 II-2. 초중고 재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이미지 변화(2015-2018) .....	25
(Q. 학생은 평소에 “통일”하면 어떤 이미지(생각)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그림 II-3. 청소년들의 북한·통일 인식 변화 .....	27
그림 III-1. 북한 이미지 .....	74
그림 III-2. 북한에 대한 인식 .....	75
그림 III-3. 북한에 대한 태도 .....	76
그림 III-4. 통일 이미지 .....	77
그림 III-5. 남북통일 필요성 .....	79
그림 III-6. 통일 필요성 .....	80
그림 III-7.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 .....	81
그림 III-8. 남북통일 가능 시기 .....	82
그림 III-9. 통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	83
그림 III-10. 남북통일 시, 통일 한국의 국력 예상 .....	84
그림 III-11. 최근 3년 간 통일 교육, 북한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여 경험 .....	85
그림 III-12. 향후 통일 교육, 북한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여 의향 .....	86
그림 III-13. 통일/북한에 관한 선호하는 교육방식 .....	87
그림 III-14. 북한 청소년 이미지(1+2순위) .....	88
그림 III-15. 각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친근감·신뢰도 .....	89

그림 Ⅲ-16. 남북한 청소년들의 다름/차이 수준 .....	90
그림 Ⅲ-17. 북한 청소년과 친근감 있는 교우관계 여부 .....	90
그림 Ⅲ-18.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과 주체 및 방식 .....	92
그림 Ⅲ-19.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동 시 선호하는 유형 .....	93
그림 Ⅲ-20.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동 시 선호하는 유형 .....	93
그림 Ⅲ-21.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 .....	94
그림 Ⅲ-22. 남북한 청소년 간 동질감이 높은 분야 .....	95
그림 Ⅲ-23. 초/중/고등학생 남북한 차이 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형태 및 각 영역별 집단 평균 .....	99
그림 Ⅲ-24. 학교 급별 잠재프로파일 분포 차이 .....	100
그림 Ⅲ-25. 남북한 차이 인식 정도에 따른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의 평균비교(초등학생) .....	107
그림 Ⅲ-26. 남북한 차이 인식 정도에 따른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의 평균 비교(중·고등학생) .....	113
그림 Ⅲ-27. 청소년 의식 수준 조사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예	138
그림 Ⅳ-1. 북한에 대한 이미지 top 3 .....	145
그림 Ⅳ-2. 북한에 대한 관심수준,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북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	146
그림 Ⅳ-3. 통일에 대한 이미지 top 3 .....	147
그림 Ⅳ-4. 남북통일 필요성에 대한 동의수준 .....	148
그림 Ⅳ-5. 남북통일 필요성의 이유 top 3 .....	149
그림 Ⅳ-6.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 top 3 .....	150
그림 Ⅳ-7. 남북한 통일 시, 통일한국의 국력 예상 .....	152
그림 Ⅳ-8. 통일/북한에 관한 교육 시 선호하는 방식 top 5 .....	153
그림 Ⅳ-9. 북한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top 5(1순위) .....	154
그림 Ⅳ-10. 남북한 청소년들의 다름/차이 수준 .....	155
그림 Ⅳ-11. 북한 청소년과 친근감 있는 교우관계 여부 .....	156
그림 Ⅳ-12.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의 필요성 동의 여부 .....	156
그림 Ⅳ-13. 평균값에 대한 바그래프로 각 영역별 두 개 그룹 비교	159
그림 Ⅳ-14. 선호하는 교류활동 이유 top 3(1순위) .....	160
그림 Ⅳ-15. 두 그룹 간의 항목별 평균 차 .....	162
그림 Ⅳ-16. 남북한 청소년들 간 교류활동 영역 중 서로 동질감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 top 5 .....	163
그림 Ⅳ-17. A고 학생들의 북한/통일/북한청소년에 대한 인식·태도 변화도 .....	166

그림 IV-18. 남북한 청소년의 다름/차이 및 북한 청소년과 쉽게 친해질 가능성 .....	168
그림 IV-19.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행사에서 겪은 어려움 .....	170
그림 IV-20.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	172
그림 V-1. 대분류 중요도 분석 결과 .....	189
그림 V-2. 남북한 관계개선 중요도 분석 결과 .....	190
그림 V-3.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 중요도 분석 결과 ·	191
그림 V-4. 남한 사회와 남한 정부 차원의 노력 중요도 분석 결과 ·	192
그림 V-5.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원 중요도 분석 결과 .....	193
그림 V-6.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중요도 분석 결과 ·	196
그림 V-7. 중요도-이행의 용이성/가능성 IPA 분석 결과 .....	198
그림 V-8. 중요도-현재 이행의 달성도/실행정도 IPA 분석 결과 ·	200
그림 V-9. 남북통일 가능 시기 분석 결과 .....	202
그림 V-10. 남북 평화공존/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 분석 결과 .....	203
그림 VI-1.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을 위한 절차 .....	208
그림 VI-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을 위한 절차 .....	209
그림 VI-3.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을 위한 절차 .....	211
그림 VI-4.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을 위한 절차 .....	214
그림 VI-5.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정책 방향 .....	216
그림 VI-6.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5단계별 정책과제 .....	218

#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진행절차 및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sup>1)</sup>

남북한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비교적 활발했던 남북 교류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습 사망사건에 이어 2010년 천안함 사건이 이어지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이어나가고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단행되는 등 수년간 경색되었던 남북한 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4월과 5월에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며 남북한 관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북한과 미국의 의견차를 보이며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된 이후 부풀었던 남북한의 교류협력 확대의 기대감도 점차 줄어드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핵심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설정하여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표 I-1> 참조).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에

1) 이 장은 배상을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발맞춰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인 남북한 청소년 간 상호이해와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표 1-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통일부 실천과제

국정과제	실천과제	주요내용
국정과제 93번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교류협력 재개	-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재개 추진 -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체육교류 활성화 추진 - 민간단체 교류협력 역량강화 지원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 다면적이고 융합적인 남북교류협력 확대 -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교류협력 제도개선	-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
국정과제 94번 통일 공감대 확산	평화통일 관련 차세대 전문가 양성	- 차세대 통일 전문가 양성으로 통일 미래대비 역량 강화 - 주변국 한반도문제 전문가 양성으로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 통일교육 방향 및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 제고 - 청소년들의 긍정적 통일인식 형성을 위한 학교통일 교육 확대 - 대학사회 통일교육 기반 확충 및 대학생 통일 무관심 해소 - 범국민 통일공감 확산

\* 출처: 통일부(2019). 2019 통일백서. p. 359 내용을 연구진 발췌하여 편집

바람직한 통일은 단순히 국가 간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 사회적 통합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한다(윤철경, 오덕렬, 2012). 오랜 기간 분단과 대립으로 서로 다른 정치, 경제, 문화 체계에 익숙한 국민들 간의 사전 교류와 상호 이해를 위한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통일은 오히려 집단 간 갈등과 사회혼란을 유발하게 된다(김형주, 권재기, 2014). 이 같은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남북 청소년 간 교류협력은 서로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 공유된 체험을 바탕으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한 간 상호이해 증진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은 단발성·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접근방식과 구체적 로드맵을 기반으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청소년 대상 북한 및 통일 관련 연구 주제는 통일교육 영역과 청소년의 인식수준에 대한 조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또한 실제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협력은 단기적 이벤트성에 치우쳐 사회적 파급효과와 교류협력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다 원활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주체인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주변 강대국들의 대북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사회의 주체적인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서 보듯이 주변 강대국의 대북정책기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해야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와 정부는 미래 통일한국의 주체로서 통일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자세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상호이해 증진과 통일 공감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실천방안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실증조사를 위해 우선 교류협력의 주체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대북 및 통일 인식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식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교류 대상인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북한청소년과의 교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의견을 파악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들과 교류활동을 하는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교류활동 전과 후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하여 북한, 통일, 북한청소년 등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교류활동남북교류, 남북관계, 청소년교류활동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수행·분석하여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의 실증자료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에서 시사점과 함의를 모색하였다.

## 2. 연구진행절차 및 연구내용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단기적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증조사로, ① 전국 초·중·고 연령의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②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경험이 있는 경기도 A고등학교 소속 청소년 대상 사례조사, ③ 남북관계 및 청소년교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I-1〉은 본 연구의 진행절차와 연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남북한 교류협력 및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관련 정책보고서와 문헌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한 교류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인도적 지원, 스포츠, 대학생 교류 등 남북한 인적교류에 오랜 기간 종사한 전문가, 독일 및 양안의 청소년교류 관련 연구자, 남북교류 연구자, 주무부처 공무원 등을 만나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 및 의견들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 정책방안의 벤치마킹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중국-대만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

여 중국 거주경험이 있고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와 법제를 연구한 집필자들을 섭외하여 집필을 맡겼다.



그림 | -1. 연구진행절차 및 연구내용

실증적 조사를 위해 전국의 초·중고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북한 청소년들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활동이 수년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 경험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양적·질적 조사를 실시해 교류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남북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관점과 의견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하여 69명의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연구진이 본 연구를 위해 자문을 받은 남북한

교류 분야 현장전문가들을 포함하여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국무총리 산하 정책연구원, 대학부설 연구원의 소속 남북교류 관련 연구자, 어린이어깨동무, 남북체육교류협회 등 시민단체/NGO, 관련학과 교수, 청소년교류 현장전문가 및 교사, 정부 및 지자체 주무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는 계층적 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과 중요도-성취도 분석방법(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적용하여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행가능성/용이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의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문헌연구 결과, 실증적 조사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들을 종합 분석하여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1)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협력 관련 문헌 및 정책현황 분석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협력 관련 문헌 조사와 함께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추진해왔거나 추진 중인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 및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추진해왔거나 추진 중인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 사업내용에 대한 부처별, 기관별, 영역별 사업 내용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사업의 구체적 추진 목표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통일, 북한, 남북 교류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통일부와 교육부의 통일교육 실태조사결과와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남북한 청소년 교류 협력 정책 추진방안 및 전략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2) 중국-대만의 상호 교류협력 관련 문헌 및 정책현황 분석

남북한 교류협력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는 중국과 대만의 청소년교류 협력에 대한 사례를 파악하였다. 중국과 대만은 1987년에 상호 왕래를 시작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양안(两岸)간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인적 및 물적 교류협력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해오고 있어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들을 탐구하는데 적절한 대상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교류협력 사례들을 파악하고 중국-대만이 운영하고 있는 반민반관의 교류협력기구, 정기교류협력 프로그램 등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 3) 청소년 대상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의견 및 북한과 통일한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의 필요성과 전망, 선호하는 남북교류 사업 등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도 살펴보았다. 최근 청소년의 보수화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 대북 및 통일 인식의 개선책 차원에서 배경변인을 함께 고려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여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4)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 대상 사례조사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기도 A고등학교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양적·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교류활동의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분석체계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하였다. 첫째, 3장에서 소개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그룹의 조사결과

와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했던 A고 소속 청소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간접적이거나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북한 및 통일 그리고 남북청소년 교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둘째, 경기도 A고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전과 후에 북한 및 통일 그리고 남북청소년 교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각각 수행하여 교류활동 전후에 걸쳐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만으로는 충분한 파악이 어려운 남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청소년의 시각과 주장의 구체적·맥락적 이해를 위하여 교류활동에 참여한 A고 소속 다섯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수행하였다.

#### 5)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 도출

본 연구의 최종단계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체계적 실행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구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계, 부처 공무원, 교사, 탈북 출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영역별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 3. 연구방법

#### 1)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별/교급별 할당 표집을 통해 총 3,22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

이 이루어졌다. 북한/통일, 청소년 교류에 대한 설문문항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배경 및 심리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심층 분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표 1-2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국 17개 시도의 초(4~6학년)·중·고 재학생
표집틀	2018년 교육통계연보 활용
표본수	3,228명 내외
표집방법	지역별/교급별 할당표집
조사시기	8월-9월

## 2) 경기도 A고 사례조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확보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1,100여명에 대한 조사결과와 경기도 A고등학교 소속으로 북한이탈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총 47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주요 문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A고 청소년 24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에 개최된 교류활동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다. 사전과 사후 두 차례에 걸쳐 동일인에게 동일한 문항이 다수 포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이 같은 교류활동이 청소년들의 북한/통일, 북한청소년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실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경기도 A고등학교 소속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다섯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A고 빈 교실에서 방과 후에 연구진과 다섯 명의 학생들만 참여하여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표 I-3 A고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조사대상	탈북청소년과 교류활동 경험이 있는 A고 소속 청소년 5명
조사내용	통일, 남북교류, 북한 청소년 등에 대한 인식 및 이유, 선호하는 교류활동 및 이유 등
조사방법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시기	9월

### 3) 전문가 의견조사

본 연구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전국 청소년 의견조사와 함께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중장기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남북관계, 청소년교류활동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69명으로 남성이 68.1% 여성이 31.9%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에 응한 전문가의 연령대는 40대가 4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50대 29%, 30대 18.8%, 60대가 10.1%로 이루어졌다.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연구원이 52.2%, 교수/교사가 20.3%, NGO/시민단체가 13%, 정부/지자체 공무원이 10.1%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는 계층적 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청소년교류협력 세부 정책의 항목별 중요도 및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교류 유형별 중요도와 이행의 용이성/가능성 수준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남북한 교류협력
-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 3. 중국과 타이완의 청소년  
교류협력
- 4.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관한  
고찰





### 1. 남북한 교류협력<sup>2)</su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남한과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14.3.11. 일부개정, 법률 제12396호)으로 규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에는 이와 같은 사업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바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14.3.11. 일부개정, 법률 제12396호). 이와 같은 범주에서 본 장에서는 그동안 남한과 북한 사이에 실시되었던 교류협력의 역사를 고찰하고 청소년 교류협력의 실태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실시하였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남북한 교류협력의 추이

그 동안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은 일관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하였고, 국내 정책 방향의 변화 혹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던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새로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초기의 남북한 교류 사업들은 다분히 정치적 선전용 도구로 사용되었다(정기웅, 2010).

2) 이 절은 배상을 연구위원과 이정민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본격적인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은 1970년대에 시작하였다.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본격적인 남북한 교류사업의 효시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반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면서 침체되었던 남북관계는 남한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에 다다랐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 단일팀 구성 등 정부의 통제 하에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었지만(길은배, 2010), 다시 김일성 사망과 맞물린 북한 사회 내 위기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한 교류는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햇볕정책으로 일컫는 대북유화책으로 인해 남북 간 관계가 변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 협력이 진행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최다 남북교류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이후부터는 미국, 일본,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협력 형태에서 남북한 간 직접적 교류협력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이후로 교류협력의 내용이 다양해졌으며, 교류협력의 양적인 증가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남북교류는 서서히 줄어들었으며, 급기야 2016년에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지하면서 사실상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교류가 중단 위기에 처하였다. 다행히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국정과제 93번)를 국정과제로 삼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남북 교류 활성화로 남북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과 북미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대북정책 속에서도 국제 사회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관련 요구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어 국제 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현 정부의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국제적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사회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조차 어려움을 겪는 형국이다.

〈표 II-1〉은 2017년 기준 남북관계발전계획의 과제표를 정리한 내용이다. 정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위하여 5개년 중장기 계획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통일부, 외교부, 교육부 등 30여개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통해 교류협력 사업을 포함한 각종 단위 사업들을 선정하고 있다.

표 II-1 2017년도 남북관계발전계획 과제표

사업 분야	세부 과제	단위 사업
북핵문제 해결	2	7
통일공감대 형성	3	5
남북대화	1	3
인도·인권 문제	4	13
남북교류협력	2	6
개성공단	1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3	13
통일 교육	2	7
평화통일역량	3	8
통일외교	1	4
합계	22개	68개

\* 출처: 통일부(2018). 2018 통일백서. p.230.

## 2) 남북한 교류에 관한 선행연구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오랜 분단의 시간과 이질적인 정치적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남북한 사이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이우영, 손기웅, 임순희, 2001). 특히, 남북교류의 영역은 이질적인 정치 이념을 지향하는 남북한 사이에서 가급적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일깨울 수 있는 부분으로 확장되도록 진행하는 편이

남북한 사이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될 것이다(김창환, 유시은, 김운영, 이숙현, 전해림, 2013). 남한과 북한 간의 이해를 증진하여 서로에 대한 오해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된 한반도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된 교류 협력의 이력은 이후 통일한국에서 필요한 사회·문화적 통합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관련 연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참여 및 역할의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이규창, 김수암, 민태은, 이우태, 하범식(2018)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선방안을 연구한 김동성, 최용환, 이종무, 문현미(2011)는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자체간 상호협력의 부재를 지적하였으며 기본적인 남북교류의 목표와 원칙을 정립하는 것과 중앙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및 타 주체들과의 협의체 구축을 통해 남북교류에 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 그리고 기업 간 상호연계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김동성, 신원득, 최성환, 정성희, 문현미, 김수란, 2017; 이규창 외, 2018).

교류에 대한 일반적인 영역은 물적 교류와 인적 교류(예: 김창환 외, 2013)를 구분하기도 하고, 경제 협력 혹은 비경제적 교류(예: 김남주, 2018)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적 교류가 없는 물적 교류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김남주(2018)가 제안한 경제협력과 비경제적 교류로 구분하여 각각의 교류 사업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짚어 보고, 이를 위한 대처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경제협력

사실상 남북한 사이의 적극적인 경제 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민간 주도적인 남북 간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 한몫을 하였다(길은배, 2010).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환경 조성은 적극적인 민간 기업의 대북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부수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인적 자원 교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남북의 정치적 관계 개선에 이르게 기여하였다(길은배, 2010).

남북한 사이의 대표적인 경제 협력 사업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 공단 설치를 들 수 있다. 1998년 시작한 금강산 관광 사업은 경제적 관점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많은 매체에서 인용되었으며, 이후 개성 공단 설치 및 가동의 바탕이 되었다(이재형, 2018). 특히,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신뢰형성의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후 통일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 및 전후세대에 대한 통일의식함양과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하여 남북 간의 민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다(이재형, 2018). 또, 개성공단은 2005년에 시작돼 2016년에 가동이 전면 중단될 때까지 최초의 남북합작 공단으로서 남북화해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두 사업은 공통적으로 북한에게는 고용과 소득의 증대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보장하였고, 남한에게는 내수 진작의 효과를 넘으로써 남북한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첫 단계로 평가되었다(이재형, 2018; 이해정, 이용화, 2018).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제 협력 사업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 남북한 사이의 접촉과 협력은 둘 사이의 생활 및 문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홍순직, 2003), 이는 결국 통일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이재형, 2018).

하지만 정치적·군사적으로 불안한 한반도의 입지 속에서 법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한 대응과 사업에 참여한 우리 국민의 안전상의 문제, 복측 참여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은 이 사업들을 재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다(이해정, 이용화, 2018). 그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획득하게 될 이익이 북한의 군비 증강에 투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우영 외(2001)는 현금제공보다는 물자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 방식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며, 또 현금제공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환으로 남한과 북한의 상호적 공리공영의 남북한 교류와 협력 증대와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테이코 대학의 이찬우 교수는 자신의 저서 「북한경제와 협동하자」(2019)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은 산업간 상호 보완성을 확대하여 남과 북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고, 각각의 생활환경의 수준을 공동으로 높이고자 협력하며,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 산업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이찬우, 2019).

이처럼 남북한 경제 협력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과제는 남북한 사이의 삶의 질의 격차를 해소하고 한반도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세계기아지수 2017'의 조사에 따르면, 170만 명의 북한 어린이가 치명적인 질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 불균형에서 비롯된 발육부진의 아동 비율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프레스리안, 2018.4.16.). 이와 같은 남북한 사이의 삶의 질의 차이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를 통한 경제 공동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둘째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약속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불안정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과 독립적으로 지속적이며 자율적인 민간의 대북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공리공영의 결과를 내기 위한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어느 한쪽으로 그 교류의 책임이 쏠리는 것이 아닌 상호책임을 질 수 있는 교류 관계가 필요하다.

## (2) 비경제협력

비경제적 남북 교류 사업에서는 인적교류가 그 핵심을 이루며, 특히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등의 사회·문화 교류가 비정치적인 영역의 중요한 사업 영역으로 꼽힌다. 특히 스포츠 관련 교류는 남북한의 사회 문화 교류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성사된 부분(전체 사회문화교류 회담 중 85%)이다(이우영 외, 2001: 이해정, 이용화, 2018). 이와 같은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정치적 혹은 이념적 체제의 차이가 있는 남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이질성을 좁힐 수 있는 시작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이우영 외, 2001). 따라서 이를 시작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정치적·군사적인 긴장 완화, 그리고 정치적·제도적 합의체인 통일 한반도를 건설하기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이나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국민협약’까지 일구어 낼 중요한 선행 사업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류의 목적은 두 당사자 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며,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김창환 외, 2013). 실제로 남북한 사이에서 계획되었던 많은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은 남북 사이의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결국에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미래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서 진행된 사회문화협력은 남북한 사이의 첨예한 정치적 이념적 그리고 군사적 대결 구도와 같은 환경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이해정, 이용화, 2018). 따라서 대다수의 남북한 사이의 사회문화협력 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의 힘으로 정부의 지원이 한참 진행되었던 2003년에서 2007년에 집중되어 있었다(정동준 외, 2019; 이해정, 이용화, 2018).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북한은 남한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자신들의 체제 붕괴를 우려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류 협력 사업에서 다수의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반면 소수의 북한 사람들만이 남한을 방문하는 비대칭 교류협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창환 외, 2013; 이우영 외, 2001). 특히 대부분의 남북한의 사회 문화 교류는 체육 행사를 통하여 진행이 되었는데, 이는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남북한의 사회,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차이에 의한 오해와 배척에서 비롯된 사회문화적 이질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창환 외, 2013; 이우영 외, 2001).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경제 사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호응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주제선정이나 행사 추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혹은 일회성, 이벤트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에서는 이 사업의 정치적 예측성을 극소화하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교류·협력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 교류 및 협력의 입장에서 소극적인 북한의 태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한반도 실정을 고려한 분야를 선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주변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sup>3)</sup>

청소년의 통일공감대 확산이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남북한 청소년 간 이해의 폭을 넓혀 통일공감대 마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현황과 관련 정책 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청소년들이 북한/통일 및 남북한 교류에 대해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 1) 북한/통일 및 남북한 교류에 대한 청소년 인식 및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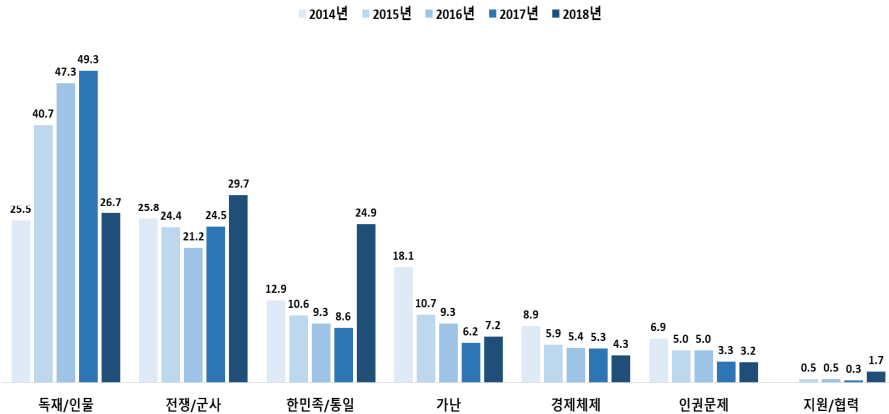
교육부와 통일부는 매년 전국의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실태조사(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그림 II-1〉 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전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보다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 교육부 보도자료, 2019.2.12.).

〈그림 II-1〉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평소에 ‘북한’ 하면 드는 이미지(생각)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17년과 2018년 조사결과만을 비교했을 때,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 ‘독재/인물’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7%로 전년도 대비 22% 포인트 감소한 반면, ‘한민족/통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전년에 비해 15.8%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조사 결과의 동향을 살펴보면, 독재/인물은 2014년 25.5%를 기록한 이후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들어 2014년도 수준인 26.7%를 기록하였다. 반면, 가난/빈곤은 2014년 18.1%를 기록하였으나 매년 감소세를 보여 2018년 7.2%를 차지하였다. 전쟁/군사는 2014년 25.8%를 차지한 이래

3) 이 절은 배상을 연구위원과 이정민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2015년과 2016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8년 29.7%를 기록하였다.

(단위: %)



\*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2018). 2018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통일부, 교육부 보도자료(2019.2.12.). 2018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참조하여 연구진 편집.

## 그림 II-1. 초중고 재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 변화(2014-2018)

### (Q. 학생은 평소에 “북한”하면 어떤 이미지(생각)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이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취임한 것을 감안했을 때, 2018년 조사결과만이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 이루어진 통일교육 및 국내외 정세 변화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제설정 이론(agenda-setting theory)에 따르면 북한을 포함한 타국가의 이미지와 같은 자신이 밀접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뉴스미디어가 전달하는 의제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McCombs, 2014). 청소년들이 평소 느끼는 북한의 이미지는 학교교육과 더불어 뉴스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톤(tone)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조사대상자가 학생들인 점을 감안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 콘텐츠와 뉴스

미디어가 전달하는 대상(object)과 대상의 속성(attribute)의 변화가 2018년 조사결과와 두드러진 차이점을 만든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매년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인 독재/인물에 대한 응답률이 2018년의 조사에서 급락한 대신,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감소세를 보인 한민족/통일에 대한 응답률은 급증하였으며, 매년 응답률이 0.5% 이하를 기록하던 지원/협력은 2018년에 1.7%를 기록한 것이 이 같은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림 II-2〉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평소 느끼는 통일에 대한 이미지(생각)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평화/화합은 청소년들이 매년 1순위로 꼽는 통일에 대한 이미지이다. 〈그림 II-2〉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이 같은 이미지에 대한 응답률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회갈등/혼란 및 전쟁/군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2018년 들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통일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이미지도 청소년 사회에서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국가발전의 응답률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통일비용에 대한 응답률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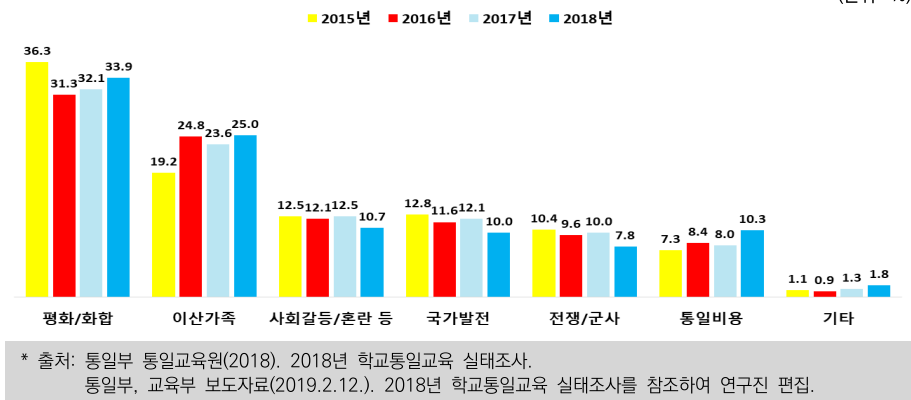


그림 II-2. 초중고 재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이미지 변화(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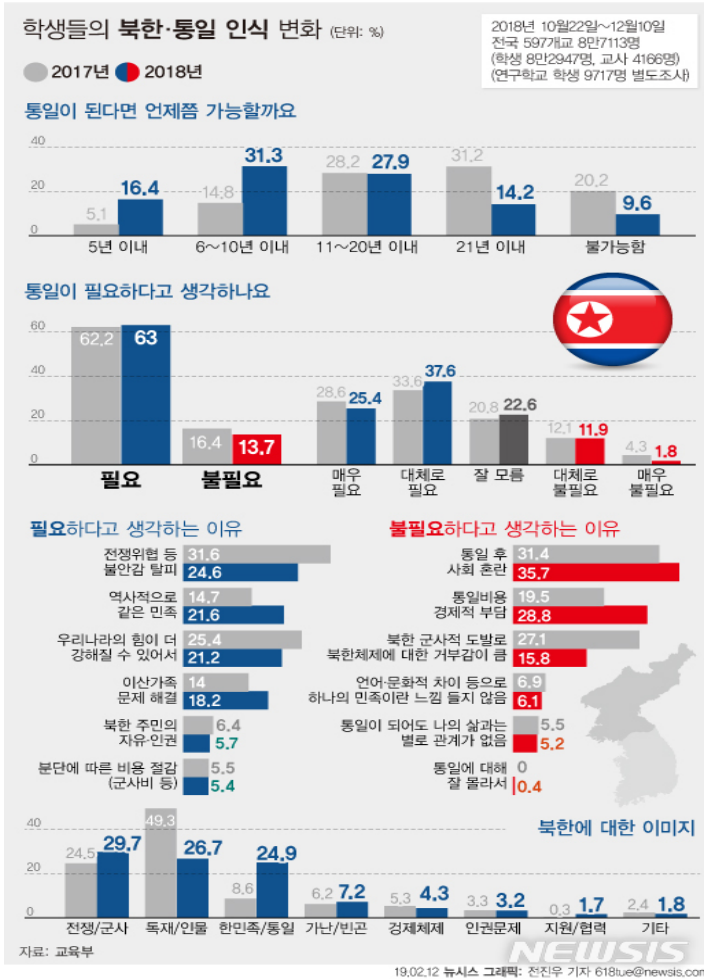
(Q. 학생은 평소에 “통일”하면 어떤 이미지(생각)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그림 II-3〉은 〈2018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63%로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13.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수준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초등학생 73.9%, 중학생 61.3%, 고등학생 54.6%). 통일의 불필요성에 동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들은 통일 후 사회혼란(35.7%), 경제적 부담(28.8%), 북한체제에 대한 거부감(15.8%),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하나의 민족이란 느낌이 들지 않음(6.1%)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통일부, 교육부 보도자료, 2019.2.12.).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이유로 전쟁위협 등 불안감 탈피(24.6%),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21.6%),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21.2%), 이산가족 문제 해결(18.2%)을 꼽았다(통일부, 교육부 보도자료, 2019.2.12.).

주목할 점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당수 청소년들이 전쟁위협 등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른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 불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통일 후 사회혼란을 우려하거나 북한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은 그만큼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림 II-3〉을 살펴보면, 통일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응답률도 전년도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2017년도 조사에서는 청소년 응답자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2018년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9.6%로 급감하였다. 반면에 10년 이내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전년도에 비해 급증하였다. 2017년 조사에서는 30% 미만에 머물던 비율이 2018년도에는 5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즉,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2029년 이내에 남북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2025년께 남북한이 단일국가나 느슨한 연방 형태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의 ‘글로벌

트렌드 2025'란 전망보고서(미국국가정보위원회, 2009)의 예측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 출처: 뉴시스(2019.2.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2\\_0000555478&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2_0000555478&cID=10201&pID=10200#)에서 2019년 2월 12일 인출.

그림 II-3. 청소년들의 북한·통일 인식 변화

김형주, 권재기(2014)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조사결과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 재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남북한 청소년 간 언어, 사고방식, 문화생활 등에서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거나(33.5%) 그저 그렇다(56.6%)로 응답하였다(김형주, 권재기, 2014). 또한,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역시 미국이나 유럽의 청소년들에 대한 호감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주, 권재기, 2014). 같은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73.7%가 동의하였으며,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26.3%)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형주, 권재기, 2014).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87.8%로 반대하는 비율인 12.2%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김형주, 권재기, 2014).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관광 및 견학’(35.4%), ‘음악, 미술 등 예술 활동’(21.2%), ‘스포츠’(11.6%)를 우선순위로 꼽았다(김형주, 권재기, 2014).

남북 여성 및 청소년 교류 협력 방안을 연구한 조우찬(2018)은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에 대한 이질감을 크게 느끼며 통일에 대한 생각 역시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남북한 청소년 사이의 교류협력이 이와 같은 이질감 완화와 상호 이해를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통일된 독일의 선례를 미루어 본다고 하더라도 통일 전에 정치 교육이나 여러 가지 협정에서 비롯된 상호간의 협력·교류에 의해 둘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먼저 낮추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서 서로 다른 두 집단 간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활습관,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체계를 이해하면서, 벌어진 서로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김창환 외, 2013).

##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특징 및 현황

주로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사회문화적 교류 중심으로 이루어진 남북 청소년 교류는 상호 이해 및 신뢰 구축을 주목적으로 한다(김창환 외, 2013). 이 같은 기능은 남북 청소년 교류 당사자 간의 영역을 넘어 남북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구축 등 거시적인 영역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김창환 외, 2013). 1990년대 말 이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청소년 교류는 거시적·체계적 접근과는 동떨어진 형태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으며, 정권의 대북 기조와 남북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길은배, 이종원, 최원기, 2002; 김창환 외, 2013).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남북 청소년 교류에 관심을 두고 추진 방안 모색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예, 김형주, 권재기, 2014; 길은배 외, 2002; 길은배, 2010; 김창환 외, 201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이들 연구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꼽자면, 일반적인 남북한의 교류가 국가적 통일과 이후 통일 조국의 사회통합을 고려하여 진행된다고 보는 반면, 청소년 교류는 통일의 일련의 과정과 사회문화의 통합을 넘어서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에서 2000년대에 이루어진 청소년 중심의 남북교류는 다음과 같다(〈표 II-2〉 참조).

표 II-2 청소년 중심 남북교류(2000년대)

분야	구분	행사연도	참석인원	장소
체육 스포츠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07년 1차)	2007. 6	34	전남 강진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07년 2차)	2007. 6~7	30	평양
	2007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 대회 전지훈련	2007. 3~4	32	제주, 수원, 광양, 서울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07년 3차)	2007. 10	26	전남 강진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07년 4차)	2007. 11	26	평양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08년 1차)	2008. 6	30	평양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08년 2차)	2008. 10	50	평양
예술	평양학생소년 예술단 공연	2000. 5	78	서울
문화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	2003. 9	303	대구
	청년학생유적답사단 방북	2003. 9	116	평양
인도적 지원	남북청소년 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2003. 3	남 18 북 27	금강산
	남북청소년 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2004. 4	남 28 북 39	금강산
	청소년 평화통일 숲가꾸기(1차)	2006. 3~5	400	개성
	남북청소년 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2006. 4	남 47 북 40	금강산
	청소년 평화통일 숲가꾸기(1차)	2006. 11~12	800	개성
	청소년 평화통일 숲가꾸기(1차)	2007. 3~6	4,000	개성
	남북청소년 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2007. 4	남 75 북 50	금강산
어린이	남북 어린이 교류사업 (어린이 어깨동무)	'05(11명), '05(20) '07(6), '08(5)		평양

\* 출처: 김형주, 권재기(2014). pp. 10-11 연구진 발취·편집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를 성사하게 된다면, 이 사업들은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들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혹은 적대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신뢰감을 조성함으로써 이질감 해소와 민족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미래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우리의 청소년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일깨워 줄 직접적인 통일 교육의 일환으로 기능할 수 있다. 남북한 미래세대의 교류는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데 있어 주춧돌 역할을 한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청소년 분야의 남북한 교류는 일반적인 남북한 교류의 사회·문화 분야의 일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길은배, 2010; 이해정, 이용화, 2018). 따라서 이와 같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 대부분의 활동 영역은 비정치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치적이념적 차이가 있는 남북한이 비교적 부담 없이 교류 협력에 나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록 이러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들은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의 사회통합과정에 커다란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절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남북한의 청소년 교류를 분야별로 알아보고, 각 분야별로 실시되었던 행사들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청소년 스포츠(체육) 교류

남북 청소년 교류에서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영역은 스포츠 분야다. 특히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다른 청소년 교류사업과 비교하여 비정치적인

색깔이 강하여 남북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와중에도 재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을 통한 상호 교류라는 점에서 민족적 동질감이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김동선, 2001).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단의 공동입장과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운영 등이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의 해빙무드를 알리는 상징적 이벤트의 역할을 한 것처럼 남북 청소년 간 스포츠 교류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가장 빈번히 이루어진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 종목은 축구이다. 남북체육교류협회(위원장: 김경성)가 주도하는 아리스포츠컵 유소년축구 대회는 남한과 북한은 물론 상황에 따라 중국에서도 대회를 개최하며 남북교류협력을 대표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길은배, 2019; 김경성, 2012). 축구 이외에 유니버시아드게임과 같은 종합경기와 태권도 대회를 통해서도 남북 청소년들의 교류가 주로 이루어졌다.

국제대회를 대비한 남북한의 단일팀 구성은 남북이 하나가 되어, 그동안 체제와 이념적 차이로 갈등하던 남북 사이에서 민족 동질성을 일깨우고, 남북이 협력했을 때 나타나는 민족적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불어 넣어 한민족 공동체 형성의 지름길을 만들어 낼 수 있다(이학래, 2008). 역사적으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은 지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91.4.24~5.6)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1991.6.14~6. 30)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제6회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코리아 단일팀 참가를 위한 선수 선발전이나 평가전, 그리고 합동 훈련 등을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진행하면서 남북한이 서로에게 생활의 터전을 보여주고, 간접적으로나마 서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단일팀 구성과 다른 남북한 교류사적 의미를 띤다고 하겠다(이현우, 김재우, 2016). 뿐만 아니라 남북한 단일팀의 전력적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세계 8강에 진입을 성공하기까지 보여준 남북한의 선수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화합된 응원은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

한이 하나가 되었을 때의 저력을 기대하게 하는 등의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이현우, 김재우, 2016).

다른 한편으로, 지속적인 남북한 청소년 사이의 스포츠 교류로는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꼽을 수 있다.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남한이 투자하고 북한 기술자에 의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제 축구화 탄생을 기념으로 2014년에 시작하여 남과 북을 오가면서 전지훈련이나 정기교류 경기를 실시(12회)하기도 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당시에는 제3국인 중국(8회)을 통하여 그 명맥을 이어 추진함으로써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의 새로운 전략적 추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김경성, 2018; 일간투데이, 2019.4.8.). 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류의 특성인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실용적인 남북교류의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다.

길은배(2019)는 스포츠분야의 성과를 내세워 대내적 홍보수단과 대외적 외교관계 정립의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첫째,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환경과 분리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엘리트 선수 중심의 교류에서 생활체육차원의 교류로 확대해야 하며, 셋째, 교류 종목 및 교류 장소의 선택권을 북측에 과감히 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류 종목의 확대를 꾀하고, 넷째,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길은배, 2019).

## (2) 청소년 상호 방문

「2018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과반수가 북한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은 희망 교류로 북한 지역으로의 수학여행을 가장 많이

핍았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김형주, 권재기(2014)의 연구에서도 ‘관광 및 견학 여행’을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에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보고한 바가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민간단체)의 추진 사업으로 ‘99 청소년 금강산 수련 활동(8.25~28)’이 있었다(조선일보, 1999.8.24.). 이 ‘청소년 금강산 수련 활동’은 기존의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남북한 청소년 교류 사업에서 71명의 초등학생을 비롯한 28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면서 남북한 교류 협력의 참여층을 넓혔다는 의의가 있다. 게다가 남북한 청소년이 상대지역을 방문하는 직접적인 교류·협력은 매우 드문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길은배, 2010) 이 ‘99 청소년 금강산 수련 활동’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남북한 교류를 위한 청소년의 상호 방문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금강산 관광 사업 통해 경험하였던 것처럼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방문자에 대한 안전한 치안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이재형, 2018).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남북한 청소년간의 상대지역에 있는 역사 유적지 탐방 등 역사 문화 및 관광 등을 조직화하여 개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적 동질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이해정, 이용화, 2018).

### (3) 청소년 학술 교류

1990년대 초반의 청소년 학술교류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한 비합법적인 방법이나 제3국을 거치는 교류들이 대부분이었다(김창환 외, 2013). 대체로 비합법적인 통로로서 학술교류를 진행하였던 것은 정부가 관여하여 각 행사의 성격이 정치성을 띤다는 이유로 불허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가 시작된 1990년대 말에는 성균관대학교와 개성의 고려 성균관과

의 자매결연을 필두로 고려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 간, 한양대학교와 김책공업 종합대학 간 컴퓨터, 자연과학분야 등과 같은 비정치 분야의 남북 대학 간 학술교류가 산발적으로 시행되었고(김창환 외, 2013; 이현조, 2008), 이후 점차적으로 이와 같은 학술 교류 사업은 정부 주도적 사업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이루어졌고, 탈이념적이고 비정치적인 남북청소년 교류가 각계각층의 단체별로 확산되었다(길은배, 2010).

남북한 사이의 학술교류는 실제 청소년 간의 접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으로, 교육학술 및 경제 분야의 학술교류를 비롯하여 과학기술교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어,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그동안 북한이 자국의 실리를 목적으로 선별적으로 남북교류에 참여하던 태도를 고려해 본다면, 남북한의 학술교류의 현장에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조한범, 2000).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불러내어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으로 학술적 협력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류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협조적으로 미래의 인력 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이해정, 이용화, 2018).

#### (4)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류

남북한 예술단 교류는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교환을 통해 시작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참여한 예술 교류로 1998년 리틀 엔젤스 평양 공연을 들 수 있다. 리틀엔젤스 평양 공연은 민간단체에 의해 남북간에 있었던 첫 청소년 예술 교류로 평가되고 있다(길은배, 2010). 비록 시간적으로 국민의 정부 초기에 실시한 교류·협력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기에, 비정치적 영역에서 청소년

교류의 가능성과 그 필요성을 각인케 한 시초적인 행사였다(세계일보, 1998.5.13.). 이에 대한 답방으로 2000년 서울에서 있었던 평양학생소년 예술단 공연은 분단 이후 민간 문화교류상 처음 남한을 방문한 북한 청소년들로 기록되었다(중앙일보, 2000.5.18.). 하지만, 이 두 번의 예술 교류는 오랜 분단의 역사와 이념적 차이에서 오는 예술적 감각의 차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즉, 북한의 예술 공연에는 북한식의 주체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났고 남한의 예술 공연과는 사뭇 다른 형태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비방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김창환 외, 2013). 이 행사들은 정제되지 않은 예술 교류는 남북한의 동질성을 일깨워 주기보다 이질감만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전영선, 김지니, 2007). 따라서 남북한 간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동질적인 요소를 먼저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김창환 외, 2013).

남과 북으로 나뉘어 산지 반세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질화된 또는 낯선 상대편의 문화·예술을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의 예술이 순수한 미적가치 추구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남북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에는 스포츠 교류와 달리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김용범, 신현욱,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모든 예술이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되거나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것만이 아닌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내용의 노래 가사와 함께 민족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이고 있어 적절한 교류 방식을 취한다면 문화예술 공연의 교류가 남한 사회의 북한에 대한 편견을 깨고 한민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김창환 외, 2013; 노동은, 2000). 이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한민족이라는 요소와 함께 분단 이전의 문화 예술에 그 중심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2005년 남북한에 동시 개봉한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은 남북한이 서로 상호 협력하여 제작한 문화예술교류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김창환 외, 2013).

문화예술 교류 역시 궁극적으로 스포츠 교류처럼 일부 엘리트 위주의 교류에 치우쳐 있는 현 상황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남북의 상당수 예술인들을 배출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평양음악무용대학, 평양미술대학 등의 소속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수시로 만나 세미나 및 합동작업을 통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장미진, 2000). 또한, 북의 음악영재를 남북교류를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타고난 실력은 출중하나 북한의 여건상 국제무대에 자주 설 수 없어 세계적인 예술가로 발돋움하기 어려운 청소년 예술가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육성정책을 펼 수 있는 남북의 교류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서유상, 전영선, 이철주, 임미정, 2008).

### 3. 중국과 타이완의 청소년 교류협력<sup>4)</sup>

중국과 타이완은 1949년 이래로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이산(離散)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단국가이다. 그러나 1987년 이래로 중국과 타이완은 상호 왕래를 시작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까지 양안(兩岸)간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인적 및 물적 교류협력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해오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하여 미국과 함께 G2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이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정책과 함께 교류·협력의 강력한 의지로 상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타이완도 중국 대륙과의 경제적 협력의 중요성과 미래 발전적인 대륙 교류·협력 관계를 위하여 적극적인 양안 관계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안 간 경제적 협력과 인적 교류·협력의 이면에는 정치적 긴장의 고조, 첨예한 국제질서, 양안 주민 간의 동질성 상실 등 많은 도전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은 남·북한과 함께 오늘날까지 이념적·체제적 대립에서 공통의

---

4) 이 절은 김준영 연구원(한국외국어대)이 작성하였음.

경험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에서도 일정 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남·북한과 차이점은 1949년 이후 양안 관계는 장기간의 체제경쟁과 정치적 대립이 비록 있었지만, 경제적·사회적 민간교류와 협력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온 특징이 있다.

중국과 타이완은 정부 간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은 작동하지 않고 있지만, 반민반관(半官反民) 성격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Association for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s)’(이하 ‘해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Straits Exchange Foundation)’(이하 ‘해기회’)를 통한 대화와 교류의 채널은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다(장은정, 김정진, 윤성혜, 2018). 그러나 양안 교류협력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정치적 요인으로 정치적 관계가 원만해지면 정부 간 교류와 민간교류가 함께 확대되었으나, 정치적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면 정부 간의 교류보다는 민간교류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타이완의 정권 교체는 중국 대륙과의 관계에서 냉온탕을 넘나드는 행보를 보였는데, 2000년 총통선거에서 ‘타이완 독립’의 기치를 걸고 집권에 성공한 민진당(民進黨)은 과격한 독립 행보를 보였고, 양안 관계는 거의 단절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sup>5)</sup>. 이후 양안 관계의 경색이 타이완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최선의 길임을 역설하면서 2008년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는 다시 정권을 되찾았었다(강준영, 2016.3.1.). 그러나 마잉주 총통의 중국과의 동반 성장 노선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양안 관계의 안정을 도모했다는 측면과 양안 교류의 규범화, 제도화 측면에서는 그 성과를 부인할 수 없지만, 경제 문제에 대한 실정이 발목을 잡았다(강준영, 2016.3.1.). 1%대의 경제 성장과 중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종속, 경쟁력을 잃어가는 대만의 기업과 고용 절벽에서 청년의 실업률은 높아져 가고, 기댈 곳이 없어진 대만의 청년 세대는

---

5) 출처: <http://blog.naver.com/donmany0203/220605600647>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2014년 3월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의 체결에 반대해 입법원(立法院)을 점거하는 '해바라기 학생 운동(太陽花學生運動)'<sup>6)</sup>을 일으켰다<sup>7)</sup>. 그리고 2016년 5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 이후 중국은 타이완 압박의 일환으로 공식 교류 채널이었던 중국 대만판공실(台灣辦公室)-타이완 대륙위원회(大陸委員會), 중국 해협회-타이완 해기회를 통한 교류를 사실상 중단하고 대만 국민당 및 대만 기업인 등과의 교류는 선별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2017년 9월 27일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타이완 민진당(民進黨)이 '대만독립' 입장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양안관계<sup>8)</sup>의 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현재 양안관계는 매우 경색되어 있다.

이러한 양안 간의 정치적 상황변화가 교류협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청소년 교류협력은 비교적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 중국과 타이완의 청소년 교류협력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절에서는 중국과 타이완의 청소년 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 중국과 타이완이 분단국가를 전제로 한 양안(兩岸) 관계와 양 정부의 통일정책, 양안 간의 교류·협력 법제와 전담기구의 이해, 양안 청소년의 교류·협력의 현황,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에 시사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6) 2014년 3월 17일에 국민당이 주도하던 타이완 입법원이 ECFA의 후속 작업인 '해협양안서비스무역협정(海峽兩眼服務貿易協議)'을 야당의 반대 속에서 30초 만에 기습 통과시키자 18일 새벽 타이완 대학생들이 입법원을 기습하여 24일간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이 이른바 '해바라기 학생운동(太陽花學生運動)'이다. 주요 주장 내용은, ECFA 등 양안의 경제통합은 타이완의 부유층과 자본가, 권력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혜택이 서민에게는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이완의 중하위계층, 중소기업, 중남부 지역의 민중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었다.

(출처: <https://blog.naver.com/tkfkdoa/221033631556>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7) 출처: <http://blog.naver.com/donmany0203/220605600647>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8) '양안관계(兩岸關係)'란 국공내전을 통하여 대륙을 통일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타이완으로 망명한 중화민국간의 관계를 말한다. 양안(兩岸)의 유래는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륙은 서안, 타이완은 동안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출처: 장은정 외, 2018, p.31.)

## 1) 양안(중국-타이완) 관계 및 통일정책의 배경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1949년 이래로 이념과 체제 대립으로 인한 분단과 이로 인한 이산의 상처를 안고 있다. 양안 정부는 현재까지 각자의 통일정책을 통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비교적 활발한 경제교류와 민간 교류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극복이라는 정치적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을 홍콩과 마카오와 동일한 관점에서 통일을 추구하고 있고, 타이완 정부는 '통일론'과 '독립론'의 갈등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다음에서는 중국과 타이완 간 교류협력의 기초가 되고 있는 통일정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표 II-3 양안의 통일정책 비교

구분	중국	타이완
통일원칙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타이완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	'하나의 중국(一国)' 대륙과 타이완은 모두가 중국의 영토 (대등, 존중, 호혜)
통일정책	'일국양제(一國兩制)' 양체제, 제도의 공존 중국 헌법상의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방식	'일국양부(一國兩府)' 또는 '일국양구(一國兩區)' 독립적인 정치 실체의 공존 대등한 정부와 지역 관계(홍콩, 마카오식의 통일 반대)
통일방식	평화통일 '시진핑(習近平)' 무력통일의 불 배제	점진적 평화통일, 제도 통일 우선
통일추진단계	3통(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신通郵)과 4류(경제, 문화, 과학기술, 체육)	3단계 (민간교류 → 정부 간 접촉 → 통일 협상)

\* 출처: 강일규, 허영준, 김유미, 이윤진, 이천우. 2014. p.83.

## (1) 중국의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 통일정책

### ①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중국은 현재 한족(漢族)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돼 있고, 14개의 국가와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그리고 티벳(西藏)과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등은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운동을 꾀하고 있어 오랫동안 긴장상태에 놓여있다(김준영, 2019). 만일 중국 소수민족들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이 연쇄적으로 분리 독립한다면 중국은 막대한 영토를 잃게 됨은 물론이고 국가 세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준영, 2019).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One-China policy)’ 정책이다(김준영, 2019). 즉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국 대륙은 물론 대만, 홍콩, 마카오와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이다(김준영, 2019). 그러므로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정통성 문제를 포괄하는 양안(兩岸)문제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중요한 개념이다(김준영, 2019).

중국이 지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이라는 등식에 기초하고 있다(김준영, 2019). 중국은 대외적으로도 자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는 나라들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김준영, 2019). 따라서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의 많은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며 대만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동의 내지는 존중하고 있다(김준영, 2019). 그러나 공식적인 관계에서만 국한되며, 실제로 현실에서는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묵인되고 있다(김준영, 2019).

### ② ‘일국양제(一国两制)’ 통일 정책

중국이 타이완과의 통일에서 주장하는 ‘일국양제(一国两制)’ 통일정책은 ‘하나

의 국가, 두 개의 제도(one country, two systems)'이다<sup>9)</sup>. 이 통일정책은 1980년대 시장경제 개혁을 주도한 덩샤오핑(鄧小平)이 타이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중에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귀속 방안으로 이용되었던 '한 국가 두 체제(一國兩制)' 형태의 평화통일 방식으로 제기하였다. 즉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하나의 국가 안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다른 두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말하며<sup>10)</sup>, 현재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 통치원칙이며 나아가 장래의 타이완 통일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국양제는 지금까지 '중국공산당(中國共產黨)'의 일관된 중국 통일방안이 되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對)타이완 정책은 국제정치학에서 논해지는 '통합이론(International Integration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김준영, 2019). 즉 경제나 인적교류 등의 정치 이외의 영역에서 교류가 확대되면 그것이 정치영역의 통합으로 넘쳐날 수 있다(spill-over)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었다(김준영, 2019). 이는 대만의 사정이 어떠한 중국의 필요성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한 통일정책으로 볼 수 있다(이진영, 2005).

개혁 개방 초기에 대규모 개발자금이 필요했던 중국은 타이완을 포함한 화교(華僑)자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김준영, 2019). 이러한 이유로 대(對)중국 투자에서 1992년 전면적 투자 개방 전에는 거의 전액이,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까지는 약 60% 이상이 화교 자본이었다(김준영, 2019). 이 시기 중국에서 화교 자본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은 경제개발의 필수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외교적으로는 '도광양희(韜光養晦, 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전략을, 대만 문제에서는 '1국 2체제(一國兩制)'를 기초로 하지만 경제·문화적 교류를

---

9)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결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2842&cid=62067&categoryId=62067>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10)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결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2842&cid=62067&categoryId=62067>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김준영, 2019). 특히 ‘장8점(江八点)’으로 불리는 장쩌민(江澤民)의 타이완 관계의 원칙은 중화민족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교류 확대의 틀을 통해 대만과의 경제·문화적 통합을 먼저 이루는 전략이었다(김준영, 2019). 이에 대하여 타이완은 기본적으로 ‘3불통(三不통)’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었다(김준영, 2019).

그 결과 2008년까지 대만인들의 대륙투자는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홍콩 등 제3의 지역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루어졌다(김준영, 2019). 하지만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중국경제와 밀접한 보완관계가 이루어졌다(김준영, 2019). 결국 오늘날은 중국시장이 없으면 대만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필요불가결의 상황까지 직면하였다(이진영, 2005).

중국의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이 제정된 2005년경에는 중국은 이미 폭넓은 대외 투자 개방과 자체의 경제력으로도, 즉 대만 투자 자본의 의존 없이도 유지 가능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김준영, 2019). 중국은 대만 문제에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기초가 본 법률 제정 배경이기도 하다(김준영, 2019). 그리고 중국은 대만이 싱가포르와 같은 독립된 형태의 국가로 자리 잡는 것을 두려워하였다(김준영, 2019). 홍콩(香港), 마카오(澳門)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憲法)」 하에서 즉 ‘일국양제(一國兩制)’에 기반하고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진 하나의 지방의 자격으로 중국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다(김준영, 2019).

중국의 ‘타이완 동포에게 고함《告台灣同胞書》’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국방부, 민주당파<sup>11)</sup>,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의 기구가 타이완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문건으로 1950년 2월 28일, 1958년 10월 6일, 1958년 10월 25일, 1958

---

11) 중국의 민주당파(民主黨派)는 집권당인 ‘중국공산당’ 이외의 8개 정당을 일컫는 말이다. 국공(國共) 내전 중 공산당의 지원을 받으며 국민당에 반대한 당파나 단체들로 출발했다. 현재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대만민주자치동맹’, ‘구삼학사(九三學社)’의 8개 민주당파의 정당이다.

(출처: <https://blog.naver.com/snsnip2001/220838621422>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년 11월 1일, 1979년 1월 1일의 총 5차례 있었는데 1979년이 가장 유명하고, 2019년은 그 4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에서는 양안관계의 중요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다. 1979년 '타이완 동포에게 고함《告台湾同胞书》'의 주요 내용은 양안 군사 대치상태의 종지에 대한 협상과 양안 간에 3통(三通)의 해결, 양안 간의 교류 확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 (2) 타이완의 '통일론'과 '독립론'

타이완의 국민당(国民党) 정부는 중국 본토로부터 쫓겨 온 장제스(蔣介石)의 아들인 장징궈(蔣經國) 총통의 사망까지 '대륙수복'이라는 전략으로 중국과의 통일을 목표로 하였다. 즉 1949년 이래로 타이완의 대(對)대륙 정책의 기본은 '대륙수복'이었고 어떠한 대의명분보다 중요한 국민당 정부의 기본목표이었다. 그러므로 타이완은 대륙과 접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협상과 타협도 하지 않는다는 '삼불정책(三不政策)'과 '삼민주의(三民主義)'<sup>12)</sup>의 통일원칙을 고수해왔다(장은정 외, 2018). 특히 1971년 중국이 UN에서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타이완은 대표권을 박탈당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타이완 정부는 오늘날까지도 대륙에 대하여 타이완에 대한 무력사용의 포기과 타이완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자유화, 사회적 다원화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 한 양안의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다(나복혜, 2002).

그러나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으로 타이완에 대한 '평화통일' 원칙을 확정하였고, 1979년 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회에

---

12) 민족(民族), 민권(民權), 민생(民生)의 삼민주의(三民主義)는 쑨원(孫文, 1866~1925)이 제창한 중국 근대 혁명과 중화민국 건국의 기본 정치 이념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결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4288&cid=43667&categoryId=43667>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서 ‘타이완 동포에게 고하는 글(告台湾同胞书)’을 발표하면서 양안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장은정 외, 2018).

1990년대 이후 ‘대륙 수복’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민당(国民党) 정부에서 민진당(民进党)과 내성인(内省人, 타이완 출생의 푸젠인(福建人) 후예들)이 타이완 정치에서 다수세력을 점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천수이벤(陈水扁, 2000.3~2008.5)이 집권함으로써 타이완 독립론이 대두되어 타이완의 대륙정책에 중요한 전환기를 맞았다(김준영, 2019).

타이완의 중요한 통일정책기관인 ‘국가통일위원회(国家统一委员会)’는 1990년 3월 양안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중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총통자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91년 3월에는 대(對)중국정책의 최고 지도지침으로 <국가통일강령(国家统一纲领)>을 제정하였다. 즉 ①국가통일은 공동 책임, ②통일은 전(全)국민의 복지 목적, ③통일은 기본인권 보장, 민주법치 실천, ④이성(理性), 평화, 대등, 호혜 원칙 아래에 단계적으로 추진이라는 4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강일규 외, 2014, p.82). 그리고 타이완 국가통일위원회는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에 3단계 통일방안으로 제1단계(교류와 호혜 단계) : 양측 간 정치적 실체 인정, 양측 간 교류의 질서와 규범 확립 및 교류 중개기구 설치, 민간교류 증대, 제2단계(상호 신뢰구축과 협력 단계) : 평화협정 체결, 3통(三通) 실시 및 고위인사 교류, 제3단계(통일 협상 단계) : 통일협상 기구 설립 및 통일실현의 단계를 밝혔다(강일규 외, 2014, p.82).

## 2) 양안(중국-대만)의 교류·협력의 변화와 발전

중국과 타이완 간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교류 협력의 기본원칙은 1992년의 ‘92공식(九二共識)’에 기초하고 있다. 즉 ‘92공식’은 1992년 중국 대륙과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타이완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주간동아, 2019.9.20.).

타이완의 현(現)집권당인 민진당은 타이완 본토인이 주류인 정당으로 주체의식이 강하고, 중국 대륙과의 통일보다는 타이완 독립의 성향이 강하다. 이는 ‘92공식’의 태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민진당은 ‘92공식’은 없고, ‘92정신’(陳水扁) 혹은 ‘92 역사적 사실’(蔡英文)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타이완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정치,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도 인적, 경제적 교류는 꾸준히 지속 확대하고 있다(조선비즈, 2013.5.26.). 다음에서는 중국과 타이완의 교류 협력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 1949년부터 현재까지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정치·군사적 대립의 시기(1949~1978)

1949년 장제스(蔣介石)의 패퇴 이래로 중국은 무력을 통한 타이완 통일을 주장하였고, 대만은 ‘삼민주의(三民主義) 중국통일’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공산주의 및 무력사용 포기를 요구하며 한편으로는 ‘대륙 수복’의 통일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과 1954년 ‘미국-타이완 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을 거치면서 중국의 무력을 통한 타이완 해방정책은 점차 불가능해졌다. 1971년 10월 중국의 UN 복귀와 1978년 12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 등으로 인해 양안 관계는 차츰 변화를 가져왔다.

#### (2) 평화적 대치 시기(1979년~1987년)

중국의 개혁개방 및 1979년 1월 미중 수교 이후 중국의 타이완 문제 해결 방식이 기존의 무력을 통한 해결방식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추진으로 수정되었다(신

중호, 2011). 중국은 1979년 1월 타이완과의 '3通(通商, 通航, 通邮)과 4流(경제, 문화, 체육, 과학·기술 교류)'를 제의했고<sup>13)</sup>, 1983년에는 '일국양제(一国两制, 1국가 2체제)' 방식의 통일 방침을 타이완에 제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타이완은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 제의를 평화를 위장한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统一战线)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3불 정책(불접촉(不接触), 불협상(不协商), 불담판(不谈判))'으로 대응하였다(신중호, 2011).

그러나 대륙 출신 주민들의 지속적인 고향 방문 및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따라 1987년 11월 2일 장징궈(蔣經國) 총통이 계엄령 해제와 함께 현역 군인과 공무원을 제외한 대륙에 친척을 둔 타이완인의 대륙 방문을 허용하였다(신중호, 2011). 이로써 그 동안의 '3불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분단 이후 38년 만에 다시 시작된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교류는 교육, 문화, 경제 분야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 (3) 제한적·점진적 개방 시기(1988년~2008년 2월)

90년대 이후 타이완 정부의 대륙정책이 적극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안(兩岸) 간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타이완과 중국은 반관반민 성격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와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를 각각 설립하고, 민간차원의 인적·물적 교류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교류협력의 제도화 추진 및 각종 채널을 통한 정치적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신중호, 2011). 나아가 타이완은 1991년 3월 <국가통일강령(國家統一綱領)>의 제정을 통해, 3단계(교류와 호혜 단계, 상호신뢰구축과 협력 단계, 통일협상 단계)의 통일과정을 제시하였다(신중호, 2011).

그러나 1996년 3월 타이완 총통 선거 직전 중국의 미사일 발사 훈련, 1996년 6월 타이완 총통 리덩후이(李登輝)의 미국 방문 강행과 1999년 7월의 '양국론(兩

---

13) 출처: [https://nbamania.com/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2170483](https://nbamania.com/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2170483)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国论)’ 발언, 이후 집권한 민진당 천수이볜(陈水扁) 총통(2000~2007년)의 대만 독립노선 추구, 2005년 3월 중국의 〈반국가분열법(反分裂国家法)〉 제정 등을 거치면서 양안 관계는 긴장과 갈등 관계를 지속하였다(신중호, 2011).

#### (4) 경제통합 촉진 시기(2008년 3월 ~ 2015년)

2008년 타이완은 경제부흥과 양안 관계 개선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마잉주(马英九) 총통의 당선 이후 양안 관계는 교류와 협력 및 평화와 안정을 증시하는 분위기로 급선회하였다(신중호, 2011). 중국 역시 타이완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타이완 경제의 중국경제에 대한 편입 내지는 양안 단일경제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타이완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신중호, 2011).

2008년 이후 총 7차례의 고위급 회담 개최를 통해 중국과 타이완은 양안 간 대화 재개와 경제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신중호, 2011). 2012년 1월 타이완 총통선거에서도 마잉주(马英九) 총통은 안정적인 양안 관계의 유지를 통한 타이완 경제의 부흥을 강조함으로써 재선에 성공하였다(신중호, 2011).

#### (5) 타이완의 현상유지론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2016년~현재)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집권으로 양안 교류 협력 관계는 전체적으로 경색되기 시작하였고, 2019년 현재까지 홍콩시위 등의 영향으로 정치적으로는 물론 교류·협력에서도 장기간 냉각기를 형성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이 ‘92공식(九二共识)’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안관계의 현상유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양안 관계의 긴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 대중국 경제의존도 감소 및 대외관계 다변화 차원에서 동남아남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 추진하고 남태평양 국가 등 기존 수교국들과의 관계 관리 등을 통해 외교적 활동 공간 확대를 지속 모색하고 있다.

2019년 초에는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력 흡수통일론'을 주장하였고, 2019년 6월 이후 홍콩 <범죄인 인도법(逃犯條例, 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로 타이완 현지에서도 중국의 '일국양제(一国两制)' 통일론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양안 간의 긴장 관계는 청소년 교류협력 등의 민간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19년 8월 1일부터는 중국은 중국인의 타이완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개인 자유여행을 사실상 잠정 중단시켰다. 홍콩 빈과일보(蘋果日報/Apple Daily)는 올 하반기 중국 관광객이 약 70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며 관광업계가 약 39억 타이완달러(1480억 원) 규모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중앙일보, 2019.8.1.). 한편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타이완 기업인과 청년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전술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 3) 양안 교류협력의 법적 토대와 이행

#### (1) 양안 간의 교류·협력 법제(法制)

중국과 타이완은 1949년 이래로 40년 이상 서로 적대적인 관계와 이념적 대립으로 인하여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안(兩岸) 정부 간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못하였다. 1990년 9월 진먼회의(金門會議)를 시작으로 양안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반관반민의 타이완의 '해기회(海基會)'와 중국 대륙의 '해협회(海協會)'가 설립됨으로써 이들 기관이 제정한 <부문규장(部門規章)><sup>14)</sup> 형식의 입법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실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4) 중국에서 '부문규장(部門規章)'이란 국무원 산하의 각 부, 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 등 행정관리기능을 가진 직속 기관이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관련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법규이다. 본문에서의 부문규장이란 중국과 타이완의 양 단체가 국가의 기관은 아니지만, 교류협력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자체의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차츰 중국의 양안 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해협회(海協會)’와 타이완의 양안 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해기회(海基會)’가 상호 간의 교류협력 협의를 마치면, 정부 기관인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台灣工作辦公室)과 타이완 행정원의 대륙위원회(大陸委員會)가 교류협력의 실시와 관련한 국내법규를 제정하는 식으로 교류협력의 입법을 제정하고 있다(장은정 외, 2018).

한편 양안 정부의 최고법인 <헌법(憲法)>은 양안 관계의 발전과 통일 지향적인 규정을 통하여 양안 관계 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憲法)> 서언(序言)에 관련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통일 조국 완성의 대업은 타이완 동포를 포함한 전 중국 인민의 신성한 책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5)</sup>. 반면 타이완은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중화민국을 전제로 헌법을 규정하고 있다.

## (2) 양안 교류협력의 주관 기관

중국과 타이완의 청소년 교류협력을 포함한 민간교류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양안 모두 ‘92공식(九二共識)’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서 양 정부 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안은 ‘하나의 중국’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워 1990년 초에 정부 기관으로 중국 측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타이완공작영도소조(台灣工作領導小組)’, 국무원의 ‘타이완사무판공실(台灣工作辦公室)’을, 타이완 측은 총통부 직속의 ‘국가통일위원회(國家統一委員會)’와 행정원 ‘대륙위원회(大陸委員會)’를 설치함으로써 양안 간의 각종 사회문화교류를 주도하고 있다.

---

15) 출처: 위키문헌 검색결과.

<https://ko.wikisource.org/wiki/%EC%A4%91%ED%99%94%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ED%97%8C%EB%B2%95>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그러나,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양안 관계의 해법은 양안 간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난관에 부딪혔으며, 양 정부 기관이 체결한 협의는 축소 이행되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관계 악화로 인하여 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장은정 외, 2018). 이에 양안은 법률적으로 민간기구인 ‘해협회(海協會)’와 ‘해기회(海基會)’를 발족하여 양안 관계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부터 벗어나 교류협력의 상시화와 제도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1990년 이후 ‘해협회(海協會)’와 ‘해기회(海基會)’를 통한 양안 간의 합의서 체결은 양안 상호왕래를 위한 우편왕래허용, 이산가족왕래, 항공 및 선박 직항 운행, 여행, 방송취재 등을 비롯하여 식품안전, 의약 및 위생, 원자력 등의 과학기술, 기상 및 지진감측협력, 농산품 검역 검사,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협력 등의 경제협력을 점차적으로 다양하면서도 전반적인 협의를 체결함으로써 사회문화 및 경제무역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상호교류확대를 실현하였다(장은정 외, 2018).

처음 ‘해협회(海協會)’와 ‘해기회(海基會)’를 조직할 때만 하더라도 양회는 형식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장은정 외, 2018). 즉, 단순히 비정부기관 간 작성된 사문서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회가 체결한 합의서에 대하여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부인하여 발뺌할 수 있다는 것이다(장은정 외, 2018). 하지만, 현재까지 약 30년 간 양회가 활동하면서 체결한 상호교류협력 및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법률적 및 정치적 효력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양안간의 의지에 의해 비교적 성실하고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장은정 외, 2018).

#### 4) 양안 청소년의 교류협력

##### (1) 중국과 타이완의 청소년 통일교육

중국과 타이완의 청소년 통일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 대륙의 '인교판(人教版)'과 타이완의 '한림판(翰林版)'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이다. 양안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각각 양안의 정치, 경제, 문화와 양안 관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근대 이래의 중요한 사건과 중요 인물에 대하여는 양안(兩岸) 교과서는 내용과 서술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안이 모두 비록 중화문화권에 속하고 양안 모두 교재의 편집과 서술이 객관적이라는 주장이지만, 양안의 정치제도, 주민 의식, 정치문화, 교육사상, 법률, 문화 등의 차이로 교과서의 지식 경험과 편집의 방향이 서로 많이 다르게 서술되어 중국과 타이완의 역사 교과서는 서로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 중국 대륙의 '인교판(人教版)'에서는 양안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전면적이고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완과 중국 대륙의 관계에 대하여는 비교적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다(閔雨蒙, 2017). 반면 타이완의 역사교과서인 '한림판(翰林版)'은 언어가 생동감 있고, 그림·도표 등의 자료가 풍부한 편이다. 그렇지만 교과서 내용에서 중국 대륙에 대한 중국공산당에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구체적인 역사를 서술할 때 '탈중국화(去中國化)'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과 편집 방향은 타이완 청소년이 중국인이라는 동질감, 통일에 대한 요구 등에 직간접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李理, 2008).

나아가 '학교에서의 타이완 관련 교육(涉台教育進學校)'이라는 주제의 수업이 진행되는데 학교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하여 학생들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 통일의 과업을 이루려는 목적이다. 주요 수업내용을 살펴보면 타이완

의 역사, 왜 타이완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인가? 중국 역대 정부가 타이완에 설립한 행정기구와 관할권 행사, 양안 인민의 정상적인 왕래와 국가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중국 정부는 평화통일의 주장 시에 일련의 양안관계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양안관계의 평화발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 진행하고 있다(閻雨蒙, 2017).

## (2) 중국과 타이완의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

1987년 타이완이 대륙의 친척 방문을 개방하면서 양안의 교류협력이 시작되었고, 1990년 9월 ‘진먼회의(金門會議)’를 계기로 양안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장은정 외, 2018). 양안은 우선 쌍방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공증서, 증명자료와 등기우편 등을 시작으로 중국의 ‘해협회(海協會)’와 타이완의 ‘해기회(海基會)’간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시작으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등으로 교류가 점차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장은정 외, 2018). 이후 점진적 지속적으로 양안 교류관계는 발전하여왔고, 양안의 청소년 교류협력 역시 같이 성장 발전하였다.

오늘날 양안(兩岸) 청소년의 교류협력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참관방문, 친목, 예술문화, 교육과 과학기술, 체육 등이 그동안의 주요 교류협력 방법이 었다면, 오늘날은 창업, 공익활동, 체험식 교류 등으로 교류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안 각계의 공동 노력으로 양안의 청소년 교류가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왔다. 중국 국무원의 타이완판공실, 전국타이완연맹, 해협양안관계협회, 공청단(共靑團) 중앙 등이 주최한 ‘해협청년논단(海峽靑年論壇)’, ‘양안동심우리동행(兩岸同心我們同行)’, 각 종류의 여름캠프, 겨울캠프활동 등은 양안 청소년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규모면에서도 효과와 반응이 좋은 편이다. 나아가 양안의 학교 간에도 상시적인 교류협력 시스템이 갖추어져 학생들 간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교류도 중국 대륙과 타이완 청소년 간에 보편적인 교류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웨이신(微信, WeChat), 웨이보(微博), QQ 등이 중국 대륙의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라면, 타이완은 플러크(Plurk, 噗浪), 트위터(Twitter, 推特), 페이스북(Facebook, 脸书) 등이 청소년의 인터넷 매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음에서는 양안 간 청소년 교류협력의 다양한 성과와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① 양안 간 유학생 교류

1987년 양안 간의 민간교류가 시작되기 이전인 1985년에 이미 타이완 유학생은 대륙의 대학으로 유학을 시작하였고, 1985~2000년 사이에 대륙의 대학에 유학하는 타이완 학부생의 수는 2895명이었고,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은 864명이었다. 2001~2004년까지 타이완 출신의 학부생이 2875명에 이르렀고,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 2766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 대륙의 학생이 처음으로 타이완에 유학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에 ‘대륙우수청년방문단(大陆杰出青年访问团)’의 방문이었다. 2016년 12월 중국 국가교육부(国家教育部) 홍콩·마카오·타이완 사무 관공실(港澳台事务办公室)의 발표에 따르면 내지(内地)에서 학위과정을 밟는 타이완 학생 수가 10823명에 이르고, 타이완에서 학위과정에 있는 내지(内地) 학생도 9318명에 달하고 있다(艾明江, 2017). 즉 양안 간의 유학생 교류의 초기에는 타이완 학생의 내지(内地) 대학 유학이 주를 이루었으나 오늘날 쌍방 간의 유학생 교류 차이가 점차 축소되어가는 현상은 양안 청년 유학생 교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8월 타이완은 중국 내지의 학생이 타이완에 유학할 수 있는 법률 “대륙 학생3법(陆生三法)”을 타이완 입법원(立法院)에서 통과하였다. 즉 본 법률은 타이완 대학에서 내지(内地) 학생의 입학정원을 총입학 정원의 1%, 즉 2000명 이내로 정하였다.

## ② 학술교류

중국과 타이완 간의 학생과 청년학자들의 학술교류는 상당히 활발하다. 그리고 학술회의에 참가한 중국 대륙과 타이완의 청년학자들은 적대감이나 거리감을 두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륙의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소속 학자가 타이완의 학자를 동아시아연구의 권위자로 존경한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에 올리자, 상당 수 중국 학자들이 그의 의견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인천일보, 2019.3.7.).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도 민감한 정치 분야가 아닌 학술교류에 있어서만큼은 양안의 학자 간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인천일보, 2019.3.7.).

가장 대표적인 청년학자 학술교류를 살펴보면 ‘양안인권논단(两岸人权论坛)’을 들 수 있다. ‘양안인권논단(两岸人权论坛)’은 중국인민대학교 인권연구센터와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이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는 중국 대륙 학자들과 타이완 학자들이 ‘인권(人权)’이라는 전문적 주제를 통하여 양안 인권영역의 이론과 실무의 청년학자와 전문가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양안인권논단(两岸人权论坛)’은 2019년에 7월 제4차 회의가 윈난(云南)성 쿤밍(昆明)의 윈난대학교 법학원에서 ‘노령화(老龄化) 사회의 인권: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양안의 30여 개 대학, 연구기구와 민간조직 등 50여명 전문가와 실무가가 노령화시대 노인인권보장의 이론과 실무적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과 상호 교류를 하였다. 그리고 이전 3차례의 학술대회는 각각 ‘인권교육’, ‘장애인인권보장’, ‘여성권익보장’ 등의 주제로 개최되었다(法制日报--法制网, 2019.7.24).

## ③ 문화예술 교류

양안 간의 청소년 문화 교류는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동안의 대표적인 교류활동을 살펴보면, 중국 대륙의 민혁중앙(民革中央)이 주관한 “중화경천협회(擎天協會)하계 청년 화사(華夏)문화 참관단”이 2016년

7월까지 모두 4차례 걸쳐 이루어졌고, 타이완의 타이완 민주자치동맹중앙위원회(台湾民主自治同盟中央委员会)이 주관한 “타이난(台南) 해서향토문화 연구 캠프”와 중국 대륙의 공산주의 청년단(共青团) 중앙이 주관한 “민족의 빛(民族之光) 해협양안 소년아동 민족문화교류활동”이 2014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2016년 5월 타이완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이 집권한 이래로 양안 간의 청소년 교류협력도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그 대안으로 중국 대륙에서는 기존의 직접적인 인적 교류를 넘어서 위성티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결합된 청소년 교류·협력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푸젠성(福建省) 방송그룹인 ‘해협위성티비(海峡卫视)’는 양안 간의 청소년 교류협력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인터넷과 인터넷티비, 웨이보(微博), 웨이신(微信), 페이스북(脸书, Facebook), 핸드폰 등을 통하여 방송하며 교류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즉 ‘해협위성티비(海峡卫视)’는 종합예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안 청소년이 참가하는 음악대회, 캠프, 토론, 여행 등이 결합된 ‘청춘 최강의 음악(青春最强音)’을 제작하였다. 2016년 9월 제1차 ‘청춘 최강의 음악(青春最强音)’ 프로그램은 양안의 대학교 개학을 맞춰 각 매체 수단을 통하여 방송되었는데, 대략 40만의 양안 대학생이 이를 시청하였고, 180여 명의 양안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었다. 제2차 ‘청춘 최강의 음악(青春最强音)’ 프로그램은 2017년 9월 신학기 개학 시기를 맞춰 방송되었는데 240여 양안 대학교가 참가하여, 본 프로그램을 접한 양안 대학생이 370만 명에 달하였다. 양안 청소년 문화 교류에 있어서 가장 장시간,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인터넷방송 매체를 통한 양안 청소년교류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张素桂, 2018).

그리고 2019년 4월 20일에는 제1회 ‘양안 청소년 문화 교류 포럼(两岸青年文化交流研讨会)’이 ‘타이완 동포에게 고함(告台湾同胞书)’ 발표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산둥성 지난(济南)시에서 개최되었다. 중국인민대학교, 베이징대학교 등의

대륙의 여러 대학교와 동오(东吴)대학교, 탄장(淡江)대학교 등 타이완 지역 대학의 전문가와 청년학자 70여 명이 참가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문화교류와 마음의 합치(文化交流与心灵契合)’라는 대주제로 개최되어 양안의 청년학자들이 ‘19대 이래의 양안관계발전의 실태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양안 청년 교류’, ‘양안 청년 문화 교류와 마음의 합치’, ‘양안 청년 사회 서비스와 시대적 책임’, ‘양안 청년 공통 합작 창신창업’ 등의 전문 주제로 깊이 있고 다양한 토론과 교류활동을 가졌다<sup>16)</sup>.

#### ④ 체육 교류

2000년 이후 양안 간의 초기 청소년 체육 교류는 농구를 비롯한 각종 구기종목을 위주로 활발한 체육 교류가 진행되었다(장은정 외, 2018). 특히 1997년 이래로 양안 간에는 양안 올림픽위원회의 고위층 교류가 좌담회식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본 회의는 전년도의 양안 간 체육 교류활동의 회고와 결산이 주요 내용이고, 나아가 다음 해의 체육 교류활동의 계획을 확인하고 새로운 교류활동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식으로 지행되고 있다. 그리고 본 좌담회는 양안 간에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되고 있어 양안 청소년 체육 교류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양안 청소년 체육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는 2016년 9월 1일 대륙의 충칭시(重庆市)가 주관하는 “해협양안 (충칭)청소년 체육 교류 기지(海峽兩岸 (重慶)青少年体育交流基地)”가 설립되었다. 본 시설은 육상, 암벽, 산악자전거, 자동차 랠리(rally) 등의 훈련과 다양한 경기가 일체적으로 결합된 종합체육운동 교류협력기지이다. 매년 본 시설에서는 양안 간 체육 교류활동이 최소한 6차례 이상 개최됨으로써 충칭시와 타이완 지역 간에 깊은 인연을 쌓고 있다. 체육활동 역시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므로 청소년 체육 교류활동을 통하여 양안의 체육 인재(人才)를 양성 배출하고, 중국 대륙과 타이완 주민 간의 교류협력의 새로운 창구(窗口)

16) 출처: [http://www.sohu.com/a/309847445\\_162522](http://www.sohu.com/a/309847445_162522)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포애를 키울 수 있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中国新闻网, 2016).

### ⑤ 예술

양안 간 청소년 교류협력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예술 분야이다. 중화민족의 전통을 같은 배경으로 하는 중국과 타이완에서 예술을 통한 청소년 교류는 비교적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상호 간의 동질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술 분야 교류 협력을 살펴보면 중국 공청단중앙(共青團中央)의 “양안 학교 가수 초청대회(两岸校园歌手邀请赛)”가 2016년 7월까지 이미 11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송칭링기금회(中华宋庆龄基金会)의 ““보름달이 양안을 밝게 비추다” 양안 대학생 훈취 동아리 친목회(“月圓两岸明”——两岸大学生昆曲社团联谊曲会)”가 2012년 실험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중국평화통일촉진회(中国和平统一促进会)가 주최한 “양안 청소년 음악·무용 교류 공연(海峡青少年音乐舞蹈交流展演)”이 2016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 ⑥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류

교육·과학기술분야는 다른 교류협력 분야에 비하여 양안 간에 비교적 늦게 교류가 시작되었다. 교육부문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의 학생교류와 학교 간 교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류 주체도 각종 단체와 협회 및 대학 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고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장은정 외, 2018).

주요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류협력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민주당파의 하나인 ‘구삼학사(九三學社)’가 “타이완 타이베이시립 제1여자고등학교 베이징 교류방문단(台湾台北市立第一女子高级中学赴京交流访问团)” 행사를 2016년 7월

까지 이미 8차례에 걸쳐 주최하고, “타이완 대학생 과학기술 하계 캠프(台湾大学生科技夏令营)”도 개최하였다. 중국과학기술교류협회(中國科學技術協會)도 “타이완 중학생 대학교 과학 캠프(台湾中学生高校科学营活动)”, “양안청년학자과학기술교류단(两岸青年学子科技交流团)”, “해협양안청년과학자학술활동월(海峡两岸青年科学家学术活动月)”, “해협양안과학기술관리와 정책 박사생 포럼(海峡两岸科技管理与政策博士生论坛)” 등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지식창조의 미래(智创未来)’라는 주제로 2017년 북경과학기술대학(北京科技大学)에서 ‘해협양안청년과학기술교류캠프(海峡两岸青年科技交流营)’가 개최되었는데, 타이완과학기술대학(台湾科技大学), 타이베이과학기술대학(台北科技大学) 등 22개 타이완 지역 대학교와 많은 대륙의 대학들 참가하였다. 본 교류활동에서는 ‘지능형 자동차(智能车)’의 창의적인 기술교류 활동이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본 과학기술 교류활동은 북경과학기술대학이 그동안 14차례에 걸쳐서 양안 간에 여름방학교류활동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人民网, 2017).

그리고 중국 국무원 과기부(科技部) 해협양안과학기술교류중심(海峡两岸科学技术交流中心)은 2013년 1월 1일 “양안과학기술교류20주년《两岸科技交流20年(套装共2册)》” 상하권을 발간하였다. 본서는 최초로 양안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서로서 상권(上卷)에서는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교류활동을 주로 회고하고 있고, 하권(下卷)에서는 양안 과학기술교류협력에서의 우수인물, 우수기업, 우수지역의 교류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⑦ 취업과 창업

현재 중국 대륙과 타이완 양안 간 사람의 이동에 있어서 법률·제도상의 일부 제한은 존재하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즉 타이베이시(台北市)에서 타이완에 이주한 대륙 출신 중국인이 눈에 많이 띄고, 역시 중국 각 지역에서도 이주하여 생활하는 타이완 사람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상하이시(上海市)에는 현재 약 30만의

타이완인이 거주하고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취업 시장에서도 인적 교류 이동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도 타이완 청년을 '동포(同胞)'로 다른 외국인과 달리 다양한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취업난이 심한 타이완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대륙으로 이주하여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도 타이완 청년의 대륙에서의 창업을 우대하고 타이완 기업 전용의 공업단지를 조성해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등으로 활발하게 취업, 창업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인천일보, 2019.3.7.).

중국 대륙과 타이완의 청년 취업·창업교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그 일례로 2013년 처음 시작된 '양안기업가서밋(两岸企业家峰会, <http://www.laqjfh.com/2013/>)'은 양안 기업인의 무역 및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아주경제, 2018.12.3.). 2018년 12월의 회의에서는 양안 '청년창업'을 8개의 대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양안 청년들의 다양한 취업·창업의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푸젠성(福建省)은 타이완과 가장 활발하게 청소년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이다. 교류협력의 초기부터 지리적 장점으로 타이완과 교류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도 가장 활발한 지방정부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창업에서도 대표적으로 2017년 11월 푸젠성 타이완판공실에서는 '타이완 청년 체험식 교류 센터(台湾青年体验式交流中心)'를 5개소 신설하였다. 즉 푸조우 전통문화촉진회(福州传统文化促进会), 푸조우 웨메이커문화창조회(福州唯美客文创聚落), 장조우 동남화도(漳州东南花都), 메이조우 마조문화영화공원(湄洲岛妈祖文化影视园), 중국푸젠타이완박물관(中国闽台缘博物馆)의 5개소이다. 본 교류센터는 현대 농업 등의 푸젠성과 타이완 지역의 전통우수교류항목, 창신창업(创新创业)과 문화·영상 등으로 양안 청소년의 새로운 분야의 교류협력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sup>17)</sup>.

그리고 창업과 과학기술 교류가 결합된 교류활동도 볼 수 있는데, 2018년 8월

---

17) 출처: [http://www.sohu.com/a/207279932\\_543957](http://www.sohu.com/a/207279932_543957)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대륙의 샤먼(厦門)에서는 “2018년 양안청년창업신창업토론회(2018年两岸青年创新创业研讨会)”가 국무원(国务院)의 타이완판공실 교류국과 과기부(科技部) 홍콩·마카오·타이완 판공실의 지원 아래 개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이전까지 타이완 청년 세대는 중국 대륙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sup>18)</sup>.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이러한 꿈을 꾸는 타이완 청년 세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5년 11월의 《연합보(聯合報)》의 조사에 따르면 20~29세 청년 가운데 중국 대륙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2010년 49%에서 2015년에는 32%로 상당히 감소하였다(쉬진위, 안소현, 2016). 이러한 이유는 기존의 타이완 청년 세대는 기술과 능력이 있어서 중국 대륙의 같은 세대에 비해 훨씬 우월하여, 중국 대륙에 가면 창업도 쉽고 취업도 쉬웠지만, 2010년대 이후 중국 대륙에서도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타이완 청년들이 갖고 있던 비교 우위가 사라지면서 대륙에서 창업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타이완 청년을 원하는 중국 대륙 기업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쉬진위, 안소현, 2016).

### (3) 양안(两岸) 청소년 교류의 문제점

중국과 타이완 간의 청소년 교류협력은 그동안 양안 정부의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를 뛰어넘어 오랜 기간 형식과 규모 면에서 상당한 성장과 발전을 이어왔지만,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협력의 성과를 위하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존재한다. 주요한 문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양안 간의 정치적 긴장

양안 간의 청소년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역시 양안 간의 정치적 체제경쟁의 종식과 긴장 완화이다. 그동안 양안 사이에는 정치 관계가

---

18) 출처: <https://blog.naver.com/tkfkdoa/221033631556>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원만해지거나 발전되면 필수로 경제협력과 민간교류 등을 비롯한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협력은 크게 확대되었다(최준흠, 2010). 반면 양안 간의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과 긴장 관계 조성은 청소년 교류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중국 대륙의 ‘일국양제(一国两制) 통일 노선의 강행은 타이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타이완 정부와 주민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나아가 2019년 1월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주장한 타이완 무력통일 가능성 불배제의 발언은 최근 양안 간의 정치적 경색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타이완 역시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 이후 집권당 민진당(民进党)의 ‘독립론(台独)’과 ‘탈중국화(去中国化)’ 정책은 정치적 긴장관계의 조성과 함께 양안 간의 청소년 교류협력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张素桂, 2018). 나아가 장기간 양안의 정치적 긴장관계는 양안 청소년의 이질적인 의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장래의 교류협력에 적지 아니한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 ② 양안 청소년의 가치관의 충돌

장기간의 정치적, 역사적 원인 등으로 양안 청소년의 교류협력 중에는 빈번하게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안은 장기간에 걸쳐 청소년 간 다양한 경로의 교류와 협력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통일, 이념, 체제, 정체성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큰 인식의 차이는 청소년 교류협력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张素桂, 2018).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2014년 봄의 ‘해바라기 운동(太阳花学运动)’ 시기에는 타이완 청소년들의 ‘반중(反中)’ 정서가 극에 달하게 되는데, 중국과 타이완 간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타이완 학생들의 격렬한 저항은 장기간 양안 청소년 교류협력에 중대한 장애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양안 간의 청소년 교류협력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는 장기간 역사적, 정치적 원인으로 양안 청소년의 이질된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③ 장기간 분단으로 인한 사회체제의 동질성 상실

1949년 이래로 약 40여 년간은 전혀 상호 왕래를 포함하여 어떠한 교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90년대 이후 교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존재하여 양안 간의 사회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구성되고 발전되었다. 중국 대륙은 공산혁명의 성공 이후 대약진 운동(大跃进运动),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의 정치 사회적 회오리로 그동안의 중국의 고유한 문명을 잃어버렸고, 1978년 개혁개방으로 경제적 성공은 이루었지만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환경파괴, 관리들의 부패 등이 현안 문제로 등장하였다. 타이완 역시 국민당 패망 이후 장제스(蔣介石)는 타이완 지역에 장기간의 계엄과 독재 통치로 주민들을 압박하였고, 90년대 이후는 국민당과 민진당 번갈아 가며 집권하면서 완전히 다른 정치 노선으로 분열과 대립을 키워왔다. 더불어 타이완 경제가 중국 대륙에 완전히 종속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사회체제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위와 같이 장기간 분단으로 나타난 사회체제의 동질성 상실은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청소년 교류협력에 큰 장애이다.

### ④ 국제환경 변화의 영향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기판매, 하나의 중국 불인정 발언 등으로 양안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보여 긴장감을 높이고 있고, 2019년 6월 이후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逃犯條例·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 폭력화함으로써 중국과 타이완의 교류협력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양안(兩岸) 청소년 교류협력의 근본적인 토대를 위협하고 있다.

## 5) 결론 및 시사점

2011년 7월 후진타오 총서기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안만명청년대교

류친목활동(两岸万名青年大型交流活动)’에서 “청년은 미래를 대표한다. 양안관계의 미래발전은 결국 청년들에게 의거해야 한다”고 중국 대륙과 타이완의 교류에서 청소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함에서 알 수 있듯이 양안 간의 청소년 교류에서 중국 대륙은 타이완보다도 더욱 적극적이다. 타이완은 민진당의 ‘독립론(獨立論)’과 국민당의 ‘통일론(統一論)’이 대립하고 있어 누가 집권하는냐에 따라 청소년 교류협력의 큰 틀도 다시 짜고 있지만, 중국 대륙은 중국공산당의 일관적인 통일정책(‘통일전선전술(統一戰線戰術)’))으로 청소년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국가 전략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타이완과의 정치적 긴장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인 유화책으로 교류협력의 문호를 넓힐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2019년 3월 산업·취업·교육·의료·문화·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31개 교류 정책을 담은 '양안 경제문화교류협력 촉진책(关于促进两岸经济文化交流合作的若干措施)'을 내놓았다(연합뉴스, 2018.10.16.). 이 촉진책에 따르면 타이완 청년 인재들은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과 '만인계획(萬人計劃)'에 신청할 수 있다<sup>19)</sup>. 또한,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 국가사회과학기금, 국가 우수 청년 과학기금, 국가예술기금 등에도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8.10.16.). 중국 정부가 본토 거주 타이완인에 제공하는 신분증도 타이완인 유치의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8.11.26.). 스마트카드 형태인 이 신분증을 보유하면 타이완인도 취업, 교육, 의료, 차량 등록 등 본토인이 누리는 18가지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매경프리미엄, 2018.9.17.). 최근 이 신분증 취득자가 2만 명을 넘어 서고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한 타이완 학자가 33명에 이르는 등 그 효과가 드러나면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호 확대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 2018.11.26.).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관계 청소년 교류협력의 사례와 성과는 북핵 문제로 경색

---

19) 출처: <https://blog.naver.com/kimhs2769/221407469397>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된 남북한의 청소년 교류협력의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양안 사이의 교류협력을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정부가 완전히 주도하지 않고, 그동안 경제협력의 성과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점은 앞으로 우리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이 나아갈 길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관계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과 청소년 교류협력 등의 민간부문에서 상상 이상으로 많이 진전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은 중국과 타이완의 교류관계에 비하면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양안 관계 교류의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 (1) 남북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교류협력기구 상호 설치 운영

현재 남북한 교류가 한국의 경우에는 '통일부',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의하여 남북한의 정부 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하고 민감한 정치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중국의 '해협회(海協會)'와 타이완의 '해기회(海基會)'의 성격을 가지는 반관반민의 교류협력기구를 상호 설치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정부 기구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부터 탈피하고 명분 싸움에 의한 교류협력의 파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다.

#### (2)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

남북경협사업의 복구와 활성화를 통하여 남북한 청소년이 취업과 창업의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념적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장기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첨병(尖

兵) 역할은 역시 현실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이었다. 남북한 간 민감한 정치 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경제교류가 바탕이 되어야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민간 교류협력도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개성공단’과 같이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청소년의 취업과 창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많은 현실적인 장애는 있지만 비교 우위에 있는 북한 기업체를 남한의 상공업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일방적 경제협력에서 쌍방적 경제교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 (3) 청소년 정기교류협력 프로그램 구축

그동안 남북한 간의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은 정치적 이벤트의 장식물로서 단발성, 임시적 성격의 교류협력이 대부분이었다.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즉 남한 집권 여당의 대북 노선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그 부침이 매우 심하였고, 정치적 선전에 치중한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민간교류는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였다. 진정한 남북한 간의 청소년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남북한 모두 장기적인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유학생 교류, 학술교류의 상시화

중국과 타이완의 청소년 교류협력에서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학술교류활동과 상호 유학생 교환 프로그램의 법제화이다. 교육과정과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분단국가에서 청소년들이 상호의 사회, 문화, 과학기술, 예술 등을 이해하기 위해 활발한 학술교류와 유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남북한 간에 당장 오늘날의 중국과 타이완과 같은 학술교

류와 유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류 청소년의 '신원보증제도'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상호 유학생 교류와 청년학자 장기 방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장학금과 연구기금을 마련하여 지원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청소년을 장단기 '기술연수생' 신분으로 초청하여 과학기술의 교류와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4.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관한 고찰<sup>20)</sup>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한계는 전반적으로 남북한 교류사업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한계점들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많은 연구들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비정치적 이념적인 맥락에서 진행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 정세 변화와 국내 정치 환경 변화, 그리고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길은배, 2010; 조우찬, 2018). 따라서 대부분의 활동들이 정부의 제재 속에서 승인이 되기도 혹은 거절이 되기도 하면서 지속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발성,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김경성, 2018; 김재운, 2016; 김창완 외, 2013; 정기웅, 2010).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소극적인 교류 자세, 다시 말해, '제한된 접촉'이나 '선호하는 교류'를 택함으로써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거나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정기웅, 2010). 이로 인해 그 동안의 남북한의 관계는 남한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 그 즉시 중단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김남주, 2018).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양적·질적 교류 확대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하다. 원활한 남북 청소년 교류를 위하여 북한과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임강택(2015)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

---

20) 이 절은 배상률 연구위원과 이정민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p. 249)”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민간주도의 교류행사만으로는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체계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과 신뢰구축의 공고화가 보다 활발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형성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임강택, 2015).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민족 동질성 확립을 위한 상호간 노력이 요구되며, 상호 보완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미래 통일 조국의 주체적 구성원을 키워내는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교류의 영역에서 진행되어질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은 비정치적 성향을 유지하며, 남북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하며, 국제적 규범에 준하여 단계적으로 그 양적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김창환 외, 2013).

# ○ ————— III. 남북교류에 대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분석

- 1. 조사개요
- 2. 기술통계 분석
- 3. 심층 분석
-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남북교류에 대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분석

## 1. 조사개요<sup>21)</sup>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초, 중, 고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남북한 교류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이를 토대로 미래 통일 한국의 주인이 될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자 선행연구(예: 김형주, 권재기, 2014: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연구진이 보완, 수정,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시행하여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타당한 근거자료 구성을 위한 분석을 하였다.<sup>22)</sup>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2018년 권역별 교육통계 모집단 분포를 이용하여 지역별, 학교급별, 학년별 할당 표집(Quota Sampling)을 활용하여 당초 2,000여명을 예상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편조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략 30% 정도의 자료 손실 가능성을 염두하고 설문을 진행하였으나, 대부분의 응답들이 누락되지 않고 회수되어 최종연구 분석에는 3,228명(초등학생: 907명, 중학생: 1,160명, 고등학생: 1,161명)의 응답을 사용하였다<sup>23)</sup>. 초등학생의

21) 이 장은 이정민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22)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제15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음 (201908-HR-고유-018-01).

23) 전체 설문응답자 수 증가에 대한 상황발생을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pm 3.25\%$ 로, 중, 고등학생의 경우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pm 2.88\%$ 를 최대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별, 학년별 등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III-1>에 자세히 나타나있다.

표 III-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3,228	100.0
성별	남학생	1,547	47.9
	여학생	1,667	51.6
	무응답	14	0.4
교급별	초등학생	907	28.1
	중학생	1,160	35.9
	고등학생	1,161	36.0
학년별	초등학교 4학년	279	8.6
	초등학교 5학년	343	10.6
	초등학교 6학년	285	8.8
	중학교 1학년	375	11.6
	중학교 2학년	377	11.7
	중학교 3학년	408	12.6
	고등학교 1학년	414	12.8
	고등학교 2학년	412	12.8
성적 수준별	고등학교 3학년	335	10.4
	하위권	702	21.7
	중위권	1,020	31.6
	중상위권	1,437	44.5
복한가족 /친척 여부	모름/무응답	69	2.1
	있다	35	1.1
	없다	2,893	89.6
	모름	283	8.8
권역별	무응답	17	0.5
	수도권	776	24.0
	충청권	743	23.0
	전라권	672	20.8
	경북권	455	14.1
	경남권	566	17.5

2019년 12월 16일 이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음(201908-HR-고유-018-16).

	구분	사례수(명)	비율(%)
지역별	무응답	16	0.5
	서울	167	5.2
	부산	214	6.6
	대구	236	7.3
	인천	155	4.8
	광주	171	5.3
	대전	198	6.1
	울산	184	5.7
	세종	169	5.2
	경기	318	9.9
	강원	136	4.2
	충북	207	6.4
	충남	169	5.2
	전북	161	5.0
	전남	124	3.8
	경북	219	6.8
	경남	168	5.2
	제주	216	6.7
무응답	16	0.5	

## 2. 기술통계 분석

### 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빈도분석

청소년들의 북한, 통일, 통일교육, 북한 청소년 그리고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수준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성별과 학교 급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북한

##### 가. 북한 이미지

평소 '북한'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에 대해 '통일'(33.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재/인물'(30.7%), '핵/미사일 실험'(17.7%), '가난/빈곤/기아'(4.7%), '탈북자'(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순서의 응답은 남녀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급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생은 통일(41.5%)을 북한 이미지로 가장 많이 뽑은 반면, 중학생(34%)과 고등학생(32.3%)은 북한의 이미지에 대해 '독재/인물'을 가장 많이 떠올렸다. 특히 모든 학교급에서 핵/미사일을 북한 이미지로 뽑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북미 정상회담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현 사회적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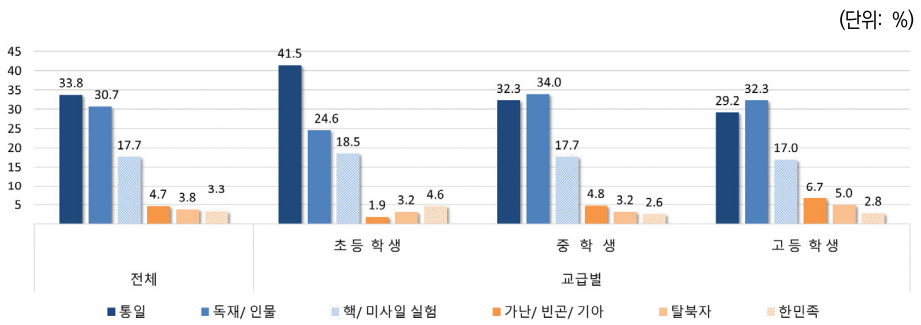


그림 III-1. 북한 이미지

#### 나.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을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47.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21.9%),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10.4%),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할 대상'(6.4%),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상'(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북한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견제 또는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양면적인 경향성이 있다(강혜련, 박보영, 정창률, 2009)는 이전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분포는 학교급에 따라 동일한 분포 패턴을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초등학생의 경우 북한이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이 58.7%로 중고등학생의 응답과 비교해 높게 나타나,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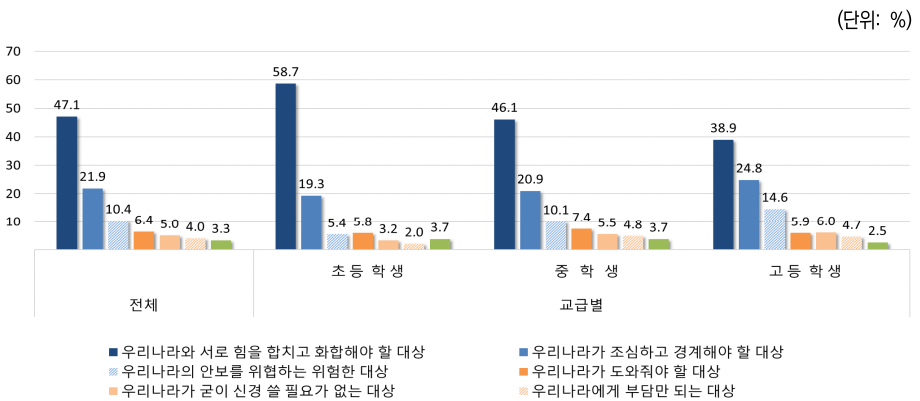


그림 III-2. 북한에 대한 인식

#### 다. 북한에 대한 태도

평소 북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척도는 매우 관심 없음(1점)부터 매우 관심 있음(10점)의 10점 척도였다. 이에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정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북한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49.7점,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33.5점,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46.7점으로 북한에 대한 전반적 관심 수준은 중간 수준이지만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여학생(관심수준 48.8점; 신뢰수준 33.1점; 친근감, 46.4점)보다는 남학생(관심수준 50.8점; 신뢰수준 34.0점; 친근감, 47.1점)이, 또, 초등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 정도(51.3점)나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38.8점)가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이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45.2점)을 낮게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본다면 북한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그리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 북한 관련 태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사례수 (명)	북한에 대한 관심수준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전체	3,228	4.97(2.20)	3.35(1.84)	4.67(2.17)	
성별	남학생	(1547)	5.08(2.38)	3.40(1.98)	4.71(2.31)
	여학생	(1667)	4.88(2.02)	3.31(1.70)	4.64(2.03)
	무응답	(14)	4.57(1.45)	3.00(1.36)	4.07(1.82)
교급별	초등학교	(907)	5.13(2.34)	3.88(1.95)	4.71(2.23)
	중학교	(1160)	4.84(2.15)	3.38(1.81)	4.79(2.18)
	고등학교	(1161)	4.98(2.13)	2.91(1.65)	4.52(2.09)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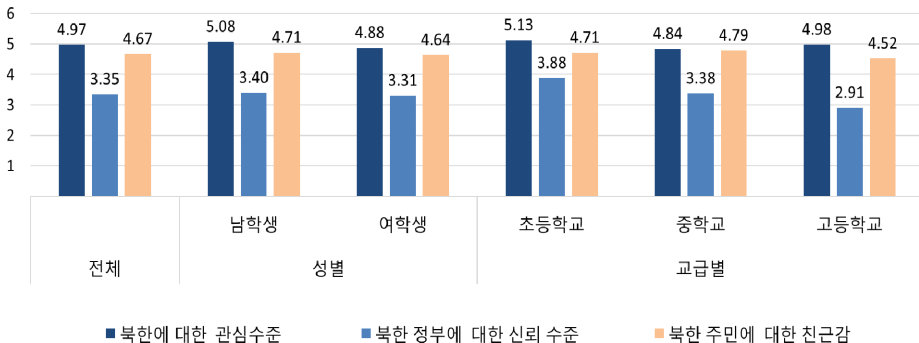


그림 III-3. 북한에 대한 태도

## (2) 통일

### 가. 통일 이미지

통일에 대한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평화/화합’(30.3%), ‘이산가족’(25.4%), ‘국가발전’(12.4%), ‘사회갈등/혼란’(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순서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이산가족(33.1%)을 평화/화합(29.0%)보다 먼저, 사회갈등/혼란(11.0%)을 국가발전(9.9%)보다 먼저 꼽으면서 여학생은 남학생과 차이나는 통일 관련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통일 관련 이미지로 평화/화합(40.4%)을 꼽았고, 중학생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산가족(27.2%)을 평화/화합(27.1%)보다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평화/화합(25.8%)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고 있지만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사회갈등/혼란(15.5%)을 높게 통일과 연관 있는 이미지로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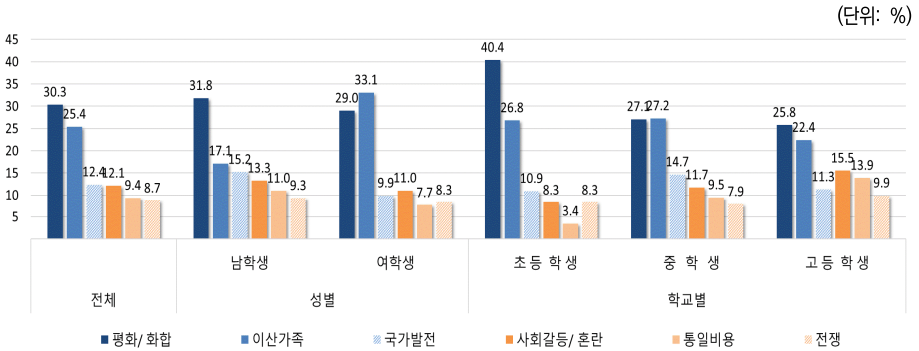


그림 III-4. 통일 이미지

## 나. 통일 필요성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통일은 필요(67.8%)하다'고 응답한 반면, 19.7%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더욱이 12.5%의 청소년은 '모르겠다'라고 답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는 없었지만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75.2%), 중학생(69.3%), 고등학생(60.6%) 순으로 통일이 필요하고 응답하였다. 추가적인 질문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통일한 국의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28.8%), '전쟁위협 등 안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23.2%),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서'(19.6%) 등의 순으로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다른 집단과 달리 초등학생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수(28.7%)가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서'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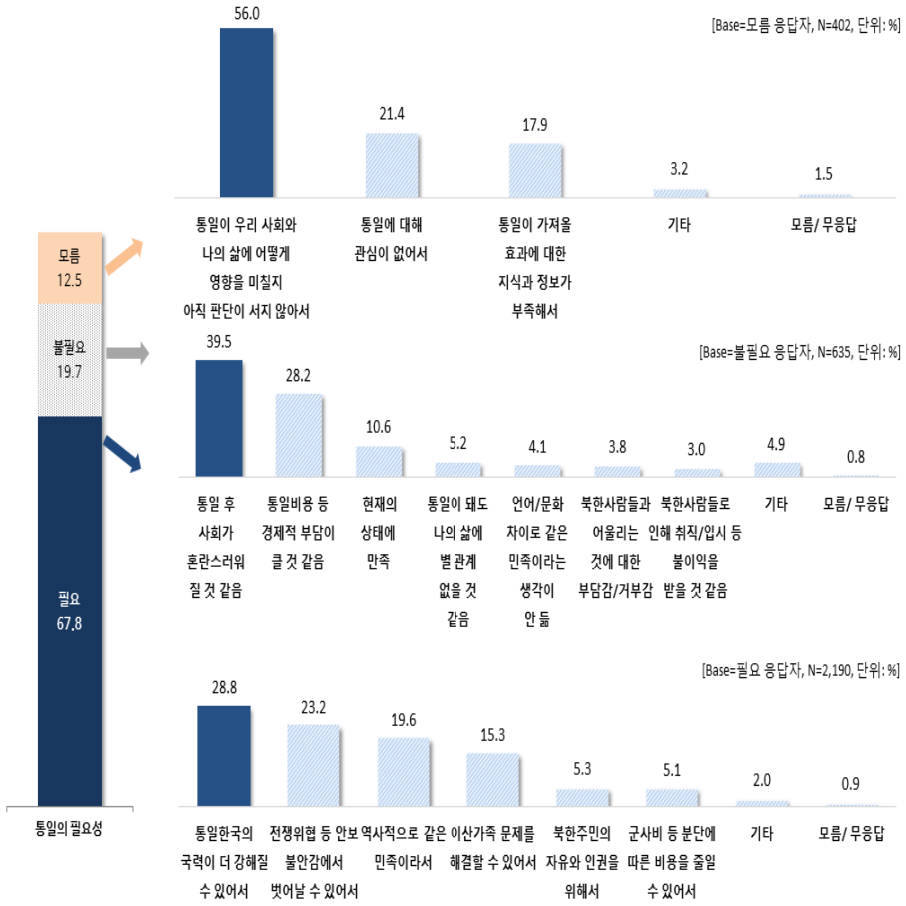


그림 III-5. 남북통일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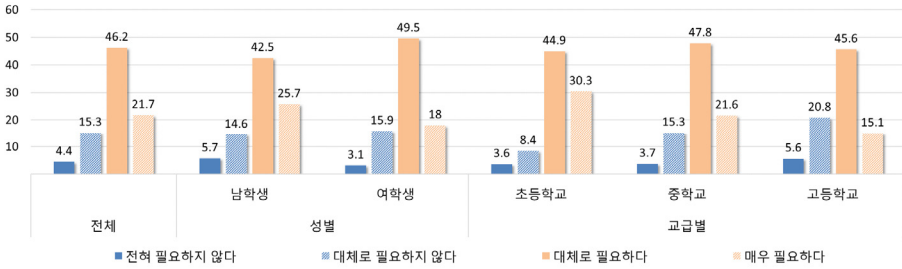


그림 III-6. 통일 필요성

반면에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통일 후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39.5%),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아서’(28.2%),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서’(10.6%) 등의 순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전체 여학생의 41.3%와 전체 남학생의 37.9%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통일 후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고, 여학생(25.2%)보다는 남학생(31.5%)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고, ‘지금 현 상태에 만족해서’ 통일이 불필요하는 의견은 여학생(12.9%)이 남학생(8.3%)보다 많았다. 학교 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46.8%)이 다른 두 학교 급(중학생, 35.9%; 고등학생, 39.5%)에 비하여 ‘통일 후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에 적지 않은 12.5%의 청소년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응답한 청소년들은 그 이유에 대해 ‘통일이 우리 사회와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아서’(56.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21.4%), ‘통일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17.9%)의 순으로 답했다. 이와 같은 응답패턴은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통일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다.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31.1%), ‘북한 정부의 통일 의지/역량 부족’(23.0%), ‘주변 강대국의 비협조 및 방해’(18.5%), ‘통일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10.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은 순서 및 반응 분포는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29.3%), ‘주변 강대국의 비협조 및 방해’(20.1%), ‘북한 정부의 통일 의지/역량 부족’(17.1%), ‘통일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13.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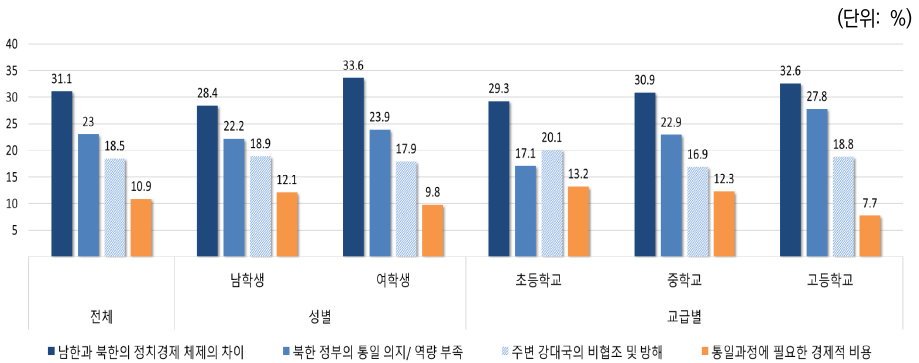


그림 Ⅲ-7.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

## 라. 통일의 가능 시기

남북통일 가능 시기로는 ‘20년 이후’(28.0%), ‘10년~20년 이내’(23.4%), ‘5년~10년 이내’(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응답비율 순서는 성별, 학교 급별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높은 비율(38.2%)의 응답자가 통일은 20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고, 초등

학생은 가장 많은 응답자가 '5년에서 10년 사이'(23.9%)에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체적으로는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함' 응답은 13.1%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들에서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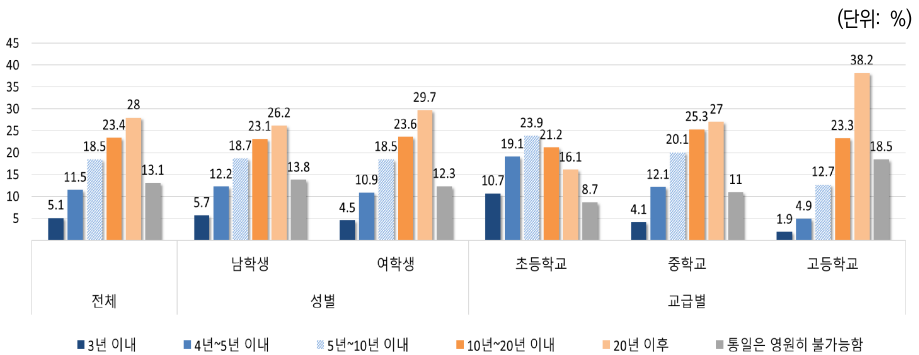


그림 III-8. 남북통일 가능 시기

#### 마.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일순위로 '남북 상호간의 신뢰구축'(22.5%)을 꼽았고, 이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14.7%), '남북한의 교류협력'(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순서는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남북한의 교류협력'(18.5%)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평화 통일 교육'(15.2%), '북한의 비핵화 조치'(14.1%), 그리고 '남북 상호간의 신뢰구축'(11.8%) 순으로 응답하였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순서가 없이 단순한 다중 응답으로 취급하여 분석하여도 이와 같은 응답패턴은 비슷한 순서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 응답이 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14.9%), ‘남북한의 교류협력’(10.5%),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9.7%), ‘통일비용 마련’(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13.9%)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남북한의 교류 협력’(13.5%), ‘평화 통일교육’(12.2%), ‘남북 정상 및 정부 간 대화’(10.8%) 순으로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 사이의 신뢰 구축이 첫 번째이고 이외의 것은 그것을 뒤따르는 것이라는 의견과 일맥상통하다(이종석,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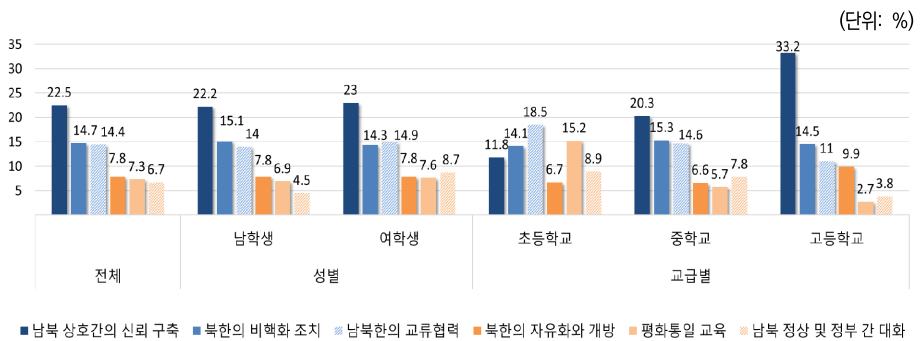


그림 III-9. 통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 바. 남북통일 시, 통일 한국의 국력 예상

남북통일 시,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력과 비교했을 때 응답 청소년들은 통일 한국의 국력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6.61점으로 평가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M=6.91)이 여학생(M=6.33)보다는 높게 예상하였고, 학교급 별로는 대체로 비슷한 정도로 예상하였다(중학교(M=6.55) < 고등학교(M=6.63) < 초등학교(M=6.66)).

표 III-3 남북한 통일 시, 통일한국의 국력 예상

구분	사례수(명)	10점 평균	10점 표준 편차
전체	(3228)	6.61	2.11
성별	남학생 (1547)	6.91	2.20
	여학생 (1667)	6.33	1.97
	무응답 (14)	6.93	2.56
학교급별	초등학교 (907)	6.66	2.11
	중학교 (1160)	6.55	2.11
	고등학교 (1161)	6.63	2.10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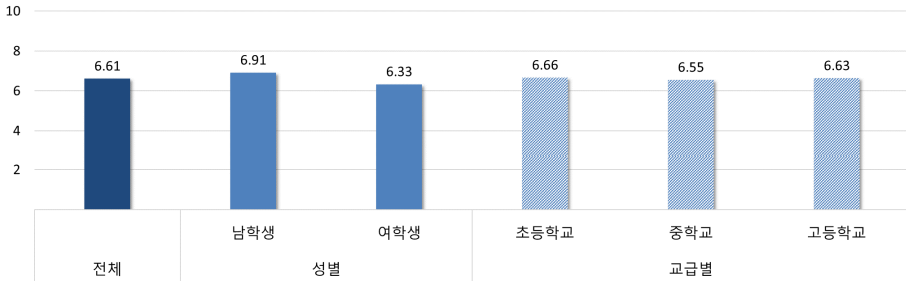


그림 III-10. 남북통일 시, 통일 한국의 국력 예상

### (3) 통일 교육

#### 가. 통일 교육이나 북한 관련 행사 프로그램 참여

최근 3년간 통일 교육이나 북한 관련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참가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5.8%)이 '경험 있음'이라고 응답하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준/만족도를 10점 만점에서 평균적으로 6.25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통일 교육, 북한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남학생, 53.1%; 여학생, 58.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60.6%)로 관련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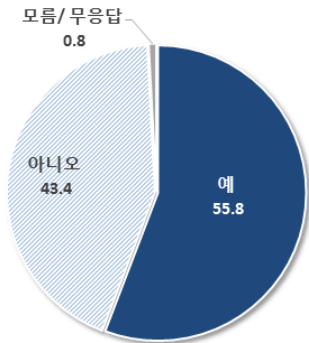
고등학생(56.1%), 뒤이어 초등학생 49.4%가 통일 교육, 북한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인 6.98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6.14,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이 5.88로 보고하고 있어,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통일 교육, 북한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많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4 최근 3년간 통일 교육/북한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여/참가 경험 및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전반적인 만족도	
					10점 평균	10점 표준 편차
전체	(3228)	55.8	43.4	0.8	6.25	1.86
성별	남학생 (1547)	53.1	46.0	0.9	6.32	1.98
	여학생 (1667)	58.1	41.2	0.8	6.19	1.76
	무응답 (14)	78.6	21.4	0.0	6.27	1.35
교급별	초등학교 (907)	49.3	49.4	1.3	6.98	1.88
	중학교 (1160)	60.6	38.6	0.8	6.14	1.77
	고등학교 (1161)	56.1	43.4	0.5	5.88	1.80

[Base=전체 응답자, N=3,228, 단위: %]



[Base=교육/프로그램 참여자, N=1,801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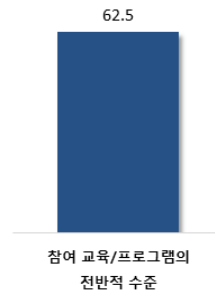


그림 III-11. 최근 3년 간 통일 교육, 북한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여 경험

나. 향후 통일 교육, 북한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여 의향

향후 통일 교육 및 북한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석 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절반 이상(57.4%)이 '의향 있음'으로, 34.4%는 '의향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추가적인 질문에서 참여 의사가 없음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33.9%), '학업이나 일상생활이 바빠 시간이 나지 않아서'(26.7%), '참여/참가하는 데 있어서 준비과정이 복잡하거나 번거로워서'(12.2%), '북한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어서'(11.0%)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 패턴은 성별과 학교급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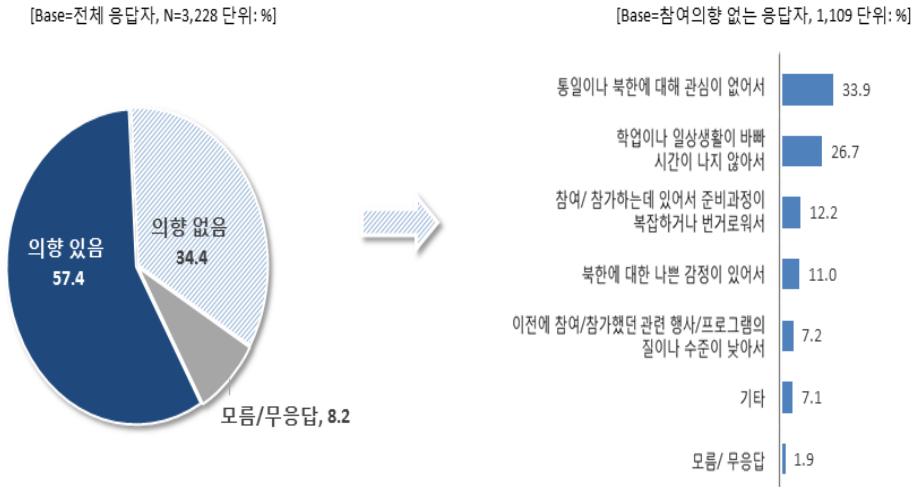


그림 III-12. 향후 통일 교육, 북한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여 의향

### 다. 통일/북한에 관한 선호하는 교육 방식

통일이나 북한에 관한 교육에 있어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는 ‘북한 견학/방문’(20.7%), ‘남한 내 북한관련 현장견학’(16.7%), ‘탈북 청소년과의 교류’(15.6%), ‘퀴즈대회나 게임’(14.3%), ‘동영상 교육’(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북한 견학/방문’(23.3%)에 이어서 ‘퀴즈대회나 게임’(16.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는 ‘탈북 청소년과의 교류’(21.3%), ‘남한 내 북한관련 현장견학’(18.5%), 그리고 ‘북한 견학/방문’(18.2%)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퀴즈대회나 게임’(22.2%)을, 중학생은 ‘북한 견학/방문’(20.8%)을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은 ‘탈북 청소년과의 교류’(22.3%)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통일 혹은 북한에 관한 교육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통일이나 북한에 관한 교육방식은 실내에서 강의식으로 듣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견학이나 교류 등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식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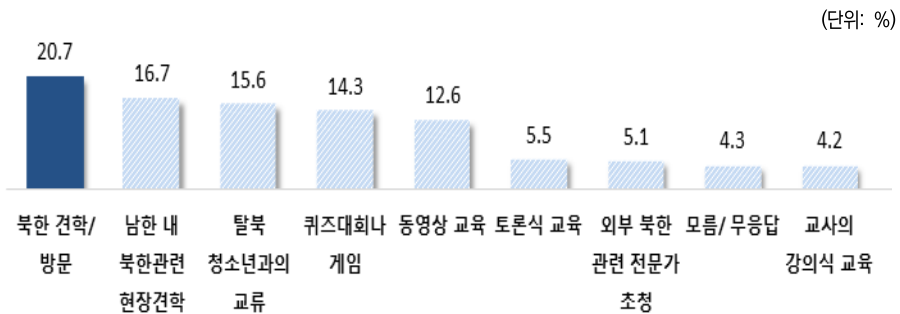


그림 III-13. 통일/북한에 관한 선호하는 교육방식

#### (4) 북한 청소년

##### 가. 북한 청소년 이미지

북한 청소년 이미지에 대해 1순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와 순위를 무시한 중복 응답으로 분석한 모든 경우에서 북한 청소년과 관련된 이미지로 ‘불쌍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난하다’, ‘신체가 왜소하다’ 혹은 ‘순수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 패턴은 성별이나 학교급에 따라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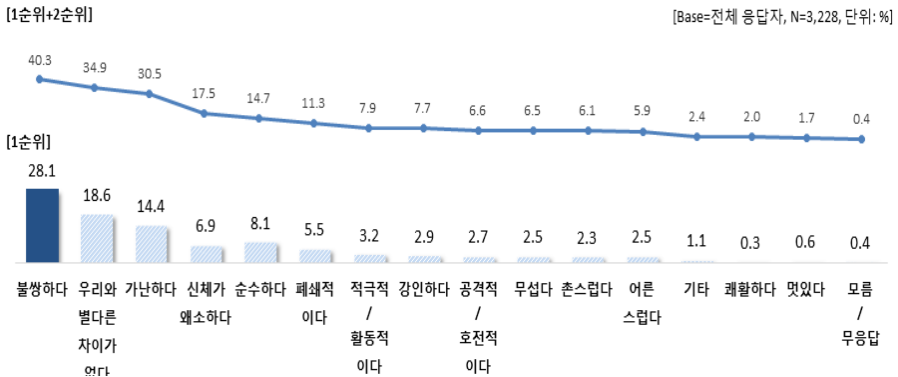


그림 III-14. 북한 청소년 이미지(1+2순위)

##### 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상대적인 호감도, 친근감, 신뢰도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상대적인 호감도, 친근감,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의 주변국과 국내 거주하는 북한 출신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호감도, 친근감, 신뢰도를 10점 척도로 청소년들이 평가한 결과, 북한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나 친근감,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친근감, 신뢰도는 ‘국내거주 다문화 청소년’ ‘미국’, ‘국내거주 북한 출신 청소년’보다 낮았으며, ‘중국’이나 ‘일본’ 청소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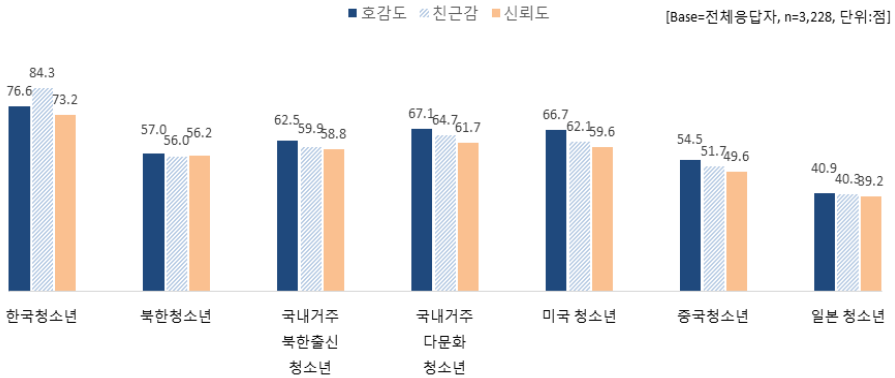


그림 III-15. 각국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친근감·신뢰도

#### 다. 남북한 청소년들의 다름/차이 수준

청소년들은 성별이나 학교급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남한과 북한 청소년들이 경제 수준에서 가장 많이 다르거나 차이가 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100점 만점 기준, 69.5점). 전체 응답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문화 수준’(64.7점), ‘학력 수준’(63.1점), ‘사고방식/가치관’(62.8점), ‘직업관/진로’(62.6점), ‘여가/취미활동’(62.4점), ‘경제 관념’(62.3점), ‘언어’(57.1점), ‘체력’(55.7점), ‘친구/교우 관계’(48.1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록 차이를 느끼는 정도가 성별이나 학교급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집단에서 가장 차이/다름이 있는 영역을 경제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가장 차이가 없는 영역을 친구/교우 관계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 급별로, 고등학생은 전반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하고 초등학생은 그 차이를 작게 평가하고 있다.

[Base=전체 응답자, N=3,228,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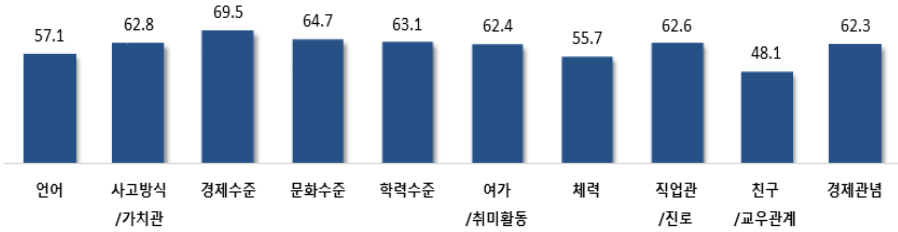


그림 III-16. 남북한 청소년들의 다름/차이 수준

라. 북한 청소년과 친근감 있는 교우 관계 맺을 가능성

북한 청소년과 쉽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42.9%) 응답보다 '부정'(56.7%)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이나 학교 급별로 살펴 보면, 여학생(57.6%)이 남학생(55.5%)에 비교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중학생(55.6%)과 고등학생(56.0%)에 비해 초등학생(58.9%)이 북한 청소년과 쉽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Base=전체 응답자, n=3,228,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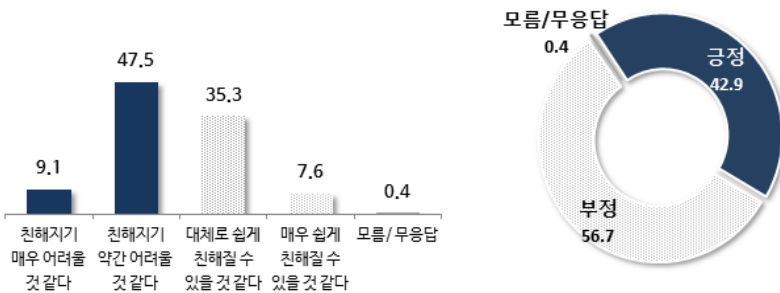


그림 III-17. 북한 청소년과 친근감 있는 교우관계 여부

## (5)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 가.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과 주체 및 방식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 필요성에 대해서 성별과 학교 급별과 상관없이 70% 이상이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학생(78.0%)이 남학생(70.1%)보다 남북한 청소년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높게 응답하였고, 중(74.7%)·고등학생(72.3%)에 비해서는 초등학생(76.1%)이 그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체 및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의견을 기준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92.6%)와 '청소년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92.2%)가 높은 등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8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류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북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서'(24.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15.1%) 그리고 '안전문제 때문'(13.1%)이라고 응답하였다. 주목할 점은 교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북한 청소년들과의 언어차이로 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서'(18.7%), 중학생의 경우는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11.6%), 그리고 고등학생은 두드러지게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20.9%) 남북한 청소년간의 교류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된 정부주도적인 교류를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부와의 신뢰구축 및 안전문제 해결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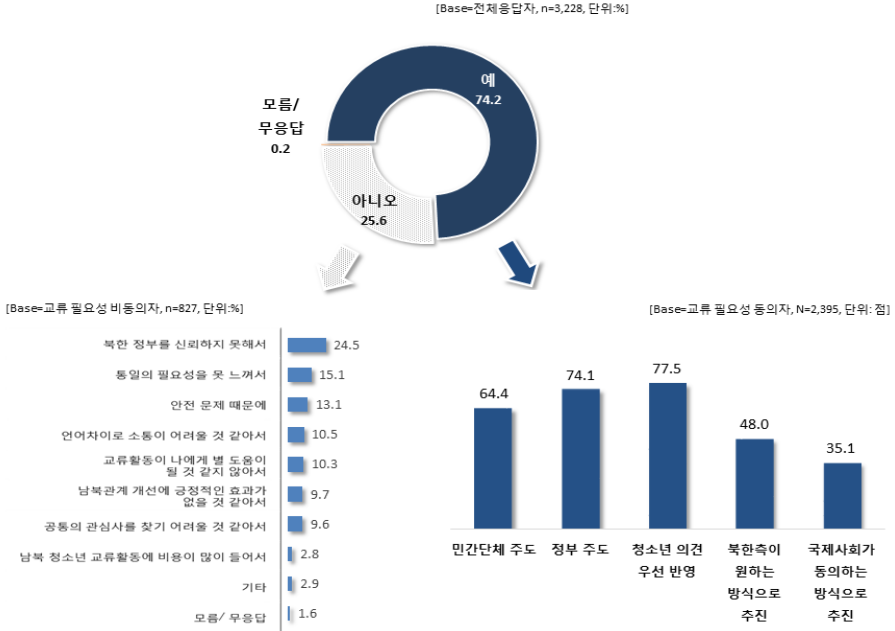


그림 III-18.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과 주체 및 방식

### 나.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동 장소

남북한 청소년이 교류할 경우 적합한 장소로 과반의 청소년 응답자들이 ‘남한과 북한을 번갈아서’(62.3%) 진행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판문점/공동경비구역’(22.9%), ‘남한에서만’(7.8%), ‘중국 등 주변 국가’(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 향후 1년 이내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 의향 여부

향후 1년 이내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6명가량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선호하는 유형을 1순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체육/스포츠 활동’(28.7%), ‘남북한 유적지/관광지

견학/관광'(20.8%), '예술 활동'(23.6%), '남북한 청소년 간의 SNS를 통한 일상적 교류'(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호하는 교류 활동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23.9%), '남과 북의 청소년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어서'(19.1%), '교류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기 좋은 활동이어서'(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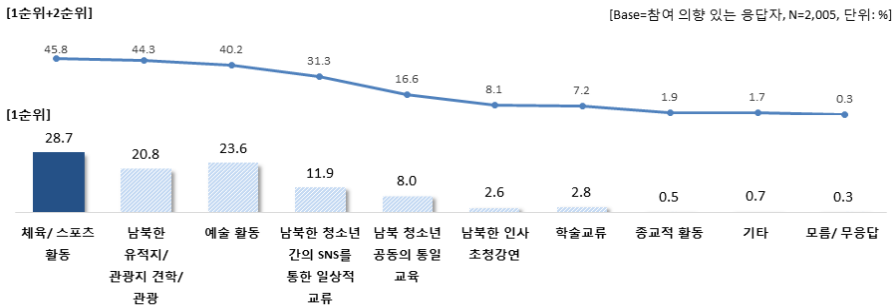


그림 III-19.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동 시 선호하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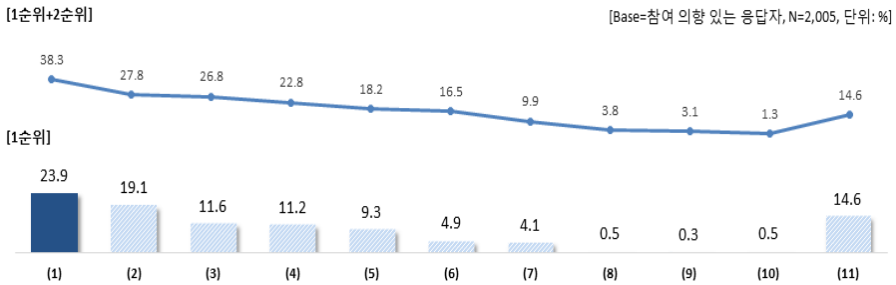


그림 III-20.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동 시 선호하는 유형

(1)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2) 남과 북의 청소년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어서, (3) 교류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기 좋은 활동이어서, (4)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활동이어서, (5) 남과 북의 청소년이 이질감을 좁힐 수 있는 활동이어서, (6) 전문적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7)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 같아서/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어서, (8) 교류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것이 비교적 많지 않은 활동이어서, (9) 재정적 부담이 덜해서/비교적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활동이어서, (10) 기타, (11) 모름/무응답

라.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북한 정부 때문에’라는 응답이 100점 만점 기준 6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남북한 서로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59.9점),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55.4점), ‘남한 국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54.7점), ‘주변 강대국 때문에’(54.5점), ‘한국 정부 때문에’(47.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1.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

#### 마. 남북한 청소년 간 동질감이 높은 분야

남북한 청소년들 간 교류 활동 영역 중 가장 쉽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는 ‘친선 스포츠 경기/대항전’(28.4%)을 가장 선호하였고, 이어서 ‘예술 교류 활동’(20.5%), ‘남북단일팀 스포츠 경기 참가’(17.7%), ‘유적지/관광지 답사’(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Base=전체 응답자, N=3,2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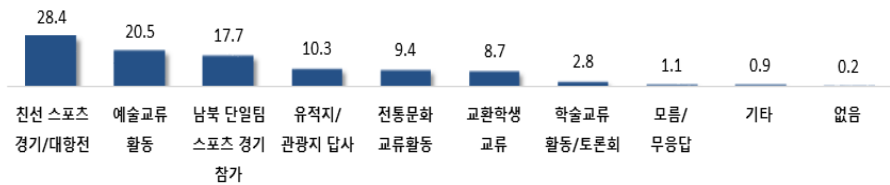


그림 III-22. 남북한 청소년 간 동질감이 높은 분야

#### 바. 북한 및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활동

북한 및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활동 경험에 대하여 대부분 청소년은 관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이와 관련하여 북한 및 북한 청소년들과의 교류 활동에 대해 ‘내가 사는 동네에 북한 출신의 이웃이 있다’(4.8%) 및 ‘공식적 활동 이외에 사적으로 북한 청소년과 대화나 소통을 한 적이 있다’(4.5%)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북한 관련 또는 북한 이탈 청소년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다’(3.9%), ‘친구 중 북한 출신 청소년이 있다’(3.9%), ‘교류나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 있다’(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 북한 청소년·북한 이탈 청소년 관련 교류행사/프로그램 참여 관련

북한 청소년이나 북한 이탈 청소년 관련 교류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 역시도 '전혀 없음' 응답이 97.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1회' 및 '2회' 응답이 각각 0.8%로 나타났다. 교류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직접 북한 청소년이나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난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38.8%), '만난 적 없음'(32.5%), '2회'(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이나 북한 이탈 청소년을 공식적으로 최초 만난 시기로는 '중학교'(37.0%), '초등학교 4~6학년'(29.6%), '초등학교 1~3학년'(13.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3. 심층 분석

이 장에서는 먼저, 선행연구(김형주, 권재기, 2014)와 본 연구의 기초분석에서 살펴본 듯이 남북한 교류와 통일의 필요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학교급, 특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심층 분석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한다. 또, 우리 청소년 개개인이 인식하는 남북한 청소년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여 개인의 잠재프로파일을 탐색적으로 찾아내고(Person-centered Approach, Bergman & Magnusson, 1997), 개인이 인식하는 차이/다름의 정도와 북한, 북한 청소년, 그리고 통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위한 중장기적 접근 방안을 찾아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에 답을 하고자 한다.

1. 남북한 간의 차이/다름 인식의 차이는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북한, 북한 청소년, 통일에 대한 태도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필요성에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3. 북한,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통일의 필요성을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고자 본 장에서는 각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Mplus 7 version(Muthén, & Muthén, 2012)을 이용하여 Latent Profile Analysis (LPA)를 실시하였고, SPSS 22.0에서 교차분석,  $t$ -test, ANOVA 등의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남북한 청소년 교류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위한 학문적,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남북한 차이 인식에 따른 집단 구분

청소년들 개개인이 응답한 남북한 차이에 대한 요인별 응답 패턴을 이용하여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한 뒤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을 이용하여 각 개인이 속하는 집단 멤버십(membership)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Magidson & Vermunt, 2002). 이를 위한 최종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집단의 구분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지의 여부, 정보지수, 그리고 모형 비교 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표 III-5>는 본 연구 응답자들의 잠재프로파일 적합 모형을 찾기 위한 적합도 지수들이다. AIC와 BIC등은 작을수록, LMR-LRT p와 BLRT p가 유의한 경우는 class의 수가 작은 모형을 선택하고, entropy는 그 크기가 클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그뿐만 아니라 연구에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 중의 하나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해석의 용이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표 III-5 남북한 차이 인식수준 잠재프로파일 분류 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Log-likelihood	AIC	BIC	BIC N-adj.	LMR-LRT p	BLRT p	Entropy
2	-67125.3	134312.618	134501.01	134402.509	0.0000	0.0000	0.868
3	-64948.839	129981.678	130236.917	130103.465	0.0000	0.0000	0.897
4	-64110.493	128326.986	128649.074	128480.670	0.0000	0.0000	0.863
5	-63762.795	127653.590	128042.527	127839.171	0.0004	0.0000	0.872

NOTE: AIC = Aikake's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N-adj. = BIC adjusted for sample size LMR-LRT p = Lo-Mendel-Ruben likelihood ratio test significance level, BLRT p =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significance level

〈표 III-5〉에서 보듯이 정보지수인 AIC와 BIC는 4집단 모형이 적합한 듯 보이나 그 외의 적합도 지수에서 3집단 모형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모형의 해석도 3집단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3집단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III-23〉처럼 3집단 잠재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프로파일 패턴이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이 분석의 취지가 남북한 차이에 대한 인식의 높고 낮음을 보기 위한 것임으로 각 집단 간의 차이 인식의 수준은 자명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한 집단(초록색 선)은 모든 남북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별 평균이 다른 집단에 대해 매우 낮고, 두 번째 집단(파란색 선)은 전체 평균과 매우 근접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집단(노랑색 선)은 모든 요인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잠재프로파일을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이 낮은 집단, 중간 집단, 그리고 높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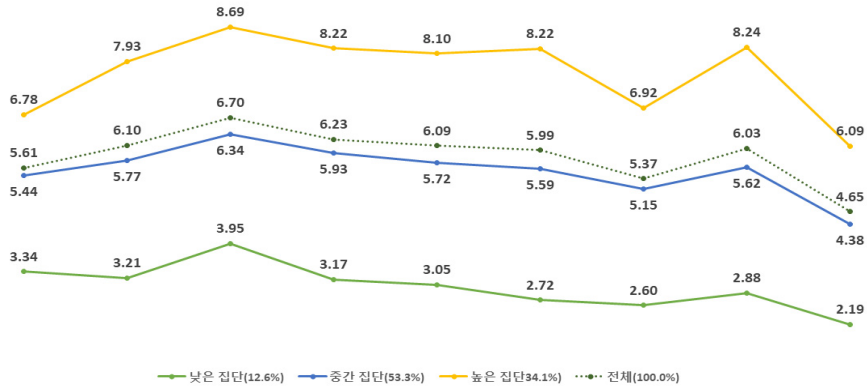


그림 III-23. 초/중/고등학생 남북한 차이 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형태 및 각 영역별 집단 평균

표 III-6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의 잠재프로파일 별 요인 평균과 표준편차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		
	낮은 집단(12.6%)	중간 집단(53.3%)	높은 집단(34.1%)
언어	3.34(1.73)	5.44(1.68)	6.78(1.96)
사고방식/가치관	3.21(1.57)	5.77(1.51)	7.93(1.69)
경제수준	3.95(1.78)	6.34(1.49)	8.69(1.36)
문화수준	3.17(1.54)	5.93(1.55)	8.22(1.68)
학력수준	3.05(1.44)	5.72(1.47)	8.10(1.66)
여가/취미 활동	2.72(1.42)	5.59(1.62)	8.22(1.69)
체력	2.60(1.49)	5.15(1.74)	6.92(2.23)
직업관/진로	2.88(1.54)	5.62(1.59)	8.24(1.65)
친구/교우 관계	2.19(1.33)	4.38(1.83)	6.09(2.59)
경제관념	2.95(1.45)	5.52(1.59)	8.26(1.67)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의 평균을 <표 III-6>에 제시하였다. 각 집단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남북한 사이의 차이인식이 낮은 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12.6%를, 중간 집단은 53.3%를, 남북한 간의 차이가 많다고 인식

하는 집단은 전체 응답 청소년 중 34.1%로 나타났다.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이 낮은 집단은 경제수준에 대한 차이 인식(M=3.95)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언어(M=3.34), 사고방식/가치관(M=3.21), 문화수준(M=3.17)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교우관계(M=2.19)에 대해 남한과 북한이 가장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간 집단 역시 경제수준(M=6.34)로 가장 높게 차이를 인식하는 요인이고, 이어서 문화수준(M=5.93), 사고방식/가치관(M=5.66), 학력수준(M=5.72) 순으로 나타났고, 중간집단도 낮은 집단과 마찬가지로 친구/교우관계(M=4.38)에 대한 차이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인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도 가장 인식의 차이가 높은 요인은 경제수준(M=8.69) 가장 낮은 요인은 친구/교우관계(M=6.09)로 나머지 두 집단과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 사이의 순서가 경제관념(M=8.26), 직업관/진로(M=8.24), 문화수준과 여가/취미활동(M=8.22)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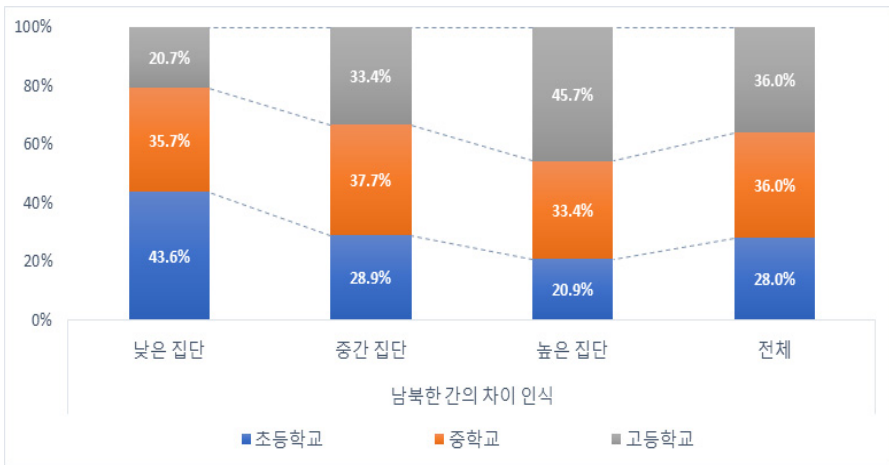


그림 III-24. 학교 급별 잠재프로파일 분포 차이

추가적으로, 각 학교 급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집단 분포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의 결과,  $\chi^2(4)=116.89(p < .001)$ 로 나타나 학교 급별 잠재프로파일 집단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체 초등학생 중 43.6%가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이 낮은 집단에, 20.9%가 높은 집단에, 고등학생의 경우는 45.7%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차이 인식이 큰 집단에, 20.7%가 낮은 집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형주와 권재기(2014)가 남북한 차이 인식이 대체로 학교 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결과이기도 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학교급이나 학년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경향성을 띠는 특징이기도 하다. 더욱이 본 연구는 청소년 개인의 응답패턴을 이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차이 인식이 아닌 전반적인 우리 청소년들의 남북한 차이 인식의 패턴이 학교 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III-7 학교급별 잠재프로파일 분포

(단위: 명(%))

구분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			전체	$\chi^2(df)$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초등학교	175(43.6)	498(28.9)	229(20.9)	902(28.0)	116.89*** (4)
중학교	143(35.7)	650(37.7)	366(33.4)	1,159(36.0)	
고등학교	83(20.7)	575(33.4)	501(45.7)	1,159(36.0)	
전체	401(100.0)	1,723(100.0)	1,096(100.0)	3,220(100.0)	

\* $p < .05$  \*\* $p < .01$  \*\*\* $p < .001$

## 2)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과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 통일에 대한 태도

현재 당면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통일 장애물 중의 하나는 오랜 분단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 벌어진 여러 사회문화적 차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도 남한과 북한 사이의 활발한 교류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일의 필요성이나 남북한 교류의 필요성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전에,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 그리고 통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먼저, 초등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이미지,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를 잠재프로파일 집단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생

**북한 이미지.**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에 따른 북한에 대한 이미지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다( $\chi^2(20)=36.34, p<.05$ ). 초등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그들이 속한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에 의한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이 낮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은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통일”이라고 응답하였다(낮은 집단, 52.3%; 중간 집단, 44.1%; 높은 집단, 29.6%). 반면에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이 높은 집단은 북한의 이미지를 “독재/인물”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높은 집단, 34.5%; 중간 집단, 22.5%; 낮은 집단, 19.5%). 최근 국제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가 세 번째로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이나, 이 부분 역시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이 높은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20.2%), 이어서 중간 집단(19.4%), 마지막으로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다(14.9%). 정리하자면, 대체로 남북한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더 긍정적이고, 반대로 차이가 크다고 인식할수록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II-8 초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북한이미지

(단위: 명(%))

구분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			전체	$\chi^2$ (df)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전체	174(100.0)	494(100.0)	223(100.0)	891(100.0)	36.34* (20)
한민족	9(5.2)	22(4.5)	10(4.5)	41(4.6)	
통일	91(52.3)	218(44.1)	66(29.6)	375(42.1)	
독재/인물	34(19.5)	111(22.5)	77(34.5)	222(24.9)	
가난/빈곤/기아	1(.6)	10(2.0)	5(2.2)	16(1.8)	
인권문제	1(.6)	5(1.0)	5(2.2)	11(1.2)	
탈북자	6(3.4)	16(3.2)	7(3.1)	29(3.3)	
경제 교류협력	0(0.0)	1(.2)	0(0.0)	1(.1)	
문화/예술 교류협력	2(1.1)	2(.4)	0(0.0)	4(.4)	
경제적 지원/원조	0(0.0)	1(.2)	0(0.0)	1(.1)	
핵/미사일 실험	26(14.9)	96(19.4)	45(20.2)	167(18.7)	
기타	4(2.3)	12(2.4)	8(3.6)	24(2.7)	

\* $p < .05$  \*\* $p < .01$  \*\*\* $p < .001$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한 차이 인식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집단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포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chi^2(14)=41.96, p < .001$ ). 비록 북한을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세 집단 모두에서 각각 1순위였지만,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 차이 인식이 낮은 집단은 69.0%, 중간 집단은 60.6%, 그리고 높은 집단은 47.8%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남한과 북한이 차이가 낮다고 인식하는 초등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모든 집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낮은 집단은 12.6%, 중간 집단은 20.3%, 그리고 높은 집단은 22.6%로 그 상대적인 비율은 차이가 있다. 이 역시 남북이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높은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III-9 초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			전체	$\chi^2$ (df)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전체	174(100.0)	497(100.0)	226(100.0)	897(100.0)	41.96*** (14)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할 대상	14(8.0)	24(4.8)	15(6.6)	53(5.9)	
우리나라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대상	7(4.0)	19(3.8)	8(3.5)	34(3.8)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	22(12.6)	101(20.3)	51(22.6)	174(19.4)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	2(1.1)	24(4.8)	22(9.7)	48(5.4)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	120(69.0)	301(60.6)	108(47.8)	529(59.0)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상	5(2.9)	17(3.4)	7(3.1)	29(3.2)	
우리나라에게 부담만 되는 대상	1(.6)	8(1.6)	9(4.0)	18(2.0)	
기타	3(1.7)	3(.6)	6(2.7)	12(1.3)	

\* $p < .05$  \*\* $p < .01$  \*\*\* $p < .001$

**통일 이미지.** 통일 이미지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도 남북한 차이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chi^2(12)=47.86$   $p < .001$ ). 다시 말해서 남북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집단은 통일 이미지에 대한 응답으로 평화/화합(48.3%), 이산가족(28.2%), 국가발전(13.2%) 순으로 응답하고 있고, 중간 집단은 평화/화합(40.1%), 이산가족(28.6%), 국가발전(11.9%) 순으로, 낮은 집단과 동일한 순서 패턴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반해 높은 집단은 평화/화합(35.2%), 이산가족(22.9%), 사회갈등/혼란(14.1%), 전쟁(11.9%)의 순으로 나머지 두 집단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꿔 말하면 남북한이 차이가 많다고 인식하는 초등학생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평화/화합, 이산가족)와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사회갈등/혼란, 전쟁, 통일비용)를 연관시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10 초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통일 이미지

(단위: 명(%))

구분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			전체	$\chi^2$ (df)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전체	174(100.0)	496(100.0)	227(100.0)	897(100.0)	47.86*** (12)
평화/화합	84(48.3)	199(40.1)	80(35.2)	363(40.5)	
전쟁	10(5.7)	38(7.7)	27(11.9)	75(8.4)	
이산가족	49(28.2)	142(28.6)	52(22.9)	243(27.1)	
사회갈등/혼란	4(2.3)	39(7.9)	32(14.1)	75(8.4)	
국가발전	23(13.2)	59(11.9)	15(6.6)	97(0.8)	
통일비용	1(.6)	15(3.0)	15(6.6)	31(3.5)	
기타	3(1.7)	4(.8)	6(2.6)	13(1.4)	

\* $p < .05$  \*\* $p < .01$  \*\*\* $p < .001$

통일가능시기. 통일가능시기에 대한 예측적 응답은 남북한 차이 인식에 따른 집단별로 그 분포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 분포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chi^2(10)=45.83, p < .001$ ). 남북의 차이 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는 ‘10년 이내 통일이 가능하다’가 63.2%, ‘10년 이상 20년 이내 가능하다’는 22.4%로 통일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는 중간인 집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통일이 10년 이내 가능하다 54.7%, 10년 이상 20년 이내 가능하다 22.1%로 통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높은 집단의 경우도 10년 이내 45.2%, 10년 이상 20년 이내 18.9% 등으로 나머지 두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만을 본다면 통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은 확실하다. 이에 반해 남북한 차이인식이 높은 집단은 17.1%가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함’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상대적으로 중간집단은 6.4%, 낮은 집단은 2.9%로 ‘통일이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에 대해 낮게 응답하고 있다. 이는 남북이 차이가 많다고 인식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통일은 영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1 초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통일가능시기

(단위: 명(%))

구분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			전체	$\chi^2$ (df)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전체	174(100.0)	497(100.0)	228(100.0)	899(100.0)	45.83*** (10)
3년 이내	29(16.7)	50(10.1)	18(7.9)	97(10.8)	
4년 ~ 5년 이내	42(24.1)	94(18.9)	37(16.2)	173(19.2)	
5년 ~ 10년 이내	39(22.4)	128(25.8)	48(21.1)	215(23.9)	
10년 ~ 20년 이내	39(22.4)	110(22.1)	43(18.9)	192(21.4)	
20년 이후	20(11.5)	83(16.7)	43(18.9)	146(16.2)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함	5(2.9)	32(6.4)	39(17.1)	76(8.5)	

\* $p < .05$  \*\* $p < .01$  \*\*\* $p < .001$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남북한 차이인식 집단에 따른 분포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보인다( $\chi^2(26)=105.51, p < .001$ ). 남북한 차이 인식이 낮은 집단은 38.6%가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로 응답하고 이어서 불쌍하다(16.4%), 가난하다(10.5%) 순으로 그 응답비율이 나타나고, 중간집단 역시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불쌍하다” 27%,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25.4%, “가난하다” 10.6%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북한 차이 인식이 높은 집단은 “불쌍하다” 35.3%, “가난하다” 19.0%, 그리고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8.6%로 나타났다.

추가로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친근감, 그리고 신뢰도에 대한 세 집단(낮은, 중간, 높은)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행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남북한 차이 인식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

827)=31.72,  $p<.001$ ). 이후 사후 분석 결과 역시 모든 조합의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남북한 차이 인식이 낮을수록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친근감,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남북한 차이 인식이 높은 집단은 이 모든 세 영역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았다(그림 III-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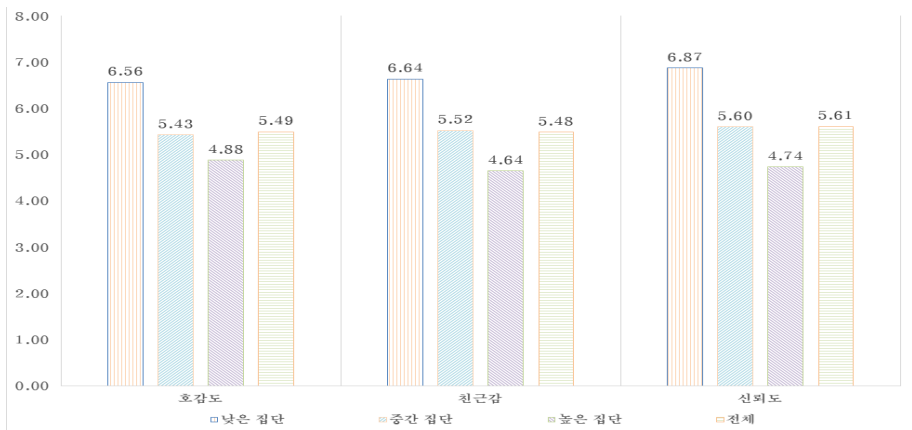


그림 III-25. 남북한 차이 인식 정도에 따른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의 평균비교(초등학생)

## (2) 중·고등학생

**북한 이미지.** 중·고등학생이 응답한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에 따른 북한 이미지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chi^2(20)=69.85, p<.001$ ). 초등학생들의 응답 분포와 같이 남북한 차이 인식이 낮은 집단은 북한과 연관하여 첫 느낌의 단어로 “통일”(42.9%), “독재/인물”(25.9%), “핵/미사일실험”(14.7%)의 순서대로 그 응답 비율이 분포한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중간 집단도 “통일”(33.3%), “독재/인물”(32.2%), “핵/미사일실험”(16.9%)의 순서로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 차이 인식이 높은 집단은 “독재/인물”(37.0%), “통일”(24.4%), “핵/미사일실험”(19.0%)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분포하고 있다. 세 집단 모두 북한을 통일과

연관하여 연상하고 있지만, 남북한 차이의 인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독재/인물을 통일보다 많이 연상단어로 꼽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응답 비율 역시 낮은 집단과 비교한다면 절반 수준밖에 못 미친다.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도 북한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단어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남북한 차이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I-12 중·고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북한 이미지

(단위: 명(%))

구분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			전체	$\chi^2$ (df)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전체	224(100.0)	1216(100.0)	864(100.0)	2304(100.0)	69.85*** (20)
한민족	13(5.8)	34(2.8)	16(1.9)	63(2.7)	
통일	96(42.9)	405(33.3)	211(24.4)	712(30.9)	
독재/인물	58(25.9)	391(32.2)	320(37.0)	769(33.4)	
가난/빈곤/기아	11(4.9)	57(4.7)	65(7.5)	133(5.8)	
인권문제	7(3.1)	28(2.3)	32(3.7)	67(2.9)	
탈북자	5(2.2)	59(4.9)	31(3.6)	95(4.1)	
경제 교류협력	0(0.0)	4(3)	1(1)	5(2)	
문화/예술 교류협력	0(0.0)	1(1)	3(3)	4(2)	
경제적 지원/원조	0(0.0)	2(2)	4(5)	6(3)	
핵/미사일 실험	33(14.7)	205(16.9)	164(19.0)	402(17.4)	
기타	1(4)	30(2.5)	17(2.0)	48(2.1)	

\* $p < .05$  \*\* $p < .01$  \*\*\* $p < .001$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한 차이 인식에 따른 집단별 북한에 대한 인식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chi^2(14)=102.55, p < .001$ ). 이제까지의 다른 분포들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차이 인식이 낮은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북한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북한은 우리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58.7%)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의 절반 수준인 32.6%가 북한을 우리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 남북한 인식 차이가 높은 중·고등학생 집단의 25.8%가 북한을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이어서 17.8%가 북한을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낮은 집단의 4.9%와 비교하면 3배 이상이다. 이외에도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 패턴을 살펴보면, 남북한 차이 인식이 높을수록 북한을 위험하고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중·고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			전체	$\chi^2(df)$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전체	225(100.0)	1221(100.0)	863(100.0)	2309(100.0)	102.55*** (14)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할 대상	22(9.8)	77(6.3)	54(6.3)	153(6.6)	
우리나라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대상	8(3.6)	38(3.1)	26(3.0)	72(3.1)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	35(15.6)	273(22.4)	223(25.8)	531(23.0)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	11(4.9)	121(9.9)	154(17.8)	286(12.4)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	132(58.7)	573(46.9)	281(32.6)	986(42.7)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상	11(4.9)	71(5.8)	52(6.0)	134(5.8)	
우리나라에게 부담만 되는 대상	4(1.8)	48(3.9)	57(6.6)	109(4.7)	
기타	2(.9)	20(1.6)	16(1.9)	38(1.6)	

\* $p < .05$  \*\* $p < .01$  \*\*\* $p < .001$

통일 이미지. 중·고등학생들의 통일 이미지에 대한 응답은 그들의 남북한 차이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chi^2(12)=53.73, p < .001$ ). 전체적으로 보면, 세 집단 모두에서 통일 이미지를 평화/화합(낮은 집단, 34.5%; 중간 집단, 27.7%;

높은 집단, 22.6%), 이산가족(낮은 집단, 26.5%; 중간 집단, 27.0%; 높은 집단, 21.2%)과 관련지어 우선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갈등/혼란(낮은 집단, 11.9%; 중간 집단, 12.6%; 높은 집단, 15.5%), 그리고 국가발전(낮은 집단, 14.2%; 중간 집단, 13.1%; 높은 집단, 12.5%), 통일비용(낮은 집단, 7.1%; 중간 집단, 9.7%; 높은 집단, 15.7%) 등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비슷한 응답 패턴을 보인다. 이는 남북한 차이 인식이 통일 이미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론과 함께 강혜련, 박보영, 정창률(2009)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은 본래 같은 민족이었다는 감정적인 입장과 우리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라는 양면적인 입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표 III-14 중·고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통일이미지

(단위: 명(%))

구분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			전체	$\chi^2$ (df)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전체	226(100.0)	1224(100.0)	867(100.0)	2317(100.0)	53.73*** (12)
평화/화합	78(34.5)	339(27.7)	196(22.6)	613(26.5)	
전쟁	11(4.9)	99(8.1)	97(11.2)	207(8.9)	
이산가족	60(26.5)	331(27.0)	184(21.2)	575(24.8)	
사회갈등/혼란	27(11.9)	154(12.6)	134(15.5)	315(13.6)	
국가발전	32(14.2)	160(13.1)	108(12.5)	300(12.9)	
통일비용	16(7.1)	119(9.7)	136(15.7)	271(11.7)	
기타	2(0.9)	22(1.8)	12(1.4)	36(1.6)	

\* $p < .05$  \*\* $p < .01$  \*\*\* $p < .001$

통일 가능 시기. 중·고등학생들이 응답한 통일 가능 시기는 남북한 차이 인식에 따른 집단별로 그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chi^2(10)=113.70$   $p < .001$ ).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전반적인 통일 가능성을 초등학생에 비하여 낮게 보는 경향성이 있다. 즉, 남북의 차이 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는

10년 이내 통일이 가능하다 39.82%, 10년 이상 20년 이내 가능하다 25.7%로 남북한 차이 인식이 낮은 집단의 절반 정도가 통일이 20년 안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간인 집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통일이 10년 이내 가능하다 32.81%, 10년 이상 20년 이내 가능하다 26.0%로 통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집단의 경우는 10년 이내 18.08%, 10년 이상 20년 이내 21.9% 등으로 나머지 두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더욱이 남북한 차이 인식이 높은 집단은 21.4%가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함”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중간 집단은 11.2%, 낮은 집단은 9.3%로 “통일이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고 있다. 이는 남북이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표 III-15 중·고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통일가능시기

(단위: 명(%))

구분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			전체	$\chi^2(df)$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전체	226(100.0)	1219(100.0)	863(100.0)	2308(100.0)	113.70*** (10)
3년 이내	12(5.3)	40(3.3)	17(2.0)	69(3.0)	
4년 ~ 5년 이내	29(12.8)	119(9.8)	49(5.7)	197(8.5)	
5년 ~ 10년 이내	49(21.7)	241(19.8)	90(10.4)	380(16.5)	
10년 ~ 20년 이내	58(25.7)	317(26.0)	189(21.9)	564(24.4)	
20년 이후	57(25.2)	365(29.9)	333(38.6)	755(32.7)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함	21(9.3)	137(11.2)	185(21.4)	343(14.9)	

\* $p < .05$  \*\* $p < .01$  \*\*\* $p < .001$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남북한 차이 인식 집단에 따른 분포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보인다

( $\chi^2(26)=215.50, p<.001$ ). 남북한 차이 인식이 낮은 집단은 37.4%가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로 응답하고, 이어서 불쌍하다(17.1%), 가난하다(7.7%) 순의 응답 비율이 나타나고, 중간 집단 역시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불쌍하다” 26.3%,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19.7%, “가난하다” 13.9%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북한 차이 인식이 높은 집단은 “불쌍하다” 37.7%, “가난하다” 20.6%, 그리고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8.7%로 나타났다.

추가로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친근감, 그리고 신뢰도에 대한 세 집단(낮은, 중간, 높은)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행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남북한 차이 인식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 2218)=37.71, p<.001$ ). 이후 사후 분석의 결과 역시 모든 조합의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남북한 차이 인식이 낮을수록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친근감,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남북한 차이 인식이 높은 집단은 이 모든 세 영역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았다(그림 III-26).

표 III -16 중고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과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단위: 명(%))

구분	남북한 간의 차이 인식			전체	$\chi^2$ (df)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전체	222(100.0)	1195(100.0)	832(100.0)	2249(100.0)	215.50*** (26)
순수하다	28(12.6)	105(8.8)	54(6.5)	187(8.3)	
불쌍하다	38(17.1)	314(26.3)	314(37.7)	666(29.6)	
적극적/활동적이다	7(3.2)	38(3.2)	10(1.2)	55(2.4)	
가난하다	17(7.7)	166(13.9)	171(20.6)	354(15.7)	
어느스럽다	6(2.7)	38(3.2)	10(1.2)	54(2.4)	
신체가 왜소하다	9(4.1)	114(9.5)	68(8.2)	191(8.5)	
촌스럽다	2(.9)	13(1.1)	21(2.5)	36(1.6)	
폐쇄적이다	8(3.6)	84(7.0)	59(7.1)	151(6.7)	
멋있다	4(1.8)	3(.3)	4(.5)	11(.5)	
무섭다	6(2.7)	26(2.2)	23(2.8)	55(2.4)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83(37.4)	235(19.7)	72(8.7)	390(17.3)	
강인하다	11(5.0)	40(3.3)	17(2.0)	68(3.0)	
쾌활하다	2(.9)	2(.2)	1(.1)	5(.2)	
기타	1(.5)	17(1.4)	8(1.0)	26(1.2)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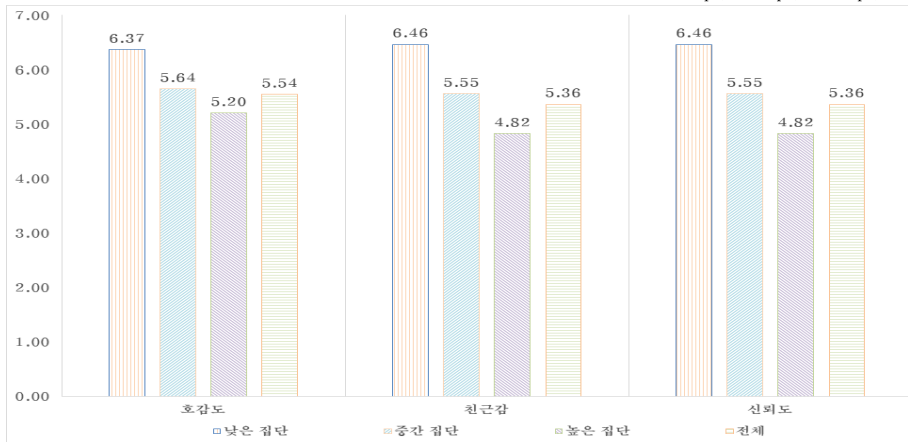


그림 III -26. 남북한 차이 인식 정도에 따른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의 평균 비교(중·고등학생)

### (3) 소결

본 절에서는 청소년들이 남북한 차이 인식과 북한이나 통일 그리고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작다고 인식할수록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생각이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견지에서, 또한 남북한의 교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둘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낮추는 일을 우선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 3) 남북한 청소년 교류 필요성

〈표 II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의 필요성에 동의(74.4%)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남북한 청소년간의 교류가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청소년들이 보고한 그들의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 그리고 통일에 대한 태도 등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편차를 고려하여 두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7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남북한 간의 차이			전체	$\chi^2$ (df)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예	342(85.3)	1332(77.5)	718(65.6)	2392(74.4)	78.37*** (2)
아니오	59(14.7)	387(22.5)	377(34.4)	823(25.6)	
전체	401(100.0)	1719(100.0)	1095(100.0)	3215(100.0)	

\* $p < .05$  \*\* $p < .01$  \*\*\* $p < .001$

(1) 초등학생

**북한 이미지.** 초등학생의 경우 특히나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가 필요하다는 초등학생들(N=690명, 76.1%)과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N=214명, 23.6%) 사이에서 북한과 연관하여 연상하는 이미지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18>에서 보듯이 이들 사이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10)=43.93, p<.0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초등학생은 북한과 연관한 이미지로 상대적으로 통일(47.0%)을 먼저 떠올리고, 이어서 독재/인물(22.2%), 핵/미사일(16.2%)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의 초등학생들은 북한 이미지에 대해 다수가 독재/인물(33.0%)과 핵/미사일(27.4%)로 응답하였고, 이어서 통일(25.9%) 순으로 북한과 관련 이미지로 꼽았다.

**표 III-18 초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 이미지**

(단위: 명(%))

구분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		전체	$\chi^2(df)$
	필요	불필요		
전체	681(100.0)	212(100.0)	893(100.0)	-
한민족	36(5.3)	6(2.8)	42(4.7)	43.926*** (10)
통일	320(47.0)	55(25.9)	375(42.0)	
독재/인물	151(22.2)	70(33.0)	221(24.7)	
가난/빈곤/기아	12(1.8)	5(2.4)	17(1.9)	
인권문제	7(1.0)	4(1.9)	11(1.2)	
탈북자	24(3.5)	5(2.4)	29(3.2)	
경제 교류협력	1(0.1)	0(0.0)	1(0.1)	
문화/예술 교류협력	4(0.6)	0(0.0)	4(0.4)	
경제적 지원/원조	1(0.1)	0(0.0)	1(0.1)	
핵/미사일 실험	110(16.2)	58(27.4)	168(18.8)	
기타	15(2.2)	9(4.2)	24(2.7)	

\* $p<.05$  \*\* $p<.01$  \*\*\* $p<.001$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필요하다는 초등학생들의 과반수가 북한을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66.7%)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15.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불필요하다는 초등학생들 역시 북한을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34.0%)으로 응답하고는 있지만, 교류가 필요하다는 태도의 초등학생 비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32.1%)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류가 필요하다는 태도의 초등학생들에 비교하여 높은 비율이다. 더욱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불필요하다는 태도의 초등학생들은 북한을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11.8%)이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표 III-19 초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		전체	$\chi^2$ (df)
	필요	불필요		
전체	687(100.0)	212(100.0)	899(100.0)	-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할 대상	40(5.8)	13(6.1)	53(5.9)	89.657*** (7)
우리나라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대상	26(3.8)	8(3.8)	34(3.8)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	107(15.6)	68(32.1)	175(19.5)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	23(3.3)	25(11.8)	48(5.3)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	458(66.7)	72(34.0)	530(59.0)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상	17(2.5)	12(5.7)	29(3.2)	
우리나라에게 부담만 되는 대상	8(1.2)	10(4.7)	18(2.0)	
기타	8(1.2)	4(1.9)	12(1.3)	

\* $p < .05$  \*\* $p < .01$  \*\*\* $p < .001$

**통일 이미지.** 통일 이미지와 관련하여서 남북한 청소년 교류 필요성의 인식 수준과 상관없이 많은 초등학생들은 평화/화합이나 이산가족을 연상하여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남북한 교류가 불필요하다는 태도의 초등학생은 상대적으로 전쟁(13.6%), 사회갈등/혼란(13.1%)의 순으로 이어서 응답하는 반면, 교류가 필요하다는 태도의 초등학생은 국가발전(11.8%)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III-20 초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 이미지

(단위: 명(%))

구분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		전체	$\chi^2$ (df)
	필요	불필요		
전체	686(100.0)	213(100.0)	899(100.0)	-
평화/화합	301(43.9)	64(30.0)	365(40.6)	41.208*** (6)
전쟁	46(6.7)	29(13.6)	75(8.3)	
이산가족	188(27.4)	55(25.8)	243(27.0)	
사회갈등/혼란	46(6.7)	28(13.1)	74(8.2)	
국가발전	81(11.8)	17(8.0)	98(10.9)	
통일비용	15(2.2)	16(7.5)	31(3.4)	
기타	9(1.3)	4(1.9)	13(1.4)	

\* $p < .05$  \*\* $p < .01$  \*\*\* $p < .001$

**통일 가능성.**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태도 역시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차이가 드러난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통일은 될 것이다”(95.3%)라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의 초등학생의 22.1%는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 III-21 초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남북통일 가능성

(단위: 명(%))

구분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		전체	$\chi^2$ (df)
	필요	불필요		
전체	688(100.0)	213(100.0)	901(100.0)	-
통일은 될 것이다	656(95.3)	166(77.9)	822(91.2)	61.662***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32(4.7)	47(22.1)	79(8.8)	(1)

\* $p < .05$  \*\* $p < .01$  \*\*\* $p < .001$

북한 및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북한 및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태도가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 필요성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평균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22>에서 보듯 청소년의 남북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초등학생( $M=5.35$ )이 그렇지 못한 초등학생( $M=3.92$ )보다 북한에 대한 관심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t=8.23, p < .001$ ). 이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t=8.71, p < .001$ )도 유의미하게 높고,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t=10.32, p < .001$ )도 높으며,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t=11.84, p < .001$ ), 친근감( $t=13.26, p < .001$ ), 그리고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신뢰도( $t=12.55, p < .001$ )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초등학생들이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I-22 초등학교 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

구분	남북한 교류						평균차	t
	필요			불필요				
	N	M	SD	N	M	SD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	667	5.35	2.152	208	3.92	2.315	1.433	8.230***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684	4.15	1.883	211	2.89	1.688	1.263	8.716***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673	5.03	2.078	211	3.36	1.969	1.671	10.320***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624	5.94	1.980	206	4.09	1.842	1.852	11.836***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625	6.04	2.176	208	3.78	1.985	2.261	13.262***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신뢰도	636	6.13	2.148	204	3.98	2.084	2.153	12.548***

\* $p < .05$  \*\* $p < .01$  \*\*\* $p < .001$

(2) 중·고등학생

청소년 남북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중·고등학생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1,705명(73.5%)과 그렇지 않은 613명(26.4%)으로 구분하여 북한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 통일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그리고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내는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북한 이미지.** 우선 중·고등학생들의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통일, 독재/인물, 그리고 핵/미사일 실험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미지가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의 남북한 교류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chi^2(10)=77.94, p < .001$ ).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중·고등학생들은 통일(34.7%)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어서 독재/인물(30.8%), 핵/미사일 실험(15.8%) 순으로 응답한 반면에, 남북한 청소년

년 교류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중·고등학생들은 독재/인물(40.3%)과 핵/미사일 실험(21.9%), 통일(20.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23 중·고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 이미지

(단위: 명(%))

구분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		전체	$\chi^2$ (df)
	필요	불필요		
전체	1693(100.0)	611(100.0)	2304(100.0)	-
한민족	60(3.5)	3(.5)	63(2.7)	77.939*** (10)
통일	588(34.7)	126(20.6)	714(31.0)	
독재/인물	522(30.8)	246(40.3)	768(33.3)	
가난/빈곤/기아	87(5.1)	47(7.7)	134(5.8)	
인권문제	53(3.1)	14(2.3)	67(2.9)	
탈북자	72(4.3)	23(3.8)	95(4.1)	
경제 교류협력	5(.3)	0(0.0)	5(.2)	
문화/예술 교류협력	4(.2)	0(0.0)	4(.2)	
경제적 지원/원조	3(.2)	3(.5)	6(.3)	
핵/미사일 실험	267(15.8)	134(21.9)	401(17.4)	
기타	32(1.9)	15(2.5)	47(2.0)	

\* $p < .05$  \*\* $p < .01$  \*\*\* $p < .001$

북한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의 결과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7)=286.05, p < .001$ ). 초등학생들의 반응 패턴처럼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필요하다는 중·고등학생들의 과반수가 북한을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51.8%)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필요 없다고 인식하는 중·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 응답 분포와는 달리 가장 많은 수가 북한을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30.8%)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21.3%),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17.4%), ‘우리나라에게 부담만 되는 대상’(11.6%)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4 중·고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		전체	$\chi^2$ (df)
	필요	불필요		
전체	1699(100.0)	610(100.0)	2309(100.0)	-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할 대상	118(6.9)	36(5.9)	154(6.7)	286.053 *** (7)
우리나라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대상	60(3.5)	12(2.0)	72(3.1)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	343(20.2)	188(30.8)	531(23.0)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	154(9.1)	130(21.3)	284(12.3)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	880(51.8)	106(17.4)	98(42.7)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상	66(3.9)	68(11.1)	134(5.8)	
우리나라에게 부담만 되는 대상	52(3.1)	58(9.5)	110(4.8)	
기타	26(1.5)	12(2.0)	38(1.6)	

\* $p < .05$  \*\* $p < .01$  \*\*\* $p < .001$

통일 이미지. 통일 이미지와 관련하여서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통일 이미지에 대해 평화/화합이나 이산가족을 연상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포를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로 분리하여 교차

분석 하면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chi^2(6)=141.05, p<.001$ ).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남북한 교류가 불필요하다는 태도의 중·고등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이미지를 매우 다양한 분포로 응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산가족(21.2%)을 시작으로 사회갈등/혼란(19.6%), 통일비용(18.6%), 평화/화합(16.5%), 전쟁(14.4%)의 순으로 그들의 응답분포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반하여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의 청소년들은 평화/화합(29.9%), 이산가족(26.2%), 국가발전(15.0%), 사회갈등/혼란(19.6%)으로 청소년 남북교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집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통일의 긍정적인 면을 떠올려 응답하였다. 이에 비하여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중·고등학생들은 두드러지게 많이 응답 비율을 나타내는 특정 이미지가 있기보다 전체적으로 고루 그 응답 비율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산가족(21.2%), 사회갈등/혼란(19.6%), 통일비용(18.6%), 평화/화합(16.5%), 전쟁(14.4%) 순으로 거의 모든 옵션에 응답이 퍼져있다.

표 III-25 중·고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 이미지

(단위: 명(%))

구분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		전체	$\chi^2(df)$
	필요	불필요		
전체	1704(100.0)	613(100.0)	2317(100.0)	-
평화/화합	510(29.9)	101(16.5)	611(26.4)	141.052*** (6)
전쟁	119(7.0)	88(14.4)	207(8.9)	
이산가족	446(26.2)	130(21.2)	576(24.9)	
사회갈등/혼란	196(11.5)	120(19.6)	316(13.6)	
국가발전	255(15.0)	46(7.5)	301(13.0)	
통일비용	156(9.2)	114(18.6)	270(11.7)	
기타	22(1.3)	14(2.3)	36(1.6)	

\* $p<.05$  \*\* $p<.01$  \*\*\* $p<.001$

**통일 가능성.**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생각 역시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응답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chi^2(1)=187.340$ ,  $p<.001$ ).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통일은 될 것이다”(91.2%)라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의 중·고등학생의 31.7%는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 III-26 중·고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남북통일 가능성**

(단위: 명(%))

구분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		전체	$\chi^2$ (df)
	필요	불필요		
전체	1700(100.0)	608(100.0)	2308(100.0)	-
통일은 될 것이다	1551(91.2)	415(68.3)	1966(85.2)	187.340***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149(8.8)	193(31.7)	342(14.8)	(1)

\* $p<.05$  \*\* $p<.01$  \*\*\* $p<.001$

**북한 및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태도.** 북한 및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태도가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 필요성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균 비교 분석 결과,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27>에서 보듯 남북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중·고등학생( $M=5.13$ )이 그렇지 못한 중·고등학생( $M=3.97$ )보다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 $t=11.81$ ,  $p<.001$ )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t=14.05$ ,  $p<.001$ )도 유의미하게 높고,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t=15.18$ ,  $p<.001$ )도 높으며,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t=15.23$ ,  $p<.001$ ), 친근감( $t=14.17$ ,  $p<.001$ ), 그리고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신뢰도( $t=12.83$ ,  $p<.001$ )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북한 및 북한 청소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남북한 교류도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중·고등학생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

구분	남북한 교류						평균차	t
	필요			불필요				
	N	M	SD	N	M	SD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	1662	5.13	1.977	606	3.97	2.122	1.168	11.806***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1698	3.40	1.719	613	2.37	1.508	1.038	14.053***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1667	4.96	1.953	610	3.52	2.034	1.446	15.181***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619	5.89	1.707	601	4.62	1.849	1.270	15.230***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1595	5.74	2.011	600	4.36	2.099	1.381	14.172***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신뢰도	1599	5.71	1.891	601	4.47	2.049	1.232	12.833***

\* $p < .05$  \*\* $p < .01$  \*\*\* $p < .001$

### (3) 소결

본 절에서는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 통일에 관한 생각, 그리고 북한이 나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와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우선 이들의 관계에서 이전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보여주던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학교급 모두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교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통일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일수록 교류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에게 관심이 있고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이 있는 청소년들이 남북한 교류는 필요하다고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북한 이미지나 통일에 관한 생각을 더 알려주고,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에 관한 관심이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4) 남북한 청소년 통일 필요성 인식

본 설문에 참여한 초등학교 907명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109명은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75.2%에 해당하는 682명은 '통일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116명(12.8%)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겠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초등학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중·고등학교인 65.0%(N=1,508명)가 '통일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고, 22.7%(N=526명)가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12.4%에 해당하는 287명은 통일 필요성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통일을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 그리고 통일에 대한 태도 등이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초등학교

**북한 이미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북한 이미지에 대한 초등학교의 응답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10)=52.72, p<.001$ ). 의심할 여지없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대다수 초등학교생들은 북한 이미지로 '통일'(47.5%)이라고 응답하였고, '독재/인물'(21.4%), '핵/미사일'(16.6%)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초등학교생들은 '독재/인

물’(47.7%)을 북한 이미지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어서 ‘핵/미사일 실험’(22.4%)을 다음으로 ‘통일’(18.7%)을 북한하면 떠오르는 연상단어로 선택하였다. 이는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있었을 때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8 초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 이미지

(단위: 명(%))

구분	통일 필요성		전체	$\chi^2$ (df)
	필요	불필요		
전체	673(100.0)	107(100.0)	780(100.0)	-
한민족	38(5.6)	1(.9)	39(5.0)	52.72*** (10)
통일	320(47.5)	20(18.7)	340(43.6)	
독재/인물	144(21.4)	51(47.7)	195(25.0)	
가난/빈곤/기아	11(1.6)	3(2.8)	14(1.8)	
인권문제	7(1.0)	2(1.9)	9(1.2)	
탈북자	22(3.3)	2(1.9)	24(3.1)	
경제 교류협력	1(.1)	0(0.0)	1(.1)	
문화/예술 교류협력	3(.4)	0(0.0)	3(.4)	
경제적 지원/원조	1(.1)	0(0.0)	1(.1)	
핵/미사일 실험	112(16.6)	24(22.4)	136(17.4)	
기타	14(2.1)	4(3.7)	18(2.3)	

\* $p < .05$  \*\* $p < .01$  \*\*\* $p < .001$

북한에 대한 인식.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chi^2(7)=182.90, p < .001$ ). 특히 ‘통일은 필요하다’는 초등학생의 과반수(70.5%)가 북한은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이라

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일은 필요하다'라는 초등학생의 14.4%는 북한을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초등학생의 43.1%는 북한을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과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이 동일하게 13.8%의 응답 비율을 보였고,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대상'(9.2%)과 '우리나라에게 부담만 되는 대상'(9.2%)이라고 인식하는 비율 역시 동일하게 그 뒤를 따랐다. 결국, 북한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위험한 존재나 부담이 되는 존재, 관심 밖의 존재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통일을 불필요한 것이라는 태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초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통일 필요성		전체	$\chi^2(df)$
	필요	불필요		
전체	681(100.0)	109(100.0)	790(100.0)	-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할 대상	38(5.6)	4(3.7)	42(5.3)	182.895*** (7)
우리나라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대상	25(3.7)	4(3.7)	29(3.7)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	98(14.4)	47(43.1)	145(18.4)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	21(3.1)	15(13.8)	36(4.6)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	480(70.5)	15(13.8)	495(62.7)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상	10(1.5)	10(9.2)	20(2.5)	
우리나라에게 부담만 되는 대상	4(6)	10(9.2)	14(1.8)	
기타	5(7)	4(3.7)	9(1.1)	

\* $p < .05$  \*\* $p < .01$  \*\*\* $p < .001$

**통일 이미지.** 통일 필요성과 통일 이미지의 교차분석 결과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chi^2(6)=166.73, p<.001$ ). 특히 통일의 이미지를 ‘평화/화합’(46.2%), ‘이산가족’(28.6%), ‘국가발전’(12.5%) 등으로 연관 지어 응답하는 초등학교생들은 역시 ‘통일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통일이 불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초등학교생들의 경우는 통일을 ‘사회갈등/혼란’(26.6%), 전쟁(21.1%), ‘평화/화합’(15.6%), ‘이산가족’(15.6%), ‘통일비용’(11%)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초등학교생들은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초등학교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통일 이미지

(단위: 명(%))

구분	통일 필요성		전체	$\chi^2(df)$
	필요	불필요		
전체	679(100.0)	109(100.0)	788(100.0)	-
평화/화합	314(46.2)	17(15.6)	331(42.0)	166.734*** (6)
전쟁	36(5.3)	23(21.1)	59(7.5)	
이산가족	194(28.6)	17(15.6)	211(26.8)	
사회갈등/혼란	30(4.4)	29(26.6)	59(7.5)	
국가발전	85(12.5)	4(3.7)	89(11.3)	
통일비용	14(2.1)	12(11.0)	26(3.3)	
기타	6(0.9)	7(6.4)	13(1.6)	

\* $p<.05$  \*\* $p<.01$  \*\*\* $p<.001$

**통일 가능성.** 통일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chi^2(5)=219.42, p<.001$ ).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초등학교생의 80% 이상은 통일이 20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3년 이내, 12.4%; 3~5년 이내, 22.4%; 5~10년 이내, 26.8%; 10~20년 이내,

23.1%). 반면에,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의 초등학생들은 통일이 20년 이후에 나 가능(29.4%)하거나 혹은 ‘영원히 불가능 하다’(37.6%)라고 응답하였다. 통일 필요성의 인식이 통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통일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인식이 통일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1 초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와 남북통일이 가능할 시기

(단위: 명(%))

구분	통일 필요성		전체	$\chi^2(df)$
	필요	불필요		
전체	680(100.0)	109(100.0)	789(100.0)	-
3년 이내	84(12.4)	0(0.0)	84(10.6)	219.422*** (5)
3년~5년 이내	152(22.4)	8(7.3)	160(20.3)	
5년~10년 이내	182(26.8)	10(9.2)	192(24.3)	
10년~20년 이내	157(23.1)	18(16.5)	175(22.2)	
20년 이후	90(13.2)	32(29.4)	122(15.5)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함	15(2.2)	41(37.6)	56(7.1)	

\* $p < .05$  \*\* $p < .01$  \*\*\* $p < .001$

북한 및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북한 및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태도와 초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32>에서 보듯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초등학생( $M=5.42$ )이 그렇지 못한 초등학생( $M=4.00$ )보다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 $t=5.91,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t=8.55, p < .001$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높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t=7.72, p < .001$ )도 높았으며,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t=8.83, p < .001$ ), 친근감( $t=9.47, p < .001$ ), 그리고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신뢰도( $t=9.42, p<.001$ )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통일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초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북한 및 북한 청소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와 북한,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

구분	통일 필요성						평균차	t
	필요			불필요				
	N	M	SD	N	M	SD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	655	5.42	2.076	108	4.00	2.356	1.423	5.909***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676	4.20	1.813	109	2.61	1.790	1.597	8.549***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664	4.99	2.043	108	3.35	2.097	1.642	7.717***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615	5.89	1.973	106	4.05	2.077	1.847	8.833***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616	5.92	2.176	106	3.75	2.260	2.178	9.467***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신뢰도	628	6.04	2.161	104	3.86	2.325	2.179	9.420***

\* $p<.05$  \*\* $p<.01$  \*\*\* $p<.001$

## (2) 중·고등학생

북한 이미지. 통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북한 이미지 응답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10)=125.15, p<.001$ ).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들은 북한 이미지로 ‘통일’(37.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독재/인물’(29.1%), ‘핵/미사일’(15.2%)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들은 ‘독재/인물’(43.6%)을 북한 이미지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핵/미사일 실험’(22.0%)과 ‘통일’(14.7%)을 북한 이미지와 관련하여 응답하였다. 이는 초등학생의 응답 분포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이 역시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있었을 때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3 중·고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 이미지

(단위: 명(%))

구분	통일 필요성		전체	$\chi^2$ (df)
	필요	불필요		
전체	1498(100.0)	523(100.0)	2021(100.0)	-
한민족	56(3.7)	2(.4)	58(2.9)	125.151*** (10)
통일	565(37.7)	77(14.7)	642(31.8)	
독재/인물	436(29.1)	228(43.6)	664(32.9)	
가난/빈곤/기아	75(5.0)	41(7.8)	116(5.7)	
인권문제	47(3.1)	19(3.6)	66(3.3)	
탈북자	53(3.5)	25(4.8)	78(3.9)	
경제 교류협력	4(.3)	1(.2)	5(.2)	
문화/예술 교류협력	4(.3)	0(0.0)	4(.2)	
경제적 지원/원조	3(.2)	2(.4)	5(.2)	
핵/미사일 실험	228(15.2)	115(22.0)	343(17.0)	
기타	27(1.8)	13(2.5)	40(2.0)	

\* $p < .05$  \*\* $p < .01$  \*\*\* $p < .001$

북한에 대한 인식. 그뿐만 아니라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chi^2(7)=519.03$ ,  $p < .001$ ). 특히 '통일은 필요하다'는 중·고등학생의 과반수(57.1%)는 북한은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일은 필요하다'라고 답한 중·고등학생의 18.6%는 북한을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에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중·

고등학생의 33.0%는 북한을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23.7%),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대상’(14.3%)과 ‘우리나라에게 부담만 되는 대상’(11.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생들과 달리 중·고등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북한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위험한 존재나 부담이 되는 존재, 관심 밖의 존재 등 상대적으로 통일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태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중·고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통일 필요성		전체	$\chi^2$ (df)
	필요	불필요		
전체	1502(100.0)	524(100.0)	2026(100.0)	-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할 대상	112(7.5)	29(5.5)	141(7.0)	519.030 *** (7)
우리나라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대상	48(3.2)	15(2.9)	63(3.1)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	279(18.6)	173(33.0)	452(22.3)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	119(7.9)	124(23.7)	243(12.0)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	858(57.1)	38(7.3)	896(44.2)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상	34(2.3)	75(14.3)	109(5.4)	
우리나라에게 부담만 되는 대상	32(2.1)	61(11.6)	93(4.6)	
기타	20(1.3)	9(1.7)	29(1.4)	

\* $p < .05$  \*\* $p < .01$  \*\*\* $p < .001$

**통일 이미지.** 중·고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통일 이미지의 교차분석 결과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chi^2(6)=342.38, p<.001$ ). 특히 통일의 이미지를 ‘평화/화합’(33.0%), ‘이산가족’(25.7%), ‘국가발전’(17.1%) 등으로 연관 지어 응답한 중·고등학생들은 역시 ‘통일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통일이 불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통일을 ‘사회갈등/혼란’(26.6%), ‘통일비용’(23.6%), ‘이산가족’(18.0%), ‘전쟁’(14.8%), ‘평화/화합’(11.0%)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중·고등학생들은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중·고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통일 이미지

(단위: 명(%))

구분	통일 필요성		전체	$\chi^2(df)$
	필요	불필요		
전체	1507(100.0)	526(100.0)	2033(100.0)	-
평화/화합	497(33.0)	58(11.0)	555(27.3)	342.381*** (6)
전쟁	95(6.3)	78(14.8)	173(8.5)	
이산가족	388(25.7)	95(18.0)	483(23.8)	
사회갈등/혼란	139(9.2)	141(26.8)	280(13.8)	
국가발전	258(17.1)	20(3.8)	278(13.7)	
통일비용	108(7.2)	124(23.6)	232(11.4)	
기타	22(1.5)	10(1.9)	32(1.6)	

\* $p<.05$  \*\* $p<.01$  \*\*\* $p<.001$

**통일 가능성.** 통일 가능한 시기에 대한 생각들은 중·고등학생의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5)=356.98, p<.001$ ).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중·고등학생의 60% 이상은 통일이 20년 안에 가능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3년 이내, 3.6%; 3~5년 이내, 10.7%; 5~10년 이내, 20.4%; 10~20년 이내, 28.4%). 반면에,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의 중·고등학생들은 통일은 '20년 이후에나 가능'(36.8%)하거나 혹은 '영원히 불가능하다'(36.8%)라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통일 예측 가능성 분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통일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통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통일을 불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통일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6 중·고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남북통일이 가능할 시기

(단위: 명(%))

구분	통일 필요성		전체	$\chi^2(df)$
	필요	불필요		
전체	1503(100.0)	522(100.0)	2025(100.0)	-
3년 이내	54(3.6)	8(1.5)	62(3.1)	356.983*** (5)
3년~5년 이내	161(10.7)	16(3.1)	177(8.7)	
5년~10년 이내	307(20.4)	38(7.3)	345(17.0)	
10년~20년 이내	427(28.4)	76(14.6)	503(24.8)	
20년 이후	458(30.5)	192(36.8)	650(32.1)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함	96(6.4)	192(36.8)	288(14.2)	

\* $p < .05$  \*\* $p < .01$  \*\*\* $p < .001$

북한 및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북한 및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태도와 중·고등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평균 비교 분석 결과,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37>에서 보듯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중·고등학생( $M=5.27$ )이 그렇지 못한 중·고등학생( $M=4.05$ )보다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 $t=11.23,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t=18.63, p<.001$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t=13.52, p<.001$ )도 높았으며,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t=11.95, p<.001$ ), 친근감( $t=10.92, p<.001$ ), 그리고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신뢰도( $t=10.36, p<.001$ )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통일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북한 및 북한 청소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중·고등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북한 및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

구분	통일 필요성						평균차	t
	필요			불필요				
	N	M	SD	N	M	SD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	1468	5.27	1.919	516	4.05	2.193	1.221	11.231***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1502	3.51	1.707	526	2.15	1.348	1.368	18.629***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1473	5.01	1.931	521	3.59	2.117	1.427	13.524***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1428	5.89	1.747	517	4.80	1.844	1.088	11.952***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1416	5.73	2.033	509	4.56	2.178	1.170	10.924***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신뢰도	1415	5.71	1.924	509	4.61	2.081	1.092	10.357***

\* $p<.05$  \*\* $p<.01$  \*\*\* $p<.001$

### (3) 소결

통일에 대한 태도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였다. 비록 학교급에 따른 통일에 관한 생각은 차이가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 통일 이미지, 통일 가능성, 그리고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인식의 패턴에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교류의 필요성 인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태도를 보일수록, 또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태도를 보일수록,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수록, 또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통일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관련 선행연구들은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북한에 대한 사적인 관련성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약화됨을 지적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일 필요성의 인식과 여러 북한 관련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면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당위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 북한에 대해 필요한 인식 개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핵심은 통일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남한과 북한 사이의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동시에 이질감의 축소,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통일의 물꼬를 트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북한, 통일, 그리고 북한 청소년에 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여 남북한 청소년 교류 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단계적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나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인식 중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적 공동체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적으로 인식하는 양면적 태도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습득했다기보다 오히려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한 감정적인 정보가 우선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지나친 학업량으로 인해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양면적 태도가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주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반포용적 자세로 견제의 태도가 완고해져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일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고 극단적으로 통일에 대해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북한이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가 증가하고, 이것이 교류의 필요성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청소년들이 남북한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 교류의 필요성 인식,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 관련 청소년들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남한과 북한과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는 남북한 교류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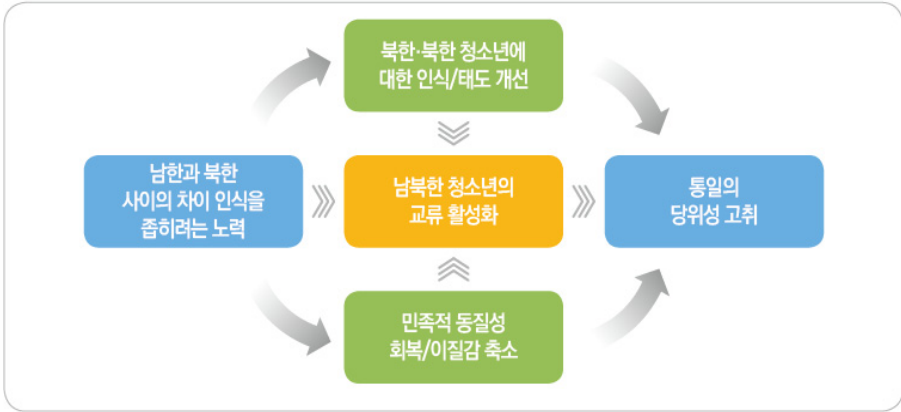


그림 Ⅲ-27. 청소년 의식 수준 조사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예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1.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가장 직접적으로 남한과 북한 청소년들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성을 축소하는데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이와 같은 남과 북에 대한 인식개선은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식 개선은 청소년의 자발적인 교류 참여로 연결되어 통일의 당위성 고취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2.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본 조사의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이 매우 피상적이고 감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즉, 우리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먼저 필요한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청소년이 스스로 북한에 관한 관심을 두고 북한에 대한 인식

을 바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정치적 목적에 상응하는 목적적인 방식의 정보제공이 아닌 청소년들에 의한 탐색적인 방법으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청소년 스스로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 본 인식조사의 결과가 말해 주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통일의 당위성 약화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준비에 앞선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이전에 남과 북이 하나였다는 동질감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 ————— IV. 경기도 A고등학교 사례 분석

- 1. 조사개요
- 2. A고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  
그룹 간 비교분석
- 3. A고 청소년의 교류활동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비교
- 4. 초점집단면접조사  
(Focus Group Interview)



## 1. 조사개요<sup>24)</sup>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기도 A고등학교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양적·질적 조사를 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북한청소년과 직접적인 교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A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관한 정책방안 마련에 유용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은 A고 학생 지원자들 중 20여명이 선발되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소속된 B학교를 방문하거나 B학교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A학교로 방문하는 형식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동안 이루어지며,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통일골든벨’이란 이름의 퀴즈 게임, 스포츠 등의 다양한 활동과 식사를 함께하고 사담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된다.

연구진은 교류활동의 보다 정확한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체계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하였다. 첫째, 2장에서 소개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그룹의 조사결과와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했던 A고 소속 청소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간접적이거나 남북한 청소

24) 이 장은 배상을 연구위원과 이정민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년 교류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북한 및 통일 그리고 남북청소년 교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둘째, 경기도 A고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전과 후에 북한 및 통일 그리고 남북청소년 교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각각 수행하여 교류활동 전후에 걸쳐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만으로는 충분한 파악이 어려운 남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청소년의 시각과 주장의 구체적·맥락적 이해를 위하여 교류활동에 참여한 A고 소속 다섯 명의 청소년들과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수행하였다. 경기도 A고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의 복합적 분석방법으로 도출된 조사결과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사업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실증적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A고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 그룹 간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앞 장에서 서술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1,100여명에 대한 조사결과와 경기도 A고등학교 소속으로 북한이탈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총 47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주요 문항별로 비교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두 그룹 간 차이이다. <그림 IV-1>은 일반 청소년과 A고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top 3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IV-1>에서 보듯이, 두 그룹 간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극명히 갈린다. 일반 청소년 그룹의 경우 독재/인물(32.3%), 통일(29.2%), 핵/미사일 실험(17.0%) 순으로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반면, A고의 경우 통일(34.8%), 한민족(19.6%), 북한이탈청소년/탈북자(14.9%)를 차지하였다. 일반 청소년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 A고 청소년은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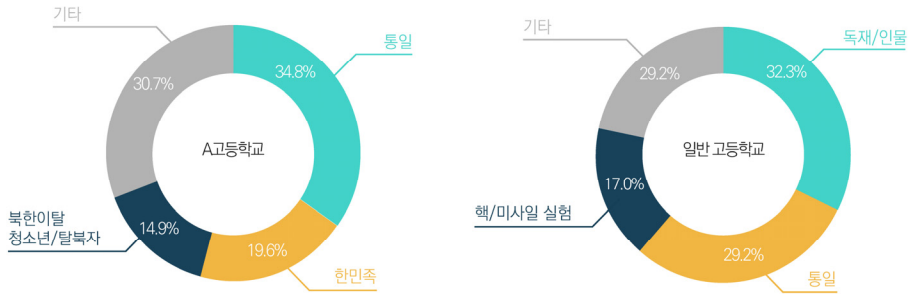


그림 IV-1. 북한에 대한 이미지 top 3

〈표 IV-1〉에 나타났듯이,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도 두 그룹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A고의 경우 열 명 중 일곱 명꼴로 ‘북한을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 열 명 중 네 명꼴(38.9%)로 이 같은 인식에 동의하였고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24.8%),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14.6%)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연히 갖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도 열 명 중 네 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상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할 대상	우리나라에 부담만 되는 대상	우리나라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대상	기타	모름/무응답	계
A고교	(47)	70.2	6.4	6.4	4.3	2.1	0.0	8.5	2.1	0.0	100.0
고등학교	(1161)	38.9	24.8	14.6	6.0	5.9	4.7	2.5	2.2	0.4	100.0

북한에 대한 관심수준,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북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각각 10점 척도로 물었다. 북한에 대한 관심수준은 A고 청소년(M=7.87)이 일반 고등학생(M=4.98)보다 월등히 높았다. 북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역시 A고 청소년(M=8.22)이 일반 고등학생들(M=4.5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앞의 두 항목에 비해 두 그룹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A고 청소년은 4.57의 평균값을 보였으며 일반 고등학생은 이보다 낮은 2.91의 평균값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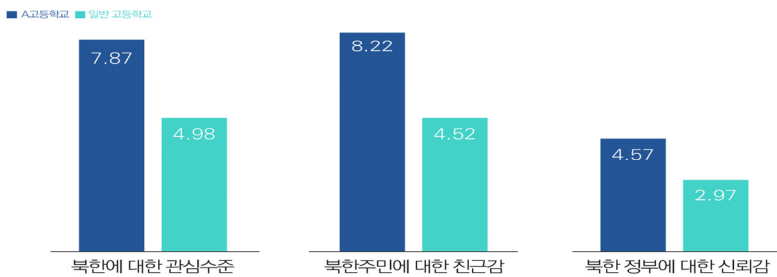


그림 IV-2. 북한에 대한 관심수준,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북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통일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 앞서 살핀 문항들과 달리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A고 청소년의 경우, 평화/화합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절반이상인 56.5%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이산가족(19.6%), 사회갈등/혼란(6.5%)이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일반 고등학생 역시 평화/화합(25.8%), 이산가족(22.4%), 사회갈등/혼란(15.5%) 순으로 A고 청소년과 순위는 동일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응답률을 들여다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위인 평화/화합을 선택한 A고 청소년은 56.6%로 일반고 응답률인 25.8%보다 두 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위인 사회갈등/혼란의 경우 A고 청소년이 6.5%에 그쳐 일반 고등학생 그룹의 15.5%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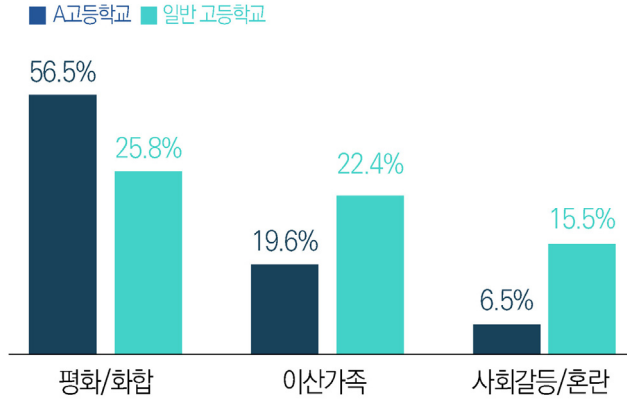


그림 IV-3. 통일에 대한 이미지 top 3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A고 청소년의 대다수인 85%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고등학생 그룹은 다섯 명 중 세 명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한 정도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A고 청소년의 절반가량인 53.2%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고등학생 그룹은 15.1%에 머물렀다.

표 IV-2 남북통일 필요성에 대한 동의수준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불필요	*필요
A고교	(47)	4.3	4.3	31.9	53.2	6.4	8.5	85.1
고등학교	(1161)	5.6	20.8	45.6	15.1	13.0	26.4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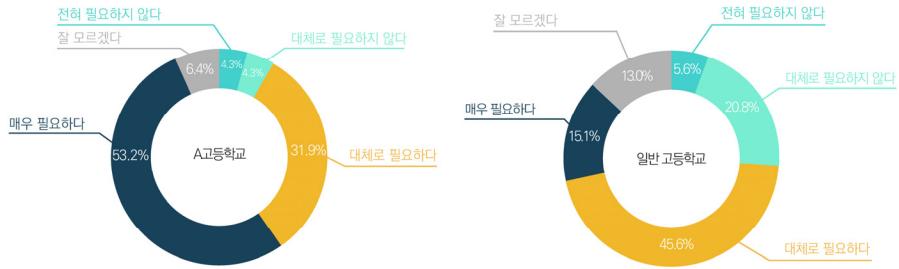


그림 IV-4. 남북통일 필요성에 대한 동의수준

A고 청소년의 8.5%만이 남북통일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들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일 후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라고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일반 고등학생 그룹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들 역시 ‘통일 후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A고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물었다. A고 청소년 그룹의 top 3 이유는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42.1%),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서’(26.3%),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15.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고등학생 그룹의 통일이 필요한 이유 top 3은 ‘통일한국의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35.2%), ‘전쟁위협 등 안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22.4%),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서’(16.2%)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A고는 통일의 필요성으로 인권적·감정적인 면을, 일반 고등학생 그룹은 경제적·실용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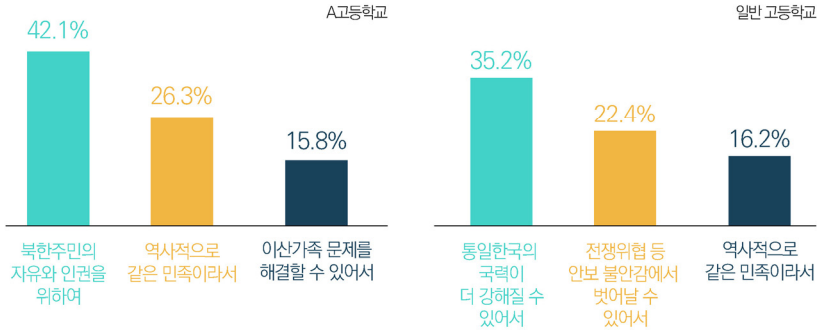


그림 IV-5. 남북통일 필요성의 이유 top 3

남북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A고 청소년들은 ‘주변 강대국의 비협조 및 방해’(28.3%),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21.7%), ‘한국 국민들의 통일odzi/인식 부족’(19.1%), ‘북한 정부의 통일 의지/역량 부족’(19.1%)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일반 고등학생 그룹은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32.6%), ‘북한정부의 통일odzi/역량 부족’(27.8%), ‘주변 강대국의 비협조 및 방해’(18.8%)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A고 청소년들은 외부세력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정치경제 체제라는 구조적인 면을, 일반 고등학생 그룹은 체제 차이에 따른 구조적인 면과 함께 북한정부의 태도를 남북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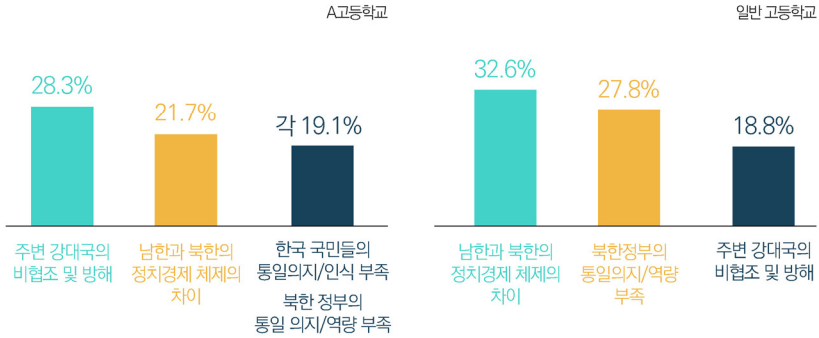


그림 IV-6.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 top 3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A고 청소년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구축(38.3%), 남북한의 교류협력(25.5%),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10.6%)을, 일반 고등학생 그룹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구축(33.2%), 북한의 비핵화 조치(14.5%), 남북한의 교류협력(11.0%)을 우선적으로 각각 들었다(〈표 IV-3〉 참조). 〈표 IV-4〉에서 보듯이, A고의 경우에는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경우도 순위의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1순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의 비핵화 조치	남북 정상 및 정부 간 대화	통일 비용 마련	통일 협정 체결	주변 나라들의 협조	평화 통일 교육	북한의 경제 발전	남한의 경제 발전	북한에 대한 다각적 지원	기타	모름/무응답
A고교	(47)	38.3	25.5	10.6	8.5	6.4	4.8	4.3	2.1	0.0	0.0	0.0	0.0	0.0	0.0	0.0
고등학교	(1161)	33.2	11.0	9.9	3.5	14.5	3.8	6.3	5.1	4.6	2.7	2.6	1.6	0.2	0.3	0.3

표 IV-4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1+2순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의 비핵화 조치	남북 정상 및 정부 간 대화	통일 비용 마련	통일 협정 체결	주변 나라들의 협조	평화 통일 교육	북한의 경제 발전	남한의 경제 발전	북한에 대한 다각적 지원	기타	모름/무응답
A고교	(47)	27.7	18.1	10.6	8.5	8.5	4.3	6.4	2.1	6.4	3.2	2.1	0.0	0.0	0.0	0.0
고등학교	(1161)	44.9	31.4	15.7	22.3	18.5	12.5	13.9	4.5	11.5	9.0	8.0	3.9	0.3	1.5	0.4

통일한국의 전반적인 국력에 대한 10점 척도 상 평가에 대한 조사결과, A고의 평균값은 7.85로 일반 고등학교 그룹의 6.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현재의 국력보다 궁극적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평가한 비율이 일반 고등학생 그룹보다 A고 청소년들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 IV-5 남북한 통일 시, 통일한국의 국력 예상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 편차
A고교	(47)	7.85	1.98
고등학교	(1161)	6.63	2.10



그림 IV-7. 남북한 통일 시, 통일한국의 국력 예상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선호방식에 대한 질문에 A고 청소년 66%는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교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고등학생 그룹도 역시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교류를 1위로 꼽았으나 비율은 A고의 삼분의 일인 22.3%에 머물렀다. 두 그룹의 top 5 선호방식에서 각 1개 항목을 제외하고 퀴즈대회나 게임, 북한 견학/방문 등 나머지 4개의 항목은 동일하다. A고의 경우 토론식 교육이 3위를 차지하였으나 일반 고등학생 그룹에는 top 5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대신 일반 고등학생 그룹에는 동영상 교육이 선호하는 교육 방식의 5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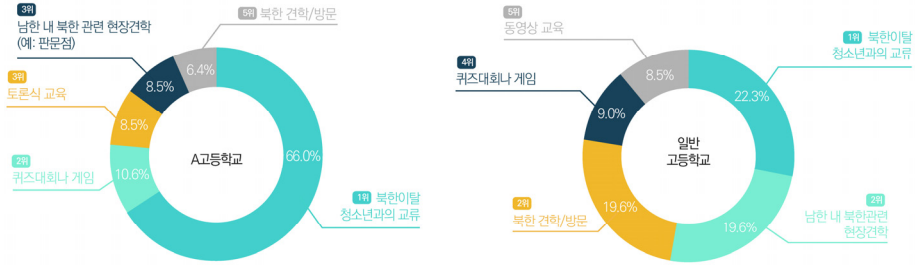


그림 IV-8. 통일/북한에 관한 교육 시 선호하는 방식 top 5

북한청소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두 그룹 간의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고등학생 그룹의 북한청소년 이미지 1순위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불쌍하다(28.8%),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16.4%), 가난하다(15.1%), 신체가 왜소하다(10.6%), 폐쇄적이다(7.8%)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A고 청소년들의 1순위 응답 내용에 따르면, 적극적/활동적이다(31.9%), 순수하다(29.8%),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17.0%), 어른스럽다(10.6%), 신체가 왜소하다(4.3%)로 나타났다. 즉, 일반 고등학생 그룹의 경우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응답 이외에 북한청소년에 대한 이미지로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A고 청소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응답결과의 합산한 내용을 살펴보면, A고 청소년들에게 북한청소년들은 주로 적극적/활동적이다(55.8%), 순수하다(45.0%),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45.0%), 어른스럽다(21.5%), 신체가 왜소하다(10.8%)란 이미지로 연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A고 청소년들의 1순위 조사결과와 동일한 순위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고등학생 그룹도 1순위 조사결과와 동일한 top 5 순위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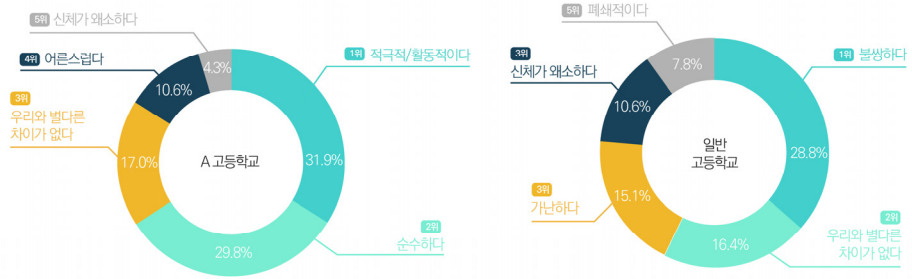


그림 IV-9. 북한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top 5(1순위)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언어, 사고방식 등 주요 영역별 다름/차이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에 있어서도 역시 A고 청소년들과 일반 고등학생 그룹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표 IV-6>과 <그림 IV-10>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A고 청소년들이 일반 고등학생들보다 남·북한 청소년 간의 각 영역별 차이를 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그룹 간 가장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사고방식/가치관'으로 조사되었다. 사고방식/가치관 영역에 있어 일반 고등학생 그룹은 6.94로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들 사이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반면, A고 청소년들은 4.06으로 남한과 북한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6 주요 영역별 남북한 청소년의 다름/차이 인식 수준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사례수	언어	사고 방식/ 가치관	경제 수준	문화 수준	학력 수준	여가/ 취미 활동	체력	직업관 /진로	친구/ 교우 관계	경제 관념
A고교	(47)	4.79 (1.83)	4.06 (1.96)	5.28 (1.99)	5.21 (2.17)	5.49 (2.20)	4.45 (2.29)	3.36 (1.81)	3.53 (2.02)	2.70 (1.43)	4.09 (1.78)
고등학교	(1161)	5.94 (2.02)	6.94 (2.04)	7.35 (1.96)	7.04 (2.07)	6.77 (2.13)	6.87 (2.21)	5.70 (2.31)	6.68 (2.28)	4.77 (2.46)	6.66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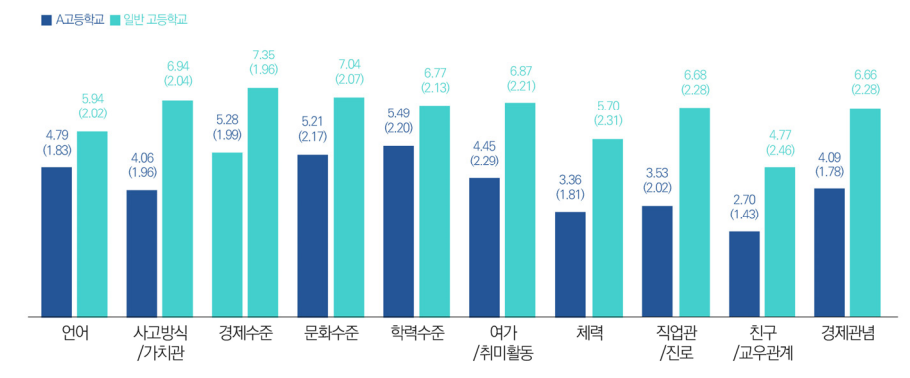


그림 IV-10. 남북한 청소년들의 다름/차이 수준

〈표 IV-7〉을 살펴보면, 북한 청소년을 실제로 만났을 때 쉽게 친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A고 청소년 그룹과 일반 고등학생 그룹 간의 응답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고 청소년들 10명 중 9명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고등학생 그룹의 44%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IV-7 북한 청소년과 쉽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명)	친해 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친해 지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다	대체로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매우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모름/무응답	*부정*	*긍정*	4점 평균	4점 표준편차
A고교	(47)	2.1	8.5	57.4	31.9	0.0	10.6	89.4	3.19	0.68
고등학교	(1161)	9.4	46.6	37.6	6.2	0.2	56.0	43.8	2.41	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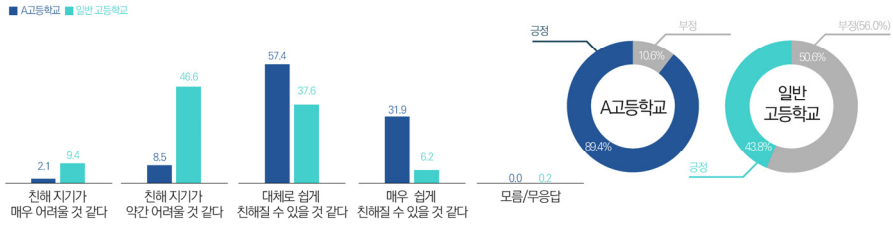


그림 IV-11. 북한 청소년과 친근감 있는 교류관계 여부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A고 청소년들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고 청소년 응답자의 95.7%가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일반 고등학생들은 네 명 중 한 명꼴(27.6%)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1년 이내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A고 청소년의 대부분인 97.8%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반 고등학생들의 경우 다섯 명 중 세 명꼴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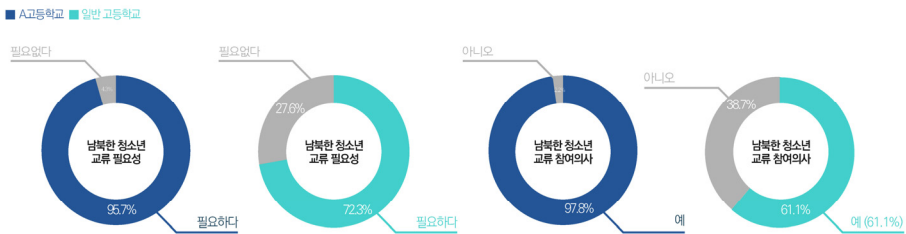


그림 IV-12.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의 필요성 동의 여부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의 필요성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걸음 더 들어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주체 및 추진방식에 대한 동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표 IV-8>에 나타났듯이, 총 다섯 개의 교류 추진 주체 및 방식에 대한 서술문들 중 A고 청소년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M=3.60)와 ‘청소년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M=3.39)는 항목에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일반 고등학생 그룹도 1위와 2위의 순서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A고와 비슷한 순위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북한 측이 원하는 교류 방식과 내용에 따라야 한다’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A고가 일반 고등학생 그룹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두 그룹 모두 청소년의 의견이 남북한 교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물꼬를 터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8 남북 청소년 교류 주제/방식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진행 동의 못함	동의 못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름/ 무응답	*비동의*	*동의*	4점	4점
									평균	표준편차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A고교 (47)	6.4	14.9	55.3	19.1	4.3	21.3	74.5	2.91	0.79
	고등학생 (839)	3.5	19.5	67.0	9.9	0.1	23.0	76.9	2.83	0.64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A고교 (47)	0.0	2.1	34.0	59.6	4.3	2.1	93.6	3.60	0.54
	고등학생 (839)	1.2	5.2	61.3	32.1	0.2	6.4	93.3	3.24	0.60
청소년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A고교 (47)	0.0	6.4	44.7	42.6	6.4	6.4	87.2	3.39	0.62
	고등학생 (839)	0.2	5.4	48.4	45.3	0.7	5.6	93.7	3.40	0.60
북한 측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야	A고교 (47)	14.9	44.7	27.7	8.5	4.3	59.6	36.2	2.31	0.85
	고등학생 (839)	12.5	42.8	38.5	5.8	0.4	55.3	44.3	2.38	0.78
미, 중 등 국제사회가 동의를 하는 방식/내용으로	A고교 (47)	46.8	40.4	4.3	4.3	4.3	87.2	8.5	1.64	0.77
	고등학생 (839)	35.9	38.9	21.6	3.3	0.4	74.7	24.9	1.92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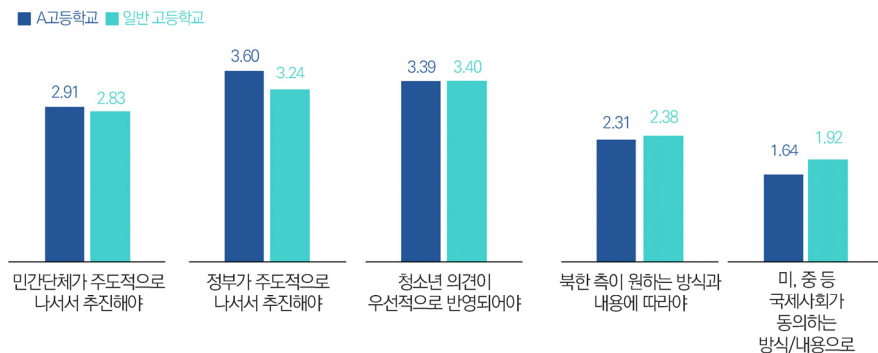


그림 IV-13. 평균값에 대한 바그래프로 각 영역별 두 개 그룹 비교

〈표 IV-9〉에 따르면,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동 시 선호하는 교류 유형으로 A고 청소년들은 체육/스포츠 활동(36.2%)을 가장 선호하며 그 뒤를 이어 남북한 유적지/관광지 견학이나 관광(21.3%), 음악, 미술, 공연 등의 예술 활동(17.0%)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고등학생 그룹도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였다.

〈표 IV-10〉의 1순위와 2순위 응답 내용을 합산한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개의 그룹 모두에서 남북한 인사 초청강연은 인기가 없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 간의 SNS를 통한 일상적 교류가 일반 고등학생 그룹에서 4위를 A고 청소년 그룹에서는 5위를 차지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IV-9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동 선호 유형 (1순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체육/스포츠 활동	남북한 유적지/관광지 견학/관광	예술 활동	남북 청소년 공동의 통일교육	SNS 통한 일상교류	학술교류/토론회	남북한 인사 초청강연	종교적 활동	기타	모름/무응답
A고교	(47)	36.2	21.3	17.0	8.5	6.4	6.4	0.0	0.0	2.1	2.1
고등학교	(709)	25.1	24.8	22.4	3.8	15.5	4.9	1.8	0.4	0.8	0.3

표 IV-10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동 선호 유형 (1+2순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체육 /스포츠 활동	남북한 유적지/ 관광지 견학 /관광	예술 활동	남북 청소년 공동의 통일교육	SNS 통한 일상교류	학술교류 /토론회	남북한 인사 초청강연	종교적 활동	기타	모름/ 무응답
A고교	(47)	70.2	44.7	25.5	19.1	17.0	14.9	0.0	0.0	4.3	4.3
고등학교	(709)	42.9	46.1	40.2	10.3	37.7	9.3	7.6	1.4	1.7	0.3

앞서 살핀 것같이 특정 교류활동을 우선순위로 꼽은 주된 이유로 A고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들 그룹에서 모두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와 ‘남과 북의 청소년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어서’, 그리고 ‘교류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기 좋은 활동이어서’라는 항목이 top 3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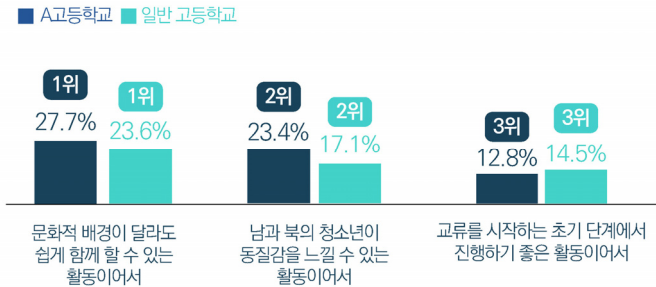


그림 IV-14. 선호하는 교류활동 이유 top 3(1순위)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 연간 활동 희망 횟수에 있어서 A고 청소년들은 연 2회~4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연 2회 34.8%, 연 3회 10.9%, 연 4회 34.8%를 차지하였다. 일반 고등학생 그룹도 연 2회 응답자 비율(33.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연 3회가 14.5%, 연 1회 이하가 11.4%, 연 4회가 11.1%로 나타났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A고 청소년들과 일반 고등학생 그룹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고 청소년들이 5점 만점의 척도에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항목은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시간부족’(M=3.85)을 들었다. 그 뒤를 이어 ‘북한정부 때문에’(M=3.80), ‘남북한 서로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에’(M=3.59), ‘주변 강대국 때문에’(M=3.43), ‘남한 국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M=3.2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고등학생 그룹은 가장 큰 이유로 ‘북한 정부 때문’(M=3.74)이라고 응답하였고 ‘남북한 서로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M=3.53), ‘남한 국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M=3.39),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시간부족 때문’(M=3.37)도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인 응답 패턴의 차이를 살펴보면, A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시간부족’이 남북청소년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주요인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일반 고등학생 그룹은 교류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교류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사례수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북한 정부 때문에	남북한 서로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에	주변 강대국 때문에	남한 국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	교류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부족	교류활동을 위한 시설/인프라 부족	담당 전문인력 부족	북한 주민/청소년의 무관심	한국 정부 때문에
A고교	(46)	3.85 (1.01)	3.80 (0.75)	3.59 (1.04)	3.43 (0.98)	3.24 (1.04)	3.15 (1.25)	3.11 (1.21)	2.98 (1.18)	2.89 (1.02)	2.83 (0.77)
고등학교	(1131)	3.37 (1.17)	3.74 (0.85)	3.53 (0.99)	3.27 (1.03)	3.39 (0.95)	3.34 (0.97)	3.34 (1.00)	3.14 (1.00)	3.28 (0.92)	3.03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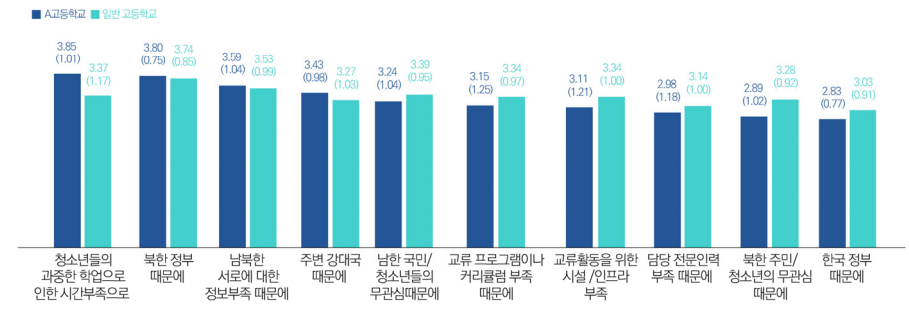


그림 IV-15. 두 그룹 간의 항목별 평균 차

남북한 청소년들 사이의 교류 활동 영역 중에서 서로에게 동질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두 그룹 간 응답 패턴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IV-12>에 따르면,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가 A고 청소년들과 일반 고등학생 그룹에서 모두 동일하다: 1위-친선 스포츠 경기/대항전(A고 38.3%: 일반고 29.5%); 2위-예술교류활동(A고 19.1%: 일반고 21.4%); 3위-남북 단일팀 스포츠 경기 참가(A고 12.8%: 일반고 17.8%); 4위-교환학생 교류(A고 10.6%: 일반고 11.5%); 5위-유적지/관광지 답사(A고 4.3%: 일반고 9.4%).

표 IV-12 남북한 청소년들 간 교류 활동 영역 중 서로 동질감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친선 스포츠 경기/대항전	예술 교류 활동	남북 단일팀 스포츠 경기 참가	교환 학생 교류	유적지/관광지 답사	전통문화 교류활동	학술교류 활동/토론회	모름/무응답	기타	없음
A고교	(47)	38.3	19.1	12.8	10.6	4.3	2.1	2.1	0.0	10.6	0.0
고등학교	(1161)	29.5	21.4	17.8	11.5	9.4	6.0	0.6	0.3	1.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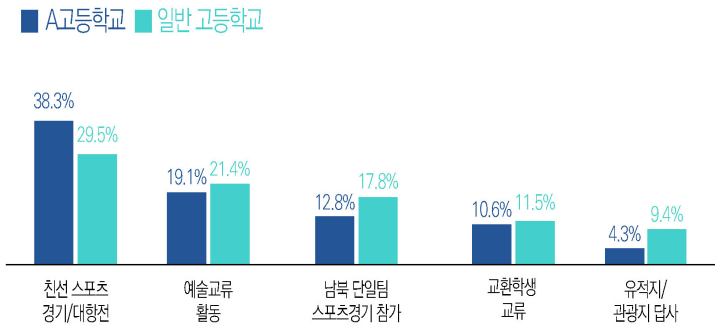


그림 IV-16. 남북한 청소년들 간 교류활동 영역 중 서로 동질감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 top 5

### 3. A고 청소년의 교류활동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비교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A고 청소년 24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에 개최된 교류활동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다. 사전과 사후 두 차례에 걸쳐 동일인에게 동일한 문항이 다수 포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이 같은 교류활동이 청소년들의 북한/통일, 북한청소년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실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설문 내용은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지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사후 설문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에는 교류활동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이 추가되었다.

앞서 살핀 일반 고등학생 그룹과 북한이탈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A고 소속 청소년들 간의 비교분석은 교류활동의 효과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임에 틀림없으나 본 절에서의 사전-사후 조사결과는 교류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더 직접적인 실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북한에 대한 관심도, 북한정부에 대한 신뢰도, 북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수준은 교류행사 전과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행사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수준을 10점 만점에 평균 6.05점, 3.30점, 5.63점을 주었으나 행사를 마치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세 개의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상승된 평균점수를 기록하였다. 가장 많은 변화가 나타난 항목은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이다. 무려 2.79점 상승한 8.42점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이 1.85점 상승하여 7.90점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10점 만점에 4.65점을 기록하여 다른 두 개 항목보다 평균 점수가 현격하게 낮지만 사전-사후 평균점수의 변화를 놓고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표 IV-13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북한 정부 신뢰수준/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구분	평균		Paired Sample t-test			
	행사 전	행사 후	평균 차	t	df	p
북한에 대한 관심 수준	6.05	7.90	-1.85	-5.29	19	.000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3.30	4.65	-1.35	-2.93	19	.009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	5.63	8.42	-2.79	-7.51	18	.000

## 2) 통일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통일을 대하는 A고 청소년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까? 통일의 필요성, 통일 가능성, 통일 후 국력의 변화에 대한 응답을 위해 일정부분 논리적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어 한차례의 행사에 의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다. A고 청소년들의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사전 3.0점에서 사후 3.45점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05 점 이내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통일 가능성(사전 4.35; 사후 4.30)과 통일 후 국력변화(사전 8.0; 사후 8.11)에 대한 질문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평균점이 낮아지는 등 교류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4 통일 필요성/통일 가능성/통일 후 국력

구분	평균		Paired Sample t-test			
	행사 전	행사 후	평균 차	t	df	p
통일 필요성	3.00	3.45	-0.45	-2.65	19	.016
통일 가능성	4.35	4.30	0.05	0.27	19	.789
통일 후 국력	8.00	8.11	-0.11	-0.28	18	.786

### 3)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친근감, 신뢰도의 변화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은 A고 청소년들이 가진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의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M=6.68), 친근감(M=6.60), 신뢰도(M=6.35) 수준은 교류행사에 참여하기 전에는 모두 6점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교류행사에 참여한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 개 문항 모두 8점 내외의 평균점수를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가 1.79점 상승한 8.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뒤를 이어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이 1.75점 상승하여 8.35점을 기록하였다.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신뢰도 역시 사전 설문결과보다 1.60점 상승하여 7.95점으로 조사되었다. 세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이다.

표 IV-15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친근감/신뢰도

구분	평균		Paired Sample t-test			
	행사 전	행사 후	평균 차	t	df	p
북한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6.68	8.47	-1.79	-6.35	18	.000
북한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6.60	8.35	-1.75	-6.05	19	.000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신뢰도	6.35	7.95	-1.60	-3.87	19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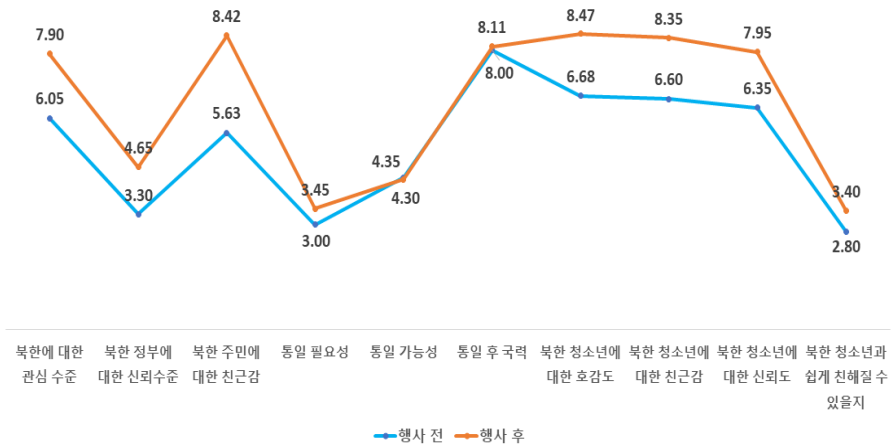


그림 IV-17. A고 학생들의 북한/통일/북한청소년에 대한 인식·태도 변화도

#### 4) 남·북한 청소년에 대한 다름/차이 인식 변화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국제정세,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 전문인력 및 인프라 환경 등 다양한 걸림돌 중 교류 당사자인 청소년이 우려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앞 장에서 살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과중한 학업부담으로 인해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7.9%를 차지하였다. 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27.3%), 중학생(36.6%), 고등학생(47.5%)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과중한 학업부담이 교류활동의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교류 대상자인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수록 그리고 자신과의 차이를 크게 인식할수록 교류활동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수 있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청소년들이 가지는 어려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IV-16>은 A고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남북 청소년의 영역별 차이/차이의 정도를 교류행사 전과 후를 비교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IV-16 남북한 청소년의 다름/차이 및 북한 청소년과 쉽게 친해질 가능성

구분	평균		Paired Sample t-test			
	행사 전	행사 후	평균 차	t	df	p
[다름/차이] 언어	5.05	4.75	0.30	0.68	19	.505
[다름/차이] 사고방식/가치관	6.20	4.00	2.20	4.59	19	.000
[다름/차이] 경제수준	6.35	5.10	1.25	2.80	19	.011
[다름/차이] 문화수준	5.95	5.25	0.70	1.22	19	.236
[다름/차이] 학력수준	6.00	5.55	0.45	0.93	19	.364
[다름/차이] 여가/취미활동	5.05	4.85	0.20	0.28	19	.784
[다름/차이] 체력	4.20	3.10	1.10	3.04	19	.007
[다름/차이] 직업관/진로	4.35	3.60	0.75	1.30	19	.208
[다름/차이] 친구/친우관계	3.25	2.90	0.35	0.94	19	.358
[다름/차이] 경제관념	4.95	4.20	0.75	1.25	19	.225
북한 청소년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지	2.80	3.40	-0.60	-3.94	19	.001

<표 IV-16>에서 보듯이, 행사 후 다름/차이의 인식 폭이 모든 영역에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사고방식/가치관, 경제수준, 체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낙폭을 보였다. 특히 사고방식/가치관 영역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도 자신과 다름없는 고민과 사고방식을 가진 청소년이란 인식을 교류활동을 통해

크게 느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개 영역 중 사전-사후 평균점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교류활동 참가 사전-사후 설문에서는 A고 청소년들에게 북한 청소년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이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지를 물었다. 4점 만점(1점: 매우 어려울 것~4점: 매우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척도에 사전점수 2.8점(100점 만점에 70점으로 환산)에서 사후점수 3.4점(100점 만점에 85점으로 환산)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교류활동을 통해 북한 청소년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을 걷어내고 ‘나’와 ‘그들’의 차이와 다름을 덜 느끼게 됨으로써 갖게 된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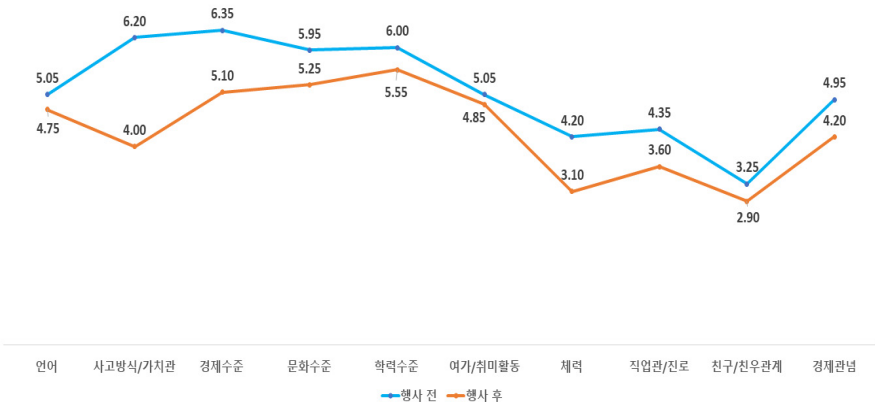


그림 IV-18. 남북한 청소년의 다름/차이 및 북한 청소년과 쉽게 친해질 가능성

### 5)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행사에서 겪은 어려움

〈표 IV-17〉은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행사에 참여하며 느낀 어려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10점 만점(① 전혀 어렵지 않았음~⑩ 매우 어려웠음)의 척도로 어려움의 수준을 각 영역별로 각각 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대방이 북한 이탈 청소년이란 신분에 따른 지속적인 만남의 어려움'과 '나의 바쁜 학교생활로 인한 지속적인 만남의 어려움'이 각각 6.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청소년이란 그들의 구조적인 환경과 대한민국의 입시위주 과열된 교육풍토라는 자신을 둘러싼 구조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이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빈번히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표 IV-17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행사에서 겪은 어려움

구분	평균	표준 편차	N	Min (전혀 어렵지 않았음)	Max (매우 어려 웠음)
언어적 차이로 인한 소통 및 대화의 어려움	3.42	1.95	24	1	8
문화 차이로 인한 공통 관심사 찾기의 어려움	3.13	1.87	24	1	7
행사참여와 관련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어려움	2.71	1.65	24	1	7
상대방이 북한 이탈 청소년이란 신분에 따른 지속적인 만남의 어려움	6.04	2.73	24	1	10
남북한 상호간의 정보부족에 따른 어려움	4.33	2.04	24	1	8
북한/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하여 내가 가진 선입견에서 오는 어려움	3.21	2.28	24	1	9
교류하는 북한 이탈 청소년이 나와 같은 연령대의 또래가 아닌데서 오는 어려움	3.29	2.60	24	1	10
나의 바쁜 학교생활로 인한 지속적인 만남의 어려움	6.04	2.91	24	1	10
북한 이탈 청소년이 나를 경계하거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데 따른 어려움	2.33	1.52	24	1	7
남북교류 여행 연습으로 효과	7.92	1.95	24	3	10

이밖에 ‘남북한 상호간의 정보부족에 따른 어려움’(M=4.33), ‘언어적 차이로 인한 소통 및 대화의 어려움’(M=3.42), ‘북한 및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하여 내가 가진 선입견에서 오는 어려움’(M=3.21)에 대한 지적들이 뒤를 이었다. 교류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북한 및 북한청소년의 문화와 언어생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통일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북한이탈청소년들과의 만남 및 교류가 남북교류 여행연습으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교류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 질문에 8점을 줄만큼 이 같은 교류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시작단계에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같은 교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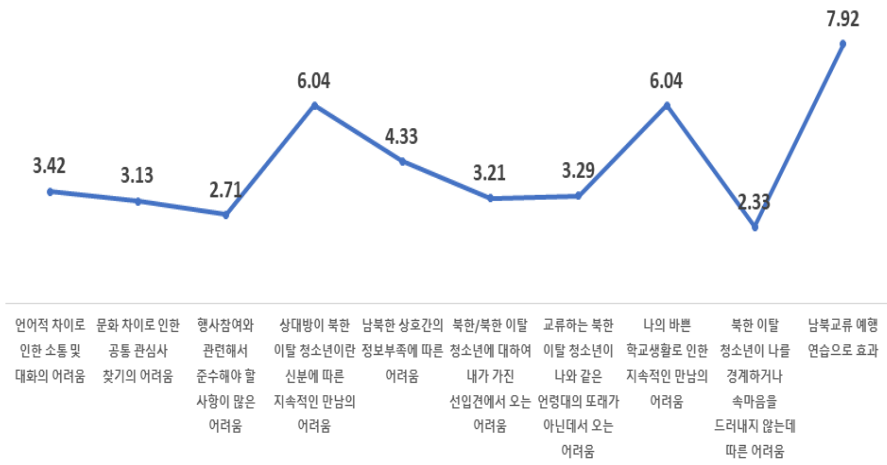


그림 IV-19.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행사에서 겪은 어려움

## 6)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본 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 <표 IV-18>은 5점 척도(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⑤매우 동의함)를 통해 파악한 A고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교류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고착상태의 원인으로 이들은 북한 정부(M=3.67), 남북한 서로에 대한 정보부족(M=3.61), 남북한 교류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부족(M=3.61)을 우선순위로 들었다. 교류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북한 정부(M=3.83), 한국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시간부족(M=3.78), 남북한 서로에 대한 정보부족(M=3.56)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총 10개의 항목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된 항목은 ‘교류활동을 위한 장소나 시설 등 인프라 부족 때문에’(사전 3.50; 사후 2.83)와 ‘남북한 교류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의 부족 때문에’(사전 3.61; 사후 2.83)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문가 및 인력 부족 때문에’(사전 3.44; 사후 2.83)도 통계적 유의수준을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인 항목이다. A고의 북한이탈청소년 교류활동이 특별한 교류활동 전문가나 거창한 시설이나 인프라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통일골든벨’과 같은 퀴즈게임과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경기를 하며 뛰어놀고 식사를 같이하는 활동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기에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은 본 교류활동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고착상태의 원인으로 과중한 학업부담을 지우는 교육풍토, 주변강대국의 비협조와 북한 정부의 태도 등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인식을 이전보다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구분	평균		Paired Sample t-test			
	행사 전	행사 후	평균 차	t	df	p
주변 강대국 때문에	3.39	3.50	-0.11	-0.62	17	.542
한국 정부 때문에	2.89	2.83	0.06	0.37	17	.717
북한 정부 때문에	3.67	3.83	-0.17	-1.14	17	.269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시간부족 때문에	3.50	3.78	-0.28	-1.16	17	.263
남북한 서로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에	3.61	3.56	0.06	0.27	17	.790
교류활동을 위한 장소나 시설 등 인프라 부족 때문에	3.50	2.83	0.67	2.29	17	.035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문가 및 인력 부족 때문에	3.44	2.83	0.61	1.77	17	.094
남북한 교류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의 부족 때문에	3.61	2.83	0.78	2.72	17	.015
북한 주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	3.47	3.00	0.47	1.93	16	.072
남한 국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	3.59	3.47	0.12	0.57	16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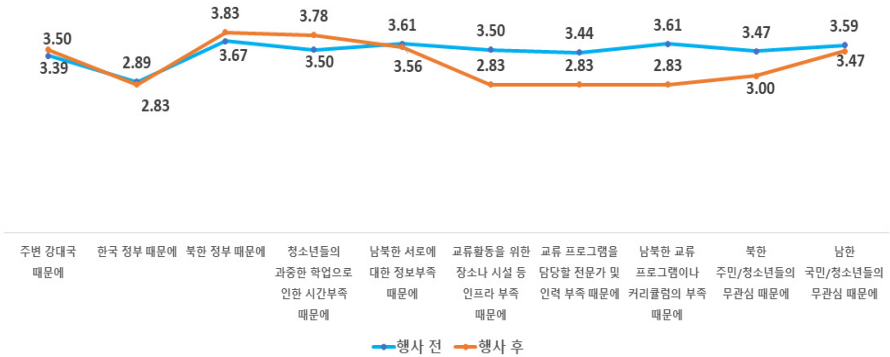


그림 IV-20.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 4.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연구진은 경기도 A고등학교 소속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다섯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A고 빈 교실에서 방과 후에 연구진과 다섯 명의 학생들만 참여하여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반구조화 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교류행사 참여 동기, 교류행사 전과 교류행사 후 느낀 점, 정부와 사회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었다. <표 IV-19>는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IV-19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

번호	이름	성별	학년	이전 유사 교류경험
1	이○○	여	1	없음
2	유○○	남	1	없음
3	홍○○	남	2	없음
4	정○○	여	3	없음
5	김○○	여	3	있음

##### 1)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행사에 참여한 동기

FGI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다른 청소년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물었다.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행사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8시간의 봉사활동 점수가 부여된다는 현실적인 동기보다는 저마다 나름의 의미를 갖고 이 행사에 지원을 하였다.

연구자 : 여러 가지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다른 여러 봉사활동 중에서 이 활동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OO : 어... 이거 신청하던 시기에 약간 통일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제 생각을 굳힐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싶은 마음에 신청을 했었어요.

유OO : 저는 생활하면서 탈북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배울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정OO :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다 보니까 다른 봉사활동이나 그런 걸 할 여유가 없기도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 교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고 다양한 학생들을 이해할 계기가 될까 싶어서... 탈북 청소년들도 충분히 제가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담임을 맡을 수도 있는 친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홍OO : 저는 약간... 뭐라 그래야... TV에서 약간 좀 많이... 그들이 어떻게 탈북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걸 많이 비춰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서 탈북을 하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래 상담반을 하고 있거든요. 심리 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김OO : 저는 요즘 TV나 유튜브나 연예인 중에 탈북인분도 많으니까 그거 보면서 한번쯤 나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학년 때 지금과 같은 행사에 그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고... 1학년 때 처음 하고 그때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재밌게 잘 보냈어요. 다 같이... 그러고 나서 3학년 때 다시 하게 됐어요.

## 2)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행사를 통해 느낀 점: 편견과 선입견

FGI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했던 교류활동을 계기로 자신이 가졌던 북한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물론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OO : 중학교 때 통일 관련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통일에 대한 장점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통일에 대한 단점을 들어보니까 뭔가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문화적인 통일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고... 경제적인 면에서 손실도 있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잃는 게 더 많다고 들어가지고.

홍OO :저는 TV에서 본 것이 북한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SNS 이런 데서 본 게 전부라고 할 수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렇다라는 선전체제 같은 프로그램만 보고... 진짜 그렇게 구린 프로그램 보고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약간 그게 아니라 북한 친구들도 우리랑 똑같이... 되게 최신 유행하는 드라마 같은 걸 보는구나... 문화적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약간 개인사를 들어보면 “아 이렇게 이런 시련과 상처를 받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구나”하는 약간의 이해?... 북한 이탈주민이 이러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아 그렇구나하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정OO :제가 조별 활동 같은 걸해서... 토론을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서기를 맡게 됐거든요. 한글로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남북한의 언어도 조금씩 다르고. 문화도 조금씩은 다르고 교육 체제도 좀 다르고 학교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체육활동을 할 때 옷을 갈아입으면서... OOO 학교(북한이탈청소년 소속 학교)도 교복이 있잖아요? 자켓이 진짜 불편해요. 자켓 누가 만들었냐고... 다 같이 남북한

둘 다 자켓 누가 만들었냐... 스타킹은 누가 만들었냐... 치킨 나오면 아 치킨  
나왔다... 다 같이 좋아하고... 사람 사는 건 결국 똑같구나... 이런 공통점?  
그리고 이제 저도... 점심을 먹으면서 간단히 얘기를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다들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씩... 사실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게 어떤 아픔의 종류의 차이일 뿐이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구나... 결국 다 같은 사람들이구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이OO : 맨 처음에 토론을 하면서 진중한 얘기가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프로그램이 장기자  
랑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다 같이 웃고 즐기면서 정이 많이  
들어서... 끝날 때는 전화번호도 주고 가고... 가끔씩 연락도 하고...

FGI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이 가졌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가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였다. 어두운  
면만 강조하여 묘사되는 미디어 속 북한청소년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처음에는 적잖이 놀랐다고 한다.

이OO : 저는 약간 북한 청소년들이 북한의 강압적인 체제 때문에 여기 와서도  
약간 자기주장을 선뜻 펼치지 못하고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느낌일 줄 알았  
는데, 오히려 먼저 나서서 저희한테 말도 걸어주고... 먼저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체육활동 할 때도 되게 열정 넘치게...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나서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느낄 때는 쌓아뒀던 그런 것들이...

유OO : (북한청소년들에 대해) 맨 처음에는 폐쇄적일 거라는 생각이 컸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활동적이라는 느낌이 커졌어요. 저는 맨 처음에 학생들이  
조용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가서 먼저 말도 해주고... 나중에 얘기  
할 때 그 활동이 끝나고도 전화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활동 끝나고 집 가는  
길에도 해주고... 얼마 전에도 전화통화를 했어요.

정OO : (자신이 행사 참여 전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해 어른스러울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해) 그게 탈북을 하는 특별한 경험일 거라 생각해서... 그런 아픔을 겪었으면 굉장히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럴 걸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순수하다... 일단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온 거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에 굉장히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이걸 이뤄내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진짜 순수하게... 순수한 열정을...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다 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랬던 거 같아요.

홍OO : 북한 친구들을 처음 봤을 때... “어? 재는 어떻게 살지?” 하는 호기심이 가장 많았던 거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땀가? 그때 처음 탈북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되게 약간 창피한데... 약간 동물원 안에 있는 원숭이를 보듯이... 약간... 되게 신기해하는... 그때는 우와 되게 신기하네 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행사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을) 만나면서... 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른스러운데 순수하기도 하고 약간 활동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약간... 자신의 개인사를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걸 겪어봐서 약간 좀 어른스럽게 변했다... 만화 캐릭터 중에서도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그런 캐릭터들이 어른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활동할 때는 진짜 활발해요.

### 3)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행사를 통해 느낀 점: 통일의 필요성

FGI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자원개발 등 현실적인 것에서부터 한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 대립하며 살아야하는 현실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해야한다는 것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번 교류행사가 통일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기여하였으며, 통일의 이유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이유보다 한민족의 가치 등 정서적인 영역에 무게를 두었다.

유OO : 저는 맨 처음에는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았어요. 각자 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통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를 갔다 와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는 저희가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계속 대립을 해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산가족처럼 떨어져있는 가족도 있잖아요?

이OO : 저는 말씀드렸다고 맨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북한이탈청소년들과 교류활동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는 걸 듣고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인지... 좀 공감이 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일반 국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잘못된 건 없잖아요.

정OO : 저의 북한 자체에 대한 인식은 솔직히 굳이 따지자면 “나쁘다”는 쪽에 가까워요. 다른 나라보다는... 하지만 통일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맞춰가는 부분에서 많은 희생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이나 문화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그렇게 통일이 되지 않고 분단이 계속 된다면 사람들 한명 한명이 겪을 아픔이 너무 커요. 이산가족 문제도 그렇고, 탈북해서 나와 있는 분들의 아픔도 그렇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나... 그 북한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 체제 안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잘 살게 되었으면 해외 원조의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오히려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김OO : 저는 원래 신경을 그다지 쓰지 않았어요. 그냥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처럼... 그냥 흔히 도덕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1학년 때 이같은 행사를 하고 나서 관심이 생겼어요. 북한이 어떤가...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인권

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해요. 굶어죽거나... 지금이 21세기인데... 어떻게 사람이 굶어 죽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게 아쉽게 죽어가거나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중국으로 탈출을... 탈북을 해도 걸리면 북송 당하고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좀 막 정치적이란지... 이것저것 차이가 있어도 통일을 해야 그렇게 막 쉽게 죽어나가거나 그런 게 없지 않을까 해서... 통일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인터뷰 참여자와 달리 홍OO은 통일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의 상대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통일이 되어 또 다른 분열의 원인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주장이었다.

홍OO : 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타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없지만 꼭 통일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도 해요. 통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들이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산가족의 아픔도... 지금은 제재 때문에 좀 갈라져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아예 완전히 없애버리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민족의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좀 훼손될 수 있지만... 통일을 하면은... 통일할 때 딱 그때는 혼란도 많을 것 같아요.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빨갱이들 하시면서 북한 자체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인식이 있으시고... 거기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45년부터 50년까지 미군정에 들어가 있을 때도 권력 같은 것도 뺏고 그래서 약간 좀 분열 같은 것도 많이 뻤는데... 만약에 통일을 하면은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애매한 입장인 것 같아요.

#### 4) 정부와 사회에 바라는 점: 통일교육과 교류의 방향성 제시

체제를 달리하며 십여 년을 산 남북의 청소년들 사이의 보이지 않은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단 하루면 충분하였다. FGI 참여 청소년들은 하루 동안의 교류활동 만으로도 남북한 교류 및 통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초청인사의 강연식이나 동영상 강의가 아닌 단 하루를 진행하여도 자신들이 참여한 것과 같은 교류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OO의 다음 이야기는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에 관여하는 일선학교 교사부터 주무부처 담당자들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정OO : 사실 말씀했다시피... 강연식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거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처음 볼 때는 단편적으로나마 이론적으로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글짓기 숙제를 내주면 그걸 써야 되니까... 그런 지식이 들어오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학생의 마음에 아 정말 통일이 돼야 되겠다... 혹은 북한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이해를 불러일으키기는 정말 어렵다고 봐요. 그 영상이나 단편적인 강의식 교육 하나만으로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북한 이탈 친구들과 그렇게 한번 재밌게 놀고 어울리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하는 경험은 그 북한 이탈 친구들을 단지 아까 친구가 느꼈던 그런 거리감을 느끼고 신기한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똑같은 친구구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교류의 기회를 더 많은 학교에게 더 자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통일 교육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 문제는 그거 아닐까요? 지금도 만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좀 많았잖아요. 그런 거 번거롭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정OO : 번거롭다고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분명히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교육을 계속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런 교육을 백번 할 바에는 한번 만나는 게 낫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어요. 이거는 서로의 정말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백 번의 영상을 보는 것보다 그렇게 진짜 세 시간이라도 (직접)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홍OO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대북정책에 맞추어 바뀌는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였다. 정치적 색채가 깔린 교과서 및 강의 위주의 교육보다 자신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방식의 청소년 교류활동을 선호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홍OO : 저도 강의식 교육보다는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의식은 하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약간... 제가 느끼는 건데... 약간 초등학교 때랑 지금 고등학교 때랑 부각하는 내용이 다르달까? 예전에는 북한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안보와 관련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했어 이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걸 부각을 시켰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바뀌기도 했고 그렇게 돼서... 우리는 북한의 친구야... 이런 느낌이 약간 강해서... 그 정치인들의 생각을 교육에 담는 거 같아서 약간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이전 정부는 보수적이어서 안보위주의 교육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도... 둘 다 다름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것들을... 자신의 정치를 세뇌하는 느낌이 좀 강해서... 이런 점이 되게 좀 반감을 사는 거 같아요.

연구자 : 재밌는 지적인데... 그게 진짜 느껴져요?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은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좌편향이다 우편향이다...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콘텐츠가 바뀌어요?

홍OO : 네.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은 근대사가 거의 완전히 싹 바뀌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박정희 정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것도 완전히 싹...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걸 주제로 하고 있지만 아예 색다른 것들로만... 이쪽에서는 장점만 부각시키고 저쪽에서는 단점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둘 다 별로였던 거 같아요. 약간 장단점이 다 있을 텐데... 왜 굳이 자신의 정치적인 그것에만 집착을 해서... 주입시키고 세뇌를 해서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런 느낌이 세게 있는 거 같아요. 강의식 교육을 하는 건 별론데... 직접 만나는 거는... 그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한테서 직접 듣고 그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아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내가 대중매체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구나하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둘 중에는 약간 좀 활동 쪽이 낫지 않나 싶어요.

김OO : 북한에 대한 영상이나 강의를 듣고 “저래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이걸 체험하는 친구들은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좀 더... 내가 좀 잘못된 거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진 애들도 보였고... 근데 그 전에 강의만 듣거나 영상만 보면서는 (북한 청소년을) 직접 만나질 않았으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게 생기다보니까... 결국 편견이 생기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거 같아요.

남북청소년들 간 교류가 실제 이루어졌을 때 서로 동질감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FGI 참여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스포츠 활동을 꼽았다. 예술 교류, 스포츠 경기 단체 관람, 교환학생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교류 중 스포츠 활동이나 대항전을 꼽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김OO : 예술이나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좀 깊게 들어가는 장르다 보니까 내가 좀 되도록이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나도 모르는데 그 친구들은 알까?” 이렇게 좀 설명하기가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장르인 반면 운동은 쉽게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동 쪽을 (청소년들이) 많이 고르는 거 같아요.

정OO : 사람이 가장 쉽게 친해질 수 있는데 스킨십이거든요. 운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런 스킨십이 일어나게 되고, 같은 팀원끼리 하려면 협동심, 동질감 이런 게 굉장히 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운동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 V.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분석

- 1. 조사개요
-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의 여건조성
- 3.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 방식 및 주체
- 4. 기타 의견 조사





##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분석

### 1. 조사개요<sup>25)</sup>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증장기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 교류, 남북관계, 청소년교류활동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69명으로 남성이 68.1% 여성이 31.9%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에 응한 전문가의 연령대는 40대가 4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50대 29%, 30대 18.8%, 60대가 10.1%로 이루어졌다.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연구원이 52.2%, 교수/교사가 20.3%, NGO/시민단체가 13%, 정부/지자체 공무원이 10.1%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는 계층적분석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청소년교류협력 세부 정책의 항목별 중요도 및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교류 유형별 중요도와 이행의 용이성/가능성 수준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의 중요도와 현재 이행 수준의 달성도 및 성취도를 매트릭스 분석기법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 교류 정책의 만족도와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반사항 및 구체적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다.

25) 이 장은 배상률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AHP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항목별 중요도 산출을 위한 측정치 값을 배정하고 (부록 5. 전문가 설문지 참조) 응답자들의 측정값을 각 항목별로 기하평균 산출 후 각 요인의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상호비교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각 요인을 정규화하여 각 항목별 중요도를 산출하게 된다(조성호, 강지희, 박재현, 2015). 또한, 응답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관성 분석을 문항마다 각각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본 조사의 모든 분석 결과 일관성지수(CI: Consistency Index)는 0.1 이하로 계층분석 결과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조사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의 여건조성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의 여건조성을 평가기준별로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남북한 관계개선'의 중요도가 0.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 0.201, '남한 사회와 남한 정부 차원의 노력' 0.143,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원' 0.10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1 대분류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기준	남북한 관계개선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원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		남한 사회와 남한 정부 차원의 노력		CI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전체	0.548	1	0.108	4	0.201	2	0.143	3	0.009

※ CI(Consistency Index, 일관성 지수)가 0.10이하인 경우 계층분석 결과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조사결과가 유효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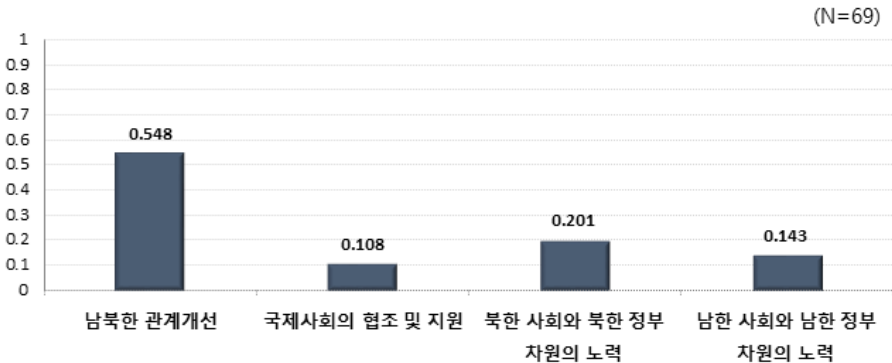


그림 V-1. 대분류 중요도 분석 결과

앞서 살핀 각 여건조성 4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세부정책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AHP 기법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우선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제반여건으로 평가받은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 다음의 네 개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① 남북 정상/정부 간 원활한 소통, ② 남북경제협력, ③ 인적교류 활성화, ④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 정상/정부 간 원활한 소통'이 0.510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남북 경제 협력'이 0.211, '인적교류 활성화'가 0.192로 조사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전문가들로부터 매우 낮은 점수인 0.087을 받았다.

표 V-2 남북한 관계개선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기준	남북 정상/정부 간 원활한 소통		남북 경제 협력 (예: 개성공단)		인적교류 활성화 (사회문화예술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CI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전체	0.510	1	0.211	2	0.192	3	0.087	4	0.021

※ 중요도 산출 방법 : (대분류 중요도 × 중분류(1)의 남북한 관계개선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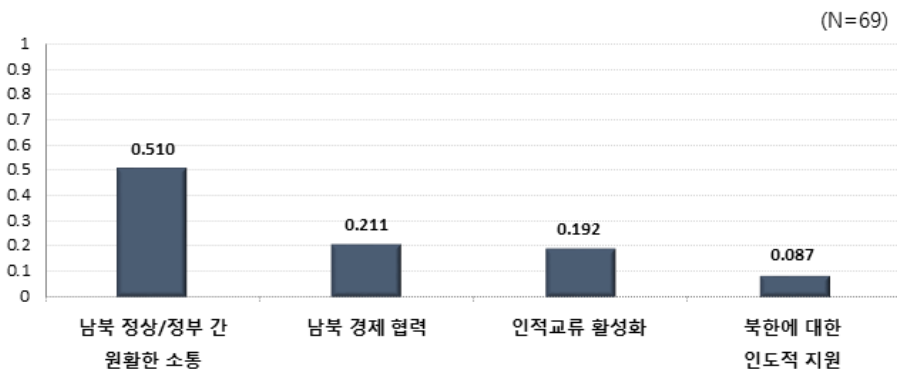


그림 V-2. 남북한 관계개선 중요도 분석 결과

다음은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관한 세 가지의 세부 정책들(① 북한의 비핵화 조치, ② 북한의 경제 개방, ③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한정부의 전향적 태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AHP 기법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0.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한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0.269, '북한의 경제 개방'이 0.214로 조사되었다.

표 V-3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기준	북한의 비핵화 조치		북한의 경제 개방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한정부의 전향적 태도		CI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전체	0.517	1	0.214	3	0.269	2	0.005

※ 중요도 산출 방법 : (대분류 중요도 × 중분류(3)의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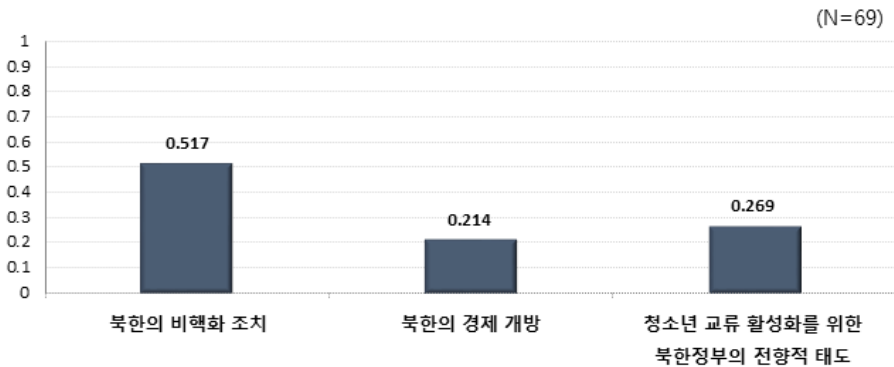


그림 V-3.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 중요도 분석 결과

이어서 ‘남한 사회와 남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관한 다음 다섯 가지의 세부 정책들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① 남북교류 민간 거버넌스 구축/활성화, ② 남북관계정책에 있어 정부의 능동적 주체자로서 역할, ③ 평화통일 교육/인식개선 노력, ④ 민간교류 지원 및 확대, ⑤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남한 사회와 남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남북관계 정책에 있어 정부의 능동적 주체자로서의 역할’이 0.357로 타 항목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남북교류 민간 거버넌스 구축/활성화’(0.276), ‘민간교류 지원 및 확대’(0.153), ‘평화통일 교육/인식개선 노력’(0.128),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콘텐츠 개발’(0.0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4 남한 사회와 남한 정부 차원의 노력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기준	남북교류 민간 거버넌스 구축/활성화		남북관계 정책에 있어 정부의 능동적 주체자로서 역할		평화통일 교육 /인식개선 노력		민간교류 지원 및 확대		청소년 교류 협력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CI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전체	0.276	2	0.357	1	0.128	4	0.153	3	0.087	5	0.006

※ 중요도 산출 방법 : (대분류 중요도 × 중분류(4)의 남한 사회와 남한 정부 차원의 노력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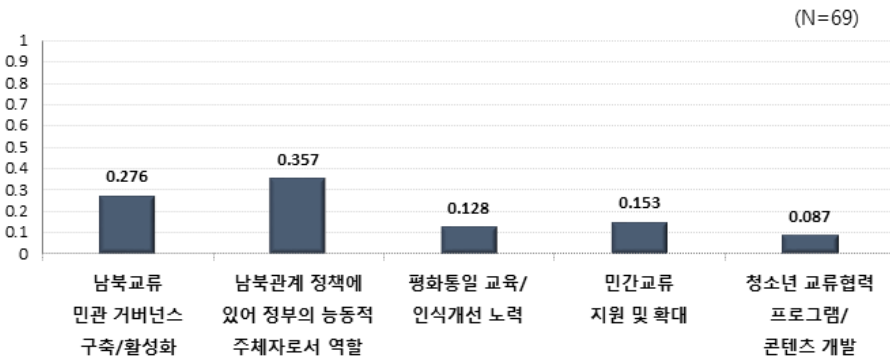


그림 V-4. 남한 사회와 남한 정부 차원의 노력 중요도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낮은 중요도 점수를 받은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원'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총 다섯 개의 주체(국가 및 국제기구: ① 한국, ② 북한, ③ 미국, ④ 중국, ⑤ 국제기구)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원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북한'이 0.334로 '한국'(0.32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북한과 한국에 이어 미국 0.170, 국제기구 0.104, 중국 0.06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와 역할을 청소년 남북교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 중국을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5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원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기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국제기구 (UN 등)		CI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전체	0.324	2	0.334	1	0.170	3	0.068	5	0.104	4	0.013

※ 중요도 산출 방법 : (대분류 중요도 × 중분류(2)의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원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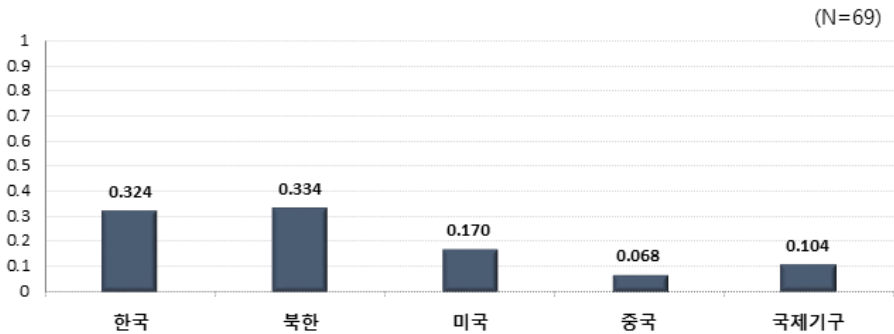


그림 V-5.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원 중요도 분석 결과

앞서 살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의 여건조성 마련을 위한 세부 정책들의 최종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남북 정상/정부 간 원활한 소통'이 0.280으로 다른 세부 정책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남북 경제 협력'(0.116), '인적교류 활성화'(0.106), 북한의 비핵화 조치(0.104)가 2, 3, 4위를 차지하였다.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0.054)와 남북관계정책에 있어 정부의 능동적 주체자로서 역할(0.051)도 나머지 세부 정책들에 비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표 V-6 최종 중요도 분석 결과

대분류	중분류	전체	
		중요도	우선 순위
남북한 관계개선	남북 정상/정부 간 원활한 소통	<b>0.280</b>	<b>1</b>
	남북 경제 협력	0.116	2
	인적교류 활성화	0.106	3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0.048	7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원	한국	0.035	11
	북한	0.036	10
	미국	0.018	13
	중국	0.007	17
	국제기구	0.011	16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	북한의 비핵화 조치	0.104	4
	북한의 경제 개방	0.043	8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한정부의 전향적 태도	0.054	5
남한 사회와 남한 정부 차원의 노력	남북교류 민간 거버넌스 구축/활성화	0.039	9
	남북관계 정책에 있어 정부의 능동적 주체자로서 역할	0.051	6
	평화통일 교육/인식개선 노력	0.018	13
	민간교류 지원 및 확대	0.022	12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0.012	15

### 3.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 방식 및 주체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포함하여 남북교류사업에 있어서 정부/지자체와 시민단체/NGO 중 누가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시민단체/NGO 일각에서는 관료주의적 사고에 젖은 정부 관계자들이 오히려 교류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남북교류 관련 학자들은 남북교류사업에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주도적 태도를 주문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협력이란 특수성에 따라 청소년의 시각과 의견이 반영된 교류협력 정책과 사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청소년들과 청소년 단체의 요구사항이다. 그 외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하며 교류 대상국인 북한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난 청소년교류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적 자세를 요구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다양한 교류 주체의 참여방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정부/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이 0.279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0.26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북한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0.185), '청소년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0.157),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식'(0.1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7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기준	정부/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		청소년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		북한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식		CI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전체	0.279	1	0.267	2	0.157	4	0.185	3	0.112	5	0.010

※ CI(Consistency Index, 일관성 지수)가 0.1이하인 경우 계층분석 결과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조사결과가 유효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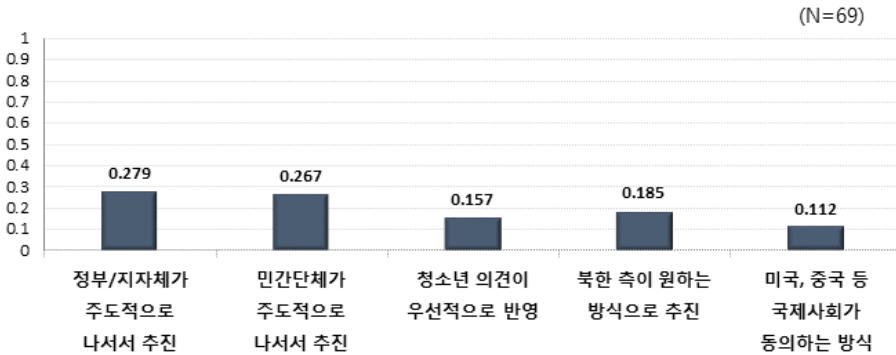


그림 V-6.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중요도 분석 결과

이는 앞서 살핀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결과를 함께 나타내는 결과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M=3.32)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M=3.22)와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M=2.93)보다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청소년들 역시 전문가들처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식’(M=1.92)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교류사업/활동 및 제반여건사항의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주요 분야 9개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와 이행의 용이성/가능성 정도를 전문가들에게 7점 척도로 평가토록 하였다. 이를 IPA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4개 구역별로 어느 분야가 어느 정도로 포진해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영역1은 중요도도 높고 이행의 용이성/가능성도 높은 분야에 해당한다.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영역1에 포진한 분야에 집중한다면 정책의 파급력도 높이고 이행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교류실적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영역4는 중요도는 높으나 이행의 용이성이나 가능성이 낮은 분야에 해당한다. 영역2는 영역4와 반대로 이행의 용이성/가능성은 높으나 중요성이 낮은 분야를 의미한다. 영역3은 중요도도 이행의 용이성이나 가능성도 높지 않은 분야로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맨 나중에 위치하게 되는 분야이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주요 분야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영역 1에 포함된 분야는 체육/스포츠 교류와 문화·예술 교류가 대표적이며, 이 둘에 비해 중요도와 이행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영역 1에 포함된 분야로 '남북한 유적지/관광지 견학/관광'을 들 수 있다. 'SNS 등 ICT를 활용한 일상교류' 및 '남북한 교환학생/유학생 제도'는 중요도가 높으나 이행의 용이성/가능성이 낮은 항목(영역4)으로 도출되었다. 이행이 용이하나 중요도는 떨어지는 교류(영역2)로 학술교류/토론활동과 제3국 내 유적지 역사기행이 포함되었다. 종교적 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은 중요도도 낮고 이행의 가능성/용이성도 낮은 분야로 분류되었다.

즉,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영역1에 포함된 체육·스포츠 교류와 문화·예술 교류에 인적·물적 투자와 지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방안으로 SNS 등 ICT를 통한 일상 소통과 교류와 교환학생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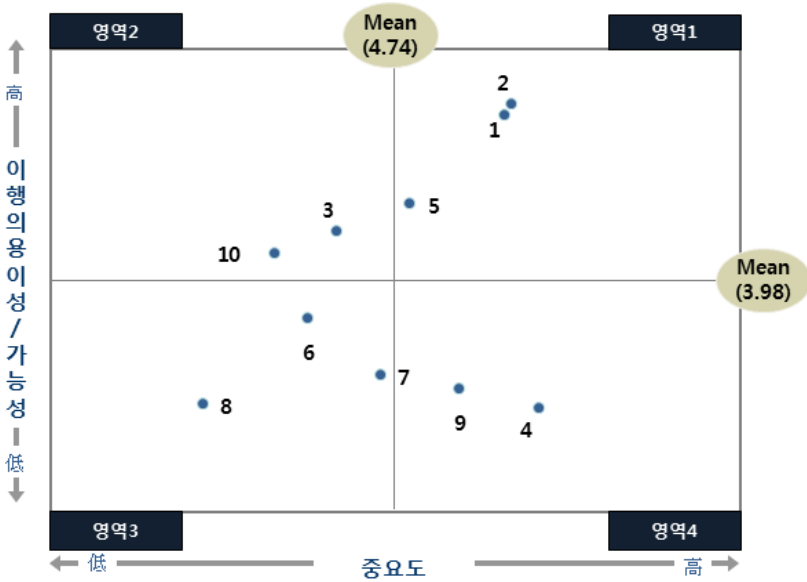


그림 V-7. 중요도-이행의 용이성/가능성 IPA 분석 결과

표 V-8 중요도-이행의 용이성/가능성 IPA 분석 결과

내용	IPA		
	중요도	이행의 용이성 /가능성	영역
1 문화·예술 교류	5.38	5.84	1
2 체육·스포츠 교류	5.42	5.97	1
3 학술 교류/토론 활동	4.42	4.54	2
4 ICT 활용한 일상교류	5.58	2.54	4
5 남북한 유적지/관광지 견학/관광	4.84	4.84	1
6 사회·봉사 활동	4.25	3.55	3
7 남북청소년 공동의 통일교육	4.67	2.91	3
8 종교적 활동	3.65	2.58	3
9 남북한 교환학생/유학생 제도	5.12	2.75	4
10 제 3국에 있는 유적지 역사기행	4.06	4.29	2

남북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총 10개의 제반사항에 대한 각각의 파급력(중요도)과 현재 이행 수준의 달성도(성취도)를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에게 7점 척도로 평가토록 하였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제반사항에 대한 IPA 분석 결과, ‘교류 활성화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내실화’의 경우 중요도는 높으나 현재 이행의 달성도/실행정도가 다소 낮은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 두 가지 제반사항의 해결이 남북 청소년 교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사결과이다. 전문가들은 ‘대국민 북한/통일 인식 개선 노력’이 남북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평가하였으며 현재의 달성도/성취도면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적으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영역2에 포함되었으나 두 축의 경계선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민간교류기관/단체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내실화’ 정책과 함께 민간교류기관 및 단체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교류 프로그램/콘텐츠, 인프라 및 시설, 교류 전문 인력은 현재 성취도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 정비와 거버넌스 구축을 이루는 것이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가져올 선결조건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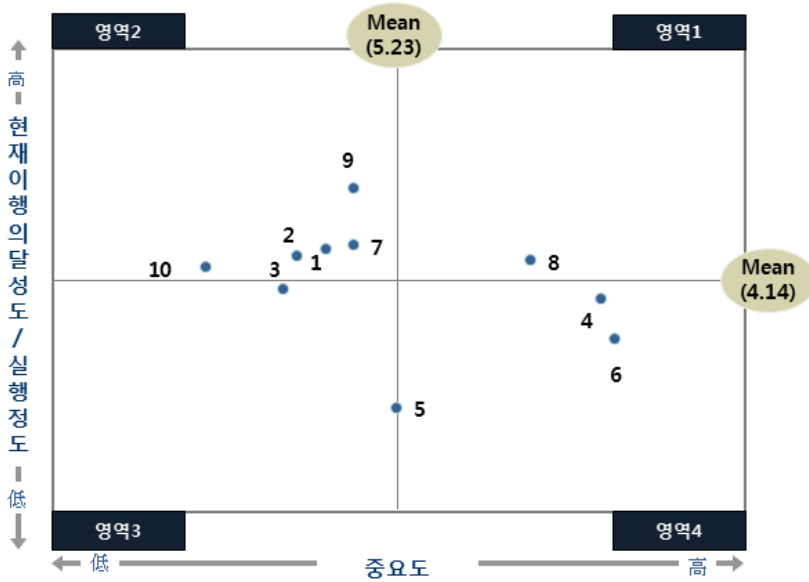


그림 V-8. 중요도-현재 이행의 달성도/실행정도 IPA 분석 결과

표 V-9 중요도-현재 이행의 달성도/실행정도 IPA 분석 결과

내용	IPA		
	중요도	현재 이행의 달성도/실행정도	영역
1 교류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5.13	4.28	2
2 교류 행사/활동 참여 비용 지원	5.09	4.25	2
3 교류 프로그램 전문가/인력 양성	5.07	4.10	3
4 교류 활성화 위한 법·제도 정비	5.52	4.06	4
5 국제 공조 및 협력 시스템 확보	5.23	3.58	3
6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내실화	5.54	3.88	4
7 민간교류기관/단체 지원	5.17	4.30	2
8 대국민 북한/통일 인식개선 노력	5.42	4.23	1
9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교육	5.17	4.55	2
10 교류활동을 위한 인프라/시설 구축	4.96	4.20	2



남북통일의 가능 시기를 묻는 질문에 2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2%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10년 이상~20년 미만이 39.1%로 조사되었다. 영원히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머물렀다. 청소년들은 통일시기를 묻는 질문에 20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전문가들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영원히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1%로 전문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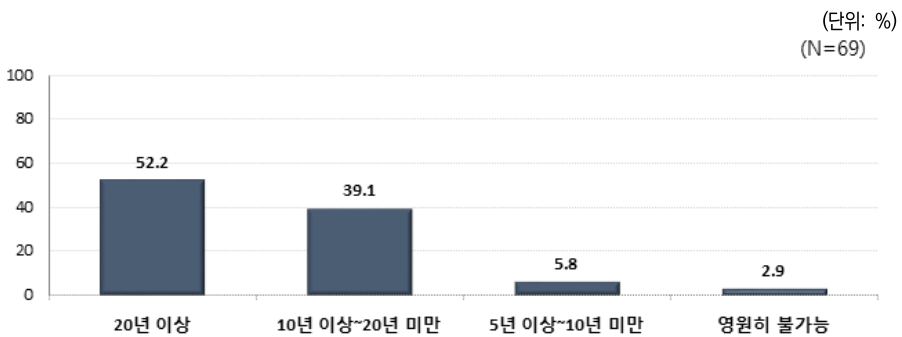


그림 V-9. 남북통일 가능 시기 분석 결과

남북 평화공존이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질문에 1순위 기준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26.1%), ‘남북한의 교류협력’(1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 평화공존 또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1+2순위 기준으로 물어본 결과,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 및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각각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39.1%를 차지하였다. 남북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자주 만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한 교류와 남북 상호간의 신뢰구축은 호혜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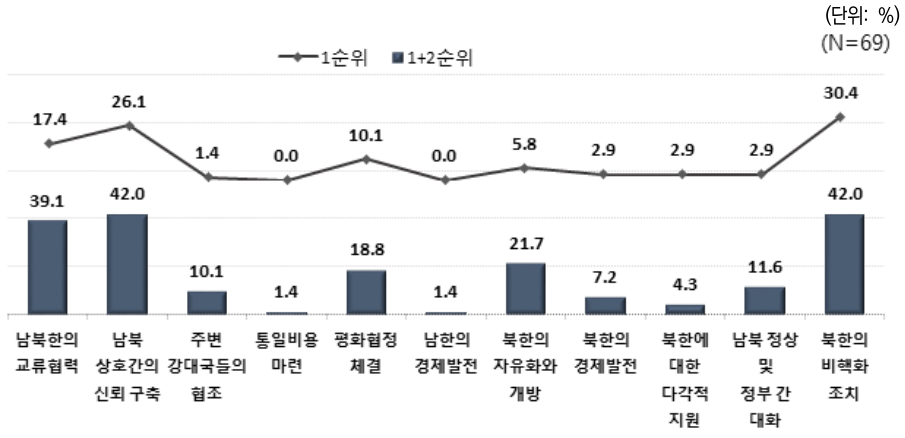


그림 V-10. 남북 평화공존/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 분석 결과



## ○ ————— VI. 정책제언

- 1.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 절차
-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정책 방향
- 3.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단계별 정책 과제



## 1.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 절차<sup>26)</sup>

이 연구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과제들을 도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의 관련정책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남북한 교류의 현황과 추이를 살폈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정책에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1~3학년), 고등학생(1~3학년) 총 3,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통일, 남북한 교류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잠재프로파일분석(LPA), 차이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였다. 실제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어려운 현실에서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 경험이 있는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양안의 청소년 교류협력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남북한이 처한 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들을 파악하였다.

26) 이 장은 배상률 연구위원과 이정민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상술한 연구들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후 남북 관계, 남북한 교류, 청소년 교류활동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정책의 중요도와 이행의 용이성 및 성취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본 장에 제시하였다.

〈그림 VI-1〉은 지금까지 서술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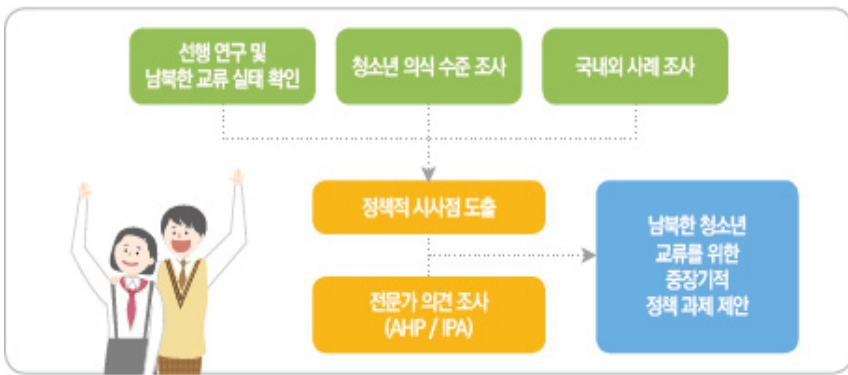


그림 VI-1.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을 위한 절차

### 1) 선행연구로부터의 시사점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현재 실시 혹은 중단이 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실태 파악을 통해 현 남북 청소년 교류의 핵심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제까지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은 한시적이거나 이벤트적 성향이 강하였다. 대체로 이와 같은 교류 협력 사업들은 특정한 정치적·정책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일회성 국가 이벤트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림 VI-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을 위한 절차

더욱이 단발성이벤트성이었던 그동안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은 정부나 주 관하는 기관의 초청에 의한 소수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특히 특정 영역의 엘리트 중심의 교류인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참여한 경우가 극히 소수였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체육/스포츠 교류나 예술인의 교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된 영역에서 운영되었고, 이와 같은 제한된 영역의 교류가 결국에는 제한된 사람들만 참여하게 하는 순환적 결과를 양산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역시 부족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만난 한 현장 전문가는 북한으로 보낸 의료품과 의류 그리고 학용품 등을 선착장에 쌓아 놓고 정부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상황적 으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인도적 차원의 지원임에도 정부의 승인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 다른 현장 전문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북한에 묶여있는 전 재산이 남북 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찾아 올 길이 없다고 호소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적으로 지속가능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 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관련

교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이를 시작으로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교류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일반인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행하여졌던 이벤트성 교류 현장에 동원이 되는 정치인, 연예인,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일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류영역의 확대도 필요하다. 체육교류, 예술교류, 학술교류를 넘어 설수 있는 일상영역으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은 가장 참여하고 싶은 북한과의 교류 방법으로 북한의 청소년이 남한으로 수학여행을 오고, 남한의 청소년이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교류활동이었다. 이와 같은 수학여행의 경험을 토대로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한 방문을 넘어서 북한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또는 남한의 일상으로 찾아오는 형태로 교류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북한 관련 정책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대북 정책의 방향도 바뀐다. 그렇게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북한은 신뢰감 상실을 운운하면서 결국 교류가 중단되곤 한다. 우리 정부는 바뀐 정부가 이행하려는 한시적인 북한 관련 정책과제와 함께 정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구적인 북한 관련 정책 시스템을 만들고 이로 토대로 남과 북이 원활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일이 되기까지의 영구적 정책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 남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결과로부터의 시사점

청소년 의식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현안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였다 (〈그림 VI-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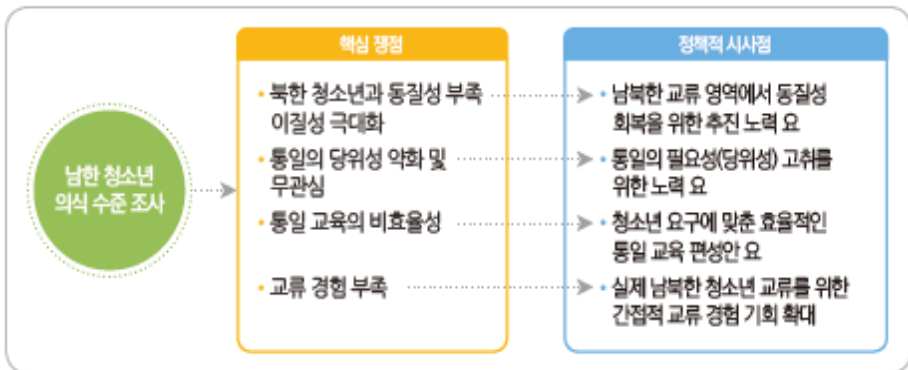


그림 VI-3.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을 위한 절차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북한 청소년들과 차이나 다름의 인식이 크고, 이로 인해 동질성이 매우 약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북한의 청소년과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우리 주변국 청소년들보다도 멀게 느끼고 있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청소년들을 더 다르게 느낄 법도 한데,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질감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은 통일 후 서로 다른 문화의 결합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사회적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지출해야 할 많은 양의 통일비용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우리 사회와 각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지 못한다고 불확실한 통일 후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통일에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한다.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보다 많은 횟수의 통일교육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교육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 통일 교육에서 이뤄졌어야 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인식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역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북한 혹은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의 교류 경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 역시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3만 명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본적조차 없는 청소년들이 9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한다. 첫째, 청소년 남북교류 영역에서의 핵심은 남한 청소년과 북한 청소년 사이의 차이와 다름을 알리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꾀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교육 실시와 함께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통일비용문제를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분단비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왜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 후 남과 북이 문화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빚어질 갈등 및 혼란보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역량 강화적 측면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에게 맞는, 청소년이 원하는, 청소년이 찾아오는 통일교육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교실이나 학교 안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통일 교육을 식상해한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통일 교육은 체험으로 활동하면서 몸으로 느끼는 교육이다. 실제 북한 이탈 주민이 소개하는 북한 의식주 생활을 간접 체험해 본다든지, 북한 이탈 청소년과의 교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청소년 요구에 맞춘 통일 교육으로 대대적이 개편이 필요하다.

넷째, 여러 국가 간의 정책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조차도 다각도로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교류활동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청소년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에게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가 있는 북한 이탈 청소년과의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여 남한의 청소년에게는 북한을 이해하는 간접 경험을 제공해 주고 북한 이탈 청소년에게는 남한에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 3) 경기도 A고등학교 사례조사결과로부터의 시사점

경기도에 소재한 A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파악한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다. 교류 활동 기회가 부족하며 교류 콘텐츠가 제한되어 있는 점이 교류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 과중한 학업부담으로 인한 청소년의 참여의지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교류활동의 지속성과 연계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의 니즈에 부합하는 교류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엘리트 중심의 교류나 특정 학교나 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류활동이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교류활동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과중한 학업부담 속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또 하나의 학업부담으로 짐이 되어서

는 안 된다. 남북 청소년/북한이탈 청소년/다문화배경 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교과과정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단위를 벗어나 학교밖 청소년들도 희망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한다. 이를 위하여 시·도별 청소년 지원 기관이 연계하여 북한이탈청소년, 남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과의 교류활동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A고의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교류활동도 지원자에 비해 교류행사가 제한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연 중 4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관계로 교류활동을 통해 만난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과 소수의 인원만이 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A고 청소년들이 북한이탈청소년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도 제반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남북한 청소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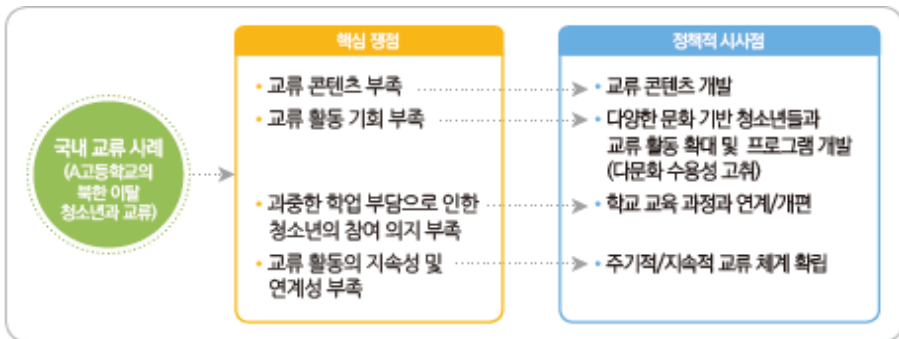


그림 VI-4.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을 위한 절차

##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정책 방향

이 절에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정책의 거시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림 VI-5>는 연구진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설정한 4대 정책방향이다. 첫 번째, 북한/통일에 대한 인식 수준별 맞춤형 접근, 두 번째, 정치색채를 배제한 사회·문화 교류 중심적 접근, 세 번째, 교류협력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접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니즈에 대한 수용적 접근이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북한, 통일,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양면적이고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획일적인 통일교육이나 남북한 교류활동으로는 당초 목적으로 교육과 활동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교류 주체인 청소년 당사자가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부정적일 경우, 그리고 자신과 북한청소년 간 가치관, 문화 등에서 차이와 차이를 크게 인식할수록 남북한 교류활동의 참여의지가 낮을 것이며, 교류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교류의 효과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소년들의 교급별 인식과 태도의 차이는 크다. 또한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이라고 해도 북한과 통일,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차가 나타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정책방향 중 하나로 북한/통일에 대한 인식 수준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VI-5.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정책 방향

남북 간의 교류는 크게 정치경제적인 영역과 비정치경제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 교류의 성격상 경제적 영역의 교류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성격과 이행 여부에도 영향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을 반추해보면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이 냉·온탕을 오가며 단발성, 이벤트성에 그쳤음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교류, 학술교류, 관광지/유적지 상호방문 등의 비정치적 영역부터 남북교류의 정례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제까지 실행된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활동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한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남한이 주도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일방적 행사였다. 이에 일선의 많은 현장 전문가들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교류의 형태나 영역의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남한과 북한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남과 북 서로가 지향하는 교류의 형태, 영역, 방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룸으

로써 남한과 북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교류 협력이 중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나 남북관계에 따라 일방적인 교류 단절이 이루어지는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한 청소년 교류만이라도 이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 간의 협정서를 체결하여 이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니즈 중심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의 주체들에 대한 운영 방식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 청소년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정부주도나 민간단체 주도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남북한 청소년 교류정책에 있어 교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마다 개성과 관심사가 다르듯이 이들이 선호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영역도 스포츠, 음악, 미술, 토론, 공연, 견학, 관광 등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남북한 교류활동에 참가할 때 남북한 교류의 효과성이 배가될 수 있기에 청소년의 니즈를 파악하고 교류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단계별 정책 과제

이 절에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단계, 준비단계, 이행단계, 심화단계, 정착단계로 구성된 5단계별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VI-6>은 5단계별 각각의 정책과제를 정리한 흐름도이다.



그림 VI-6.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5단계별 정책과제

1단계는 시스템 구축 단계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 추진체계 구축, 교류지원기금 마련과 집행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단계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지속화를 위한 준비단계로 대내적인 영역과 대외적인 영역을 함께 다루는 투 트랙(two tracks) 접근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과 함께 청소년들을 교류 정책과 활동의 중심으로 껴잡어낼 수 있도록 청소년 교류활동가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선행연구 분석과 A고의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과 통일의 필요성을 고취할만한 통일교육의 개선이 시급하다. 정권의 입맛대로 변하는 통일교육이 아닌 직·간접 체험 및 토론 위주의 통일교육을 통해 선입견과 편견을 걷어내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배양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당장 청소년을 전면으로 내세우기보다 구축된 민관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남북한 교류채널의 점검과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사회문화 영역에서 다양한 교류채널의 확대로 이어져 맞춤형 교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전준

비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 배경청소년 등에 대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 정부와 정상 간의 잦은 만남을 통해 신뢰구축을 공고히 하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형태와 방법, 영역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양측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 국제연합(UN)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 사업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단계인 이행단계에서는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비정치적이고 교류활동의 이행이 용이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합의된 방식과 장소에서 교류를 하는 등 교류활동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기구를 상호 간 설치해 정기적인 협의를 해나가며 교류활동의 양적·질적 확대 및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4단계는 심화단계로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영역의 확대는 물론, 운영 주체도 청소년들이 한 축이 되어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3단계에서는 이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4단계인 심화단계에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있어 우리 사회와 청소년의 일상에 미칠 파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로, 남북한 청소년 간 교환학생제의 운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이버교류를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엘리트 위주의 교류가 아닌 비선수의 스포츠 경기, 일반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류 등 교류 참가자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희망하는 청소년이라면 일정 소양교육을 받고 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정착단계로 사실상의 남북한 통일 수준에서의 교류활동이다. 1국가 2체제를 전제로 상호 비자발급 등을 통한 일반인의 자유왕래가 이루어

지고, 중국의 사례에서처럼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북한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직업교육과 취·창업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북한 내 우수인력의 활용을 통한 개인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 1단계: 시스템구축단계(2020~2022)

이 단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위해 여러 정부 부처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먼저,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절대 권력의 정부주도적인 교류도, 민간단체의 소극적인 교류도 아닌 정부 및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둘 사이의 교류목적이 상보적으로 채워지고 서로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가 도입이 되어서 시스템적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둘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위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남북한 교류 협력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군사적 냉전기에 오리진(origin)을 두고 있는 이 법은 규제의 목적이 강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가 아닌 자율적 활동의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전의 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류 협력이 활성화 되었을 때의 시나리오를 모색하여 이를 대비하여야 한다. 예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남북한 방문 및 남북한 주민 접촉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14.3.11. 일부개정, 법률 제12396호),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검증된 남북교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신고제로의 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위한 예산안 편성 및 지원금의 확대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 배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예산안의 의무 집행을 명시화하여 한시적으로 혹은 특정 영역에만 머무를 수 있는 청소년 교류를 확장하여 다양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 2) 2단계: 준비단계(2023~2025)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중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준비단계에서는 대내적인 영역과 대외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이전 단계에서 구축된 체계적인 지원의 틀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남북 청소년 교류를 위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 개선 사업과 인재의 발굴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남북 청소년 교류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안으로는 국내 청소년들의 남북 교류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교육과 통일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및 편성 등의 활동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밖으로는 북한의 실무자와 원활한 소통을 증대하는 입장에서 그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이후 남북 간의 청소년 교류에서 굳건한 신뢰 구축을 위한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교류전문가는 대외적으로 주변국들과의 상호협조적인 입장에서 남과 북의 교류활동에 국제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과정에서 육성된 교류 전문가와 청소년 교류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교류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민관 교류의 다양한 채널 확보와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잘 구축된 민간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견고하게 만들고, 이전에 구축한 다양한 북한과의 채널을 통해 북한과 원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영역으로 교류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내적으로 육성이 된 교류 전문가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북한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북한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남북한 교류의 가장 근간이 될 신뢰 구축을 우선적인 목표로 중장기적인 청소년 교류의 일선에 나서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UN 등 국제기구들과의 주기적인 접촉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남북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이 합의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인 가교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관련 합의사항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교류활동을 하고자 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이들 교류 전문가의 활약이 기대되는 영역이다.

### 3) 3단계: 이행단계(2026~2030)

앞서 살핀 법제, 운영체제, 운영경비 등 제반여건을 공고히 한 후 실제 이행단계에서는 남북교류이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남북한 관계개선 다음으로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의 태도변화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이기에 북한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북한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제제재의 틀을 흔들지 않고도 비정치적·비경제적 청소년 교류는 활발히 이어갈 수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북한의 의견을 전폭 수용하더라도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남한의 월드컵 예선전이 북한에서 열렸을 때 북한은 무관중·무중계 경기를 치러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반면, 최근 북한에서 개최된 국제 역도경기에서는 관중석이 만석이 될 정도의 행사를 치러 극한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북한이 자신 있고 내세우고 싶어 하는 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의 물꼬를 트고 교류장소나 교류방식에 대해서도 북한에 선택권을 주어 교류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IPA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교류, 남북한 유적지/관광지 견학은 중요도와 이행의 용이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3단계에서는 이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남북교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술교류와 제3국 유적지 역사기행은 중요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행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교류활동의 차선으로 교류 리스트에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단계인 이행단계의 성공의 바로미터는 교류활동의 횟수와 교류활동 참여인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단계인 심화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대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다수 배출되는 시점에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기구를 상호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교류활동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의 해협회와 타이완의 해기회가 반민반관의 성격을 띠며 양안 간 교류협력기구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가칭 〈남북청소년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유관기관, 청소년협의체 등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자원조달 등에 대한 계획을 설정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설정하여 남북한 간 상호협력 속에 청소년 교류협력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 4) 4단계: 심화단계(2031~2035)

심화단계에서는 청소년 교류 활동가를 주축으로 청소년이 전면에서 교류활동의 방향과 운영에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들이 주축이 됐을 때 비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순수한 교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소년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 정책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영역으로의 교류확대란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이버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게임을 통한 e-스포츠(e-sports)는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용이하며 적극성을 펼 수 있는 교류분야이다. SNS를 활용한 소셜러닝(social learning)이 남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일상생활의 교류로써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다. 소셜러닝은 지식의 사유화가 아닌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영역으로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 없고 교류를 위한 비용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학업을 본업으로 하는 청소년들의 일상교류로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이다. 스마트폰으로 학업과정에서 수학, 외국어,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모르는 문제를 올리면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문제를 풀기위해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남북한 청소년의 일상교류로 권장할만하다.

상술한 사이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남북방송통신교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14.3.11. 일부개정, 법률 제1239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8.12.24. 타법개정, 법률 제16019호), 남북한 간 지속적이고 활발한 사이버상 교류를 위하여 절차, 관리, 운영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남북한 주민이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14.3.11. 일부개정, 법률 제12396) 상술한 사이버 교류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전 또는 사후 신고 규정은 폐지 또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 5) 5단계: 정착단계(2036년~)

마지막으로 정착단계이다. 청소년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통일 가능 시기로 2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통일의 형태가 단일국가 체제나 1국가 2체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논의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루어질 무렵에는 일반인의 상호왕래가 가능한 수준으로 남북의 울타리를 서로에게 낮출 필요가 있다. 중국-대만의 예를 보더라도 상대국으로 가기위한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인적·물적 교류가 용이하다. 비자발급을 통해 일정 자격과 교류의 순수성이 확인되면 상호간의 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만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자국에서 학업이나 취·창업을 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 중국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타이완 청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가 스마트카드 형태인 신분증을 제공하여 타이완 출신 청년들에게 취업, 교육, 의료, 차량 등록 등 중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한국사회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의 선진화된 인재 육성시스템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북한 청소년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북한 청년들이 남한 사회에서 취업과 창업 시스템을 체험하고 실제 한국사회나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강혜련, 박보영, 정창률(2009). 통일외식 변화추이 분석을 통한 청소년 통일교육의 다변화 방향 고찰. 통일교육원 연구보고서.
- 길은배(2010).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이행 실태 분석: 1990년대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형성기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7(3), 185-204.
- 길은배(2019).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협력 이행 실태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59, 5-34.
- 길은배, 이종원, 최원기(2002).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2-13). 서울: 통일연구원.
- 김경성(2012). 불굴의 아리랑. 파주: 북스타
- 김경성(2018). 스포츠 교류를 통해 본 민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토론회 자료집, 25-39.
- 김남주(2018). 대북제재와 남북교류협력, 양립 가능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토론회 자료집, 5-23.
- 김동선(2001). 2010 동계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를 위한 전략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40(4), 341-350.
- 김동성, 신원득, 최성환, 정성희, 문현미, 김수란(201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 2017-68). 수원: 경기연구원.
- 김동성, 최용환, 이종무, 문현미(201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기본연구 2011-14).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 김용범, 신현옥(2012).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화콘텐츠 인프라**.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김재운(2016). 남북스포츠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3, 23-33.
- 김창환, 유시은, 김윤영, 이숙현, 전해림(2013). **남북 청소년 교류 추진 방향 연구**.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 김형주, 권재기(2014).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R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동은(2000).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 음악. **실천문학**, 2000.11, 309-312.
- 미국국가정보위원회(2009). **글로벌 트렌드 2025**. 서울: 예문.
- 서유상, 전영선, 이철주, 임미정(2008). 남북음악교류의 가능성과 경쟁력: 북 음악 영재, 남북이 함께 키우면 제2의 장영주 나온다. **민족21**, 2008.7, 166-169.
- 윤철경, 오덕렬(2012). **청소년분야 남북교류 현황 및 추진방향**. 남북 교류협력 분야별 실태점검 및 추진방안(157-181). 통일정책연구협의회.
- 이규창, 김수암, 민태은, 이우태, 하범식(2018).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체육·문화예술 및 인도협력을 중심으로**(KINU 연구총서 18-02). 서울: 통일연구원.
- 이우영, 손기웅, 임순희(2001).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05). 서울: 통일연구원.
- 이재형(2018).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금강산관광 재개 인식 연구. **관광레저 연구**, 30(12), 77-92.
- 이종석(2019) **남북 인적자원교류와 협력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이찬우(2019). **북한 경제와 협동하자: 실사구시 북한경제 바로 알기, 통일로 가는 남북경협 스테디**. 서울: 시대의창.
- 이학래(2008). **한국현대체육사**. 용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 이해정, 이용화(2018).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현안**

- 과 과제, 2018(3), 1-15.
- 이현우, 김재우(2016).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1991) 코리아 단일팀 참가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21(2), 77-93.
- 이현조(2008). 남북학술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29, 397-422.
- 임강택(2015).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편). 남북교류협력의 재조명: 분야별 진단과 과제(pp.249-255). 서울: 늘품플러스.
- 장미진(2000).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 남북공연교류 활성화 방안. *문화정책논총*, 12, 139-160.
- 전영선, 김지니(2007). 북한 공연예술단체의 대외공연 양상과 특성 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1, 201-233.
- 정기웅(2010). 남북한 교류에서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에 대한 검토. *OUGHTOPIA*, 25(3), 385-417.
- 정동준, 김선, 김희정, 나용우, 문인철, 송영훈, 최규빈, 임경훈, 이정옥(2019). 2018 통일의식조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2).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조성호, 강지희, 박재현(2015). 포트폴리오 및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략적 R&D 재원배분 방안 마련(연구보고 2015-068).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조우찬(2018). 남북 여성 및 청소년 교류 협력 방안.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427-434.
- 조한범(2000). 남북 학술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연구총서 2000-16). 서울: 통일연구원.
- 통일부(2018). 201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2019).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홍순직(2003). 갈 길 멀어도 큰 수확 보이는 개성공단. *통일한국*, 236, 57-59.

- Bergman, L & Magnusson, D.(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 Magidson, J., & Vermunt, J.(2002). Latent class models for clustering: A comparison with K-means. *Canadia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 37-44.
- McCombs, M.(2014). *Setting the Agenda: Mass media and Public Opinion*. Cambridge: Polity.
- Nylund, K.L., Asparouhov, T., & Muthen, B.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 535-569.

#### [기타 웹사이트 자료]

- Muthén, L, & Muthén, B.(2012). Statistical analysis with latent variables: Mplus user's guide. [https://www.statmodel.com/download/usersguide/Mplus%20user%20guide%20Ver\\_7\\_r3\\_web.pdf](https://www.statmodel.com/download/usersguide/Mplus%20user%20guide%20Ver_7_r3_web.pdf)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7). 2017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통일교육원 웹사이트 <http://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mid=SM00000532&limit=20&sv=%ED%86%B5%EC%9D%BC%EA%B5%90%EC%9C%A1+%EC%8B%A4%ED%83%9C%EC%A1%B0%EC%82%AC&eqOdrby=false&eqViewYn=true&odr=news&id=19933&ty=&vw=img&odr=news>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8). 2018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통일교육원 웹사이트 <http://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mid=SM00000532&limit=20&sv=%ED%86%B5%EC%9D%BC%EA%B5%90%EC%9C%A1+%EC%8B%A4%ED%83%9C%EC%A1%B0%EC%82%AC&eqOdrby=false&eqViewYn=true&odr=news&id=19933&ty=&vw=img&odr=news>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news&id=20057&ty=&vw=img&odr=news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통일부, 교육부 보도자료(2019.2.12.). 2018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부 웹사이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553&category=&pageIdx=1](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553&category=&pageIdx=1)에서 2019년 2월 13  
일 인출.

#### [신문기사 자료]

뉴시스(2019.2.12.). 초중고생 북아미지.. '전쟁·독재 줄고 '협력대상' 늘었다. 뉴시스 웹사이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2\\_0000555478&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2_0000555478&cID=10201&pID=10200#) 에서 2019년 2월 12일 인출.

세계일보(1998.5.13.). 凍土 녹인 꼬마천사들 민간교류 새 장/리틀엔젤스 平壤공연  
결산. 빅카인즈 웹사이트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에서 2019년 10월 1일 해당 기사 검색 및 인출.

일간투데이(2019.4.8.). 제6회 아리스포츠컵 원산(평양)축구대회 출범식 및 사업 설명회 개최.  
일간투데이 웹사이트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23>  
에서 2019년 5월 5일 인출.

조선일보(1999.8.24.). 청소년대표 280명 금강산에서 수련활동. 조선일보 웹사이트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9082470111](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9082470111)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중앙일보(2000.5.18.). 북한예술단 서울공연이 갖는 의미. 중앙일보 웹사이트  
<https://news.joins.com/article/3918084>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프레스리안(2018.4.16.). 유엔보고서 北 1000만 명이 영양부족. 프레스리안 웹사이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93141> 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 [법령 참고자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14.3.11. 일부개정, 법률 제1239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서 2019년 5월 5일 인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2018.12.24. 타법개정, 법률 제16019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 [해외사례 참고자료]

강일규, 허영준, 김유미, 이윤진, 이천우(2014).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4-69-06).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준영(2016.3.1.). 타이완 차이잉원 시대, 미·중 경쟁 틈새공략 노린다. 통일한국, 2016년 3월호. <http://unikorea21.com/?p=11885>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김준영(2019). 중국의 통일정책과 법률전: 「반분열국가법」을 중심으로. 중국법연구, 37, 1-36.

나복혜(2002). 대만해협 양안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소견. 통일연구, 6(2), 5-26.

쉬진위, 안소현(2016). 양안은 화해할 수 있을까?: 중국몽(中國夢)과 대만 발전의 갈등과 대화. 역사비평, 2016.2, 165-190.

신종호(2011). 양안(兩岸)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JPI 정책포럼, 2011-35.

이진영(2005). 중국 <반국가분열법> 제정의 의의와 전망: 대만문제 통해 자신들의 커진 힘 시험하는 중국. 통일한국, 256, 58-61.

장은정, 김정진, 윤성혜(2018).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양안관계 법제 연구

- (통일법제연구 18-19-①-07).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최준흠(2010). 중국과 대만의 통일노선과 교류협력: 한반도에 주는 함의.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273-286.
- 매경프리미엄(2018.9.17.). 중국 본토 신분증 취득한 대만인 2만명 넘어. 매경프리미엄 웹사이트 <https://www.mk.co.kr/premium/life/view/2018/09/23461/>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 아주경제(2018.12.3.). 대만 민진당 참패 후... 활기 띠는 양안 경제교류? 아주경제 웹사이트 <https://www.ajunews.com/view/20181203094119391>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 연합뉴스(2018.10.16.). 고급 인재 다 뺏길라. 중국, 인재 유치에 대만 정부 긴장. 연합뉴스 웹사이트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6180100074>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 연합뉴스(2018.11.26.). 중국, 대만 중앙-지방정부 분리 대응할 듯. 연합뉴스 웹사이트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6156100074>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 인천일보(2019.3.7.). 남북관계와 중국 양안관계, 무엇이 다른가. 인천일보 웹사이트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283>에서 2019년 10월 1일 인출.
- 조선비즈(2013.5.26.). 新성장시대 한반도 공동체 상생 3대 분리 원칙 필요. 조선비즈 웹사이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6/2013052600585.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6/2013052600585.html)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 주간동아(2019.9.20.). 홍콩을 볼모로 삼는 대만 총통선거. 주간동아 웹사이트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1852241/1>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 중앙일보(2019.8.1.). 중국, 대만 여행 전면금지... 미국산 무기 구매에 보복. 중앙

일보 웹사이트 <https://news.joins.com/article/23540971>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결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2842&cid=62067&categoryId=62067>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결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4288&cid=43667&categoryId=43667>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위키문헌 검색결과.

<https://ko.wikisource.org/wiki/%EC%A4%91%ED%99%94%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ED%97%8C%EB%B2%95>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http://blog.naver.com/donmany0203/220605600647>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https://blog.naver.com/kimhs2769/221407469397>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https://blog.naver.com/snsnip2001/220838621422>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https://blog.naver.com/tkfkdoa/221033631556>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https://nbamania.com/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2170483](https://nbamania.com/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2170483) 에서 2019년 11월 1일 인출.

[http://www.sohu.com/a/207279932\\_543957](http://www.sohu.com/a/207279932_543957)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http://www.sohu.com/a/309847445\\_162522](http://www.sohu.com/a/309847445_162522)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两岸青年文化交流研讨会在济南成功举办)

李理(2008). “去中国化”的台湾中学历史教科书编纂[J];台湾研究集刊.

法制日报-法制网(2019.7.24) 第四届“两岸人权论坛”举办, [http://www.legaldaily.com.cn/fxjy/content/2019-07/24/content\\_7943793.htm](http://www.legaldaily.com.cn/fxjy/content/2019-07/24/content_7943793.htm)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艾明江(2017). 始信一点灵犀诚通“心灵契合”——海峡两岸青年交流的必由路径艾明江,“认知-情感-利益”:两岸青年交流模式的发展与演变,中国青年研究.

闫雨蒙(2017). 大陆和台湾高中历史教科书中“两岸描述”比较研究[D];厦门大学.

人民网(2017). 教育频道,“智创未来”,北科大海峡两岸青年科技交流营举行, 2017年06月29日. <http://edu.people.com.cn/n1/2017/0629/c227065-29372351.html>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张素桂(2018). 《青春最强音》:两岸青年交流的桥梁,讨论与思考.

中国新闻网(2016). “海峡两岸青年体育交流基地落户重庆”, 2016年08月23日, <http://www.chinanews.com/tw/2016/08-23/7981824.shtml> 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 — 부 록



---

## 부 록

---

1. 청소년 의식수준 조사
2.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설문지(초등학생용)
3.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설문지  
(중고등학생용, A고 1차)
4.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설문지(A고 2차)
5.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설문지(전문가용)
6.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남북청소년 교류 및 통일의 필요성

# 1. 청소년 의식수준 조사

표 1 북한 이미지

구분	사례수 ( )	통일 통일	특재/ 인물	핵/ 미사일 실험	가난/ 빈곤/ 기아	탈북자	한민족	인권 문제	스포츠 교류	문화/ 예술 교류 협력	경제적 지원/원 조	경제 교류 협력	기타	(단위: %, (명))	
														모름/ 무응답	없음
전체	(3228)	33.8	30.7	17.7	4.7	3.8	3.3	2.4	0.6	0.2	0.2	0.2	2.2	0.2	0.0
성별	남학생 (1547)	30.4	29.5	21.3	4.3	2.6	4.3	2.3	0.9	0.2	0.4	0.1	3.6	0.1	0.1
	여학생 (1667)	37.1	31.9	14.3	4.9	5.0	2.3	2.5	0.3	0.3	0.1	0.2	1.0	0.2	0.0
	무응답 (14)	14.3	35.7	21.4	14.3	0.0	7.1	0.0	0.0	0.0	0.0	0.0	7.1	0.0	0.0
교급별	초등학교 (907)	41.5	24.6	18.5	1.9	3.2	4.6	1.2	1.0	0.4	0.1	0.1	2.6	0.1	0.1
	중학교 (1160)	32.3	34.0	17.7	4.8	3.2	2.6	1.7	0.5	0.2	0.2	0.3	2.5	0.1	0.0
	고등학교 (1161)	29.2	32.3	17.0	6.7	5.0	2.8	4.0	0.3	0.2	0.3	0.2	1.6	0.3	0.0

표 2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	우리나라의 인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할 대상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상	우리나라에게 부담만 되는 대상	우리나라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대상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3228)	47.1	21.9	10.4	6.4	5.0	4.0	3.3	1.5	0.4
성별	남학생	44.0	22.9	10.6	7.4	5.4	5.2	2.4	1.7	0.3
	여학생	(1667)	50.0	20.9	10.2	5.5	4.7	2.8	1.3	0.5
교급별	무응답	(14)	35.7	14.3	7.1	14.3	7.1	0.0	14.3	0.0
	초등학교	(907)	58.7	19.3	5.4	5.8	3.2	2.0	3.7	0.6
교급별	중학교	(1160)	46.1	20.9	10.1	7.4	5.5	4.8	3.7	0.3
	고등학교	(1161)	38.9	24.8	14.6	5.9	6.0	4.7	2.5	0.4

표 3 통일 이미지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평화/화합	이산가족	국가발전	사회갈등/혼란	통일비용	전쟁	기타	모름/무응답
진체	(3228)	30.3	25.4	12.4	12.1	9.4	8.7	1.5	0.2
성별	남학생	(1547)	31.8	17.1	15.2	13.3	9.3	2.1	0.3
	여학생	(1667)	29.0	33.1	9.9	11.0	8.3	1.0	0.1
	무응답	(14)	28.6	21.4	0.0	14.3	28.6	7.1	0.0
교급별	초등학교	(907)	40.4	26.8	10.9	8.3	8.3	1.4	0.6
	중학교	(1160)	27.1	27.2	14.7	11.7	9.5	1.8	0.1
	고등학교	(1161)	25.8	22.4	11.3	15.5	13.9	1.3	0.0

표 4 남북통일 필요성에 대한 동의수준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불필요*	*필요*
전체	(3228)	4.4	15.3	46.2	21.7	12.5	0.0	19.7	67.8
성별	남학생	5.7	14.6	42.5	25.7	11.4	0.0	20.3	68.3
	여학생	3.1	15.9	49.5	18.0	13.4	0.1	19.0	67.5
	무응답	7.1	21.4	50.0	14.3	7.1	0.0	28.6	64.3
교급별	초등학교	3.6	8.4	44.9	30.3	12.7	0.1	12.0	75.2
	중학교	3.7	15.3	47.8	21.6	11.7	0.0	19.0	69.3
	고등학교	5.6	20.8	45.6	15.1	13.0	0.0	26.4	60.6

표 5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통일한국의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전쟁위험 등 안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2190)	28.8	23.2	19.6	15.3	5.3	5.1	2.0	0.9	
성별	남학생	(1056)	32.0	23.5	21.2	11.0	4.0	5.8	2.0	0.6
	여학생	(1125)	25.9	22.8	18.0	19.2	6.5	4.4	2.0	1.2
	무응답	(9)	22.2	22.2	33.3	22.2	0.0	0.0	0.0	0.0
교급별	초등학교	(682)	20.7	20.5	28.7	20.1	5.7	1.0	1.9	1.3
	중학교	(804)	30.1	26.0	14.8	15.5	4.6	6.2	2.1	0.6
	고등학교	(704)	35.2	22.4	16.2	10.2	5.5	7.7	1.8	0.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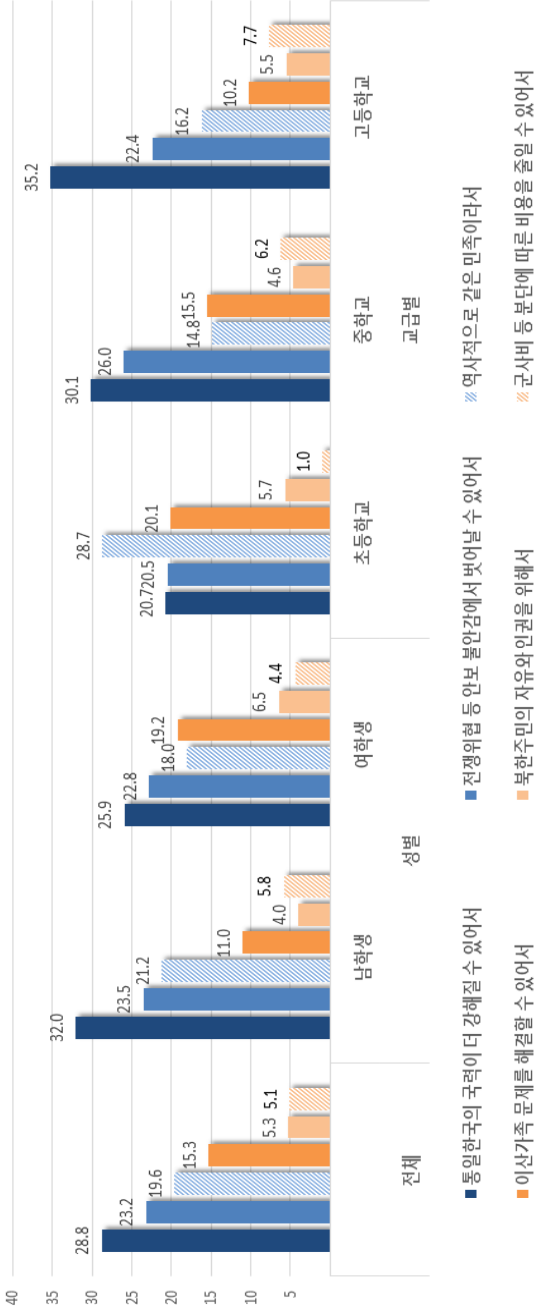


그림 1.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6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통일 후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서	통일이 되어도 나의 삶에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북한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 때문에	북한사람들로 인해 취직/입시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635)	39.5	28.2	10.6	5.2	4.1	3.8	3.0	4.9	0.8
	남학생	(314)	37.9	31.5	8.3	6.4	2.9	3.5	5.7	0.6
	여학생	(317)	41.3	25.2	12.9	4.1	5.0	3.8	2.8	0.9
성별	무응답	(4)	25.0	0.0	0.0	25.0	25.0	0.0	25.0	0.0
	초등학교	(109)	46.8	21.1	14.7	2.8	2.8	2.8	3.7	2.8
교급별	중학교	(220)	35.9	27.7	10.9	5.0	5.9	5.0	4.5	0.5
	고등학교	(306)	39.5	31.0	8.8	6.2	3.3	3.3	5.6	0.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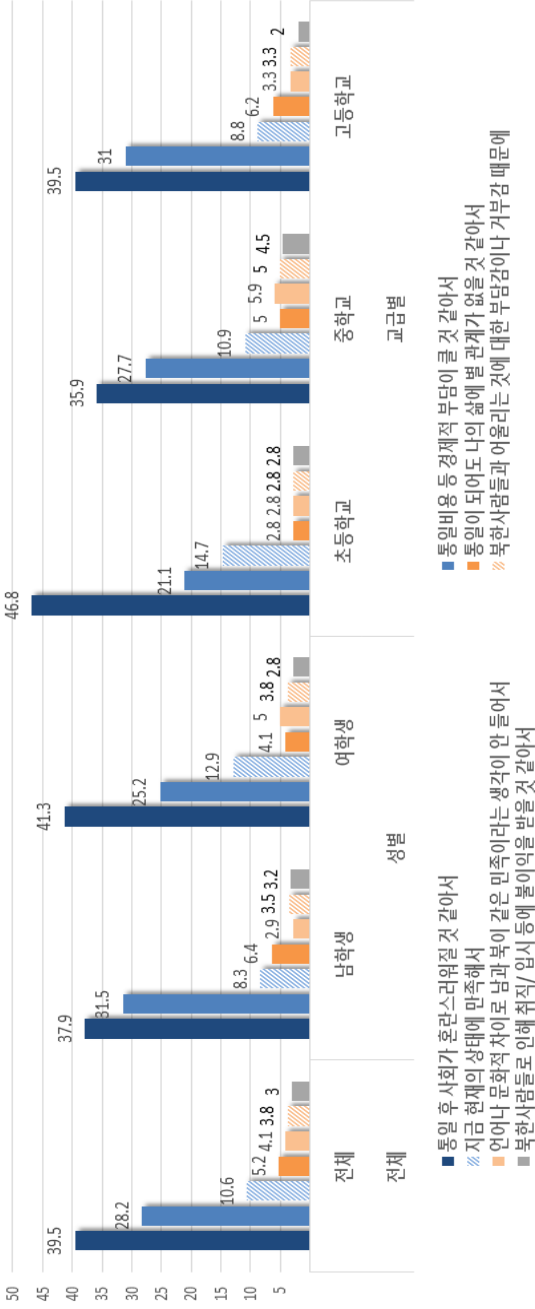


그림 2.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7 통일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통일이 우리 사회와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아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통일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402)	56.0	21.4	17.9	3.2	1.5	
성별	남학생	(177)	49.2	24.3	20.3	3.4	2.8
	여학생	(224)	61.6	19.2	16.1	2.7	0.4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교급별	초등학교	(115)	50.4	23.5	18.3	5.2	2.6
	중학교	(136)	52.2	23.5	19.9	2.2	2.2
	고등학교	(151)	63.6	17.9	15.9	2.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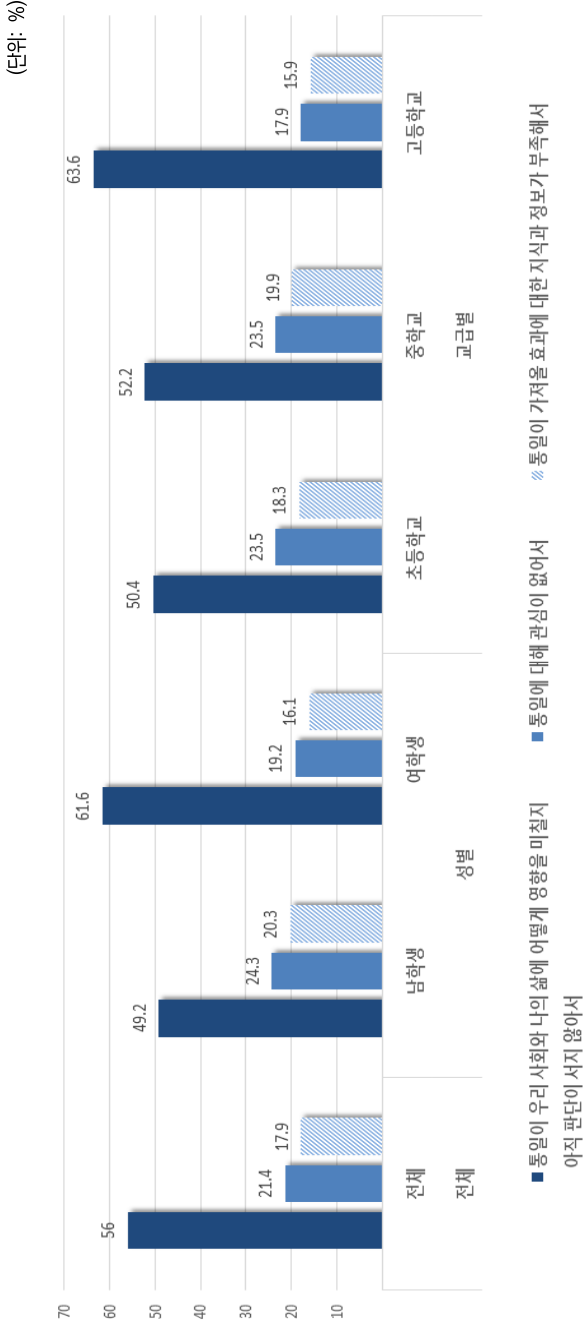


그림 3. 동일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8 남북통일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	북한 정부의 통일의지/역량 부족	주변 강대국의 비협조 및 방해	통일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한국 국민들의 통일 의지/인식 부족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지/인식 부족	한국 정부의 통일 의지/역량 부족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3228)	31.1	23.0	18.5	10.9	6.5	3.4	3.3	2.3	1.0
성별	남학생	(1547)	28.4	22.2	12.1	6.7	3.7	4.1	2.8	1.2
	여학생	(1667)	33.6	23.9	17.9	9.8	6.3	3.2	1.8	0.9
	무응답	(14)	28.6	21.4	35.7	7.1	7.1	0.0	0.0	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07)	29.3	17.1	20.1	13.2	7.3	4.3	3.2	2.1
	중학교	(1160)	30.9	22.9	16.9	12.3	6.9	4.3	1.6	0.8
	고등학교	(1161)	32.6	27.8	18.8	7.7	5.4	1.8	2.2	0.4

표 9 남북통일이 가능할 시기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3년 이내	4년~5년 이내	5년~10년 이내	10년~20년 이내	20년 이후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함	모름/무응답
전체	(3228)	5.1	11.5	18.5	23.4	28.0	13.1	0.4
성별	남학생	5.7	12.2	18.7	23.1	26.2	13.8	0.4
	여학생	4.5	10.9	18.5	23.6	29.7	12.3	0.4
	무응답	(14)	21.4	0.0	0.0	35.7	21.4	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07)	10.7	19.1	23.9	21.2	16.1	8.7
	중학교	(1160)	4.1	12.1	20.1	25.3	27.0	11.0
	고등학교	(1161)	1.9	4.9	12.7	23.3	38.2	18.5

표 10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1순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	남북 북한의 비핵화 조치	남북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	평화 통일 교육	남북 정상 및 정부 간 대화	통일 비용 마련	평화 협정 체결	주변 나라들의 협조	민족 동질성 회복	남북의 경제 발전	남한의 경제 발전	북한에 대한 다각적 지원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3228)	22.5	14.7	14.4	7.3	6.7	6.6	5.6	5.1	3.2	2.9	1.5	0.3	1.0	0.5
성별	남학생	(1547)	22.2	15.1	14.0	6.9	4.5	6.6	5.9	3.6	3.2	2.0	0.5	1.0	0.5
	여학생	(1667)	23.0	14.3	14.9	7.6	8.7	6.5	4.3	2.9	2.6	1.0	0.2	1.0	0.4
	무응답	(14)	7.1	14.3	0.0	14.3	7.1	7.1	14.3	0.0	0.0	7.1	0.0	0.0	0.0
교급별	초등학교	(907)	11.8	14.1	18.5	15.2	8.9	4.0	6.0	3.0	2.4	1.5	0.6	1.4	0.4
	중학교	(1160)	20.3	15.3	14.6	5.7	7.8	8.9	5.0	3.0	3.6	1.3	0.3	0.9	0.6
	고등학교	(1161)	33.2	14.5	11.0	2.7	3.8	6.3	5.1	4.6	3.5	2.6	1.6	0.2	0.8

표 11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1+2순위, 중복응답 허용시)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남북 상호간 신뢰 구축	남북 북한의 비핵화 조치	남북 한의 교류 협력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	통일 비용 마련	남북 정상 및 정부 간 대화	주변 나라들의 협조	평화 통일 교육	평화 협정 체결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의 경제 발전	남한의 경제 발전	북한에 대한 다각적 지원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3228)	16.4	14.9	10.5	9.7	8.9	8.4	7.4	6.4	6.1	3.9	3.8	2.0	0.5	0.9	0.2
성별	남학생	(1547)	15.8	15.0	10.4	9.4	9.2	7.0	5.9	6.6	4.1	4.2	2.4	0.7	1.0	0.3
	여학생	(1667)	17.0	14.7	10.7	10.0	8.6	9.8	6.7	5.5	3.7	3.5	1.7	0.4	0.8	0.2
교급별	무응답	(14)	4.0	12.0	0.0	8.0	8.0	4.0	8.0	24.0	0.0	4.0	4.0	0.0	4.0	0.0
	초등학교	(907)	9.4	13.9	13.5	9.2	6.2	10.8	8.0	12.2	6.0	3.4	3.2	2.4	0.7	0.8
교급별	중학교	(1160)	15.4	14.6	10.8	8.6	10.4	8.7	7.3	6.0	6.6	4.2	1.9	0.7	1.0	0.3
	고등학교	(1161)	22.7	15.8	7.9	11.3	9.3	6.3	7.0	2.3	5.8	4.5	4.0	2.0	0.2	0.7

표 12 향후 통일교육/북한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여/참가하고 싶은 의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대체로 없다	대체로 있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의향 없음*	*의향 있음*	4점 평균	4점 표준편차
전체	(3228)	9.7	24.7	48.4	9.0	8.2	34.4	57.4	2.62	0.80
성별	남학생	14.2	26.4	42.8	8.5	8.1	40.6	51.3	2.50	0.86
	여학생	5.4	23.2	53.5	9.6	8.3	28.6	63.1	2.73	0.72
	무응답	14.3	21.4	57.1	0.0	7.1	35.7	57.1	2.46	0.78
학교급별	초등학교	9.2	17.2	51.8	13.2	8.6	26.4	65.0	2.76	0.82
	중학교	10.0	28.8	45.9	7.1	8.2	38.8	53.0	2.55	0.79
	고등학교	9.7	26.4	48.1	7.8	7.9	36.2	55.9	2.59	0.7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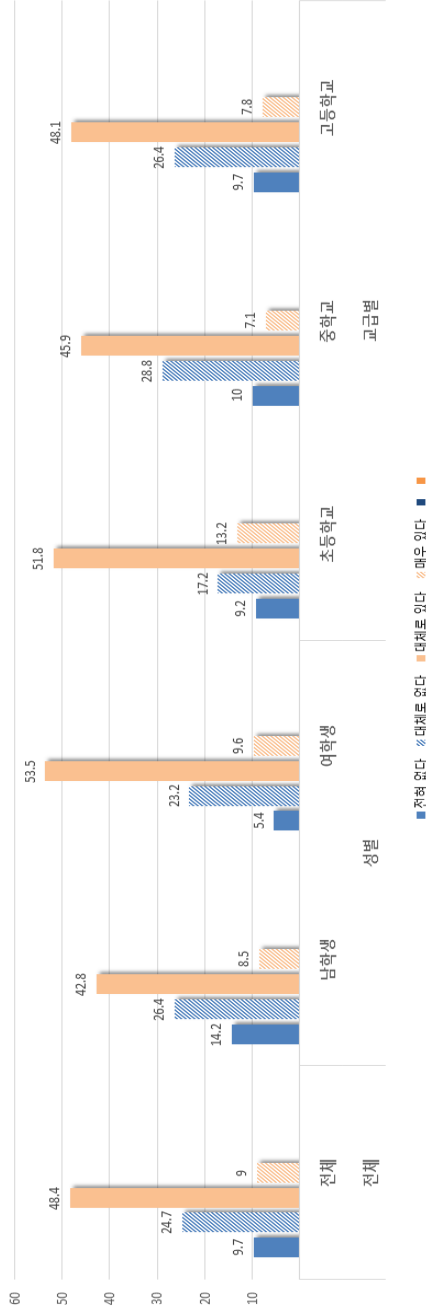


그림 4. 향후 통일교육/복합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여/참가하고 싶은 의향

표 13 통일교육/복합 관련 체험 행사/프로그램 참여/참가하고 싶은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통일이나 복합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바 빠 시간이 나 지 않아서	참여/참가하는 데 있어서 준비과정이나 복잡하거나 번거로워서	복합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어서	이전에 참여/참가했던 관련 행사/ 프로그램의 질 이나 수준이 낮 아서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1109)	33.9	26.7	12.2	11.0	7.2	7.1	1.9	
성별	남학생	(628)	32.0	27.5	12.9	12.7	6.2	6.5	2.1
	여학생	(476)	36.8	25.6	11.1	8.8	8.4	7.6	1.7
	무응답	(5)	0.0	20.0	20.0	0.0	20.0	40.0	0.0
교급별	초등학교	(239)	35.1	20.5	15.5	20.5	1.3	5.9	1.3
	중학교	(450)	30.4	26.9	14.9	10.0	6.9	8.4	2.4
	고등학교	(420)	36.9	30.0	7.4	6.7	11.0	6.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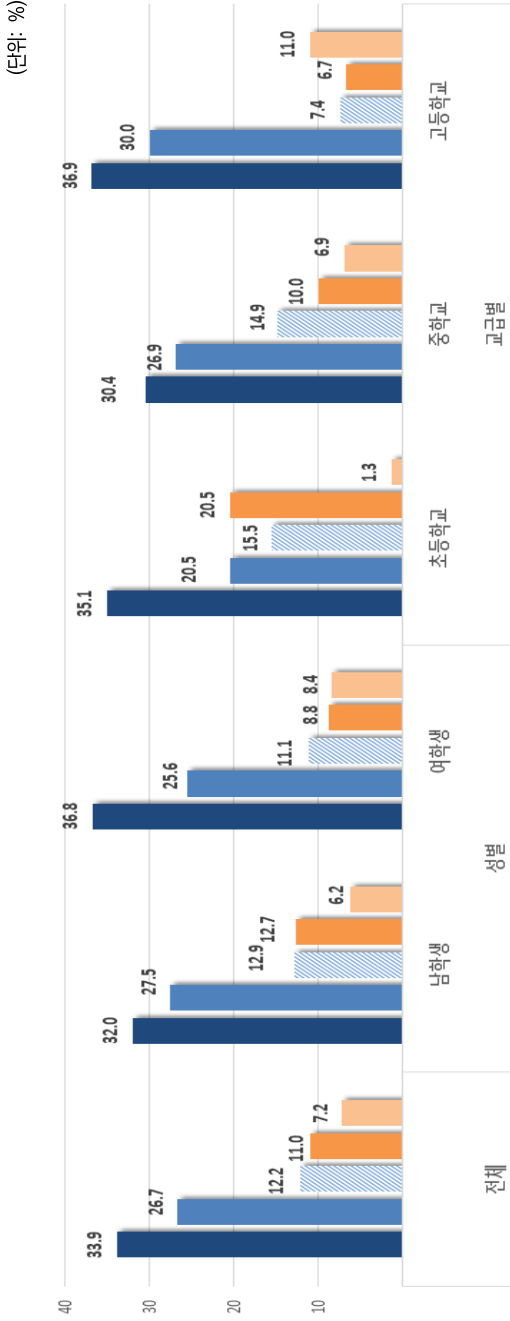


그림 5. 통일교육/북한 관련 행사/프로그램 참여/참가하고 싶은 의향이 없는 이유

표 14 통일/북한에 관한 선호하는 교육 방식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북한 견학/방문	남한 내 북한관련 현장견학	탈북 청소년과의 교류	퀴즈대회나 게임	동영상 교육	토론식 교육	외부 북한 관련 전문가 초청	교사의 강의식 교육	모름/무응답	기타	없음
전체	(3228)	20.7	16.7	15.6	14.3	12.6	5.5	5.1	4.2	4.3	0.8	0.2
성별	남학생 (1547)	23.3	14.9	9.6	16.1	14.3	5.9	4.4	5.3	4.8	1.0	0.3
	여학생 (1667)	18.2	18.5	21.3	12.7	11.0	5.1	5.7	3.2	3.8	0.5	0.0
	무응답 (14)	28.6	7.1	7.1	21.4	14.3	0.0	14.3	7.1	0.0	0.0	0.0
교급별	초등학교 (907)	22.1	15.9	6.8	22.2	14.6	5.5	3.5	4.5	4.3	0.7	0.0
	중학교 (1160)	20.8	14.4	15.9	13.6	14.9	4.9	5.0	5.1	4.7	0.6	0.2
	고등학교 (1161)	19.6	19.6	22.3	9.0	8.8	5.9	6.5	3.2	3.9	1.0	0.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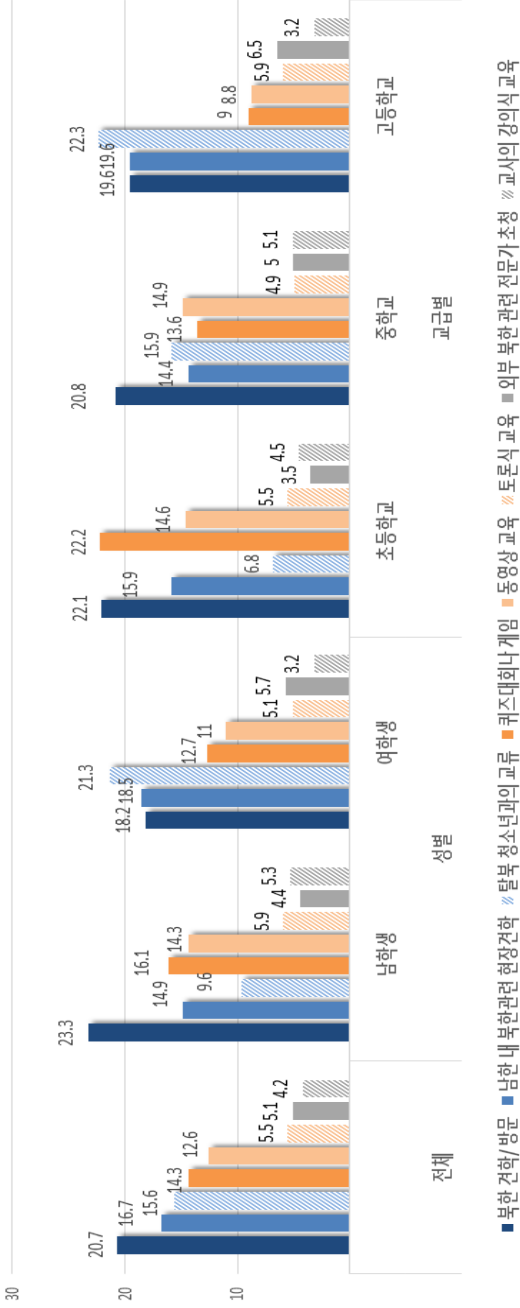


그림 6. 통일/북한에 관한 선호하는 교육 방식

표 15 북한 청소년 이미지(1순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불쌍하다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난 하다	순수 하다	신체가 왜소 하다	폐쇄적 이다	적극적 /활동 적이다	강인 하다	공격적 /호전 적이다	어른스 럽다	무섭다	흔스 럽다	멋있다	쾌활 하다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3228)	28.1	18.6	14.4	8.1	6.9	5.5	3.2	2.9	2.7	2.5	2.5	2.3	0.6	0.3	1.1	0.4	
	남학생	(1547)	28.8	16.0	16.3	7.8	6.0	5.0	3.0	3.4	2.7	2.8	2.4	0.9	0.3	1.0	0.6	
	여학생	(1667)	27.4	21.0	12.7	8.5	7.7	5.8	3.4	2.9	1.9	2.5	2.2	2.3	0.3	0.4	1.1	0.2
성별	무응답	(14)	28.6	14.3	7.1	0.0	14.3	14.3	0.0	7.1	0.0	14.3	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907)	26.5	22.9	12.2	8.2	3.4	2.8	5.4	2.6	3.1	3.0	4.3	0.9	0.7	0.9	0.6	
	중학교	(1160)	28.6	17.3	15.4	9.4	5.9	5.2	3.4	3.1	2.8	2.2	1.9	0.7	0.3	0.7	0.3	
교급별	고등학교	(1161)	28.8	16.4	15.1	6.8	10.6	7.8	1.4	2.8	2.6	2.5	1.2	0.3	0.1	1.6	0.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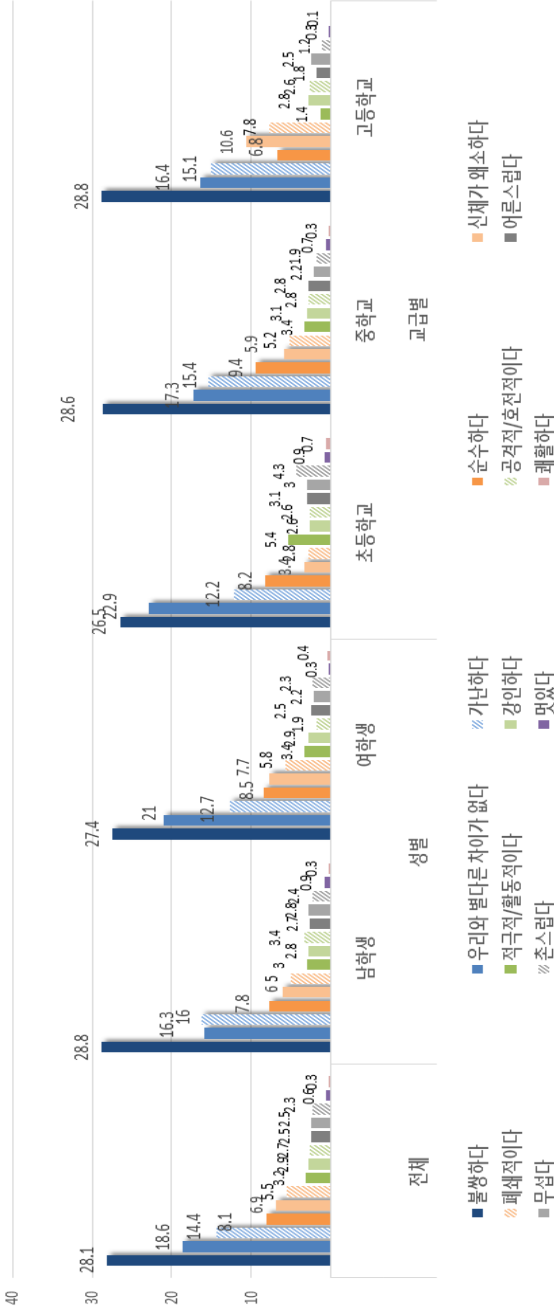


그림 7. 북한 청소년 이미지(1순위)

표 16 북한 청소년 이미지(1+2순위)(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불쌍하다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기난하다	신체가 왜소하다	순수하다	폐쇄적이다	적극적/활동적이다	강인하다	공격적/호전적이다	무섭다	흔스럽다	어른스럽다	쾌활하다	멋있다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3228)	40.3	34.9	30.5	17.5	14.7	11.3	7.9	7.7	6.6	6.5	6.1	5.9	2.0	1.7	2.4	0.4
성별	남학생 (1547)	41.2	30.2	34.0	15.0	14.3	11.1	7.8	8.3	7.8	6.7	5.8	5.6	2.3	1.9	2.4	0.6
	여학생 (1667)	39.5	39.3	27.4	19.9	15.1	11.4	7.9	7.1	5.6	6.2	6.5	6.2	1.8	1.4	2.5	0.2
	무응답 (14)	35.7	35.7	7.1	21.4	7.1	21.4	21.4	7.1	7.1	21.4	0.0	7.1	0.0	0.0	0.0	0.0
교급별	초등학교 (907)	38.3	40.7	27.0	10.3	15.7	5.5	13.0	7.1	6.2	6.9	9.2	7.9	3.2	2.4	2.3	0.6
	중학교 (1160)	40.5	32.4	31.1	17.4	15.1	11.9	8.2	7.8	6.6	6.8	5.7	6.2	2.1	2.2	1.8	0.3
	고등학교 (1161)	41.6	32.9	32.5	23.3	13.4	15.2	3.6	8.0	7.1	5.9	4.2	4.1	1.1	0.6	3.2	0.4

표 17 호감도 (10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체	성별			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무응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례수	(3228)	(1547)	(1667)	(14)	(907)	(1160)	(1161)
한국청소년	7.66	7.84	7.49	7.5	8.37	7.66	7.1
북한 청소년	5.7	5.61	5.78	5.21	5.74	5.83	5.53
국내거주 북한 출신 청소년	6.25	6.19	6.32	5.5	6.23	6.37	6.15
국내거주 다문화 청소년	6.71	6.7	6.73	6.07	6.92	6.77	6.49
미국 청소년	6.67	6.7	6.65	6.14	6.95	6.71	6.43
중국 청소년	5.45	5.13	5.74	5.5	5.64	5.57	5.18
일본 청소년	4.09	3.8	4.36	3.57	3.53	4.03	4.58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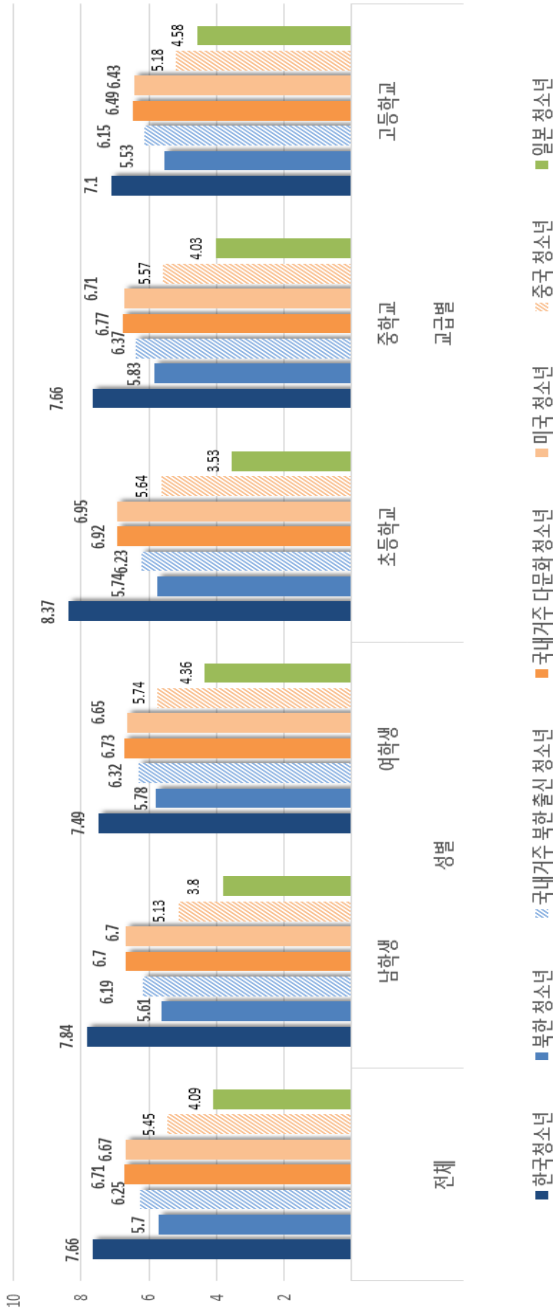


그림 8. 호감도

표 18 친근감 (10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진체	성별			교급별		
		남학생 (1547)	여학생 (1667)	무응답 (14)	초등학교 (907)	중학교 (1160)	고등학교 (1161)
시례수	(3228)						
한국 청소년	8.43	8.53	8.34	7.21	8.91	8.35	8.12
북한 청소년	5.6	5.57	5.64	4.86	5.73	5.77	5.33
국내거주 북한 출신 청소년	5.99	5.93	6.05	5.29	6.04	6.14	5.81
국내거주 디문화 청소년	6.47	6.42	6.52	5.71	6.75	6.52	6.19
미국 청소년	6.21	6.34	6.08	6.23	6.67	6.3	5.76
중국 청소년	5.17	4.97	5.35	5.38	5.42	5.25	4.9
일본 청소년	4.03	3.75	4.29	3.5	3.51	4	4.46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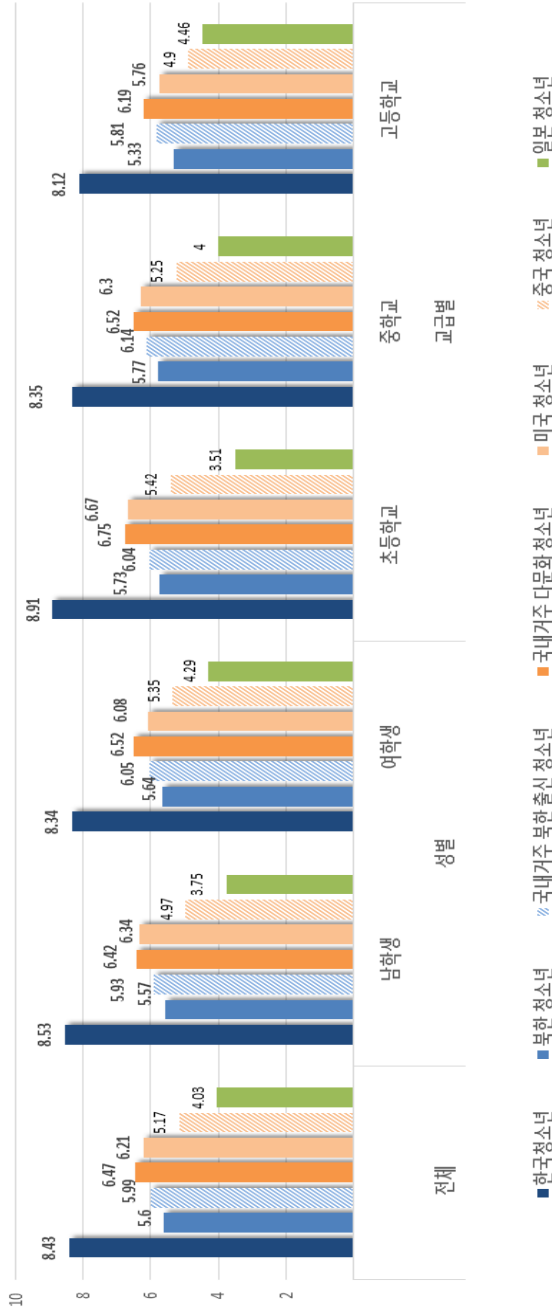


그림 9. 친근감

표 19 신뢰도 (10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체	성별			교급별		
		남학생 (1547)	여학생 (1667)	무응답 (14)	초등학교 (907)	중학교 (1160)	고등학교 (1161)
시례수	(3228)						
한국청소년	7.32	7.5	7.15	7.14	8.27	7.33	6.57
북한 청소년	5.62	5.62	5.62	5.07	5.82	5.78	5.31
국내거주 북한 출신 청소년	5.88	5.87	5.9	5.29	6.03	6.07	5.59
국내거주 디문화 청소년	6.17	6.19	6.17	5.5	6.52	6.3	5.78
미국 청소년	5.96	6.08	5.86	5	6.42	6.06	5.5
중국 청소년	4.96	4.74	5.17	4.71	5.24	5.05	4.66
일본 청소년	3.92	3.68	4.15	3.79	3.44	3.92	4.3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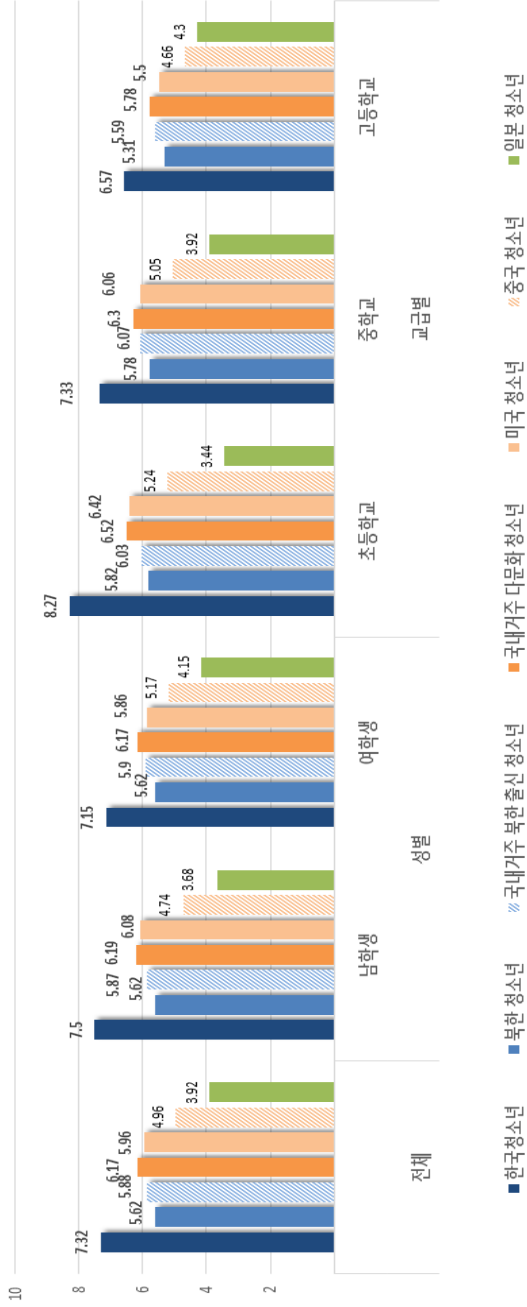


그림 10. 신뢰도

표 20 다름/차이 수준(10점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1547)	여학생 (1667)	무응답 (14)	초등학교 (907)	중학교 (1160)	고등학교 (1161)
사례수	3228	1547	1667	14	907	1160	1161
언어	5.71	5.63	5.79	5.14	5.44	5.7	5.94
사고방식/가치관	6.28	6.21	6.35	5.64	5.55	6.19	6.94
경제수준	6.95	7.08	6.83	6.79	6.47	6.92	7.35
문화수준	6.47	6.43	6.51	6.36	5.9	6.34	7.04
학력수준	6.31	6.36	6.26	6.57	5.76	6.27	6.77
여가/취미 활동	6.24	6.28	6.2	6.29	5.75	5.99	6.87
체력	5.57	5.69	5.46	5.64	5.46	5.52	5.7
직업관/진로	6.26	6.38	6.15	7	5.8	6.21	6.68
친구/교우 관계	4.81	4.92	4.69	5.79	4.78	4.86	4.77
경제관념	6.23	6.28	6.19	6.29	5.78	6.16	6.66

표 21 북한 청소년과 쉽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친해	친해	대체로	매우	모름/ 무응답	*부정*	*긍정*	4점 평균	4점 표준편차	
		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지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다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매우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전체	(3228)	9.1	47.5	35.3	7.6	0.4	56.7	42.9	2.42	0.76	
성별	남학생	11.7	43.8	34.9	9.0	0.6	55.5	44.0	2.42	0.81	
	여학생	6.7	50.9	35.8	6.3	0.3	57.6	42.1	2.42	0.71	
	무응답	(14)	21.4	57.1	14.3	7.1	0.0	78.6	21.4	2.07	0.83
교급별	초등학교	(907)	9.9	49.0	32.0	8.0	1.1	58.9	40.0	2.39	0.78
	중학교	(1160)	8.3	47.3	35.5	8.7	0.2	55.6	44.2	2.45	0.77
	고등학교	(1161)	9.4	46.6	37.6	6.2	0.2	56.0	43.8	2.41	0.7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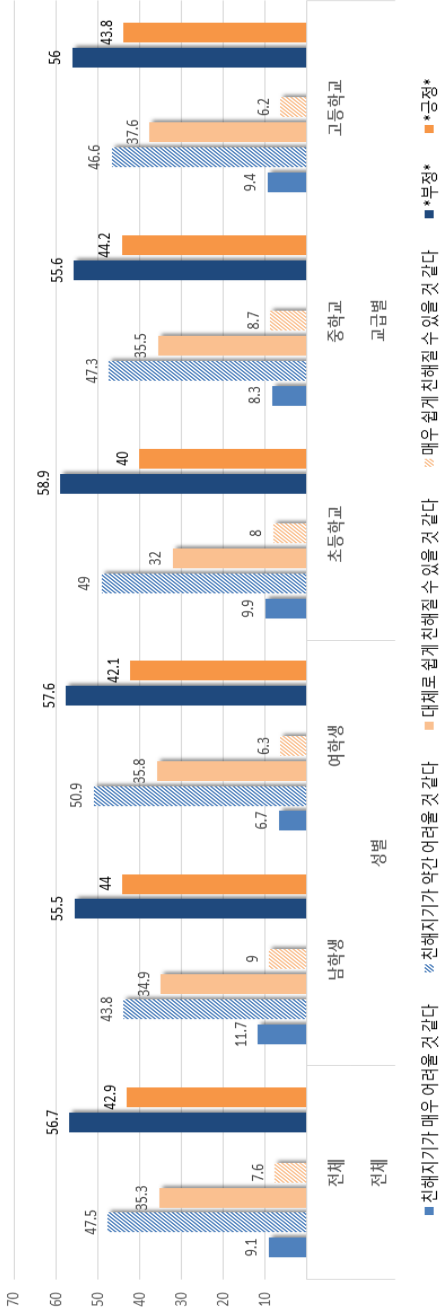


그림 11. 북한 청소년과 쉽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여부

표 22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전체	(3228)	74.2	25.6	0.2	
성별	남학생	(1547)	70.1	29.6	0.3
	여학생	(1667)	78.0	21.9	0.1
	무응답	(14)	71.4	28.6	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07)	76.1	23.6	0.3
	중학교	(1160)	74.7	25.2	0.2
	고등학교	(1161)	72.3	27.6	0.1

표 23 [교류 주제/방식]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동의 못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름/무응답	*비동의*	*동의*	4점 평균	4점 표준편차
전체	(2395)	1.8	15.1	70.4	11.9	0.8	17.0	82.3	2.93	0.58
성별	남학생 (1085)	2.9	15.4	66.3	14.1	1.3	18.3	80.4	2.93	0.64
	여학생 (1300)	0.9	14.8	73.8	10.2	0.3	15.7	84.0	2.94	0.53
	무응답 (10)	0.0	30.0	60.0	10.0	0.0	30.0	70.0	2.80	0.63
교급별	초등학교 (690)	0.7	13.3	72.8	11.9	1.3	14.1	84.6	2.97	0.53
	중학교 (866)	1.2	12.2	71.7	14.0	0.9	13.4	85.7	2.99	0.56
	고등학교 (839)	3.5	19.5	67.0	9.9	0.1	23.0	76.9	2.83	0.64

표 24 [교류 주제/방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동의 못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름/무응답	*비동의*	*동의*	4점 평균	4점 표준편차
전체	(2395)	1.2	5.8	62.1	30.5	0.4	7.0	92.6	3.22	0.60
	남학생 (1085)	1.8	4.6	57.7	35.2	0.6	6.5	92.9	3.27	0.63
	여학생 (1300)	0.6	6.8	65.8	26.6	0.2	7.4	92.4	3.19	0.57
성별	무응답 (10)	10.0	0.0	70.0	20.0	0.0	10.0	90.0	3.00	0.82
	초등학교 (690)	1.2	7.4	64.5	26.8	0.1	8.6	91.3	3.17	0.60
교급별	중학교 (866)	1.3	5.0	61.1	31.9	0.8	6.2	93.0	3.25	0.60
	고등학교 (839)	1.2	5.2	61.3	32.1	0.2	6.4	93.3	3.24	0.60

표 25 [교류 주제/방식]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동의 못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름/무응답	*비동의*	*동의*	4점 평균	4점 표준편차
전체	(2395)	0.5	6.4	52.8	39.4	1.0	6.8	92.2	3.32	0.61
성별	남학생	(1085)	0.8	7.9	51.8	38.2	1.2	8.8	3.29	0.65
	여학생	(1300)	0.2	5.2	53.4	40.5	0.8	5.3	3.35	0.58
	무응답	(10)	0.0	0.0	90.0	10.0	0.0	100.0	3.10	0.32
교급별	초등학교	(690)	0.7	8.3	58.4	31.4	1.2	9.0	3.22	0.62
	중학교	(866)	0.5	5.9	52.7	40.0	1.0	6.4	3.33	0.61
	고등학교	(839)	0.2	5.4	48.4	45.3	0.7	5.6	3.40	0.60

표 26 [교류 주제/방식] 교류의 대상인 북한 측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동의 못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름/무응답	*비동의*	*동의*	4점 평균	4점 표준편차
전체	(2395)	11.0	40.1	41.4	6.7	0.8	51.1	48.1	2.44	0.78
성별	남학생	(1085)	11.7	36.8	41.4	8.8	1.3	48.5	50.2	0.82
	여학생	(1300)	10.5	43.1	41.1	5.0	0.3	53.6	46.1	0.74
	무응답	(10)	0.0	20.0	80.0	0.0	0.0	20.0	80.0	0.42
교급별	초등학교	(690)	8.7	41.3	43.3	5.7	1.0	50.0	49.0	0.73
	중학교	(866)	11.4	36.6	42.6	8.4	0.9	48.0	51.0	0.81
	고등학교	(839)	12.5	42.8	38.5	5.8	0.4	55.3	44.3	0.78

표 27 [교류 주제/방식]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 못함	동의 못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모름/무응답	*비동의*	*동의*	4점 평균	4점 표준편차
전체	(2395)	29.4	39.5	26.1	4.3	0.7	68.9	30.4	2.05	0.85
성별	남학생	(1085)	28.9	35.1	28.7	6.2	1.1	64.1	2.12	0.90
	여학생	(1300)	29.9	43.2	23.8	2.7	0.3	73.2	1.99	0.80
	무응답	(10)	10.0	40.0	50.0	0.0	0.0	50.0	2.40	0.70
교급별	초등학교	(690)	23.9	43.5	27.8	4.2	0.6	67.4	2.12	0.82
	중학교	(866)	27.5	37.1	29.2	5.2	1.0	64.5	2.12	0.88
	고등학교	(839)	35.9	38.9	21.6	3.3	0.4	74.7	1.92	0.84

표 28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북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동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전 문제 때문에	북한 청소년들과의 언어차이로 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남북 청소년 간 교류활동이 나에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남북 청소년 간 교류활동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 같아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827)	24.5	15.1	13.1	10.5	10.3	9.7	9.6	2.8	2.9	1.6	
성별	남학생	(458)	27.7	14.0	16.4	9.2	9.8	6.1	8.5	3.1	3.3	2.0
	여학생	(365)	20.8	16.7	9.0	12.1	10.7	14.2	10.4	2.5	2.5	1.1
	무응답	(4)	0.0	0.0	0.0	25.0	25.0	0.0	50.0	0.0	0.0	0.0
교급별	초등학교	(214)	25.7	8.4	17.3	18.7	7.0	6.5	8.4	2.3	3.7	1.9
	중학교	(292)	24.7	13.7	13.0	9.9	10.6	8.9	11.6	4.1	1.7	1.7
	고등학교	(321)	23.7	20.9	10.3	5.6	12.1	12.5	8.4	1.9	3.4	1.2

표 29 적합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장소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남한과 북한을 번갈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한에서만	중국 등 주변 국가	모름/무응답	북한에서만	기타
전체	(3228)	62.3	22.9	7.8	3.0	1.4	1.4	1.3
남학생	(1547)	57.6	23.9	9.8	3.3	1.8	1.7	1.9
여학생	(1667)	66.9	22.0	5.8	2.6	1.1	1.0	0.8
무응답	(14)	28.6	28.6	21.4	14.3	0.0	7.1	0.0
초등학교	(907)	61.2	23.7	6.7	2.8	2.1	2.0	1.5
중학교	(1160)	61.6	23.4	8.0	3.4	1.0	1.1	1.3
고등학교	(1161)	63.7	21.7	8.4	2.7	1.3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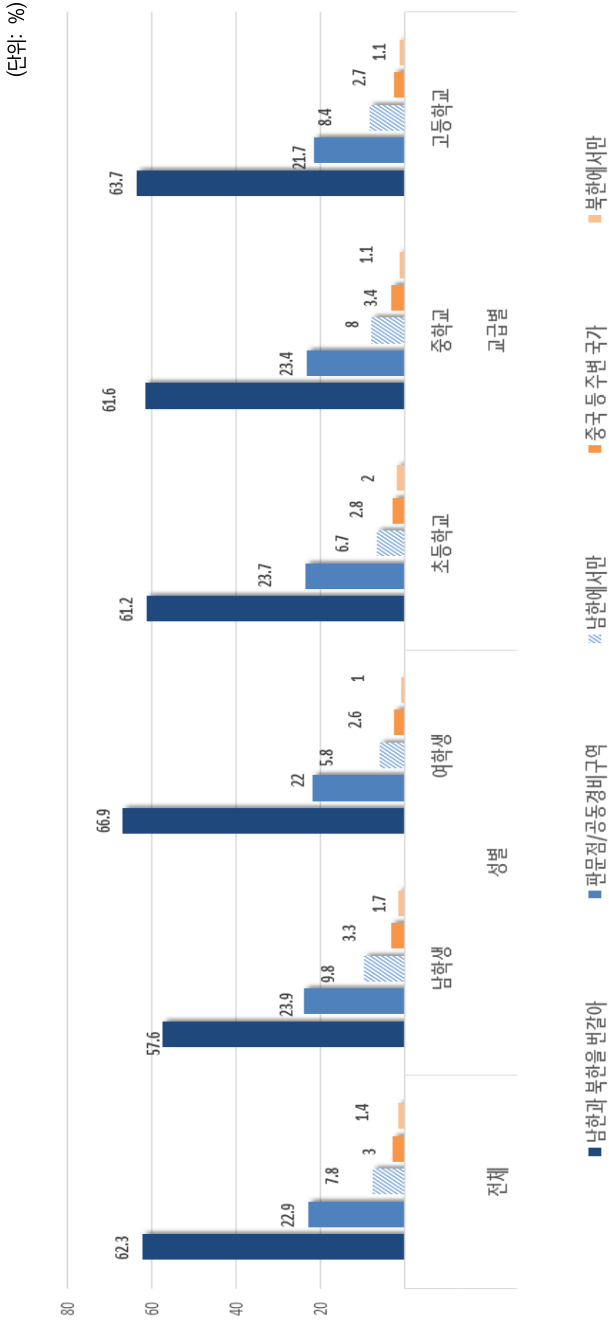


그림 12. 적합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 장소

표 30 향후 1년 이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참여 기회 시 참여할 의향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전체	(3228)	62.1	37.6	0.3	
성별	남학생	(1547)	53.5	46.0	0.5
	여학생	(1667)	70.2	29.7	0.1
	무응답	(14)	50.0	50.0	0.0
교급별	초등학교	(907)	67.3	32.7	0.0
	중학교	(1160)	59.1	40.3	0.5
	고등학교	(1161)	61.1	38.7	0.3

표 31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동 시 선호하는 유형(1순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체육/ 스포츠 활동	예술 활동	남북한 유적지/ 관광지 견학/관광	남북한 청소년 간의 SNS를 통한 일상적 교류	남북 청소년 공동의 공통의 통일 교육	학술 교류	남북한 인사 추천강연	종교적 활동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2005)	28.7	23.6	20.8	11.9	8.0	2.8	2.6	0.5	0.7	0.3
성별	남학생 (827)	44.6	15.4	16.7	7.4	9.1	3.5	1.6	0.5	0.7	0.6
	여학생 (1171)	17.3	29.5	23.7	15.2	7.3	2.4	3.3	0.5	0.7	0.2
	무응답 (7)	42.9	14.3	42.9	0.0	0.0	0.0	0.0	0.0	0.0	0.0
교급별	초등학교 (610)	33.6	25.4	15.7	6.7	12.8	1.1	2.0	0.7	1.1	0.8
	중학교 (686)	28.0	23.2	21.3	12.8	8.0	2.2	3.9	0.4	0.1	0.0
	고등학교 (709)	25.1	22.4	24.8	15.5	3.8	4.9	1.8	0.4	0.8	0.3

표 32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동 시 선호하는 유형(1+2순위)(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체육/ 스포츠 활동	남북한 유적지/ 관광지 견학/관광	예술 활동	남북한 청소년 간의 SNS를 통한 일상적 교류	남북 청소년 공동의 통일 교육	남북한 인사 초청강연	합술 교류	종교적 활동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2005)	45.8	44.3	40.2	31.3	16.6	8.1	7.2	1.9	1.7	0.3
성별	남학생	62.3	44.5	27.1	23.6	19.0	7.1	7.7	2.5	1.9	0.6
	여학생	34.2	44.2	49.5	36.5	15.0	8.8	6.8	1.5	1.5	0.2
	무응답	(7)	57.1	42.9	42.9	57.1	0.0	0.0	0.0	0.0	0.0
교급별	초등학교	51.1	44.8	37.4	21.3	22.5	7.9	6.9	2.3	2.6	0.8
	중학교	686	44.2	42.0	42.9	33.5	17.9	5.2	2.0	0.9	0.0
	고등학교	(709)	42.9	46.1	40.2	37.7	10.3	7.6	9.3	1.4	1.7

표 33 선호하는 교류 활동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활동 동이어서	남과 북의 청소년이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동이어서	교류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기 좋은 활동 동이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활동 동이어서	남과 북의 청소년이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동이어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동이어서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 같아서/가장 의미 있는 활동 동이어서	교류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것 이 비교 적 많지 않은 활동 동이어서	교류를 재정적 부담이 없거나/비교적 돈이 많 이 들지 않는 활동 동이어서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2005)	23.9	19.1	11.6	11.2	9.3	4.9	4.1	0.5	0.3	0.5	14.6
성별	남학생 (827)	21.0	22.9	8.6	12.8	9.6	3.6	3.3	0.6	0.2	0.6	16.8
	여학생 (1171)	26.0	16.5	13.6	10.2	9.1	5.8	4.7	0.5	0.4	0.4	12.8
교급별	무응답 (7)	28.6	0.0	28.6	0.0	0.0	0.0	0.0	0.0	0.0	0.0	42.9
	초등학교 (610)	23.3	21.3	7.9	11.0	5.4	5.9	2.5	0.5	0.2	0.7	21.5
교급별	중학교 (686)	24.9	19.1	11.8	13.6	11.7	3.6	2.8	0.6	0.6	0.4	10.9
	고등학교 (709)	23.6	17.1	14.5	9.2	10.3	5.2	6.8	0.6	0.3	0.4	12.1

표 34 선호하는 교류 활동 이유(1+2순위)(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동아서	남과 북 의 청소 년이 등 느낄 수 있는 활 동 동아서	교류를 시작하는 초기 단 계에서 진행하기 좋은 활 동 동아서	개인적으 로 관심이 있는 활 동 동아서	남과 북 의 청소 년이 이 질감을 잡힐 수 있는 활 동 동아서	전문적 지 식이 없는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활 동 동아서	파급효과 가 가장 큰 것 같 아서/가 장 의미 있는 활 동 동아서	교류를 위해 사 전에 준 비할 것 이 비교 적 많지 않은 활 동 동아서	재정적 부담이 덜해서/비 교적 돈 이 많이 들지 않 는 활 동 동아서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2005)	38.3	27.8	26.8	22.8	18.2	16.5	9.9	3.8	3.1	1.3	14.6
성별	남학생	35.4	30.8	22.1	25.4	19.3	12.3	9.4	4.2	3.5	1.8	16.8
	여학생	40.2	25.9	30.1	21.1	17.3	19.6	10.1	3.5	2.8	0.9	12.8
교급별	무응답	42.9	0.0	28.6	0.0	14.3	0.0	28.6	0.0	0.0	0.0	42.9
	초등학교	39.3	31.0	23.0	24.4	11.0	13.4	5.9	3.6	2.0	1.8	21.5
	중학교	38.8	27.1	27.1	24.9	21.4	18.7	8.2	4.2	4.2	0.6	10.9
	고등학교	36.8	25.8	29.9	19.3	21.2	17.1	15.0	3.5	3.0	1.6	12.1

표 35 향후 1년 동안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 기회 시, 참여 빈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연 1회 이하	연 2회	연 3회	연 4회	연 5회	연 6회 ~ 7회	연 8회 ~ 9회	연 10회 이상	모름/ 무응답	
전체	(2005)	10.6	30.2	16.3	9.3	7.8	7.1	2.5	9.6	6.7	
성별	남학생	(827)	13.3	28.2	15.7	8.3	8.5	6.3	1.5	12.3	5.9
	여학생	(1171)	8.5	31.7	16.7	9.7	7.4	7.7	3.2	7.7	7.3
	무응답	(7)	28.6	14.3	0.0	42.9	0.0	0.0	14.3	0.0	0.0
교급별	초등학교	(610)	8.5	23.9	17.9	7.0	10.2	7.0	4.9	11.0	9.5
	중학교	(686)	11.5	31.9	16.6	9.3	7.1	8.5	1.6	7.3	6.1
	고등학교	(709)	11.4	33.9	14.5	11.1	6.5	5.8	1.3	10.6	4.9

표 36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주변 강대국 때문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5점 표준 편차
전체	(3228)	5.9	14.5	40.1	27.2	8.1	4.3	20.4	40.1	35.3	3.18	0.99
성별	남학생	8.0	15.8	38.7	24.4	9.1	3.9	23.8	38.7	33.5	3.11	1.06
	여학생	3.8	13.4	41.4	29.6	7.1	4.6	17.2	41.4	36.8	3.24	0.92
	무응답	7.1	14.3	35.7	42.9	0.0	0.0	21.4	35.7	42.9	3.14	0.95
교급별	초등학교	5.6	17.4	43.2	19.5	6.8	7.4	23.0	43.2	26.4	3.05	0.97
	중학교	5.4	13.5	43.1	26.5	7.9	3.5	19.0	43.1	34.4	3.19	0.97
	고등학교	6.5	13.3	34.6	33.9	9.1	2.6	19.7	34.6	43.1	3.27	1.03

표 37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한국 정부 때문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5점 표준 편차
전체	(3228)	6.9	20.1	47.8	16.8	4.1	4.3	27.0	47.8	20.9	2.91	0.91
성별	남학생	8.4	20.6	45.1	16.3	5.8	3.9	29.0	45.1	22.1	2.90	0.98
	여학생	5.6	19.6	50.3	17.3	2.5	4.7	25.2	50.3	19.7	2.91	0.85
	무응답	0.0	28.6	50.0	21.4	0.0	0.0	28.6	50.0	21.4	2.93	0.73
교급별	초등학교	11.1	25.8	45.0	9.2	1.5	7.4	36.9	45.0	10.7	2.61	0.88
	중학교	4.8	18.6	50.2	17.2	5.5	3.6	23.4	50.2	22.8	3.00	0.90
	고등학교	5.8	17.1	47.6	22.4	4.6	2.6	22.8	47.6	27.0	3.03	0.91

표 38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복한 정부 때문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5점 표준 편차
전체	(3228)	2.4	7.6	39.3	33.2	13.1	4.4	10.0	39.3	46.3	3.49	0.91
성별	남학생	2.8	8.7	38.7	30.3	15.5	4.1	11.4	38.7	45.8	3.49	0.96
	여학생	(1667)	2.1	6.6	39.7	35.9	10.9	8.7	39.7	46.9	3.49	0.87
	무응답	(14)	0.0	14.3	42.9	28.6	14.3	0.0	42.9	42.9	3.43	0.94
교급별	초등학교	(907)	4.3	14.1	45.6	20.6	7.4	18.4	45.6	28.0	3.14	0.93
	중학교	(1160)	1.9	6.3	42.8	31.8	13.5	8.2	42.8	45.3	3.51	0.88
	고등학교	(1161)	1.5	3.9	30.7	44.4	17.2	2.4	30.7	61.6	3.74	0.85

표 39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 때문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5점 표준 편차
전체	(3228)	7.2	15.6	34.7	25.4	12.5	4.7	22.7	34.7	37.9	3.22	1.10
성별	남학생	7.8	13.8	34.4	25.0	14.5	4.5	21.7	34.4	39.5	3.26	1.13
	여학생	6.6	17.3	34.9	25.9	10.5	4.9	23.9	34.9	36.4	3.17	1.07
	무응답	0.0	7.1	42.9	28.6	21.4	0.0	7.1	42.9	50.0	3.64	0.93
교급별	초등학교	7.5	18.5	38.5	21.5	5.8	8.2	26.0	38.5	27.3	3.00	1.01
	중학교	6.4	14.7	38.5	24.0	12.6	3.9	21.0	38.5	36.6	3.23	1.07
	고등학교	7.7	14.2	27.8	30.0	17.6	2.8	21.9	27.8	47.5	3.37	1.17

표 40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남북한 서로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5점 표준 편차
전체	(3228)	3.6	10.5	36.6	33.0	11.1	5.1	14.1	36.6	44.1	3.40	0.96
성별	남학생	4.6	10.5	37.0	30.6	12.5	4.8	15.1	37.0	43.1	3.38	1.00
	여학생	2.7	10.6	36.1	35.3	10.0	5.5	13.3	36.1	45.2	3.41	0.92
	무응답	0.0	7.1	64.3	28.6	0.0	0.0	7.1	64.3	28.6	3.21	0.58
교급별	초등학교	4.2	13.7	38.6	26.7	7.9	8.9	17.9	38.6	34.6	3.23	0.96
	중학교	3.1	9.1	41.5	32.2	10.0	4.2	12.2	41.5	42.2	3.39	0.91
	고등학교	3.6	9.6	30.3	38.8	14.7	3.0	13.2	30.3	53.5	3.53	0.99

표 41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교류활동을 위한 장소나 시설 등 인프라 부족 때문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5점 표준 편차
전체	(3228)	4.8	15.0	42.7	25.3	7.3	4.8	19.8	42.7	32.7	3.16	0.95
성별	남학생	5.7	15.2	42.5	23.3	8.9	4.5	20.9	42.5	32.1	3.15	0.99
	여학생	4.0	14.8	42.8	27.2	5.9	5.2	18.8	42.8	33.2	3.17	0.91
교급별	무응답	0.0	21.4	50.0	28.6	0.0	0.0	21.4	50.0	28.6	3.07	0.73
	초등학교	6.3	18.5	45.4	18.0	4.2	7.6	24.8	45.4	22.2	2.95	0.92
교급별	중학교	4.0	14.2	48.0	23.4	5.9	4.5	18.2	48.0	29.3	3.14	0.89
	고등학교	(1161)	4.5	13.1	35.3	33.0	11.2	2.9	35.3	44.2	3.34	1.00

표 42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문가 및 인력 부족 때문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5점 표준 편차
전체	(3228)	5.9	18.4	44.3	20.7	5.8	4.9	24.3	44.3	26.5	3.02	0.95
성별	남학생	7.4	18.4	42.8	19.5	7.4	4.6	25.7	42.8	26.9	3.01	1.01
	여학생	4.6	18.4	45.7	21.8	4.4	5.2	22.9	45.7	26.2	3.03	0.89
	무응답	0.0	28.6	50.0	21.4	0.0	0.0	28.6	50.0	21.4	2.93	0.73
교급별	초등학교	6.5	21.3	43.7	16.8	3.9	7.9	27.8	43.7	20.6	2.89	0.92
	중학교	5.4	17.6	49.6	18.0	5.0	4.4	23.0	49.6	23.0	3.00	0.90
	고등학교	5.9	17.0	39.5	26.5	8.1	3.0	22.8	39.5	34.6	3.14	1.00

표 43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남북한 교류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부족 때문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5점 표준 편차
전체	(3228)	4.4	13.3	46.7	23.4	6.6	5.6	17.7	46.7	30.0	3.15	0.91
성별	남학생	5.8	13.0	46.9	21.9	7.3	5.1	18.8	46.9	29.2	3.13	0.95
	여학생	3.1	13.3	46.6	24.8	6.1	6.1	16.4	46.6	30.9	3.19	0.87
교급별	무응답	0.0	35.7	50.0	14.3	0.0	0.0	35.7	50.0	14.3	2.79	0.70
	초등학교	5.0	17.2	47.4	17.1	4.1	9.3	22.2	47.4	21.2	2.98	0.88
교급별	중학교	3.8	12.5	55.1	18.3	5.4	4.9	16.3	55.1	23.7	3.10	0.84
	고등학교	4.6	10.9	37.9	33.4	9.8	3.4	15.5	37.9	43.2	3.34	0.97

표 44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북한 주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5점 표준 편차
전체	(3228)	4.6	14.5	44.4	24.3	7.2	5.0	19.1	44.4	31.5	3.16	0.94
성별	남학생	5.6	13.7	44.0	23.0	9.0	4.7	19.3	44.0	32.1	3.17	0.99
	여학생	3.8	15.1	44.9	25.6	5.4	5.3	18.8	44.9	31.0	3.15	0.89
	무응답	0.0	28.6	42.9	21.4	7.1	0.0	28.6	42.9	28.6	3.07	0.92
교급별	초등학교	6.8	20.4	39.7	19.2	6.0	7.9	27.2	39.7	25.1	2.97	0.99
	중학교	3.8	12.7	48.8	23.4	6.8	4.6	16.5	48.8	30.2	3.18	0.89
	고등학교	3.8	11.6	43.8	29.4	8.4	3.0	15.4	43.8	37.8	3.28	0.92

표 45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 남한 국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5점 표준 편차
전체	(3228)	5.6	13.4	41.4	26.7	7.9	4.9	19.1	41.4	34.6	3.19	0.98
성별	남학생	6.5	13.1	40.5	25.7	9.6	4.5	19.7	40.5	35.3	3.20	1.02
	여학생	4.8	13.7	42.1	27.7	6.4	5.3	18.5	42.1	34.1	3.18	0.94
	무응답	0.0	14.3	64.3	21.4	0.0	0.0	14.3	64.3	21.4	3.07	0.62
교급별	초등학교	9.7	19.8	40.0	17.2	5.1	8.2	29.5	40.0	22.3	2.87	1.02
	중학교	4.6	10.8	46.4	26.6	7.3	4.4	15.3	46.4	33.9	3.22	0.92
	고등학교	3.4	11.1	37.6	34.3	10.7	2.8	14.6	37.6	45.0	3.39	0.95

표 46 남북한 청소년들 간 교류 활동 영역 중 서로 동질감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친선 스포츠 경기/대항전	예술교류 활동	남북 단일팀 스포츠 경기 참가	유적지/관광지 답사	전통문화 교류활동	교환학생 교류	학술교류 활동/토론회	기타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3228)	28.4	20.5	17.7	10.3	9.4	8.7	1.1	0.9	2.8	0.2
성별	남학생 (1547)	39.6	13.1	18.9	10.6	6.0	5.6	1.5	1.2	3.2	0.3
	여학생 (1667)	17.9	27.2	16.5	10.0	12.7	11.7	0.7	0.7	2.5	0.2
교급별	무응답 (14)	35.7	35.7	21.4	7.1	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907)	26.0	20.0	17.9	12.0	14.1	4.7	1.4	0.4	3.3	0.1
교급별	중학교 (1160)	29.1	20.0	17.3	9.7	9.2	9.1	1.2	1.1	2.9	0.3
	고등학교 (1161)	29.5	21.4	17.8	9.4	6.0	11.5	0.6	1.1	2.3	0.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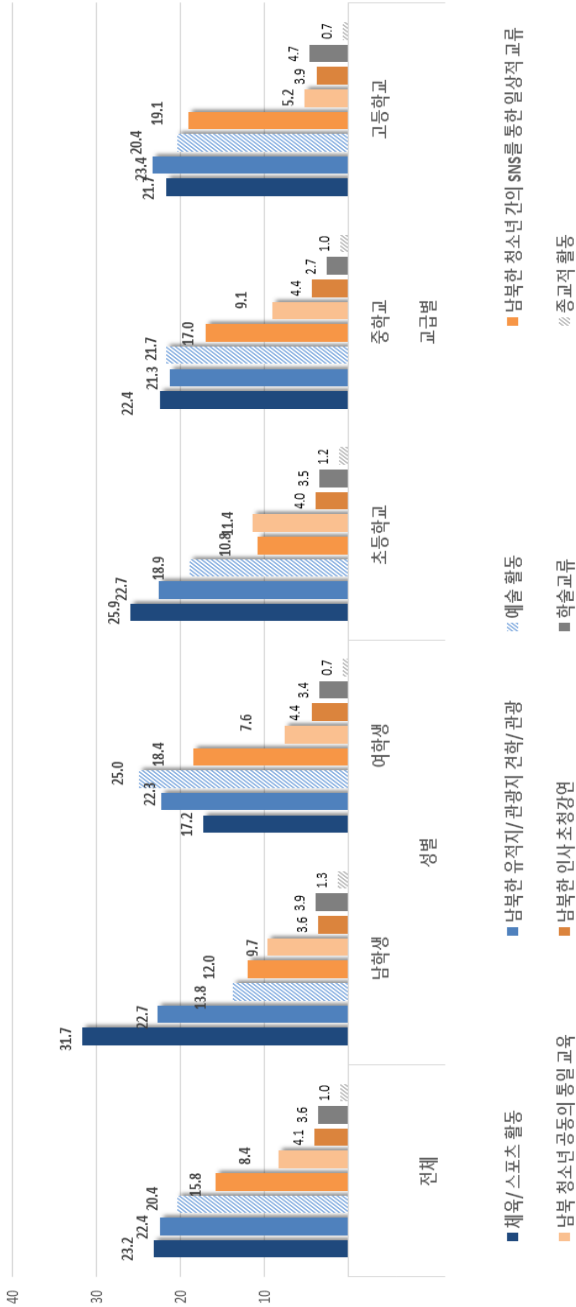


그림 13. 남북한 청소년들 간 교류 활동 영역 중 서로 동질감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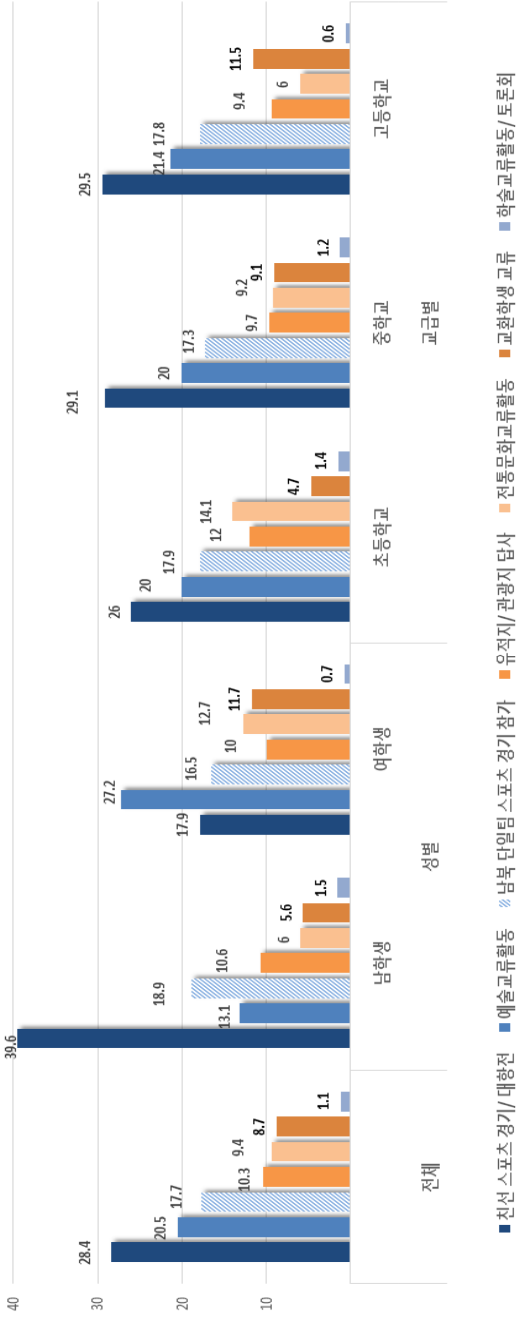


그림 14. 남북한 청소년 간 동질감이 높은 분야

표 47 북한 청소년이나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교류 행사/프로그램 참여 횟수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혀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3228)	0.8	0.8	0.2	0.4	0.2	97.3	0.2
성별	남학생	1.0	0.4	0.1	0.7	0.4	96.9	0.5
	여학생	0.6	1.2	0.2	0.1	0.1	97.7	0.1
	무응답	(14)	0.0	0.0	7.1	0.0	92.9	0.0
교급별	초등학교	0.7	0.9	0.1	0.2	0.2	97.6	0.3
	중학교	0.5	0.7	0.2	0.7	0.5	97.2	0.2
	고등학교	1.2	0.9	0.3	0.3	0.0	97.1	0.3

[Base=전체 응답자, N=3,2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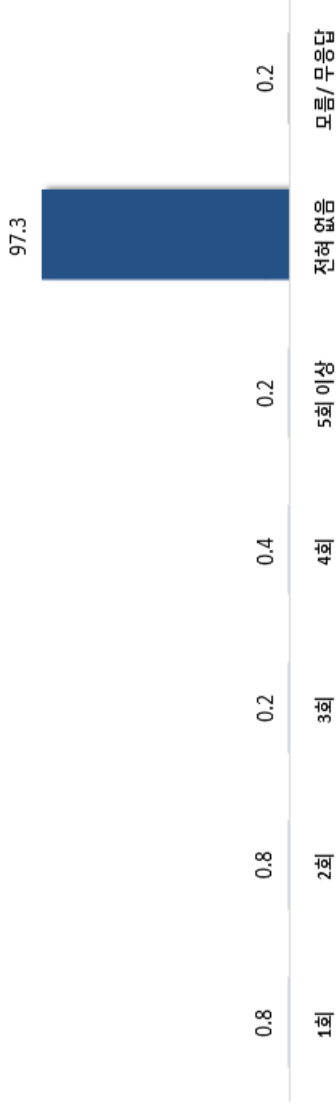


그림 15. 북한 청소년/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교류 행사/프로그램 참여 관련

표 48 참여한 공식적인 교류 행사/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청소년/북한이탈 청소년 직접 만난 횟수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1회	2회	3회	4회	만난 적 없음	
전체	(80)	38.8	20.0	3.8	5.0	32.5	
성별	남학생	(41)	39.0	12.2	2.4	9.8	36.6
	여학생	(38)	39.5	28.9	2.6	0.0	28.9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교급별	초등학교	(19)	21.1	15.8	0.0	0.0	63.2
	중학교	(30)	33.3	13.3	3.3	13.3	36.7
	고등학교	(31)	54.8	29.0	6.5	0.0	9.7

표 49 북한 청소년/북한이탈 청소년을 공식적인 교류 행사/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만난 최초의 시기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초등학교 이전	초등학교 1~3학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모름/무응답
전체	(54)	9.3	13.0	29.6	37.0	7.4	3.7
남학생	(26)	11.5	11.5	26.9	46.2	0.0	3.8
여학생	(27)	3.7	14.8	33.3	29.6	14.8	3.7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7)	14.3	28.6	57.1	0.0	0.0	0.0
중학교	(19)	15.8	15.8	26.3	36.8	0.0	5.3
고등학교	(28)	3.6	7.1	25.0	46.4	14.3	3.6

[Base=전체 응답자, n=3,228,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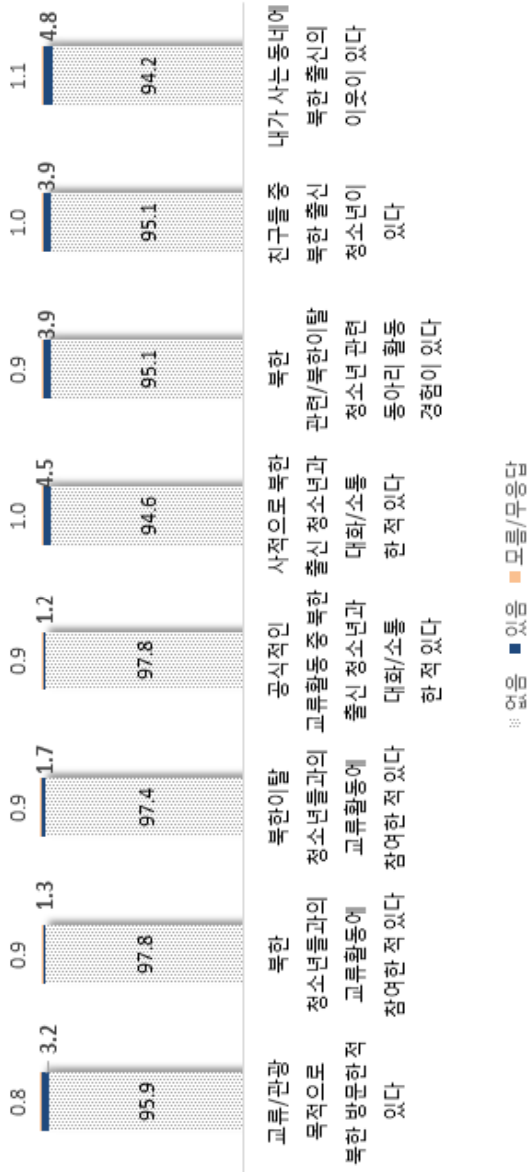


그림 16. 북한 및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 2.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설문지(초등학생용)

법적 대리인용

### 연구 참여 설명문

#### 연구과제명: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지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통일한국의 주체인 남북한 청소년 간 상호이해 증진과 통일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의 설계와 중장기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초, 중, 고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남북한 교류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자발적으로 설문지 참여 의사를 밝히신 청소년과 보호자(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각 급 학교의 교사 혹은 행사 담당자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문 문항은 대략 50문항으로 소요예상 시간은 15분~2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을 통해서 수집된 관련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제3자(다른 연구자)에게 연구의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응답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설문의 내용은 응답자에게 끼칠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은 아예 없거나 극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 설문지에 제시한 의견이 관련 연구의 발달 및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게 공헌할 것입니다.

면담을 종료한 후에 연구자는 참여청소년에게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할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시작한 이후라도 답하기에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단, 전체 응답의 70%이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중도에 그만 둔 응답 내용은 모두 폐기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한 모든 내용은 응답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 배상률 연구위원(044-415-2220)  
공동연구자 : 이정민 부연구위원(044-415-2319)  
허효주 연구사업운영원(044-415-2189)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244

##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 연구 참여자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귀하의 자녀(연구 참여자)의 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연구 참여자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귀하의 자녀(연구 참여자)가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 귀하의 자녀(연구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 연구 참여 설명문

### 연구과제명: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은 결과를 기초로 하여 미래 통일한국의 주인이 될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초, 중, 고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남북한 교류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 참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청소년과 해당 보호자(법적 대리인)의 동의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전체 설문 문항은 대략 50문항으로 소요예상 시간은 15분~2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을 통해서 수집된 관련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제3자(다른 연구자)에게 연구의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응답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설문의 내용은 응답자에게 끼칠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은 아예 없거나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 설문에 제시한 의견이 관련 연구의 발달 및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게 공헌할 것입니다.

본 설문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마칠 경우에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시작한 이후라도 답하기에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단, 전체 응답의 70%이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중도에 그만 둔 응답 내용은 모두 폐기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한 모든 내용은 응답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 배상률 연구위원(044-415-2220)  
 공동연구자 : 이정민 부연구위원(044-415-2319)  
 허효주 연구사업운영원(044-415-2189)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244

##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 북 한

[Q1] 평소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귀하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 |                             |                       |                          |
|-----------------------------|-----------------------|--------------------------|
| ① 한민족                       | ② 통일                  | ③ 독재/인본(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
| ④ 가난/빈곤/기아                  | ⑤ 인권문제                | ⑥ 탈북자                    |
| ⑦ 경제 교류협력(예: 개성공단 등)        | ⑧ 문화/예술 교류협력          |                          |
| ⑨ 스포츠 교류(예: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등) | ⑩ 경제적 지원/원조           |                          |
| ⑪ 핵/미사일 실험                  | ⑫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_____) |                          |

[Q2]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할 대상
- ② 우리나라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대상
- ③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
- ④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
- ⑤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
- ⑥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상
- ⑦ 우리나라에게 부담만 되는 대상
- ⑧ 기타 \_\_\_\_\_

[Q3] 귀하는 평소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귀하의 관심 수준을 ①(전혀 관심 없음)부터 ⑩(매우 관심 있음)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관심 없음)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매우 관심 있음)

[Q4] 북한 정부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북한 정부에 대한 귀하의 신뢰 수준을 ①(전혀 신뢰 안함)부터 ⑩(매우 신뢰함)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신뢰 안함)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매우 신뢰함)

[Q5] 전반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해 귀하가 느끼는 친근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멀게 느껴짐)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매우 친근하게 느껴짐)

## 통 일

[Q6] 평소 “통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귀하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평화/화합                      ② 전쟁                      ③ 이산가족                      ④ 사회갈등/혼란  
 ⑤ 국가발전                      ⑥ 통일비용                      ⑦ 기타 (직접기재: \_\_\_\_\_)

[Q7] 귀하는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다음 중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동의수준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Q7-1]로 이동**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Q7-1]로 이동**  
 ③ 대체로 필요하다    **☞ [Q7-2]로 이동**  
 ④ 매우 필요하다    **☞ [Q7-2]로 이동**  
 ⑤ 잘 모르겠다    **☞ [Q7-3]으로 이동**

[Q7-1] (Q7번에 ①이나 ②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아서    **☞ [Q8]로 이동**  
 ② 통일 후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 [Q8]로 이동**  
 ③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 [Q8]로 이동**  
 ④ 북한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 때문에    **☞ [Q8]로 이동**  
 ⑤ 통일이 되어도 나의 삶에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 [Q8]로 이동**  
 ⑥ 북한사람들로 인해 취직/입시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 [Q8]로 이동**  
 ⑦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서    **☞ [Q8]로 이동**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Q8]로 이동**

[Q7-2] (Q7번에 ③이나 ④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서    **☞ [Q8]로 이동**  
 ② 전쟁위협 등 안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 [Q8]로 이동**  
 ③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 [Q8]로 이동**  
 ④ 통일한국의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 [Q8]로 이동**  
 ⑤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 [Q8]로 이동**  
 ⑥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 [Q8]로 이동**  
 ⑦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_\_\_\_\_)    **☞ [Q8]로 이동**

[Q7-3] (Q7에 ⑥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 ② 통일이 우리 사회와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아서
- ③ 통일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Q8] 남북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한국 정부의 통일 의지/역량 부족
- ② 한국 국민들의 통일 의지/인식 부족
- ③ 북한 정부의 통일 의지/역량 부족
- ④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지/인식 부족
- ⑤ 주변 강대국의 비협조 및 방해
- ⑥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
- ⑦ 통일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 ⑧ 기타(직접 기재: \_\_\_\_\_)

[Q9] 귀하는 남북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 ① 3년 이내
- ② 4년 ~ 5년 이내
- ③ 5년 ~ 10년 이내
- ④ 10년 ~ 20년 이내
- ⑤ 20년 이후
- ⑥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함

[Q10]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두 개만 골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남북한의 교류협력
- ②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
- ③ 민족 동질성 회복
- ④ 평화통일 교육
- ⑤ 주변 나라들의 협조
- ⑥ 통일비용 마련
- ⑦ 평화협정 체결
- ⑧ 남한의 경제발전
- ⑨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
- ⑩ 북한의 경제발전
- ⑪ 북한에 대한 다각적 지원
- ⑫ 남북 정상 및 정부 간 대화
- ⑬ 북한의 비핵화 조치
- ⑭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Q11]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력과 비교했을 때 통일한국의 국력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매우 나빠짐)부터 ⑩(매우 좋아짐)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나빠짐)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매우 좋아짐)

## 통 일 교 육

[Q12] 귀하는 최근 3년 간 통일교육이나 북한 관련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참가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Q12-1]로 이동
- ② 아니오 ▣ [Q13]로 이동

[Q12-1] (Q12번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최근 3년 간 참여/참가했던 통일교육이나 북한 관련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준을 ①(매우 나빴음)부터 ⑩(매우 좋았음)까지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주시시오.

(매우 나빴음)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매우 좋았음)

[Q13] 귀하는 앞으로 통일교육이나 북한 관련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참가하고 싶은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Q13-1]로 이동
- ② 대체로 없다 ▣ [Q13-1]로 이동
- ③ 대체로 있다 ▣ [Q14]로 이동
- ④ 매우 있다 ▣ [Q14]로 이동

[Q13-1] (Q13번에 ①이나 ②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통일교육이나 북한 관련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참가하고 싶은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 ② 학업이나 일상생활이 바빠 시간이 나지 않아서
- ③ 이전에 참여/참가했던 관련 행사/프로그램의 질이나 수준이 낮아 실망해서
- ④ 북한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어서
- ⑤ 참여/참가하는데 있어서 준비과정이 복잡하거나 번거로워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Q14] 통일이나 북한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다음 중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교사의 강의식 교육
- ② 토론식 교육
- ③ 남한 내 북한관련 현장견학(예: 판문점)
- ④ 퀴즈대회나 게임
- ⑤ 동영상 교육
- ⑥ 외부 북한 관련 전문가 초청
- ⑦ 탈북 청소년과의 교류
- ⑧ 북한 견학/방문
- ⑨ 기타 (직접기재: \_\_\_\_\_)

## 북한 청소년

[Q15] 평소 “북한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귀하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 ① 순수하다 | ② 불쌍하다  | ③ 적극적/활동적이다        |
| ④ 가난하다 | ⑤ 어른스럽다 | ⑥ 신체가 왜소하다         |
| ⑦ 촌스럽다 | ⑧ 폐쇄적이다 | ⑨ 공격적/호전적이다        |
| ⑩ 멋있다  | ⑪ 무섭다   | ⑫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
| ⑬ 강인하다 | ⑭ 쾌활하다  | ⑮ 기타(직접 기재: _____) |

[Q16] 다음에 제시된 각국의 청소년에 대해 귀하가 느끼는 전반적인 호감도를 ①(매우 비호감)부터 ⑩(매우 호감)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대상	매우 비호감 ← → 매우 호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한국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북한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국내거주 북한 출신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국내거주 다문화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미국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중국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일본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Q17] 다음에 제시된 각국의 청소년에 대해 귀하가 느끼는 전반적인 친근감을 ①(매우 멀게 느껴짐)부터 ⑩(매우 친근하게 느껴짐)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대상	매우 멀게 느껴짐 ← → 매우 친근하게 느껴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한국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북한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국내거주 북한 출신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국내거주 다문화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미국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중국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일본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Q21] 귀하는 남한과 북한 청소년 간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Q21-1로 이동                      ② 아니오  Q21-2로 이동

[Q21-1] (Q21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다음은 남한과 북한 청소년간의 교류 주제 및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 항목별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숫자를 선택하여 ✓ 표해주세요. (총 다섯 개의 문항에 답한 후  [Q22]로 이동해주세요.)

항목	전혀 동의 못함	동의 못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교류의 대상인 북한 측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Q21-2] (Q21번에 ②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남한과 북한 청소년들 간의 교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안전 문제 때문에
- ②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 ③ 북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 ④ 북한 청소년들과의 언어차이로 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⑤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⑥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 ⑦ 남북 청소년 간 교류활동이 나에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⑧ 남북 청소년 간 교류활동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Q22] 귀하가 생각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장소로 적합한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남한에서만                      ② 북한에서만                      ③ 남한과 북한을 번갈아  
 ④ 판문점/공동경비구역        ⑤ 중국 등 주변 국가            ⑥ 기타 \_\_\_\_\_

[Q23] 앞으로 1년 이내 남복한 청소년 교류의 참여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Q23-1이동      ② 아니오  Q24로 이동

[Q23-1] (Q23번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다음은 남한과 북한 청소년간의 교류 활동 영역들입니다. 앞으로 1년 이내 귀하가 남복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중 가장 선호하는 2가지 교류활동 유형을 선택하여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예술 활동 (예: 음악, 미술, 공연 등)
- ② 체육/스포츠 활동
- ③ 남복 청소년 공동의 통일 교육
- ④ 학술교류 (예: 학술대회, 토론회 등)
- ⑤ 남복한 유적지/관광지 견학/관광 (예: 금강산, 개성공단 등)
- ⑥ 남복한 인사 초청강연 (예: 토크콘서트)
- ⑦ 남복한 청소년 간의 SNS(예: 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통한 일상적 교류
- ⑧ 종교적 활동
-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Q23-2] (Q23번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Q23-1]에서 1순위로 이 같은 교류활동을 꼽은 가장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남과 북의 청소년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어서
- ② 남과 북의 청소년이 이질감을 좁힐 수 있는 활동이어서
- ③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 ④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활동이어서
- ⑤ 교류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기 좋은 활동이어서
- ⑥ 전문적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 ⑦ 재정적 부담이 덜해서/ 비교적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활동이어서
- ⑧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 같아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어서
- ⑨ 교류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것이 비교적 많지 않은 활동이어서
- ⑩ 기타(직접 기재: \_\_\_\_\_)

[Q23-3] (Q23번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앞으로 1년 동안 귀하에게 남복한 청소년 교류활동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자주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연 1회 이하      ② 연 2회      ③ 연 3회      ④ 연 4회
- ⑤ 연 5회      ⑥ 연 6회~7회      ⑦ 연 8회~9회      ⑧ 연 10회 이상

[Q24] 현재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다음의 각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번호에 ✓ 표시하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변 강대국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정부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3) 북한 정부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시간부족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5) 남북한 서로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6) 교류활동을 위한 정소나 시설 등 인프라 부족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7)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문가 및 인력 부족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8) 남북한 교류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의 부족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9) 북한 주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0) 북한 국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Q25] 다음 중 남북한 청소년들 간 교류 활동 영역 중에서 서로에게 동질감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① 예술교류활동(음악, 미술, 공연 등)      ② 학술교류활동/토론회  
 ③ 친선 스포츠 경기/대항전                  ④ 남북 단일팀 스포츠 경기 참가  
 ⑤ 교환학생 교류                                  ⑥ 유적지/관광지 답사  
 ⑦ 전통문화교류활동                              ⑧ 기타(\_\_\_\_\_)

[Q26] 다음은 귀하의 북한 및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에게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 표시하세요.

문항	없다	있다
1) 교류나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 있다	①	②
2) 북한에 사는 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3) 북한이탈 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4) 공식적인 교류활동 중에 북한 출신 청소년과 대화나 소통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5) 공식적 활동 이외에 사적으로 북한 출신 청소년과 대화나 소통을 한 적 있다	①	②
6) 북한 관련 또는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다	①	②
7) 친구들 중에 북한 출신 청소년이 있다	①	②
8) 내가 사는 동네에 북한 출신의 이웃이 있다	①	②

[Q27] 귀하가 지금까지 살면서 북한 청소년이나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교류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는 몇 차례입니까?

- ① 1회 ▣ [Q27-1]로 이동
- ② 2회 ▣ [Q27-1]로 이동
- ③ 3회 ▣ [Q27-1]로 이동
- ④ 4회 ▣ [Q27-1]로 이동
- ⑤ 5회 이상 ▣ [Q27-1]로 이동
- ⑥ 전혀 없음 ▣ [Q28]로 이동

[Q27-1] (Q27에 ①번~⑥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지금까지 참여한 공식적인 교류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 귀하가 북한 청소년이나 북한이탈 청소년을 직접 만난 횟수는 몇 차례입니까?

- ① 1회 ▣ [Q27-2]로 이동
- ② 2회 ▣ [Q27-2]로 이동
- ③ 3회 ▣ [Q27-2]로 이동
- ④ 4회 ▣ [Q27-2]로 이동
- ⑤ 5회 이상 ▣ [Q27-2]로 이동
- ⑥ 만난 적 없음 ▣ [Q28]로 이동

[Q27-2] (Q27-1번에 ①번~⑥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북한 청소년이나 북한이탈 청소년을 공식적인 교류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만난 최초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초등학교 이전
- ② 초등학교 1~3학년
- ③ 초등학교 4~6학년

다음 페이지로 →

## 기 타 인 식 및 배 경 질 문

[A1] 다음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동의 수준에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최근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최근 우리 사회에 강력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최근 청년 등 젊은 세대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이성 친구로 사귀어볼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평소 시사뉴스(예: 정치, 사회, 외교)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평소 북한 관련 뉴스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평소 통일/북한을 주제로 한 교육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평소 통일/북한 관련 동아리 활동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부모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최근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북한과 미국 간 관계가 궁극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전반적으로 내 삶은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A2] 귀하 가정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위권      ② 중하위권      ③ 중위권      ④ 중상위권      ⑤ 상위권

[A3] 최근 6개월간 북한 관련 소식, 국제정세 등 시사뉴스/정보를 얻는데 귀하가 가장 자주 이용한 매체는 무엇입니까? **매체 이름을 최대 2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예: 조선일보, 한겨레, KBS, JTBC, 네이버 포털, 등).

※ 최근 6개월간 이용한 미디어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해주세요.

※ 유튜브의 경우 특정 채널 이름을 함께 적어주세요 (예: 유튜브의 ○○○ 채널 / ○○○ TV).

가장 자주 이용한 미디어 이름: 1위: \_\_\_\_\_ 2위: \_\_\_\_\_

★ 설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성실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

### 3.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A고 1차)

법적대리인용

#### 연구 참여 설명문

##### 연구과제명: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지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통일한국의 주체인 남북한 청소년 간 상호이해 증진과 통일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의 설계와 중장기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초, 중, 고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남북한 교류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자발적으로 설문지 참여 의사를 밝히신 청소년과 보호자(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각 급 학교의 교사 혹은 행사 담당자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문 문항은 대략 50문항으로 소요예상 시간은 15분~2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을 통해서 수집된 관련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제3자(다른 연구자)에게 연구의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응답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설문의 내용은 응답자에게 기밀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은 아예 없거나 극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 설문지 제시한 의견이 관련 연구의 발달 및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게 공헌할 것입니다.

면담을 종료한 후에 연구자는 참여청소년에게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될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시작한 이후라도 답하기에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단, 전체 응답의 70%이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중도에 그만 둔 응답 내용은 모두 폐기됩니다.

본 설문지 응답한 모든 내용은 응답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 배상률 연구위원(044-415-2220)

공동연구자 : 이정민 부연구위원(044-415-2319)

허효주 연구사업운영원(044-415-2189)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244

##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 연구 참여자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귀하의 자녀(연구 참여자)의 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연구 참여자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귀하의 자녀(연구 참여자)가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 귀하의 자녀(연구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 \_\_\_\_\_(서명)

## 연구 참여 설명문

### 연구과제명: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 국책연구기관)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은 결과를 기초로 하여 미래 통일한국의 주인이 될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초, 중, 고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남북한 교류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본 설문에 참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청소년과 해당 보호자(법적 대리인)의 동의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전체 설문 문항은 대략 50문항으로 소요 예상 시간은 15분~2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을 통해서 수집된 관련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제3자(다른 연구자)에게 연구의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응답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설문의 내용은 응답자에게 끼칠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은 아예 없거나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 설문에 제시한 의견이 관련 연구의 발달 및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게 공헌할 것입니다.

본 설문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마칠 경우에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시작한 이후라도 답하기에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단, 전체 응답의 70%이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중도에 그만 둔 응답 내용은 모두 폐기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한 모든 내용은 응답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 배상률 연구위원(044-415-2220)  
 공동연구자 : 이정민 부연구위원(044-415-2319)  
 허효주 연구사업운영원(044-415-2189)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244

##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 북 한

[Q1] 평소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귀하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 |                             |                       |                          |
|-----------------------------|-----------------------|--------------------------|
| ① 한민족                       | ② 통일                  | ③ 독재/인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
| ④ 가난/빈곤/기아                  | ⑤ 인권문제                | ⑥ 탈북자                    |
| ⑦ 경제 교류협력(예: 개성공단 등)        | ⑧ 문화/예술 교류협력          |                          |
| ⑨ 스포츠 교류(예: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등) | ⑩ 경제적 지원/원조           |                          |
| ⑪ 핵/미사일 실험                  | ⑫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_____) |                          |

[Q2]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할 대상
- ② 우리나라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대상
- ③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
- ④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한 대상
- ⑤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
- ⑥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상
- ⑦ 우리나라에게 부담만 되는 대상
- ⑧ 기타 \_\_\_\_\_

[Q3] 귀하는 평소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귀하의 관심 수준을 ①(전혀 관심 없음)부터 ⑩(매우 관심 있음)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관심 없음)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매우 관심 있음)

[Q4] 북한 정부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북한 정부에 대한 귀하의 신뢰 수준을 ①(전혀 신뢰 안함)부터 ⑩(매우 신뢰함)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신뢰 안함)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매우 신뢰함)

[Q5]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해 귀하가 느끼는 친근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멀게 느껴짐)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매우 친근하게 느껴짐)

## 통 일

[Q6] 평소 “통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귀하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평화/화합                      ② 전쟁                      ③ 이산가족                      ④ 사회감동/혼란  
 ⑤ 국가발전                      ⑥ 통일비용                      ⑦ 기타 (직접 기재: \_\_\_\_\_)

[Q7] 귀하는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다음 중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동의수준에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Q7-1]로 이동**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Q7-1]로 이동**  
 ③ 대체로 필요하다 **☞ [Q7-2]로 이동**  
 ④ 매우 필요하다 **☞ [Q7-2]로 이동**  
 ⑤ 잘 모르겠다 **☞ [Q7-3]으로 이동**

[Q7-1] (Q7번에 ①이나 ②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아서 **☞ [Q8]로 이동**  
 ② 통일 후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 [Q8]로 이동**  
 ③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 [Q8]로 이동**  
 ④ 북한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 때문에 **☞ [Q8]로 이동**  
 ⑤ 통일이 되어도 나의 삶에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 [Q8]로 이동**  
 ⑥ 북한사람들로 인해 취직/입시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 [Q8]로 이동**  
 ⑦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서 **☞ [Q8]로 이동**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Q8]로 이동**

[Q7-2] (Q7번에 ③이나 ④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서 **☞ [Q8]로 이동**  
 ② 전쟁위험 등 안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 [Q8]로 이동**  
 ③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 [Q8]로 이동**  
 ④ 통일한국의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 [Q8]로 이동**  
 ⑤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 [Q8]로 이동**  
 ⑥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 [Q8]로 이동**  
 ⑦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_\_\_\_\_) **☞ [Q8]로 이동**

[Q7-3] (Q7에 ⑤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 ② 통일이 우리 사회와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아서
- ③ 통일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Q8] 남북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한국 정부의 통일 의지/역량 부족
- ② 한국 국민들의 통일 의지/인식 부족
- ③ 북한 정부의 통일 의지/역량 부족
- ④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지/인식 부족
- ⑤ 주변 강대국의 비협조 및 방해
- ⑥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
- ⑦ 통일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 ⑧ 기타(직접 기재: \_\_\_\_\_)

[Q9] 귀하는 남북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 ① 3년 이내
- ② 4년 ~ 5년 이내
- ③ 5년 ~ 10년 이내
- ④ 10년 ~ 20년 이내
- ⑤ 20년 이후
- ⑥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함

[Q10]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두 개만** 골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남북한의 교류협력
- ②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
- ③ 민족 동질성 회복
- ④ 평화통일 교육
- ⑤ 주변 나라들의 협조
- ⑥ 통일비용 마련
- ⑦ 평화협정 체결
- ⑧ 남한의 경제발전
- ⑨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
- ⑩ 북한의 경제발전
- ⑪ 북한에 대한 다각적 지원
- ⑫ 남북 정상 및 정부 간 대화
- ⑬ 북한의 비핵화 조치
- ⑭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Q11]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력과 비교했을 때 통일한국의 국력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매우 나빠짐)부터 ⑩(매우 좋아짐)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나빠짐)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매우 좋아짐)

## 통 일 교 육

[Q12] 귀하는 최근 3년 간 통일교육이나 북한 관련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참가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Q12-1로 이동
- ② 아니오  Q13로 이동

[Q12-1] (Q12번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최근 3년 간 참여/참가했던 통일교육이나 북한 관련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준을 ①(매우 나빴음)부터 ⑩(매우 좋았음)까지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주시시오.

(매우 나빴음)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매우 좋았음)

[Q13] 귀하는 앞으로 통일교육이나 북한 관련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참가하고 싶은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Q13-1로 이동
- ② 대체로 없다  Q13-1로 이동
- ③ 대체로 있다  Q14로 이동
- ④ 매우 있다  Q14로 이동

[Q13-1] (Q13번에 ①이나 ②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통일교육이나 북한 관련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참가하고 싶은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 ② 학업이나 일상생활이 바빠 시간이 나지 않아서
- ③ 이전에 참여/참가했던 관련 행사/프로그램의 질이나 수준이 낮아 실망해서
- ④ 북한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어서
- ⑤ 참여/참가하는데 있어서 준비과정이 복잡하거나 번거로워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Q14] 통일이나 북한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다음 중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교사의 강의식 교육
- ② 토론식 교육
- ③ 남한 내 북한관련 현장견학(예: 판문점)
- ④ 퀴즈대회나 게임
- ⑤ 동영상 교육
- ⑥ 외부 북한 관련 전문가 초청
- ⑦ 탈북 청소년과의 교류
- ⑧ 북한 견학/방문
- ⑨ 기타 (직접기재: \_\_\_\_\_)



[Q18] 다음에 제시된 각국의 청소년에 대해 귀하가 느끼는 전반적인 신뢰도를 ①(전혀 신뢰하지 않음)부터 ⑩(매우 신뢰함)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대상	전혀 신뢰하지 않음 ← → 매우 신뢰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한국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북한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국내거주 북한출신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국내거주 다문화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미국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중국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일본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Q19] 다음에 제시한 언어, 사고방식 등 각 항목에 있어 귀하 또래의 남한과 북한 청소년들 간의 다름/차이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①(전혀 차이 없음)부터 ⑩(매우 다름)까지의 숫자 중 귀하의 생각에 부합하는 번호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차이 없음 ← → 매우 다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언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사고방식/가치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경제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문화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학력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여기/취미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체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직업관/진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친구/교우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경제관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Q20] 북한 청소년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귀하는 북한 청소년들과 쉽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① 친해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 ② 친해지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다
- ③ 대체로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 ④ 매우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

[Q21] 귀하는 남한과 북한 청소년 간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Q21-1로 이동                      ② 아니오 ☞ Q21-2로 이동

[Q21-1] (Q21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다음은 남한과 북한 청소년간의 교류 주제 및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 항목별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숫자를 선택하여 ✓ 표해주세요. (총 다섯 개의 문항에 답한 후 ☞ [Q22]로 이동해주세요.)

항목	전혀 동의 못함	동의 못함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교류의 대상인 북한 측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Q21-2] (Q21번에 ②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남한과 북한 청소년들 간의 교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안전 문제 때문에
- ②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 ③ 북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 ④ 북한 청소년들과의 언어차이로 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⑤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⑥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 ⑦ 남북 청소년 간 교류활동이 나에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⑧ 남북 청소년 간 교류활동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Q22] 귀하가 생각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장소로 적합한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남한에서만                                      ② 북한에서만                                      ③ 남한과 북한을 번갈아
- ④ 판문점/공동경비구역                      ⑤ 중국 등 주변 국가                              ⑥ 기타 \_\_\_\_\_

[Q23] 앞으로 1년 이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참여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Q23-1이동      ② 아니오  Q24로 이동

[Q23-1] (Q23번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다음은 남한과 북한 청소년간의 교류 활동 영역들입니다. 앞으로 1년 이내 귀하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중 가장 선호하는 2가지 교류활동 유형을 선택하여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예술 활동 (예: 음악, 미술, 공연 등)
- ② 체육/스포츠 활동
- ③ 남북 청소년 공동의 통일 교육
- ④ 학술교류 (예: 학술대회, 토론회 등)
- ⑤ 남북한 유적지/관광지 견학/관광 (예: 금강산, 개성공단 등)
- ⑥ 남북한 인사 초청강연 (예: 토크콘서트)
- ⑦ 남북한 청소년 간의 SNS(예: 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통한 일상적 교류
- ⑧ 종교적 활동
-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Q23-2] (Q23번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Q23-1]에서 1순위로 이 같은 교류활동을 꼽은 가장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남과 북의 청소년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어서
- ② 남과 북의 청소년이 이질감을 좁힐 수 있는 활동이어서
- ③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 ④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활동이어서
- ⑤ 교류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기 좋은 활동이어서
- ⑥ 전문적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 ⑦ 재정적 부담이 덜해서/ 비교적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활동이어서
- ⑧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 같아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어서
- ⑨ 교류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것이 비교적 많지 않은 활동이어서
- ⑩ 기타(직접 기재: \_\_\_\_\_)

[Q23-3] (Q23번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앞으로 1년 동안 귀하에게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자주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연 1회 이하      ② 연 2회      ③ 연 3회      ④ 연 4회  
⑤ 연 5회      ⑥ 연 6회~7회      ⑦ 연 8회~9회      ⑧ 연 10회 이상

[Q24] 현재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다음의 각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번호에 ✓ 표시하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변 강대국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정부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3) 북한 정부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시간부족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5) 남북한 서로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6) 교류활동을 위한 장소나 시설 등 인프라 부족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7)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문가 및 인력 부족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8) 남북한 교류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의 부족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9) 북한 주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0) 남한 국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Q25] 다음 중 남북한 청소년들 간 교류 활동 영역 중에서 서로에게 동질감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① 예술교류활동(음악, 미술, 공연 등)
- ② 학술교류활동/토론회
- ③ 친선 스포츠 경기/대항전
- ④ 남북 단일팀 스포츠 경기 참가
- ⑤ 교환학생 교류
- ⑥ 유적지/관광지 답사
- ⑦ 전통문화교류활동
- ⑧ 기타(\_\_\_\_\_)

[Q26] 다음은 귀하의 북한 및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에게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 표시하세요.

문항	없다	있다
1) 교류나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 있다	①	②
2) 북한에 사는 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3) 북한이탈 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①	②
4) 공식적인 교류활동 중에 북한 출신 청소년과 대화나 소통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5) 공식적 활동 이외에 사적으로 북한 출신 청소년과 대화나 소통을 한 적 있다	①	②
6) 북한 관련 또는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다	①	②
7) 친구들 중에 북한 출신 청소년이 있다	①	②
8) 내가 사는 동네에 북한 출신의 이웃이 있다	①	②

[Q27] 귀하가 지금까지 살면서 북한 청소년이나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교류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는 몇 차례입니까?

- ① 1회 ※ [Q27-1]로 이동
- ② 2회 ※ [Q27-1]로 이동
- ③ 3회 ※ [Q27-1]로 이동
- ④ 4회 ※ [Q27-1]로 이동
- ⑤ 5회 이상 ※ [Q27-1]로 이동
- ⑥ 전혀 없음 ※ [Q28]로 이동

[Q27-1] (Q27에 ①번~⑤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지금까지 참여한 공식적인 교류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 귀하가 북한 청소년이나 북한이탈 청소년을 직접 만난 횟수는 몇 차례입니까?

- ① 1회 ※ [Q27-2]로 이동
- ② 2회 ※ [Q27-2]로 이동
- ③ 3회 ※ [Q27-2]로 이동
- ④ 4회 ※ [Q27-2]로 이동
- ⑤ 5회 이상 ※ [Q27-2]로 이동
- ⑥ 만난 적 없음 ※ [Q28]로 이동

[Q27-2] (Q27-1번에 ①번~⑤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북한 청소년이나 북한이탈 청소년을 공식적인 교류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만난 최초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초등학교 이전
- ② 초등학교 1~3학년
- ③ 초등학교 4~6학년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 기 타 인 식 및 배 경 질 문

[A1] 다음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동의 수준에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최근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최근 우리 사회에 강력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최근 청년 등 젊은 세대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이성 친구로 사귀어볼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평소 시사뉴스(예: 정치, 사회, 외교)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평소 북한 관련 뉴스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평소 통일/북한을 주제로 한 교육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평소 통일/북한 관련 동아리 활동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부모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최근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북한과 미국 간 관계가 궁극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전반적으로 내 삶은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A2] 귀하 가정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① 하위권      ② 중하위권      ③ 중위권      ④ 중상위권      ⑤ 상위권

[A3] 최근 6개월간 북한 관련 소식, 국제정세 등 시사뉴스/정보를 얻는데 귀하가 가장 자주 이용한 매체는 무엇입니까? 매체 이름을 최대 2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예: 조선일보, 한겨레, KBS, JTBC, 네이버 포털, 등).

※ 최근 6개월간 이용한 미디어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해주세요.

※ 유튜브의 경우 특정 채널 이름을 함께 적어주세요 (예: 유튜브의 ○○○ 채널 / ○○○ TV).

가장 자주 이용한 미디어 이름: 1위: \_\_\_\_\_ 2위: \_\_\_\_\_

★ 설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성실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

## 4.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설문지(A고 2차)

--	--	--	--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익명성이 보장되고,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됨을 밝혀드립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조사 문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복수 응답을 요구한 문항이나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고 표현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질문에는 단일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 조사연구기관: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연구책임자: 배상률 연구위원, 044-415-2220; drbai@nypi.re.kr
- ▶ 공동연구원: 이정민 부연구위원, 044-415-2139; jminlee@nypi.re.kr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아래 질문부터 응답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출생연도?	(                      년)
[3] 귀하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① 고등학교 1학년   ② 고등학교 2학년   ③ 고등학교 3학년
[4] 귀하의 휴대전화 끝 번호 네 자리를 적어주세요 (※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귀하의 출생월일 기재)	※ 연구목적용으로 응답자별 고유번호 부여를 위해서만 활용 ※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귀하의 태어난 출생월일을 기재 (예: 5월 16일에 태어난 경우 0516으로 기재)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5px auto;"></div>

## 북한

※ “남북한 청소년 어울림 행사”를 참여하고 난 후 귀하의 생각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잘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문항1] 이번 행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고 난 후인, 현재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귀하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한민족                      ② 통일                      ③ 독재/인물(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 ④ 가난/빈곤/기아            ⑤ 인권문제                ⑥ 탈북자(북한 이탈자)
- ⑦ 경제 교류협력(예: 개성공단 등)    ⑧ 문화/예술 교류협력
- ⑨ 스포츠 교류(예: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등)    ⑩ 경제적 지원/원조
- ⑪ 핵/미사일 실험            ⑫ 기타(직접 작성해주세요: \_\_\_\_\_)

[문항2]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할 대상
- ② 우리나라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대상
- ③ 우리나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
- ④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상
- ⑤ 우리나라와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할 대상
- ⑥ 우리나라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상
- ⑦ 우리나라에게 부담만 되는 대상
- ⑧ 기타 \_\_\_\_\_

[문항3] 귀하는 이 행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고 난 후,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관심 수준을 1(전혀 관심 없음)부터 10(매우 관심 있음)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관심 없음) 1—2—3—4—5—6—7—8—9—10 (매우 관심 있음)

[문항4] 이 행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고 난 후, 북한 정부에 대한 귀하는 어느 정도 신뢰롭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귀하의 신뢰 수준을 1(전혀 신뢰 안함)부터 10(매우 신뢰함)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신뢰 안함) 1---2---3---4---5---6---7---8---9---10 (매우 신뢰함)

[문항5] 이 행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고 난 후, 북한주민에 대해 귀하가 느끼는 친근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멀게 느껴짐) 1---2---3---4---5---6---7---8---9---10 (매우 가깝게 느낌)

## 통일

**[문항6]** 이번 행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고 난 후인, 현재 “통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귀하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평화/화합                      ② 전쟁                      ③ 이산가족                      ④ 사회갈등/혼란  
 ⑤ 국가발전                      ⑥ 통일비용                      ⑦ 기타 (직접 기재: \_\_\_\_\_)

**[문항7]** 이번 행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고 난 후, 귀하는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되었나요? 다음 중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동의수준에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항 7-1]로 이동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문항 7-1]로 이동  
 ③ 대체로 필요하다 ⇨ [문항 7-2]로 이동  
 ④ 매우 필요하다 ⇨ [문항 7-2]로 이동  
 ⑤ 잘 모르겠다 ⇨ [문항 7-3]으로 이동

**[문항7-1]** (문항7번에 ①이나 ②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아서 ⇨ [문항8]로 이동  
 ② 통일 후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 [문항8]로 이동  
 ③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 [문항8]로 이동  
 ④ 북한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 때문에 ⇨ [문항8]로 이동  
 ⑤ 통일이 되어도 나의 삶에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 [문항8]로 이동  
 ⑥ 북한사람들로 인해 취직/입시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 [문항8]로 이동  
 ⑦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서 ⇨ [문항8]로 이동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문항8]로 이동

**[문항7-2]** (문항7번에 ③이나 ④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어서 ⇨ [문항8]로 이동  
 ② 전쟁위협 등 안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 [문항 8]로 이동  
 ③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 [문항 8]로 이동  
 ④ 통일한국의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 [문항 8]로 이동  
 ⑤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 [문항 8]로 이동  
 ⑥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 [문항 8]로 이동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문항 8]로 이동

**[문항7-3]** (문항7번에 ⑤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 ② 통일이 우리 사회와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아서
- ③ 통일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항8]** 이번 행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고 난 후인, 현재 남북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한국 정부의 통일 의지/역량 부족
- ② 한국 국민들의 통일 의지/인식 부족
- ③ 북한 정부의 통일 의지/역량 부족
- ④ 북한주민들의 통일 의지/인식 부족
- ⑤ 주변 강대국의 비협조 및 방해
- ⑥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
- ⑦ 통일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 ⑧ 기타(직접 기재: \_\_\_\_\_)

**[문항9]** 귀하는 남북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 ① 3년 이내
- ② 4년에서 5년 이내
- ③ 5년에서 10년 이내
- ④ 10년에서 20년 이내
- ⑤ 20년 이후
- ⑥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임

**[문항10]** 이번 행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고 난 후인, 현재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두 개만 골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남북한의 교류협력
- ②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
- ③ 민족 동질성 회복
- ④ 평화통일 교육
- ⑤ 주변 나라들의 협조
- ⑥ 통일비용 마련
- ⑦ 평화협정 체결
- ⑧ 남한의 경제발전
- ⑨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
- ⑩ 북한의 경제발전
- ⑪ 북한에 대한 다각적 지원
- ⑫ 남북 정상 및 정부 간 대화
- ⑬ 북한의 비핵화 조치
- ⑭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항11]**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력과 비교했을 때 통일한국의 국력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매우 나빠짐)부터 10(매우 좋아짐)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나빠짐) 1--2--3--4--5--6--7--8--9--10 (매우 좋아짐)

## 통일교육

[문항12] 귀하는 앞으로 통일교육이나 북한 관련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참가하고 싶은 의향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문항12-1]로 이동                      ② 대체로 없다 ⇨ [문항12-1]로 이동  
③ 대체로 있다 ⇨ [문항13]으로 이동                      ④ 매우 있다 ⇨ [문항13]으로 이동

[문항12-1] (문항12번에 ①이나 ②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통일교육이나 북한 관련 체험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참가하고 싶은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② 학업이나 일상생활이 바빠 시간이 나지 않아서  
③ 이전에 참여했던 관련 행사/프로그램의 질이나 수준이 낮아 실망해서  
④ 북한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어서  
⑤ 참여/참가하는데 있어서 준비과정이 복잡하거나 번거로워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항13] 통일이나 북한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다음 중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교사의 강의식 교육                                      ② 토론식 교육  
③ 남한 내 북한관련 현장견학(예: 판문점)                      ④ 퀴즈대회나 게임  
⑤ 동영상 교육                                              ⑥ 외부 북한 관련 전문가 초청  
⑦ 북한 이탈 청소년과의 교류                                      ⑧ 북한 견학/방문  
⑨ 기타 (직접기재: \_\_\_\_\_)



[문항16] 이번 행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고 난 후, 귀하가 지금(현재) 느끼는 북한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를 1(매우 비호감)부터 10(매우 호감)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세요.

(매우 비호감) 1--2--3--4--5--6--7--8--9--10 (매우 호감)

[문항17] 이번 행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고 난 후, 귀하가 지금(현재) 느끼는 북한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친근감을 1(매우 멀게 느낌)부터 10(매우 친근하게 느낌)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세요.

(매우 멀게 느낌) 1--2--3--4--5--6--7--8--9--10 (매우 친근하게 느낌)

[문항18] 이번 행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고 난 후, 귀하가 지금(현재) 느끼는 북한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1(전혀 신뢰하지 않음)부터 10(매우 신뢰함)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세요.

(전혀 신뢰하지 않음) 1--2--3--4--5--6--7--8--9--10 (매우 신뢰함)

[문항19] 이번 행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고 난 후, 앞으로 북한 청소년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귀하는 북한 청소년들과 쉽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① 친해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 ② 친해지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다
- ③ 대체로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 ④ 매우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 북한청소년과의 교류

[문항20] 귀하는 남한과 북한 청소년 간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문항 20-1로 이동
- ② 아니요 ☞ 문항 20-2로 이동

[문항20-1] (문항20번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다음은 남한과 북한 청소년간의 교류 주체 및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 항목별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숫자를 선택하여 ✓ 표해주세요. (총 다섯 개의 문항에 답한 후 ☞ [문항21]로 이동해주세요.)

항목	전혀 동의 못함	대체로 동의 못함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1	2	4	5
②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1	2	4	5
③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1	2	4	5
④ 교류의 대상인 북한 측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2	4	5
⑤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2	4	5

[문항 20-2] (문항20번에 ②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남한과 북한 청소년들 간의 교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항21]로 이동해주세요.)

- ① 안전 문제 때문에
- ②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 ③ 북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 ④ 북한 청소년들과의 언어차이로 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⑤ 통일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⑥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 ⑦ 남북 청소년 간 교류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항21] 앞으로 1년 이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참여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항21-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항22]으로 이동

[문항21-1] (문항21번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다음은 남한과 북한 청소년간의 교류 활동 영역들입니다. 앞으로 1년 이내 귀하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중 가장 선호하는 2가지 교류활동 유형을 선택하여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예술 활동 (예: 음악, 미술, 공연 등)
- ② 체육/스포츠 활동
- ③ 남북 청소년 공동의 통일 교육
- ④ 학술교류 (예: 학술대회, 토론회 등)
- ⑤ 남북한 유적지/관광지 견학/관광 (예: 금강산, 개성공단 등)
- ⑥ 남북한 인사 초청강연 (예: 토크콘서트)
- ⑦ 남북한 청소년 간의 SNS(예: 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통한 일상적 교류
- ⑧ 종교적 활동
-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항 21-2] (문항21번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귀하가 [문항 25-1]에서 1순위로 이 같은 교류활동을 꼽은 가장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남과 북의 청소년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어서
- ② 남과 북의 청소년이 이질감을 좁힐 수 있는 활동이어서
- ③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 ④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활동이어서
- ⑤ 교류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기 좋은 활동이어서
- ⑥ 전문적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 ⑦ 재정적 부담이 덜해서/ 비교적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활동이어서
- ⑧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 같아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어서
- ⑨ 교류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것이 비교적 많지 않은 활동이어서
- ⑩ 기타(직접 기재: \_\_\_\_\_)

[문항21-3] (문항21번에 ①번을 선택한 사람만 해당) 앞으로 1년 동안 귀하에게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자주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연 1회 이하      ② 연 2회      ③ 연 3회      ④ 연 4회  
⑤ 연 5회      ⑥ 연 6회~7회      ⑦ 연 8회~9회      ⑧ 연 10회 이상

[문항22]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나고 난 현재, 귀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다음의 각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번호에 ✓ 표시하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주변 강대국 때문에	1	2	3	4	5
② 한국 정부 때문에	1	2	3	4	5
③ 북한 정부 때문에	1	2	3	4	5
④ 청소년들의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시간부족 때문에	1	2	3	4	5
⑤ 남북한 서로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에	1	2	3	4	5
⑥ 교류활동을 위한 장소나 시설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1	2	3	4	5
⑦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문가 및 인력의 부족으로	1	2	3	4	5
⑧ 남북한 교류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의 부족 때문에	1	2	3	4	5
⑨ 북한 주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	1	2	3	4	5
⑩ 남한 국민/청소년들의 무관심 때문에	1	2	3	4	5

[문항23] 남북한 청소년들이 교류 활동 영역 중에서 서로에게 동질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술교류활동(음악, 미술, 공연 등)
- ② 학술교류활동/토론회
- ③ 친선 스포츠 경기/대항전
- ④ 남북 단일팀 스포츠 경기 참가
- ⑤ 교환학생 교류
- ⑥ 유적지/관광지 답사
- ⑦ 전통문화교류활동
- ⑧ 수련활동(캠핑, 극기 훈련 등)
- ⑨ 제3국에 있는 유적지 탐방(중국, 러시아, 몽골 등에 있는 한반도 관련 유적지 탐방)
- ⑩ 기타(\_\_\_\_\_)

## 남북 청소년 교류 행사

[문항24] 귀하가 이번 「남북 청소년 교류 행사」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받았던, 혹은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항25] 귀하가 이번 「남북 청소년 교류 행사」에서 느낀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주된 인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문항26] 다음은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경험했을 법한 어려움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각 내용들에 대하여 귀하가 경험한 어려움의 정도를 1(전혀 어렵지 않았음)부터 10(매우 어려웠음)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어렵지 않았음	←—————→									매우 어려웠 음
		2	3	4	5	6	7	8	9	10	
① 언어적 차이로 인한 소통 및 대화의 어려움	1	2	3	4	5	6	7	8	9	10	
② 문화 차이로 인한 공통 관심사 찾기의 어려움	1	2	3	4	5	6	7	8	9	10	
③ 행사참여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어려움	1	2	3	4	5	6	7	8	9	10	
④ 상대방의 북한 이탈 청소년이란 신분에 따른 지속적인 만남의 어려움	1	2	3	4	5	6	7	8	9	10	
⑤ 남북한 상호간의 정보부족에 따른 어려움	1	2	3	4	5	6	7	8	9	10	
⑥ 북한/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하여 내가 가진 선입견에서 오는 어려움	1	2	3	4	5	6	7	8	9	10	
⑦ 교류하는 북한 이탈 청소년이 나와 같은 연령대의 또래가 아닌데서 오는 어려움	1	2	3	4	5	6	7	8	9	10	
⑧ 나의 바쁜 학교생활로 인한 지속적인 만남의 어려움	1	2	3	4	5	6	7	8	9	10	
⑨ 북한 이탈 청소년이 나를 경계하거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데 따른 어려움	1	2	3	4	5	6	7	8	9	10	

[문항27] 다음은 이번 행사의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중 귀하가 이 행사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만난 경험이 귀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북한 이탈 청소년이나 북한에 대한 이해의 증가
- ② 북한 청소년도 같은 민족이라는 동일감의 회복이나 강화
- ③ 북한 출신이지만 나와 다르지 않다는 이질감의 해소
- ④ 기존에 갖고 있던 북한이나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 해소
- ⑤ 개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만족감
- ⑥ 정치적,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 및 화합할 수 있다는 경험
- ⑦ 학교 친구들과 함께 같은 경험을 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경험
- ⑧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는 점
- ⑨ 나의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 ⑩ 기타 (직접 기재: \_\_\_\_\_)

[문항28] 귀하는 이번 「남북 청소년 교류 행사」와 같은 북한 이탈 청소년과의 만남/교류가 “통일 여행 연습”으로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1(매우 아니다)부터 10(매우 그렇다)까지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주시시오.

(매우 아니다) 1---2---3---4---5---6---7---8---9---10 (매우 그렇다)

★ 설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성실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

## 5.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설문지(전문가용)

###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 전문가 설문조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사를 요청 드리게 됨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귀하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을 활용하여 관련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및 선호도를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진솔한 평가는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34조(통계중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응답 내용은 학술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회수기한은 10월 18일(금)까지**입니다. 짧은 연구일정으로 인해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표시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연구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세종시 시청대로 370)**

연구책임자 : 배상률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정민 부연구위원

담 당 : 허효주 연구사업운영원

문의 전화 : 044-415-2220

팩 스 : 044-415-2369

이 메 일 : drbai@nypi.re.kr

○ 본 설문에서 사용되는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척도	1	3	5	7	9
용어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설명	동등하게 중요 (equal)	약간 더 중요 (weak)	더욱 더 중요 (strong)	대단히 더 중요 (very strong)	절대적으로 중요 (absolute)

[주] 2, 4, 6, 8은 근접해 있는 두개의 척도들 사이의 중간정도의 중요도를 나타냄.

<예시> 예를 들어「휴대폰의 구입」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평가요소 '디자인과 '가격'을 비교할 때 '가격'이 '디자인'에 비해 「휴대폰의 구입」이라는 목표에 대단히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척도 '7' 란에 V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항목	절대 중요 (9)	(8)	매우 중요 (7)	(6)	중요 (5)	(4)	약간 중요 (3)	(2)	비중 하게 중요 (1)	(2)	약간 중요 (3)	(4)	중요 (5)	(6)	매우 중요 (7)	(8)	절대 중요 (9)	평가 항목
디자인															V			가격

[주] 2, 4, 6, 8의 척도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접한 가장 가까운 숫자들의 중간에 V 표시하면 됩니다. 예컨대 '가격'이 '디자인' 보다 비해 대단히 더 중요와 절대적으로 중요의 중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오른쪽 척도 7과 척도 9 사이의 작은 괄호 속에 V 표시하면 됩니다.

○ AHP에서는 분석의 자료로 일관성 지수가 생성되며 응답결과의 신뢰성 판단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관성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일관성이 유지된 쌍대비교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큰 값이 나올수록 응답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 1) 다음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의 여건조성 마련을 위한 각 항목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먼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평가 항목들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순위를 바탕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A항과 B항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남북한 관계개선	강대국의 협조 및 지원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	남한 사회와 남한 정부 차원의 노력
우선순위				

※ 위에 기재하신 평가항목의 중요도 순위를 염두에 두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A)	A 가 절대 중요									비슷하게 중요									B 가 약간 중요									평가항목 (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남북한 관계 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강대국의 협조/지원
남북한 관계 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북한 사회/정부의 변화
남북한 관계 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남한 사회/정부의 변화
강대국의 협조/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북한 사회/정부의 변화
강대국의 협조/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남한 사회/정부의 변화
북한 사회/정부의 변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남한 사회/정부의 변화

문 2) 다음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 중 하나인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평가 항목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먼저 남북한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다음 평가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고, A항과 B항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분류	남북 정상/정부 간 원활한 소통	남북 경제 협력 (예: 개성공단)	인적교류 활성화 (사회문화예술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우선순위				

※ 위에 기재하신 평가항목의 중요도 순위를 염두에 두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A)	A가 절대 중요									비슷하게 중요									B가 약간 중요									B가 매우 중요									평가항목 (B)
	A가 절대 중요	A가 매우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B가 약간 중요	B가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중요	B가 약간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중요	B가 약간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중요	B가 약간 중요	B가 매우 중요															
남북 정상/정부 간 원활한 소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남북 경제 협력 (예: 개성공단)																			
남북 정상/정부 간 원활한 소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교류 활성화 (사회문화예술 등)																			
남북 정상/정부 간 원활한 소통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 경제 협력 (예: 개성공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인적교류 활성화 (사회문화예술 등)																			
남북 경제 협력 (예: 개성공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적교류 활성화 (사회문화예술 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 3) 다음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국가/국제기구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먼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국가/국제기구간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고, A항과 B항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국가/국제기구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한국	북한	미국	중국	국제기구 (UN 등)
우선순위					

※ 위에 기재하신 평가항목의 중요도 순위를 염두에 두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A)	A가 절대 중요										A가 매우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비슷하게 중요										B가 약간 중요										B가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절대 중요										평가항목 (B)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한국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북한																																
한국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미국																																
한국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중국																																
한국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국제기구																																
북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미국																																
북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중국																																
북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국제기구																																
미국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중국																																
미국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국제기구																																
중국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국제기구																																

문 4) 다음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 중 하나인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관한 다음의 평가 항목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먼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 사회와 북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고, A항과 B항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분류	북한의 비핵화 조치	북한의 경제 개방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한정부의 전향적 태도
우선순위			

※ 위에 기재하신 평가항목의 중요도 순위를 염두해 두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A)	A가 절대 중요										비슷하게 중요										B가 약간 중요										B가 매우 중요										평가항목 (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북한의 비핵화 조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북한의 경제개방						
북한의 비핵화 조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						
북한의 경제개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						

문 5) 다음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 중 하나인 남한 사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에 관한 다음의 평가 항목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먼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한 사회와 남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고, A항과 B항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분류	남북교류 민관 거버넌스 구축/활성화	남북관계 정책에 있어 정부의 능동적 주체자로서 역할	평화통일 교육/ 인식개선 노력	민간교류 지원 및 확대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우선순위					

※ 위에 기재하신 평가항목의 중요도 순위를 염두해 두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A)	A 가		A 가		A 가		비		B 가		B 가		평가항목 (B)					
	절	매	매	중	중	중	중	가	중	매	절							
	대	우	우	요	요	요	하	가	요	우	대	중						
	중	중	중	요	요	요	계	약	중	중	중	요	(B)					
	요	요	요	요	요	요	중	간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중	중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남북교류 민관거버넌스 구축/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정책의 능동적 주체자로서 정부의 역할
남북교류 민관거버넌스 구축/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평화통일 교육 및 인식개선
남북교류 민관거버넌스 구축/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민간교류 지원 및 확대
남북교류 민관거버넌스 구축/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정책의 능동적 주체자로서 정부의 역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평화통일 교육 및 인식개선
정책의 능동적 주체자로서 정부의 역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민간교류 지원 및 확대
정책의 능동적 주체자로서 정부의 역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평화통일 교육 및 인식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민간교류 지원 및 확대
평화통일 교육 및 인식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민간교류 지원 및 확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문 6) 다음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 추진 방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먼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교류 추진 방식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고, A항과 B항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분류	정부/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	청소년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	북한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식
우선순위					

※ 위에 기재하신 평가항목의 중요도 순위를 염두해 두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A)	A 가									B 가									평가항목 (B)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하게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하게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정부/지자체 주도적 추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민간단체 주도적 추진	
정부/지자체 주도적 추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청소년 의견 우선적 반영	
정부/지자체 주도적 추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북한 측 원하는 방식 최대한 수용	
정부/지자체 주도적 추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국제사회 동의하는 방식	
민간단체 주도적 추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청소년 의견 우선적 반영	
민간단체 주도적 추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북한 측 원하는 방식 최대한 수용	
민간단체 주도적 추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국제사회 동의하는 방식	
청소년 의견 우선적 반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북한 측 원하는 방식 최대한 수용	
청소년 의견 우선적 반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국제사회 동의하는 방식	
북한 측 원하는 방식 최대한 수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국제사회 동의하는 방식	

문 8) 다음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영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각 영역별 교류활동의 이행에 따른 파급력(중요도)과 이행의 용이성과 가능성의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선택해 주세요. 숫자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 본 문항의 좌우 양쪽에 모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도(이행의 파급력)							설문 내용	이행의 용이성/가능성						
낮음 ← → 높음								낮음 ← → 높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문화예술 교류 (음악, 미술, 공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체육스포츠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학술 교류/ 토론회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SNS 등 ICT를 활용한 일상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남북한 유적지/관광지 견학/관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사회봉사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남북청소년 공동의 통일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종교적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남북한 교환학생/유학생 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제 3국에 있는 유적지 역사기행 (예. 한민족시원지 바이칼호수 역사 기행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9) 다음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제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남북 청소년 교류 협력 활성화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항목별 이행이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급력(중요도)과 현재 이행 수준의 달성도/실행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선택해 주세요. 숫자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 본 문항의 좌우 양쪽에 모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도 (이행의 파급력)							설문 내용	성취도(이행 수준의 달성도/실행정도)						
낮음 ←						→		←						→
1	2	3	4	5	6	7		1	2	3	4	5	6	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교류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교류 행사/활동 참여 비용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교류 프로그램 전문가/인력 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교류 활성화 위한 법제도 정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국제 공조 및 협력 시스템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민간 거버넌스 구축 및 내실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민간교류기관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대국민 북한/통일 인식개선 노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교류활동을 위한 인프라/시설 구축(교류장소, 활동공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0) 북한 정부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북한 정부에 대한 귀하의 신뢰 수준을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부터 ⑩ (매우 신뢰한다)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2-----3-----4-----5-----6-----7-----8-----9-----10(매우 신뢰한다)

문 11)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력과 비교했을 때 통일한국의 국력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나빠짐)부터 ⑩ (매우 좋아짐)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1(매우 나빠짐)-----2-----3-----4-----5-----6-----7-----8-----9-----10(매우 좋아짐)

문 12) 현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① (매우 불만족)부터 ⑩ (매우 만족)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세요.

1(매우 불만족)-----2-----3-----4-----5-----6-----7-----8-----9-----10(매우 만족)

문 13) 현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정책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① (매우 불만족)부터 ⑩ (매우 만족)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세요.

1(매우 불만족)-----2-----3-----4-----5-----6-----7-----8-----9-----10(매우 만족)

문 14) 귀하는 남북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⑤ 영원히 불가능

문 15) 남북 평화공존 또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두 개만 골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남북한의 교류협력    ②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    ③ 민족 동질성 회복
- ④ 평화통일 교육    ⑤ 주변 강대국들의 협조    ⑥ 통일비용 마련
- ⑦ 평화협정 체결    ⑧ 남한의 경제발전    ⑨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
- ⑩ 북한의 경제발전    ⑪ 북한에 대한 다각적 지원    ⑫ 남북 정상 및 정부 간 대화
- ⑬ 북한의 비핵화 조치    ⑭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6)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연구보고서에 귀하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6.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남북청소년 교류 및 통일의 필요성

### 우리가 이끌어 가야할 세대라서

- 역사공부를 같이한다
- 공동으로 올림픽 대회 참여
- 냉면을 같이 먹을 수 있음
- 통일방향에 대한 토의를 한다
- 게임을 한다
- Korea (not north or south korea just korea)

### 우리, 청소년은 남북의 미래다!

- **How** : 버스를 타고 반갑게 인사하며
- **Where** : 평양 옥류관에서
- **What** : 냉면을 먹으며 수다를 떤다
  - 홈스테이 · 단체출범기
  - 벽화그리기 · 식생활

### 통일을 해야한다

- 세계적인 경제 강대국이 될 수 있다
- 많은 이산가족이 있다
- 원래 우리는 한 민족이다
- 관광명소에 갈 수 있다
- 문화적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다
- 전 세계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 동아시아 물류· 교통·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한다!

- 세계여행을 기차로 다녀보고 싶다
- 이산가족이 많다
- 분단비용이 많이 든다
- 땅이 넓어진다
- 국가의 힘이 강해진다

\* 경북이주민센터·경북하나센터 주관 [2019 통일로 통하는 소통프로젝트, 통일로 통하는 소통 청소년 활동가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남북청소년 교류 및 통일의 필요성

# ABSTRACT

## Study of Mid-to-Long-term Strategy on Inter-Korean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set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one of the five key President's policy goals, and has been promoting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a consensus on unification by activating inter-Korean exchanges as a part of the presidential agenda. Ideally, unification should be based on social integration, not just on political integration between countries. Physically imposed unification could lead to conflict among groups and social confusion if it is done without advance exchange and sufficient preparation to enable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people, who are accustomed to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ystems due to an extended period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In this sens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young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 who will eventually lead a unified Korea is an important task that our society and government should actively pursue in order to resolve differences and expand the scope of mutual understanding based on shared experiences. In line with the needs of the times, the need is emerging for mutual understanding,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young people of the two Koreas who will be the leaders of a future unified Korea.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study derived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inter-Korean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suggested promotion strategies for mid-to-long-term implementation measures in order to activat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youth from North and South Korea,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m, and expand the consensus regarding unification.

In planning approaches to inter-Korean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avoid short-term and event-oriented programs, and instead to prepare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mid-to-long-term plan.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surveys as follows: (1) Analysis of preceding studies on inter-Korean youth exchanges; (2) Questionnaire surveys for teenager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ge nationwide; (3) Case studies on teenagers from high school A in Gyeonggi-do who have experience with North Korean youth refugees; (4) Opinion survey on experts related to inter-Korean relations and inter-Korean youth exchange.

A number of preceding studies have indicated that inter-Korean youth exchanges required mutual efforts to expand mutual understanding, build trust, and establish national homogeneity and a social and cultural community that can foster the development of young citizens in a future unified country through complementary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as such this should be a key goal. In addition, many experts agree that inter-Korean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which will be carried out in various areas, must remain non-political, aim for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pursue quantitative expansion in phas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on a total of 3,228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cross the nation, selected through quota-based sampling by region and school level. The results revealed a perception of the youth from South Korea toward North Korea/Unification and Youth Exchanges. That 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lder youth tend to report

the more negative thoughts and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the youth of them, and Korean unification, whereas the younger youth tend to present the more positive thoughts and attitudes toward them. Moreover, the youth who perceived by the more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presented that the unification of Korea is not necessary.

Two surveys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exchange activity held in September 2019 for students from high school A in Gyeonggi-do who participated in the exchange activity with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The researchers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five students from high school A and participated in an exchange activity with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As we have seen before, while teenagers as a whole had strongly negative perceptions of North Korea, the students of high school A who had the exchange experience with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had a relatively positive image of North Korea, and were more active in their support for the inter-Korean youth exchange. The study found that the exchange experience with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significantly changed students' perceptions of North Korea, reunification, and youth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udents from high school A were more aware of the structural and fundamental causes of the stalled situation in the area of inter-Korean youth exchange activity, such as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imposes a heavy academic burden, the lack of cooperation from neighboring superpowers, and the attitud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percentage of subjects who considered the lack of human and physical infrastructure as the cause of the situation was found to decrease after the exchange event.

This study also surveyed 69 experts from various fields in inter-Korean exchanges, inter-Korean relations, and youth exchange activities in order to

develop an effective mid-to-long-term policy plan for inter-Korean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used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each item in the detailed policies related to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ways in which the South-North Korea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would be implemented. In addition,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as conducted to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importance of each exchange type and the level of ease/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In calculating the final importance of detailed policies for establishing conditions for activating the inter-Korean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summit/government' was ranked much higher than other detailed policies, followed b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ctivating human exchange' an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easures in second, third and fourth place, respectively. Through the IPA analysis on the major areas of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t was found to be desirable to make human and material investment and support for athletic/sports exchanges and cultural and arts exchanges. For the long term, the study concluded that continuous efforts were required to achieve daily communication & exchange through ICT such as SNS, and the exchange student system. In an IPA analysis of each field by item in order to promote inter-Korean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item on the level of the importance for 'reorganization of law and system to activate the exchange' and 'establishment and internalization of public-private governance' was high; however, the level of the achievement/implementation of current implementation on the two items was somewhat low. This suggested that resolving these two issues could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inter-Korean youth exchanges.

The researchers set four policy directions for inter-Korean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described above. First, a tailored approach according to the level of perception of North Korea/unification; second,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that are non-political, third, a communication-based approach between South and North. and fourth, a youth needs-centered approach. To prepare a mid-to-long-term strategy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youth of the two Koreas based on the above policies, five stages of policy tasks were presented: system construction, preparation, implementation, intensification, and settlement. The first stage is the system construction stage; in this stage, a social debate must be undertaken on how to reorganize laws and systems, build an implementation system, raise and administer exchange support funds and implement related measures. In the second stage, a two-track approach is required, which deals with both internal and external areas as a preparatory step for promoting and sustaining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youth of the two Koreas. In the third stage, the implementation stage, it is important to initiate inter-Korean youth exchange activities by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To this end, it is most effective to first support non-political areas of exchange, and exchange activities that are easily implementable. The fourth stage is the intensification stage, in which the youth need to act as the operators of the exchange activities, while expanding the areas of exchange between the youth of the two Koreas. In terms of expanding the exchanges into daily life areas, it is necessary to promote cyber exchange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Conditions should be created to enable E-sports exchanges among youth of the two Koreas through online games and social learning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which also can have great ripple effects as everyday life exchanges. Finally, the fifth stage is the settlement stage, which

is exchange activity at the level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general public to easily come and go by issuing mutual visas under the premise of one country and two systems, and enable talented people in North Korea to contribute to individual and national development by providing North Korean teenagers and young people with opportunities for vocational education, employment, and business startup.

##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 고유 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환
-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하·김진호
-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김희진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업
-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교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유민상·김창환·정자운 (자체번호 19-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현·유민상(자체번호 19-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임희진·백해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해정 (자체번호 19-R18-2)

### 연구개발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 수 시 과 제

-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 수탁과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해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해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해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4종)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 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해정·류정희·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현·하형석·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13~14)
-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11.7)
-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개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08

---

##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34-6 93330



연구보고 19-R08

##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ISBN 979-11-5654-234-6 93330